

博 士 學 位 論 文

1920·30년대 한국 기독교 절제운동 연구

淑明女子大學校 大學院

史學科 韓國史專攻

윤 은 순

博 士 學 位 論 文

1920·30년대 한국 기독교 절제운동 연구

指導教授 이 만 열

이 論文을 文學博士 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8年 6月 日

淑明女子大學校 大學院

史學科 韓國史專攻

윤 은 순

윤은순의 文學博士 學位 請求 論文을 認准함.

1920·30년대 한국 기독교 절제운동 연구

2008年 6月 日

심사위원장 (印)

위 원 (印)

위 원 (印)

위 원 (印)

위 원 (印)

淑明女子大學校 大學院

# 목 차

표 목차

국문초록

## I. 서론

1. 문제제기 .....	1
2. 연구동향 .....	4
3. 연구 방법 및 구성 .....	8

## II. 절제운동의 배경과 조직 .....10

1. 절제운동의 전개 배경 .....	10
1) 절제운동의 역사적 배경 .....	10
2) 1920년대 전반 실력양성론의 대두 .....	17
3) 일제 식민지정책의 폐해 .....	25
4) 기독교여성의 자각과 운동 주체의 성장 .....	35
2. 절제운동 추진 기구 .....	37
1) 교단 기구 .....	37
(1) 감리교 .....	37
(2) 장로교 .....	45
(3) 구세군 .....	48
2) 사회운동 단체.....	49
(1)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	49
(2) 금주단연동맹 .....	56
(3) 조선기독교절제운동회.....	57

<b>III. 금주금연운동</b>	61
1. 금주금연의 배경과 논리	61
1) ‘성전된 몸’의 수호와 종교적 구원론	62
2) ‘경제력 증진’과 문명부강론	63
3) 심신의 건강과 우생론	66
4) 개인의 정신 개조와 사회정화론	68
2. 금주금연운동의 전개	71
1) 강연회와 금주금연회 조직	71
2) 금주금연 가두선전	74
3) 언론·출판을 통한 계몽활동	82
<b>IV. 공창폐지운동</b>	100
1. 공창제 실시와 폐창론의 대두	100
1) 일제의 공창제 실시와 성매매 여성의 실태	100
2) 폐창론의 대두와 전개	105
(1) 국민위생론과 도덕적 순결주의	105
(2) 제도적 철폐와 인도적 구제론	110
2. 공창폐지운동의 전개와 변화	113
1) 공창폐지운동의 전개	113
2) 공창폐지운동의 변화	123
<b>V. 소비절약과 생활개선운동</b>	133
1. 소비절약과 소비조합 설립	133
1) 소비절약의 강조와 소비조합 조직	133
2) 실천 가능한 자구책으로서의 소비절약론	143

2. 생활개선운동의 전개 .....	151
1) 생활개선운동의 전개와 내용.....	151
2) 인격적·도덕적 개선을 통한 ‘천국운동’ .....	166
 <b>VI. 결론</b> .....	173
1. 절제운동의 결과 및 영향 .....	173
2. 절제운동 단체의 변질과 해산.....	181
3. 절제운동의 성격 및 의의와 한계.....	184
 참고문헌 .....	198
Abstract .....	207

## 표 목차

《표 1》 1884-1910년 내한 선교사 일람.....	12
《표 2》 1920년대 초 각 사회운동단체의 조직현황.....	20
《표 3》 조세수입에 대한 주세의 비중.....	27
《표 4》 조세수입에 대한 연초세의 비중.....	29
《표 5》 조선미감리회 절제부 위원.....	41
《표 6》 조선남감리회 절제부 위원 .....	40
《표 7》 조선감리회 사회사업국 위원 .....	43
《표 8》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 지회 조직 현황.....	51
《표 9》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 연합회 임원 구성.....	53
《표 10》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 주요 인물.....	54
《표 11》 『기독신보』에 나타난 금주금연의 이유.....	61
《표 12》 주일학교 ‘절제공과’ 제목 .....	83
《표 13》 『기독신보』의 절제관련 사설 일람 .....	85
《표 14》 『기독신보』에 게재된 ‘절제란’.....	86
《표 15》 『기독신보』에 게재된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 통일순서 중 강연제목.....	90
《표 16》 절제운동 단체의 기관지 .....	95
《표 17》 절제관련 단행본 및 내용.....	97
《표 18》 접객업부 통계(1916~1942).....	101
《표 19》 1920년대 기독교 공창폐지운동의 주요 내용.....	121
《표 20》 계층별 농가 구성 비율(%) .....	134
《표 21》 절제운동과 연관된 절약저축회 및 소비조합.....	138
《표 22》 『농가경제조사』의 농가지출 비율(%).....	162
《표 23》 『농가경제조사』의 가계비 지출 비율(%).....	163

## 국문초록

기독교는 구한말 수용된 이래 개화와 일제강점으로 이어지는 조선사회의 격변기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식민지 조선 사회의 한 세력으로 자리매김 해왔다. 기독교를 통해 서구문명을 수용하고 근대 세력으로 성장하여 자신의 삶을 개척하려던 기독교인들은 다양한 사회운동을 통해 그들의 입장과 지향을 드러내었다. ‘저항’과 ‘협력’의 틀에서 벗어나 일제시기 사회운동을 살펴 볼 필요가 있을 때, 기독교계가 전개한 운동도 이러한 맥락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애초 절제운동은 금주운동을 의미했는데, 이것은 미국에서 시작된 절제운동이 금주를 가장 큰 목표로 출발한 데서 비롯된다. 그러나, 일제시기 조선에서의 절제운동은 금주금연운동이 주를 이루었지만, 점차 생활 전체로 확대되었다. 금주금연, 공창폐지, 소비절약 및 허례허식과 일상생활의 개선에 이르기까지 삶 전체를 절제·개선하는 것이 절제운동의 범위였다.

기독교 절제운동은 19세기 미국 대각성운동의 하에서 진행된 경건운동에서 비롯되었다. 성령의 특별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완전’을 획득한 인간이 자신과 사회를 변화시킴으로써 새천년의 도래를 앞당길 수 있다는 믿음은 세속적 삶에 물들어 있던 미국사회를 각성시키며 금주운동을 촉발시켰다. 그리고 대각성운동의 결과로 나타난 폭발적인 해외선교 열의는 조선에도 영향을 끼쳤다. 청교도적·경건주의적 신앙과 빅토리아적 윤리를 내면화 하고 있던 대다수의 내한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 술, 담배, 아편, 축첩은 절제의 대상이자 폐해야할 악습으로 간주되고 이에 영향받은 조선 기독교인들도 이의 금지를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기독교인으로서 구별되는 삶의 표준으로 여겨졌던 금주금연, 아편 금지, 축첩 금지 등의 절제윤리는 식민지화 이후 본격적인 ‘절제운동’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물산장려운동으로 대변되는 1920년대 초반 경제적 실력양성운동이 전국적으로 펼쳐지면서, 금주금연의 경제적 측면이 부각되고 기독교계와 일반을 망라하여 곳곳에 금주금연회가 설립되는 상황을 이루었다.

특히 반종교운동을 계기로 교회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반성이 나타나면서, 사회운동의 일환으로서 절제운동이 떠올랐다.

절제운동의 전개에는 식민지화 이후 기존에 자가용으로 제조, 소비되던 술과 담배가 영업용으로 제조·판매되면서 막대한 주세, 연초세가 부과되고, 담배의 경우는 이후 전매제로 전환되면서 총독부 재정의 중요 충당원이 되었던 사정도 큰 영향을 주었다. 기독교인들은 당장의 의식주에 관계없는 술과 담배로 인해 가정 경제가 더욱 어려움에 빠지고 더욱이 그것이 식민당국의 재정이 된다는 점을 비판하고 금주금연운동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또한, 일제의 공창제도의 도입과 운영, 성매매 여



성의 열악한 처지, 사회에 만연한 향락문화는 공창폐지운동을 야기했다.

총독부의 아편의 재배와 밀매도 술, 공창, 아편을 ‘三害’로 여기고 이의 퇴치를 주장하는 절제운동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일제 식민지 정책의 폐해를 목도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여 개인의 성결 문제였던 술, 담배, 공창, 아편 등이 본격적인 사회운동으로 확대되어갔던 것이다. 미국의 절제운동이 개인윤리·사회정화 차원에서 전개되었다면, 1920·30년대 전개된 절제운동은 그것에 더하여 민족의 경제적 현실을 소비를 절약함으로써 조금이나마 극복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었다.

이러한 절제운동에는 기독교 여성들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개항 이후 비로소 국민의 일원으로서 등장하게 된 여성들은 특히 가정의 책임자인 주부로 탄생하게 된다. 여기에는 가정학의 등장과 보급이 영향을 끼쳤는데, 이는 특히 여성들의 교육이 여선교사들에 의해 이루어지면서 확산된 측면이 강하다. 가정을 지키는 역할이 여성에게 부과되면서 절제운동에서 여성의 역할이 부각되었다. 이는 3·1운동 이후 여성의 의식 성장과 여성단체의 조직이 이를 뒷받침하였다.

절제운동은 개신교 양대 교단이었던 장로교와 감리교에서 농촌운동과 함께 전개한 대표적인 사회운동이었다. 감리교는 연회 안에 절제부를 두었고 각 지방회에도 절제회를 조직하여 절제운동을 전개하였다. 감리교연합청년회인 엡윗청년회도 절제운동을 실천하는 데 앞장섰다. 장로교는 총회 안에 절제부를 따로 설치하지는 않았지만 연합청년회인 기독교청년면려회를 중심으로 절제운동을 전개하였다. 사회참여에 적극적이었던 구세군도 구세신문의 금주호 간행과 배포, 성매매 여성 보호 등에서 두각을 보였다. 1923년 조직된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는 기독교계와 일반사회를 망라한 대표적인 절제운동단체였으며 특히 민족주의 여성들이 대거 참여하여 절제운동의 확산에 이바지하였다. 1927년 금주단연동맹이, 1932년 조선기독교절제운동회가 창립되어 금주금연운동과 소비절약운동에 노력하였다. 이밖에도 평양금주동맹회, 조선금주운동단 등 크고 작은 절제운동 단체들이 있었다. 대표적 기독교사회운동 기관이었던 YMCA와 YWCA도 절제운동에 참여하였다.

절제운동은 금주금연운동, 공창폐지운동, 소비절약과 생활개선운동을 포함하는데, 금주금연운동이 가장 대표적인 활동이었다. 강연회와 금주금연회 조직을 통한 계몽과 절제운동의 저변 확산, 대대적인 가두선전, 다양한 언론·출판 활동, 총독부에 대한 청원 등으로 나타났다.

금주금연 가두선전은 가장 눈에 띄는 활동으로서 전국 각지에서 이루어졌으며 특히 1930년대에 들어 대규모로 진행되었다. 강연회와 지회별 활동은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가 주력한 부분이었다. 순회총무를 두어 전국 각지에서 강연회를 개최하고 지회를 조직하는 한편, 매월례회마다 강연내용을 통일적으로 회람하여 계몽과 단결을 도모하였다. 언론·출판을 통한 계몽운동은 대표적 기독교 언론인 『기독교

신보』가 꾸준히 사실을 발표하고 기사를 게재하면서 절제운동의 확산을 도왔다. 또한, 교단 신학잡지 등과 절제운동 단체들의 각종 기관지 및 단행본 출간, 논문 현상, 웅변대회 개최 등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활동에 내재된 금주금연의 배경과 논리는 우선 그것이 ‘성전된 몸’을 더럽히는 행위라는 종교적 이유에 있었다. 그러나 금주금연운동은 단순한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경제적 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문명부강한 나라를 목적하는 가운데 전개된 것이었다. 신체적·정신적 해독을 주는 원인으로 지목된 음주와 흡연은 그것이 유전되어 열등 자손을 낳아 사회적으로 큰 손실을 준다는 우생학론으로까지 이어졌다. 사회적 차원에서 금주금연은 개인과 민족의 정신을 개조하고 폐습을 타파하여 도덕성을 바로 세우고 ‘민족 경륜의 건실한 동력’, ‘조선 민족의 활로’로 적극적으로 인식되었다.

공창폐지운동은 선교사들로부터 시작되어 공창폐지기성회를 조직하고 총독부에 지속적으로 공창제를 폐지하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또 금주단연선전과 마찬가지로 공창폐지운동도 여러 가지 선전 계몽활동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기독교인들은 공창제를 인도적 차원에서 없애야 할 제도로써,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는 제도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성매매 여성에 대해서는 윤리·도덕적 입장에서, 그들이 정숙하고 순결한 일반 여성과 구분되는, 깨끗한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원흉으로 보아 반드시 없애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제적 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달으며 어쩔 수 없이 성매매업에 노출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그들의 비인간적 삶을 목격하면서 점차 공창제도를 식민자본주의의 산물로 이해하고, 성매매 여성들은 사회경제적 구조의 희생양으로 인식하면서 실질적인 구제책 마련에 노력했다.

소비절약과 생활개선운동은 절제운동이 식민지 사회 현실과 맞닥뜨려 구현된 내용이었다. 192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경제적 상황이 더욱 악화되자, 절제운동 담당자들은 이전까지의 절제운동이 도덕적 의미에만 치중되어 왔음을 반성하고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활동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이전보다 절제운동이 대규모화 되고 활성화 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서 소비절약과 생활개선운동을 전개하기에 이른다.

정치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식민지적 상황에서 절약과 저축은 가장 실천하기 용이한 경제적 대책이었다. 각지의 금주금연회나 교회, 절제운동 단체에서 절약·저축회 및 소비조합을 설립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경제생활의 원만한 운용은 생산과 소비의 조화인데, 식민지 현실에서 생산이 불안정하므로 소비절약, 생활절제가 대안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었다. 이는 종교적 절제윤리를 경제적으로 전환·발전시킨 것이었다.

생활개선운동은 금주금연에서 나아가 생활 전체를 개선·절제하는 것으로 발전한 절제운동의 분야였다. 음식과 의복 등에 대한 극단적인 내핍의 강조와 허례허식의 폐지, 풍기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생활개선운동은 경제적 개선뿐만 아니라 도덕과 인격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경제와 인격을 동시에 강조한 내면에는 최소한의 경제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노력과 중국에는 근대적이고 문명적인 기독교 이상사회를 목적으로 하였다.

절제운동은 기독교계열이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전개한 대표적인 사회운동이었다. 이것은 기독교가 영혼구원뿐만 아니라 현실문제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유물적, 투쟁적 방법을 지양하고, 정신과 도덕적 가치를 우위에 두면서 기독교적 이상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기독교 정신의 구현 혹은 도덕관념의 구현과 민족운동적 측면(‘경제를 살리자’, ‘죽어가는 민족을 구원하자’ 등등), 즉, 식민지현실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는 혹은 조금이나마 사람답게 살자는 의지와 아울러 중국에는 근대문명국가, 시민사회에 걸맞는 사회를 만들려는 소망으로 촉발된 것이었다.

금주금연으로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가꾸고, 폐창으로 빅토리아적 가정윤리에 충실한 근대가정을 지키고, 물산장려와 소비절약을 통해 경제적인 환경을 윤택하게 하고, 합리적인 생활개선을 통해 삶과 정신을 개선·개조하여 문명화되고 근대적인 ‘기독교화한’ 사회를 창조한다는 것이다. 도덕의 부흥, 신체 건강, 재정이 부유하게 되는 이상적 개인과 사회를 꿈꾸며 전개된 운동이 절제운동이었다.

절제운동이 식민지 현실속에서 전개되는 가운데, 합법적이고 온건한 노선을 견지하며 체제내적운동으로 시행되었고, 또 경제구조에서 비롯된 모든 사회문제를 개인의 절제로 해결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지만, 그것이 현실적 자구책으로서 소극적 경제운동이었다는 점, 개인과 사회의 개조·정화를 목적으로 진행된 사회운동이었다는 점, 성매매 여성의 구제에 노력하였다는 점 등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식민지 피압박민족이기도 했지만, 하루하루의 생활을 살아나가던 평범한 소시민이자 기독교를 믿는 종교인이기도 했던 기독교인들의 인식과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볼 때, 절제운동은 종교적 절제윤리와 개인적 도덕심을 사회운동으로 전환하여 민중의 각성과 동의를 이끌어내고 조직적 시위와 선전을 통해 대중적으로 널리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사회운동으로서의 의의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절제운동, 사회운동, 금주금연, 공창폐지, 소비절약, 생활개선, 정신과 도덕윤리, 일제 식민 정책의 폐해, 이상사회

# I. 서론

## 1. 문제 제기

일제시기 총독부 권력은 각종 제도적 장치, 폭압적 물리력 및 광범위한 대내외 선전을 이용하여 식민지 체제를 공고히 하고 조선인 사회를 통제하고자 하였다. 그와 같은 일제의 권력에 대항하기 위하여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을 불문한 조선인 사회<sup>1)</sup>의 여러 세력들은 협력하며 때론 경쟁과 대립을 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고자 노력했다. 그 요구란 것은 궁극적으로는 식민지에서의 해방이었고, 나아가서는 자주적 근대국가의 수립이었다. 그리고 이를 이루어가는 과정 혹은 방법으로서 다양한 ‘사회운동’이 현실 속에서 대두되었다.

일반적으로 사회운동(Social Movement)은 사회변동(Social Change)을 성취하거나 저해하려는 지속적이고 집단적인 노력으로 규정된다. 합리적이고 질서 있는 집합행동으로서, 사람들이 힘을 모아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사회변동을 산출하거나 변동에 저항하는, 비교적 장기적인 군집행동이다. 사회운동의 목표는 주체들의 문화적 진보와 사회구조의 개혁을 통합적으로 달성하려는 것이다.<sup>2)</sup>

그 동안 일제시기 사회운동은 그것이 식민지 현실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독립을 위한 도구로 상정되었으며 사회운동을 실천하는 주체는 모든 피지배집단을 아우르는 민족이라는 단어로 규정되었다. 때문에 일제시기 사회운동은 대부분 ‘민족운동’, ‘민족해방운동’, ‘독립운동’이라는 말로 치환되어 왔다.

이것은 식민지 시기를 일제의 무자비한 수탈과 이에 대응하는 조선인들의 ‘저항’으로 설정한 역사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민족운동의 가치는 식민권력에 ‘저항’했는지 아니면 ‘협력’했는지가 최고의 구분 기준이 되어 ‘항일’만이 민족운동으로서, 사회운동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았다.

노동운동, 농민운동의 ‘계급운동’도 민족해방운동의 한 형태로 인식되었으며, 형평운동, 여성운동, 청년운동, 학생운동 등도 민족해방 측면을 중심으로 평가되고 해석되어 왔다.

그러나 식민지 조선사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항’과 ‘협력’이라는 두 가지 갖

---

1) 이기훈은 식민지에서 형성된 조선인들의 독자적인 사회운동 공간을 ‘조선인 사회’라 지칭하고, 이 영역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기독교, 천도교, 불교 등 사회세력들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았다. 이 글도 그의 견해를 따른다. 이기훈, 「일제하 청년담론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05.

2) Light Jr. D and S. Keller, 『Sociology』, New York, Alfred A. Knopf(2end), 1979. 이장현 외 『사회학의 이해』, 법문사, 1982, p. 332에서 재인용

대로만 구분해 낼 수 없는 복잡 다양한 현실이 존재하고 그에 따라 다양한 층위의 사상과 운동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총독부 권력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조선인 사회 세력들도 독자적 가치관을 가지고 계급적·사회적 지향에 따라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이에 민족주의를 잣대로 놓고 ‘저항’과 ‘협력’으로 평가하는 이러한 이분법적 구분으로는 운동 내부의 다양한 지향성과 가치관 및 근대사회 이행기 속에서 분화된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 사회의 변화 등이 제대로 해명되기 어렵다.

이제 ‘저항’과 ‘협력’하는 단위를 민족이 아닌, 계급, 성, 문화, 종교를 달리하는 개인, 혹은 그 개인이 속한 집단으로 세분화 하는 것이 요구된다. 최근 사회운동과 근대주체를 추적하는 연구와 대중문화·젠더·풍속·일상사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할 것이다.<sup>3)</sup>

이 논문은 이와 같은 연구의 연장선에서 진행되었으며 그 가운데에서도 기독교계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독교계는 구한말 수용된 이래 개화와 일제강점으로 이어지는 조선사회의 격변기에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식민지 조선인 사회의 한 세력으로 자리매김 해왔다. 기독교를 통해 서구문명을 수용하고 근대 세력으로 성장하여 자신의 삶을 개척하려던 것이 기독교인들의 입장이었다.<sup>4)</sup> 기독교계의 정치·경제적 사상 형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각종 활동은 사회에 영향을 미치면서, 조선인 사회 구성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 동안 기독교계의 제반 활동에 대한 연구는 그것이 민족운동의 한 축을 담당했다는 사실을 규명하는 일에 치중하면서, 기독교계에서 혹은 기독교인이 행했던 운동을 민족운동으로 위치지우기에 시급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기독교계의 모든 활동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보다 ‘개량주의’로 폄하하기도 했다. 때문에 직접적인 항일 투쟁에 포함되지 않는 사회운동의 경우 연구 및 분석의 영역에서 대부분 배제되고 말았다.

일제시기 다양한 사회운동을 ‘저항’, ‘협력’의 이분법적 틀에서 벗어나 관찰할 필요성을 이미 밝힌 바, 기독교계의 운동 역시 새로운 관점의 ‘사회운동’ 차원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식민당국의 배타적 지배가 강고했던 군사·정치·경제 영역과 달리 사회문화적 영역, 즉 종교·교육·의료·사회사업 등의 영역에서는 서구 선교사

3) 지수걸, 「구한말~일제초기 유지집단의 형성과 향리」 『한국근대이행기 중인연구』, 연세대 국학연구원, 1999.; 지수걸, 「일제하 충남 서산군의 「관료-유지 지배체제-서산군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3, 1999.; 윤해동, 『식민지의 회색지대』, 역사비평사, 2003; 고석규, 『근대도시 목포의 역사 공간 문화』, 서울대출판부, 2004.; 정송교, 「한말 민권론의 전개와 국수론의 대두」, 서울대 박사논문, 2004.;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편, 『일제의 식민지배와 일상생활』, 혜안, 2004.; 『일상사로 보는 한국근현대사』, 책과함께, 2006.; 공제욱·정근식 편, 『식민지의 일상 지배와 균열』, 문화과학사, 2006.

4) 이광린, 「개화가 관서지방과 개신교」 『한국개회사상연구』, 일조각, 1979.

들을 중심으로 하는 서구적 근대의 영향을 통해 다양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점을 상기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기독교인들은 식민지 조선의 피지배민족으로서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근대 서구의 새로운 시민사회 사상, 개인주의적 신앙의 세례를 받은 종교인으로서도 존재했기 때문이다. 기독교계가 전개한 대표적 사회운동인 농촌운동·청년운동·절제운동 등도 이러한 맥락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절제’라는 용어는 Temperance의 번역으로 사용되는데, 이것은 극기, 자제, 중용 등으로도 번역될 수 있다. 기독교에서 ‘절제’는 신자가 취해야 할 자세로서 강조되고 있다. 성경에서는 술취함과 방탕, 음행과 호색을 경계하고 절제와 인내, 경건을 기독교인의 덕이라고 하면서 개인적으로 음식과 술, 연행을 비롯한 모든 일에 지나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이기적 욕심을 자제하고 이웃에게 선행을 실천하라는 사회적 측면도 언급하고 있다.<sup>5)</sup> 이에 따라 기독교인들은 ‘절제’의 실천을 신앙적 과제로 삼았으며 음주, 흡연, 도박, 축첩, 사치 등을 절제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다.

일제시기 ‘절제운동’은 음행과 호색, 술취함과 방탕함을 경계하는 성경의 논지를 바탕으로 당시의 사회·경제적 사정과 맞물려 금주·금연, 아편금지, 공창폐지운동 및 소비절약과 생활개선운동으로 표출되었다.<sup>6)</sup> 애초 절제운동은 금주운동을 의미했는데, 이것은 미국에서 시작된 절제운동이 금주를 가장 큰 목표로 출발한 데서 비롯된다. 그러나, “절제라 하면 흔히 금주나 단연만을 의미하는 줄로 오해하는 이가 많다. 절제는 심사, 행동, 의복, 음식, 기타 범절에 亓하여서다”<sup>7)</sup>는 말처럼 일제시기 조선에서의 절제운동은 금주금연운동이 주를 이루었지만, 점차 생활 전체로 확대되었다. “절제 두 글자는 금연금주 의복 음식 거처 시간 기타 우리 일상생활에 모도 절제”를 의미했다. 즉, 생활 전체를 개선하는 것이 절제운동이 추구하는 절제의 범위였다.<sup>8)</sup> 개인적인 정욕 제어와 성결의 의미로 출발한 절제는 “점점 경제문제까지도 제어하며 조절하는 뜻”으로 사용되었다.<sup>9)</sup>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은 ‘허욕’에 빠졌기 때문이므로 모든 ‘정욕을 절제’하여 검소, 근검저축, 시간절약이 요구되었다.<sup>10)</sup> 즉, 기독교인들은 거룩한 종교생활, 절용절금의 경제적 생활, 인격적 생활이 모두 합쳐진 眞·善·美·聖의 생활이 절제생활이라고 파악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금주금연운동, 공창폐지운동, 소비절약과 생활개선운동 등으로 다양한 절제운동을 전개하였다.<sup>11)</sup>

5) [고전 7:5][고전 7:9][고전 9:25] [딤후 3:11] [벧후 1:6][벧전 4:3] [엡 5:18] [딤후 3:3]

6) 유각경, 「절제운동의 합리화」 『기독신보』, 1933년 6월 28일.

7) 조만식, 「청년이어 앞길을 바라보라」 『삼천리』, 1935년 10월.

8) 정현숙, 「節制運動」 『기독신보』, 1932년 6월 29일; 정현숙, 「夏期와 節制」 『기독신보』, 1934년 7월 25일.

9) 洪愛德, 「절제란 무엇인가」 『기독신보』, 1933년 1월 25일.

10) 손메레, 「節制는 成功의 基礎」, 1928년 12월 5일.

절제운동은 개인적 윤리·도덕심이 사회운동으로 발현되는 특징을 갖는 동시에 그것이 농촌문제와 소비절약으로 이어지면서 경제적 방면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문제의식을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할 가치가 있는 분야라고 생각된다.

개인적인 종교윤리 및 도덕심에 기반한 ‘절제’가 사회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원인과 전개 과정, 그리고 그 속에서 드러나는 기독교인들의 논리를 파악하는 것이 이 논문이 추구하는 바이다. 다양한 사회운동의 양상을 살펴보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각각의 주체들을 파악하는 것은 식민지 조선사회를 총체적으로 분석하는 도구가 될 것이다.

## 2. 연구 동향

절제운동은 기독교 수용 초기 특징적이었던 구습개혁적 성격과 기독교적 윤리 및 도덕에 그 연원이 있고, 1920년대부터 금주·금연, 공창폐지, 소비절약, 생활개선운동을 포함하여 본격적인 사회운동으로 전개된다. 기독교 수용 이후 초기 기독교인들은 성경이 술취함과 방탕함을 경계하고 인내와 경건, 절제를 기독교인의 자세로 강조함에 따라 절제의 실천을 신앙적 과제로 삼았으며 이에 따라 음주, 흡연, 도박, 축첩, 사치 등을 신자로서 배격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다. 이러한 가운데 식민지화 이후 사회경제적 상황과 맞물려 개인적 신앙 실천의 수준을 넘어서 사회운동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특히, 소비절약과 조합설립 나아가 생활개선운동은 절제운동의 한 부분임과 동시에 물산장려운동 및 농촌운동과 밀접하게 결합하여 진행되었다. 기독교계가 금주·공창폐지·문맹타파·협동운동·조합운동을 사회운동의 범위에 분명히 포함시키고 이의 실행을 다짐하고 있는 것에서 보이듯이 일련의 운동들은 조직과 인적 구성, 사상적으로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1930년대 후반까지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sup>12)</sup>

먼저, 그 동안 기독교 절제운동에 대한 연구성과들을 검토하면서, 앞으로의 연구에 참고하고자 한다.

우선, 절제운동의 대표적 활동이라 할 수 있는 금주금연운동에 대해서는 기독교계에서 절제운동의 일환으로 행한 것이 아닌 일반사회에서 나타난 경우들도 있다. 노영택은 농민들의 금주금연 사례를 통해 그것이 농민들의 경제난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나타난 것이었다고 파악하였다.<sup>13)</sup> 그는 금주금연운동을 당시 나타났던 물

11) 장정심, 「개생의 도」 『기독신보』, 1935년 3월 27일.

12) 「사설: 교회와 사회운동」 『기독신보』, 1931년 12월 9일.

13) 노영택, 「일제하 농민의 경제운동연구-금주단연운동의 목적을 중심으로」, 『변태섭박사화갑기

산장려운동과 대비시키면서 보다 자발적이고 현실적인 소비절약운동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금주금연운동이 농민의 삶의 장인 동·리를 단위로 일어났다는 데 착안하여 전국적 차원에서 진행된 이 운동의 기반을 공동체에 근거한 주민의 대응(=機動)이라는 데서 찾는 연구가 있어 주목된다.<sup>14)</sup>

기독교 절제운동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성과들이 있다. 김종용과 황은혜는 절제운동의 배경과 의의를 종교적 입장에서 살피고 있다.<sup>15)</sup> 그러나 전체적으로 연구범위가 기독교계 일반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으며 역사적 사실 구명도 미흡한 편이다. 또 종교적 입장에서 절제운동을 다루면서 운동의 배경과 논리를 단순하게 구조화시킨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신정은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를 중심으로 하여 여성들의 절제운동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sup>16)</sup>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의 활동사항을 잘 정리하고 절제운동에서 여성의 역할을 주목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백종구는 금주운동의 전개과정에서 드러난 내한 선교부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는 1920년대 사회주의의 영향을 인식한 선교부와 한인 교회 지도자들이 교인들의 관심을 사회문제로 전환하는 방편의 하나로 금주운동을 전개하였고, 이것이 1930년을 전후하여 교회의 사회적 사명의 하나로까지 간주되면서 대중적 운동으로 확산되었다고 보았다.<sup>17)</sup> 송민희는 절제운동을 기독교윤리실천운동으로서 파악하였다. 현재 기독교인들의 윤리운동이 빈약한 것을 비판하고 실천문제를 거론하는 가운데, 과거의 절제운동을 간단히 살피고 있다.<sup>18)</sup>

최근 장금현은 종래 절제운동이 대부분 기독교민족주의 운동으로서만 평가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절제운동을 복음주의에 바탕을 둔 세계사적 운동의 한 지류로서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sup>19)</sup>

절제운동은 개인적 종교적 차원의 시행이나 지침이 아니라 1920년대부터 농촌운동과 함께 기독교 사회운동의 하나로 전개된 것이다. 그런데 그는 절제운동의 범위를 너무 확대해석하고 있다. 시기적으로 조선시대의 금주령과 구한말 국채보

---

『남사학논총』, 삼영사, 1985.

- 14) 한상구, 「일제시기 지역사회 주민 機動의 구조-1920년대 금주단연운동을 중심으로-」, 한국역사연구회 74회 연구발표회, 2000.
- 15) 김종용, 「한국교회의 절제운동연구」, 연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0.; 황은혜, 「한국교회 절제운동의 구조에 관한 연구-1920-30년대를 중심으로 민족사적 관점에서」, 연대 신학대학원 석사논문, 1998.
- 16) 이신정, 「일제시대 한국교회여성절제운동연구-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를 중심으로-」, 감리교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 17) 백종구, 「한국 개신교 절제운동의 기원과 전개-금주운동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27.
- 18) 송민희, 「한국기독교 절제운동에 관한 연구-기독교윤리실천운동을 중심으로」,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석사논문, 2004.
- 19) 장금현, 「한국 기독교 절제운동 연구-1884~1939년을 중심으로」, 서울신학대 박사논문, 2004.



상운동을 포함하고 있으며, 초기 기독교의 사회개혁적 성격과 개인적 회심 사례, 기독교계의 운동으로 범주화 할 수 없는 근우회의 주장까지 모두 기독교절제운동의 범위에 넣고 있다. 때문에 절제운동의 명확한 운동양상과 성격이 모호하다.

이상의 절제운동에 대한 연구는 간단하게 공창폐지운동 등을 거론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금주금연운동에 국한되어 공창폐지, 소비절약 및 생활개선운동 등의 다른 활동에는 주목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물론 금주금연운동이 절제운동의 대표적인 활동이었지만, 공창폐지운동과 소비절약 및 생활개선운동도 있었던 바, 이 모두를 함께 살피는 것이 절제운동을 총체적으로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공창제는 일제가 식민지 조선에 이식한 性的·민족적 억압 수단의 하나로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했고 또한 그것이 ‘위안부’ 문제와 어떤 식으로든 연결된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일제하 공창제도의 시행 과정, 실패 등에 관해서는 많은 선행 연구들이 쌓여왔다. 공창제도의 도입과 전개, 운영 과정을 연구한 성과들은 공창제가 식민지 지배의 통제정책의 하나로 작용했음을 규명하고 있다. 그것은 개항기 일본인 거류지를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성매매업이 러일·청일전쟁 이후 조선 내 일본의 세력이 커져감에 따라 확산되기 시작하여 공창제가 서서히 이식되고 있음을 추적한 결과이다.<sup>20)</sup> 또한 공창제가 남성중심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서, 특히 일제하 조선의 공창제도는 규칙과 실제상에서 일본보다 훨씬 열악했음을 밝힌 연구도 있다.<sup>21)</sup>

이에 비해 공창폐지운동에 대한 연구는 적은 편이다. 송연옥은 조선의 폐창운동이 일본처럼 광범위한 민족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될 수 없었던 원인을 식민지라는 현실의 타개 없이는 폐창이 불가능하다는 당시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하였다.<sup>22)</sup> 유해정은 1920년대는 기독교 조직을 이용한 공창폐지운동이 주류를 이루었고, 1930년대에 이르러 매춘문제를 여성실업의 입장에서 접근하기 시작했다고 보았다.<sup>23)</sup> 박

20) 손정목, 「일제하의 매춘업-공창과 사창」 『도시행정연구』 3, 서울시립대, 1988.; 강선미, 야마시타 영애, 「천황제 국가와 성폭력: 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여성학적 시론」 『한국여성학』 9, 1993.; 야마시타 영애, 「식민지 지배와 공창 제도의 전개」 『사회와 역사』 51, 1997.; 강정숙, 「대한제국·일제초기 서울의 매춘업과 공창제도의 도입」 『서울학연구』 11, 1998.; 송연옥, 「대한제국기의 「기생단속령」·「창기단속령」-일제 식민화와 공창제 도입의 준비과정」 『韓國史論』 40,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98.; 송연옥, 「공창제도에서 ‘위안부’제도로의 역사적 전개」 『전시 성폭력 실태: 2000년 여성국제전범법정의 기록-3』, 2001.

21) 강선미, 야마시타 영애, 「천황제 국가와 성폭력: 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여성학적 시론」 『한국여성학』 9, 1993.

22) 宋連玉, 「日本の植民地支配と國家的管理賣春-朝鮮の公娼お中心に」 『朝鮮史研究會論文集』 32, 1994.

23) 유해정, 「일제 시기 공娼廢止運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2001.

유미는 중일전쟁 이후 폐창논의가 성병예방책에 묻혀버리고, 공창제가 군위안부 동원의 배경으로 작용하였음을 지적하였다.<sup>24)</sup>

공창폐지운동은 여성인권투쟁이란 점에서 여성운동의 핵심이라 할 수 있지만, 일제시기 여타의 여성운동에 비하여 활발히 전개되지 못했다. 다만 기독교계의 활동이 눈에 띈다. 그런데, 기존의 연구에서는 기독교계와 일반사회의 폐창논의와 운동을 확실히 구분하지 않은 채, 시대별 폐창논의의 변화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윤정란은 기독교 여성들의 절제운동을 살피는 가운데, 공창폐지운동을 주목하였다.<sup>25)</sup> 기독교 여성들이 현실성 없는 성병검진 제도와 인권유린의 공창제를 비판하고, 공창폐지운동에 앞장섰다고 하였다. 금주금연운동 중심의 기존의 절제운동 연구 가운데서 공창폐지운동을 대등하게 거론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소비절약과 생활개선운동은 기독교계의 경제건설논리를 일면 드러내는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추구했던 사회상을 추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연구가 요구되는 부분이라 하겠다. 이에 대해서는 기독교 농촌운동 차원에서 절약과 저축을 장려하고 조합운동을 전개했던 것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sup>26)</sup> 근검절약과 허례허식폐지 등의 생활개선운동에 대해서는 조만식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이 있다.<sup>27)</sup> 그런데, 장규식이 관서지방 기독교계의 경제운동을 추적하는 가운데 생활개선운동을 비롯한 절제운동을 언급한 것 이외에, 이러한 움직임을 절제운동의 일환으로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연구한 성과가 부족한 만큼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sup>28)</sup>

한편, 기독교계에서 전개한 생활개선운동과 총독부 및 일반사회의 생활개선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활개선운동에 대한 연구는 최근 일상사 연구가 진척되면서 주목받기 시작하고 있다.<sup>29)</sup> 최숙희는 조선총독부의 생활개선운동을 살피면서, 조선인 실력양성론자들 사이에 논의된 생활개선론에 대해 간략히 보고, 그것이 대다수 민중의 삶과 유리된 것으로서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하였다.<sup>30)</sup> 宮本正明은 생활개선운동이 조선의 반봉건적 생활에서의 해방을

24) 박유미, 「해방 이후 공창제 폐지와 그 영향」, 상명대학교 석사논문, 2006.

25) 윤정란, 『한국 기독교 여성운동의 역사』, 국학자료원, 2003.

26) 장규식, 「1920-30년대 YMCA 농촌사업의 전개와 그 성격」 『한국기독교와역사』 4, 1995.; 한규무, 『일제하 한국기독교 농촌운동』,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7.

27) 김권정, 「1920~30년대 조만식의 기독교 민족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7, 2006.; 장규식, 「조선의 간디 고당 조만식」 『내일을 여는 역사』 26, 2006.

28) 장규식, 『일제하 한국 기독교민족주의 연구』, 혜안, 2001.

29)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편, 『일제의 식민지배와 일상생활』 혜안, 2004.; 공제욱·정근식 편 『식민지의 일상 지배와 균열』, 문화과학사, 2006.; 소현숙, 「‘근대’에의 열망과 일상생활의 식민화-일제시기 생활개선운동과 젠더정치를 중심으로」 『일상으로 보는 한국근현대사』, 책과함께, 2006.

30) 최숙희, 「1930년대 조선총독부의 농촌‘생활개선’사업의 성격-1932~1937년을 중심으로」, 고대

지향하며 식민지적 현실에 대해 ‘개량’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았다.<sup>31)</sup> 이는 井上和枝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생활개선운동이 총독부의 강제 뿐만 아니라 민중 스스로 재생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받아들여져 시행되었다고 하겠다.<sup>32)</sup>

전반적으로 기독교 절제운동에 대해서는 금주금연운동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고 공창폐지운동과 소비절약 및 생활개선운동에 이르기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이 없다. 기독교 절제운동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이를 통해 일제시기 사회운동의 한 부분을 추적하고자 할 때, 절제운동의 모든 활동을 폭넓게 살피는 연구가 필요하다.

### 3. 연구방법 및 구성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절제운동이 금주금연운동, 공창폐지운동, 소비절약과 생활개선운동의 양상으로 추진된 바, 각 운동별로 살펴본 후에 결론에서 이를 종합하려고 한다.

II장에서는 절제운동의 전개 배경과 추진 기구 및 단체를 파악하고자 한다. 절제운동이 나타나게 되었던 신학적 배경을 포함하여 일제 식민지하 조선이라는 사회경제적 배경이 절제운동이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개신교 양대 교단이었던 감리교와 장로교단이 절제운동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그 기구를 살펴으로써, 민족주의 세력의 한 부분을 담당했던 개신교단의 절제운동에 대한 입장을 파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교단 밖에 조직된 각종 사회운동단체로서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 금주단연동맹, 조선기독교절제운동회의 설립경위와 조직을 통해 기독교 사회단체의 여러 모습을 파악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III장에서는 절제운동의 가장 대표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금주금연운동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금주금연의 이유와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여러 가지 논의를 살펴으로써, 금주금연운동의 추진 배경과 논리를 파악하고 강연회와 절제회 조직, 가두선전을 비롯하여 언론·출판을 통한 계몽활동의 모습으로 나타난 절제운

---

석사논문, 2001.

31) 宮本正明, 「植民地朝鮮における「生活改善」問題の位相-1920年代末~1930年代前半を中心に」 『史観』 139, 早稲田大史學會, 1998.

32) 井上和枝, 「植民地其朝鮮における生活改善運動-「新家庭」の家庭改善から「生活改新」運動へ」 『1930年代の東アジア經濟』 東アジア資本主義形成史II, 日本評論社., 2006.; 井上和枝, 「1920-1930년대 일본과 식민지 조선의 생활개선운동」 나카무라 사토루·박섭 엮음, 『근대동아시아 경제의 역사적 구조』, 일조각, 2007.

동의 양상을 보고자 한다.

IV장에서는 공창폐지운동에 대해 보려고 한다. 우선 개항 이후 성매매업이 성행하게 되는 상황과 강점 후 ‘공창제’의 등장과 운영 및 성매매 여성들의 실태에 대해 간단히 살펴볼 것이다. 이후 ‘공창제’와 ‘매음부’를 둘러싼 기독교인들의 인식을 살펴보고 어떤 이유와 논리를 가지고 공창폐지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는지 파악한 뒤, 구체적으로 공창폐지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을 보고자 한다.

V장에서는 소비절약과 생활개선운동의 움직임에 주목하고자 한다. 경제적 파탄에 처한 기독교인들이 물리적 절제의 방법으로 취한 행동이 바로 절약과 저축이었으며 그것이 소극적 경제운동으로서 기능했음을 밝히고자 한다. 또, 단순한 절약에서 나아가 물질과 인격 및 도덕 등 생활 전체를 개선함으로써 보다 나은 삶을 추구했던 생활개선운동이 절제를 통해 기독교적 이상사회를 건설하고자 했던 기독교인들의 모색이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VI장에서는 금주금연운동, 공창폐지운동, 소비절약과 생활개선운동의 결과 및 영향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절제운동 단체의 해산과 변질에 대해서도 함께 살피게 될 것이다. 이후 전체적인 정리를 통해 사회운동으로서 절제운동이 가지는 특징과 성격, 의의를 짚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절제운동이 가지는 한계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논문을 마무리 하려 한다.

이를 위해 일제시기 사회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매일신보』를 비롯하여 기독교계의 신문이었던 『기독신보』를 적극 활용하였다. 또한, 절제운동단체에서 발간한 각종 간행물을 비롯하여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록』 『조선미감리회연회록』 등의 자료와 기독교계 잡지를 두루 참고하였다.

## II. 절제운동의 배경과 조직

### 1. 절제운동의 전개 배경

#### 1) 절제운동의 역사적 배경

19세기 후반 미국은 서부를 완전히 개척하게 되면서 국가 체제를 완성시키고, 1880년대 산업혁명에 성공하면서 산업 자본주의가 정착되기에 이른다. 사상면에서 계몽주의 합리주의의 확산, 근대과학기술 발달, 자본주의 발달로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미국 사회 전반에 ‘세속화(secularization)’가 나타났다. 인간 이성의 점진적 진보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사회적 삶의 권위를 더 이상 전통적인 종교적 가치관 즉, 청교도 정신에서 찾지 않게 된 것이다.

미국 개신교 복음주의자들은 이에 대응하여 청교도 정신과 개신교적 가치관을 옹호하고자 하였고 그것이 ‘대각성운동(The Great Awakening Movement)’이라는 종교운동으로 나타났다.<sup>33)</sup> 노예제 폐지와 금주를 포함하여 인간의 완전주의를 지향한 대각성운동은 개신교의 복음주의적 가치를 다시 일깨움으로써 전반적인 사회 변화를 추동하기 위한 전 사회적인 움직임이었다.

절제운동은 이러한 대각성운동에서 촉발되었는데, 부흥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완전론, 즉 성령의 특별한 사역을 통해 획득하는 그리스도의 ‘완전(perfect)’에 근거하여 전개되었다. 완전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과 사회를 변혁시킴으로서 새 천년의 도래를 앞당길 수 있다고 믿었다. 완전주의자들의 목표와 의도는 절제운동의 확장이었다. 그것은 당시 미국의 가장 시급한 이슈와 지역 정책으로 인식되었다. 종교적 지도자들의 영향 아래 도덕적이고 절대금주를 실행하는 남성들이 노동자로서, 남편과 아버지로서, 시민으로서 훨씬 좋은 평가를 받은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sup>34)</sup>

---

33) 대각성운동은 일반적으로 3차로 나뉜다. 1726년 뉴저지 화란개혁교회에서 비롯하여 장로교와 조합주의교회들이 가세하고, 버지니아 남쪽 지역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1740년까지를 이른바 ‘제1차 대각성운동’이라 한다. 조나단 에드워드(Jonathan Edwards)와 조지 화이트필드(George Whitefield)로 대표되는 순회전도자들의 의해 부흥운동이 성황을 이루고, 이를 계기로 국내 선교가 시작되면서 인디언에 관한 선교가 중요 사안으로 부각되었다.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일어난 운동을 ‘제2차 각성운동’이라 부른다. 미국 전 지역의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에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개신교인의 선행적인 행동을 강조했다. 이후, 1875년부터 1914년까지의 흐름을 ‘제3차 각성운동’이라고 일컫는다. 이유나, 「초기 한국 개신교의 죄 개념 연구」,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박사논문, 2006. pp. 33-34.

애초 절제운동은 금주운동을 의미했는데, 이것은 미국에서 시작된 절제운동이 금주를 가장 큰 목표로 출발한 데서 비롯된다. 금주운동은 남성의 부절제한 행동을 통제하려는 시도로서 여성들에 의해서 촉발되었다. 1873년에서 1874년에 걸쳐 미국 오하이오 주 힐스보로(Hillsboro)와 미시건 주의 애드리언(Adrian) 등에서 여성들이 금주를 주창하며 쫓기하였다. 음주가 공동체와 가족을 붕괴시키고 남성의 불필요한 소비를 부추긴다는 것이 그들의 핵심 주장이었다. 그들은 술집에 들어가 찬송을 부르고 술통을 던지면서 자신들의 목적을 관철시키려 했으며 그로 인해 술집들이 문을 닫곤 했다. 남성의 알콜 남용과 이에 관련한 폭력, 재정적 무책임, 유기, 비도덕성으로부터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는 것이 그들의 궁극적 목표였던 것이다.<sup>35)</sup>

이러한 움직임은 1874년 여자기독교절제회(Woman's Christian Temperance Union, WCTU)가 설립됨으로써 본격적인 절제운동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프랜시스 윌라드(Frances Elizabeth Willard)의 활동은 이 운동을 확대 발전시키면서 1884년에는 세계여자기독교절제회연합회(World Woman's Christian Temperance Union, WWCTU)까지 결성하기에 이른다.<sup>36)</sup> 세계여자기독교절제회는 금주운동 뿐만 아니라, 의복개신, 미성년자 금주금연, 악풍·폐습 개혁을 비롯하여 여성참정권 운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사회개혁에 앞장섰다. 절제운동은 1920년 미국에서 금주법이 시행되면서 절정을 맞이하였다.<sup>37)</sup>

절제운동은 내한 선교사들에 의해 한국에도 건너오게 된다. 초기 한국에 온 선교사들의 대다수는 미국인 선교사였고 특히 주류 교단이었던 미북감리교, 남감리교, 미북장로교, 남장로교 소속 선교사들의 숫자가 월등히 많았다.

#### 《표 1》 1884-1910년 내한 선교사 일람

34) John W. Frick, Theatre, *Culture and Temperance Reform in Nineteenth-Century Americ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pp. 31-32.

35) 사라 에번스 지음·조지형 옮김, 『자유를 위한 탄생』,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8. pp. 201-207.

36) Anna A. Gordon, *The Beautiful Life of Frances E. Willard*, Woman's Temperance Publishing Association, Chicago, ILL, 1898

37) 이효덕, 「節制運動家 윌라드女史」 『신생』 2권 11호, 1929년 11월.

내한 선교사 국적	내한 선교사 수(名)	비율(%)
미국	414	79
영국	53	10
캐나다	27	6
호주	22	4
독일	3	0.6
스코틀랜드	2	0.3
스위스	1	0.1
계	522	100

김승태·박혜진 편, 『내한선교사총람, 1884-1984』,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4. 참고

특히 이들은 대각성운동의 영향 아래 세계선교를 결심하고 내한한 경우가 많았다.

3차 대각성운동에서 무디(Dwight L. Moody) 등은 세속적 삶에 안주하고 근대 자본주의의 물질풍요에 젖은 미국인들에게 다시 경건신앙 생활로 돌아올 것을 호소하고 비기독교국가에 대한 선교를 촉구하였다.<sup>38)</sup> 그의 설교 가운데 술 취함과 주류 판매, 안식일 어김, 육체의 정욕을 위해 간음하는 행위, 음담패설, 세속적 오락 등이 죄로 규정되어 개인과 사회의 타락의 척도로 인식되면서, 개인과 사회의 정화를 통해 모든 영혼을 구원하려는 노력이 다방면으로 나타났다. YMCA활동과 구세군, 대학 설립, 세계선교의 열풍 등이 대표적인 예였다.<sup>39)</sup>

여러 선교회와 대학, 신학교가 창립되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1884년 ‘학생자원운동 student volunteer movement’을 결성하고 “멸망해 가는 여러 민족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구하기 위하여” 해외 선교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초기 한국에 온 선교사들도 여기에서 비롯된 인물들이 많았다.<sup>40)</sup>

대각성운동의 세례를 받았던 이들은 엄격한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미북장로교 해외선교부 총무였던 브라운(Arthur. J. Brown)은 내한 선교사의 특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국이 서방 각국을 상대하여 개국한 이후 25년 동안 한국에 들어간 선교사들이 지닌 공통성은 청교도형이었다. 그들은 백년전에 뉴잉글랜드의 우리 조상들이 했던 것과 똑같이, 안식일을 지켰다. 그들은 춤 추고, 담배 피우고, 노름하는 것을 죄로 보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지 못할 일이라 하였다. 신학과 성서비판에 매우 보수적이지요, 그

38) 여자기독교절제회의 회장 프랜시스 윌라드도 무디의 조력자로서 함께 일하면서 기독교여자절제회 활동을 한다. 금주운동을 통한 사회성화운동이 경건주의적 맥락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9) 이주형, 「18, 19세기 미국 대각성운동 연구: 역사적 배경과 영향」, 장로회신학대학교 석사논문, 2004. pp. 50-103.

40) 류대영, 『초기 미국 선교사 연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1, pp. 22-56.

리스도의 제림과 전천년주의의 신봉을 중요 진리로 지지한다. 성서에 대한 고등비평이나 자유신학을 위협한 이단사상으로 보았다”<sup>41)</sup>

이들은 전형적인 '청교도 타입(puritan type)'의 사람들로서 금욕과 절제를 생활 태도로 삼고 춤과 담배, 카드놀이까지 기독교인들이 탐닉해서는 안되는 죄로 여겼다.

또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한 重生의 체험과 기도와 성경공부를 중시하는 한편 윤리적 실천으로서 선교와 사회구제를 연결시키는 경건주의적 성향이 짙었다. 여기에 초기 선교사들은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며, 프로테스탄트적 신앙 원리를 지향하는 복음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sup>42)</sup>

뿐만 아니라 이들 대다수는 대학교육을 받은 중산층 출신으로서, 기독교적 가치와 아울러, 실용적·자본주의적 가치관 및 빅토리아적 윤리를 내면화하고 있었다. 이들은 기독교 선교가 사회적 소명으로서, “절제를 장려하고 주류와 아편의 유통을 반대하고, 노름을 못하게 하고, 개인적인 순결의 가장 높은 수준을 설정하고, 산업을 증진시키고, 여성을 교육시켰다”고 자부하고 있었다.<sup>43)</sup>

청교도적, 경건주의적, 복음주의적 신앙 전통 및 신학적 교리를 갖고 있었던 대부분의 초기 미국 선교사들은 자신들의 신학적 입장과 윤리를 피선교지 조선인들에게 그대로 투영시키고자 했다. 감리교는 1897년 기독교인이 지켜야 할 윤리적 표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가족윤리의 준수, 금욕과 절제, 성실한 노동 등의 빅토리아 윤리와 청교도 윤리가 핵심내용이었다.<sup>44)</sup>

선교사들은 거짓말, 도적질, 노름, 술마시기 등의 타락행위가 조선에 만연해 있다고 보고 이를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노름꾼에게 내리는 혹독한 형벌에도 불구하고 조선에는 노름이 성행하고 있다. 우리가

41) A. J. Brown, *The Mastry of Far East*, New York: Chales Scribner's sons, 1919, p. 540.(김경빈, 「한국에 온 미국 선교사들의 신앙 유형과 그 사상적 배경」 『교회 민족 역사, 솔내 민경배 박사교회기념논문집』, 민경배박사교회기념논문집출판편집·후원위원회, 2004, p. 94.에서 재인용)

42) 이덕주, 「초기 내한 선교사들의 신앙과 신학」 『한국 기독교와 역사』 6, 1997, pp. 50-58.

43) Robert E. Speer, *Missionary Principles and Practices: A Discussion of Christian Missions and of some Critics upon them*, (New York, Fleming H. Revell Co., 1902.)(김경빈, 위의 글, pp. 107-108.에서 재인용)

44) Huntley, Martha, *A History of the Protestant Mission in Korea*. 차종순 역, 『한국 개신교 초기의 선교와 교회성장』, 목양사, 1985, p. 277. 선교사들의 윤리가 한국인들에게 전파되어 영향을 미친 제사 거부, 우상숭배 거부, 금주금연, 노동중시, 축첩폐지, 부부평등의 사례들이 선교사들의 시선에 의해 묘사된 글들은 다음의 책들이 참고가 된다. Bernheisel Charles F., 김인수 역, 『편하설목사의 선교일기』, 쿰란출판사, 2004.; Gale, James s., *Transition in Korea*. 신복룡 역, 『전환기의 조선』, 집문당, 1999.; Hall, R. S., *The Life of Rev. William J. Hall*. 현중서 역, 『한국에서 최초로 순직한 선교사-닥터 윌리엄 제임스 홀』, 에이멘, 1994.



재미로 하는 도미노게임이 이곳에서는 노름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카드를 사용하는 놀이도 있는데, 손가락 굽기의 기다란 카드 위에는 한자가 쓰여져 있다. 조선 남자들은 노름에 대한 열정이 대단해서, 만약 노름에서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잃었다면 자기의 아내를 노비로 팔아서까지 노름에 미쳐 버린다. 조선에서는 술마시기도 널리 유행하고 있다. 술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흰색의 걸쭉한 액체(막걸리)이고 다른 하나는 맑고 깨끗한 약주술이다. 이 술은 모두 쌀, 보리, 혹은 밀로 만든다. 주막은 안주를 곁들여 술을 먹는 사람들로 거의 매일 붐빈다. 길거리에는 술에 취한 감상주의자들 혹은 술 주정꾼들이 서로 상투를 잡아당기며 싸우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조선인들의 생각은 단순하다. 그래서인지 사회적으로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타락행위가 만연하고 있다. 한 마디로 표현하면 조선인을 유순하고 예의 바른 이방인으로서 특이하게도 아편을 피는 것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모든 악습을 다 갖고 있다.”<sup>45)</sup>

청교도적, 경건적 윤리관을 가졌던 선교사들에게 조선의 음주, 도박의 성행은 ‘타락’의 전형적 모습으로 비춰졌고, 이를 개혁하는 것이 선교사로서 그들의 사명이자 교인된 도리로 여겨졌다.

주일성수, 제사 중지, 노름 및 도박의 금지, 축첩금지 등과 함께 금주 단연은 세례 받을 때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었던 다짐이었다. 1893년 선교사 마펫(Moffett, Samuel Austin)은 우상숭배와 조상제사의 폐지, 축첩·음주·거짓말·잡기·간음 등의 악습관 전폐, 주일성수, 부모에 대한 효경, 가정의 순화(여자에 대한 대우개선) 및 부지런히 일하여 풍족한 가정생계를 가질 것 등을 세례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는 이러한 것들을 신자의 규범으로 준수할 것을 서약함으로써 세례교인이 되는 신자의 훈육제도를 설정하였다.<sup>46)</sup> 이는 삶의 뚜렷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러한 결단을 통해 기독교인다운 삶의 방식을 보여 주는 것이었고, 신앙생활의 중요한 표식으로 이해되었다.

1903년 조선감리회 연회에서 병커(Bunker, Dalziel A.)가 제출한 ‘절제와 사회개혁 Temperance and Social Reform’이라는 보고서에도 당시 선교사들이 생각하던 생활과 신앙의 양식이 잘 드러난다. 주일성수, 술의 사용, 결혼 도박과 노름, 담배와 켄련의 사용, 노예 소유 등 6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이 규칙에서 술, 담배, 도박은 철저히 금지되었다. 신자는 술과 담배를 먹어서도 안되고, 제조나 판매도 금지사항이었다.<sup>47)</sup> 공과를 통해서도 “술은 속이는 물건이니 과음하면 발광하느니 술에 침윤하야 속는 이는 심히 지혜업느니라”이라 하여 술을 다툼, 원망, 병, 색욕, 어지러움, 몸 상함, 술에 중노릇하는 7가지 고난을 가져오는 죄악으로 여겼다.<sup>48)</sup>

45) Gifford, G. W., *Every-Day Life in Korea*. 심현녀 역, 『조선의 풍속과 선교』,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9, p. 41.

46) 金良善, 『韓國基督教史研究』, 基督教文社, 1971, p. 71.

47) *Official Minutes of the Nineteenth Annual Meeting Korea Mission Methodist Episcopal Church*, Methodist Publishing House, 1903.

선교사 존스는 술마시는 교인들은 출교시키겠다고 경고하기도 하였다.<sup>49)</sup>

선교사들이 술, 담배, 아편, 도박에 대해 경계하고 죄악시 하면서 그 영향을 받은 조선인들도 기독교인이라면 으레 술, 담배를 삼가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술로 폐가망신하는 자를 종종 듣노니 어찌 애석지 아니리오. 우리 교회에는 술을 많이 먹는 것만 금하는 것이 아니라 한 두 잔이라도 금하고 또 그뿐 아니라 술장사하는 사람과도 상관이 없는지라. 강례에도 술을 금하라는 말씀이 있으니 우리 형제들은 조심하여 술 끊기를 바라노라”<sup>50)</sup>

초기 기독교인들의 음주, 흡연에 대한 입장과 그 해독의 경계, 금주·금연한 교인들에 관한 기사는 『조선크리스도인회보』에서 상당수 찾아볼 수 있다.<sup>51)</sup> 그런데, 음주·흡연을 금지하면서 권고한 선교사의 글이나 이것을 받아들인 한국 기독교인의 글을 보면, 금주금연이 ‘성경’을 근거로 하여 언급되기 보다는 심신의 건강과 경제적 문제, 사회적 기강 및 개화와 관련하여 거론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간혹 음주자는 구원받을 수 없다면서, 술을 마시려는 마음을 먹는 것만으로도 죄악이라는 극단적인 내용도 있지만, 대부분은 신체건강과 경제적 이유를 들어 음주가 폐가망신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sup>52)</sup>

“술은 바른 심의로 수고하여 모흔 직물을 썩어쓰며 결인과 죄인을 만들고, 짐을 망(케) 하며, 험잡과 뇌물과 사정을 성형케 하여 사무를 그르치고 국직을 탐용하며 부세를 묵업게하고 유익한 일에 쓸 돈을 여러 빅만금식 험로운 일에 허비하여 흥상 이전정 군식하게 하니, 만일 술에 업식은 직물을 일용지물에 쓰면 사롱공상이 다 흥왕하고 돈 업서 어려워하는 괴로움이 구름갓치 헛터줄지니 경제상으로나 도덕상으로 보면 술은 업시할

48) 「존절하는공과」 『신학월보』 1권 9호, 1901년 8월.

49) G. H. Jones, 「교회법에도 술먹지 못하게지 분명함」 『대한크리스도인회보』, 1900년 3월 7일.

50) 「戒酒論」 『조선크리스도인회보』, 1897년 6월 23일.

51) 『조선크리스도인회보』에 나타난 음주와 흡연에 관한 기사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① 술과 담배의 해독 경계(「戒酒論」, 1897년 6월 23일, 1897년 6월 30일, 1897년 1권 18호; 「업시할 물건」 『조선크리스도인회보』, 1897년 12월 29일.)

② 신자가 금주단연한 사례(「교중회문 : 주초거절」, 1911년 3월 30일; 「교중회문 : 오씨 단연」, 1912년 1월 15일; 「교중회문 : 연초거절」, 1913년 7월 7일; 「외보 : 동경학생 단연」, 1913년 3월 13일)

③ 미국 및 다른 나라의 금주금연 사례 및 금연대회 소개(「外報 : 금연대회」, 1911년 4월 3일; 「내외 잡조 : 만국금연회」, 1911년 11월 15일; 「황빈의 금주회」, 1913년 2월 15일; 「外報 : 술잡이 제일 많아」, 1913년 5월 19일; 「외보 : 술장사의 낙망」, 1913년 7월 7일; 「外報 : 헌법 개정의 금주」, 1913년 9월 15일; 「外報 : 금주금연대회」, 1913년 10월 20일; 「外報 : 동경의 금주회」, 1913년 11월 3일; 「술집없는 나라를 만들자고」, 1913년 11월 3일)

52) 이만열, 「기독교 수용과 사회 개혁」 『한국기독교 수용사 연구』, 두레시대, 1998, pp. 411-420.

물건이어늘 오늘날 석지 그덕로 두니 괴이흐도다”<sup>53)</sup>

이는 선교사들도 인정했듯이, 초기 기독교인들이 단순히 선교사들의 권유에 따라 금주와 금연을 했다가 보다는 스스로의 이성적 판단에 의해 결행한 점을 보여준다.

“초기 기독교인들과 연관된 흥미 있는 사실 하나는 교회를 순수하게 지키려는 그들의 열정이었다. 그들은 예수께서 ‘악한 것은 그 모양도 버려라’고 하셨을 때 뜻하신 바, 새 신자들은 사악한 이교도의 종교행위나 그럭저럭 용인되는 사회적 관습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모두 그들의 생활에서 내몰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버려야 할 종교에 관련된 것들 가운데는 마술·점술·우상·주물·조상제사와 관계있는 위폐와 제물들이 있다. 사악한 사회적 관습에는 축첩, 음주와 흡연 등이 있다. 때로 금연은 선교사들이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압박을 가한 사안으로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다. 초기 기독교인들 자신의 이성으로 금연하였던 것이다.”<sup>54)</sup>

금주금연이 문명개화론적 이유이든, 교회의 순수하게 지키려는 신앙적 열정에서든, 조선 기독교인들에게 내면화 되어 자발적으로 진행되었던 것을 말해준다.

기독교인들은 음주·흡연 뿐만 아니라 아편에 대해서도 그 폐해를 지적하고 절대 금할 것을 신자와 일반인을 아울러 촉구하였다.<sup>55)</sup> 마펏((Moffett, Samuel Austin)은 의주에 아편이 만연되어 있음을 목격하고 아편매매 금지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sup>56)</sup> 이처럼 내한 선교사들은 중국에서처럼 조선에도 아편이 성행할 것을 우려하여 담배까지도 금지할 만큼 아편에 대해 절대적으로 경계하였다.<sup>57)</sup>

또한, 사회의 병폐를 고치고 폐습을 타파하려는 여러 가지 모습이 개신교 수용 초기 곳곳에서 나타났다. 기독교인들은 전통적인 혼상례에 대해서도 폐단을 지적하고 개혁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우선 조혼풍습과 당사자의 동의없는 부모끼리의 일방적인 통혼약속 등을 비판하였다.<sup>58)</sup> 장로교 총회는 여자 만 15세, 남자 만 17세로 혼인 하한연령을 정해 조혼을 막고자 하였다. 아울러 혼인에 따르는 돈거래와 호화로운 상례를 고쳐 양심과 풍속에 무례함이 없는 한도내에서 엄숙하고 간편하게 할 것을 주장하였다.<sup>59)</sup>

53) 「업시홀 물건」 『조선크리스도인회보』, 1897년 12월 29일.

54) Mattie Wilcox Noble, 「한국의 초기 기독교인들」, C. A. Sauer, 엮음. 자료연구회 옮김, 『Within the Gate 은자의 나라 문에서』,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6, pp. 99-100.

55) 「아편금할론」 『그리스도신문』 5권 14호, 1901년 4월 4일.

56) S. A. Moffett, To the Editor of The Korea Repostory, *The Korea Repository*, Vol. 1, 1892. 1.

57) 류대영, 『초기 미국 선교사 연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1, p. 111.

58) 「혼인론」 『조선크리스도인회보』 3권 16호, 1899년 4월 19일.

이렇듯 기독교인들은 술, 담배, 아편 등을 신자로서 일반인과 구별되는 성결한 자세로서 배격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는 한편, 종래 풍습 가운데 반봉건적 폐단이라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

그런데, 개신교 수용초기 기독교 신자의 본분이나 지켜야할 덕목, 혹은 문명개화의 도구 정도로 강조된 술, 담배, 도박, 축첩 금지는 1920년대부터 본격적인 절제운동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기독교계가 단체를 조직하여 시위, 선전, 계몽 등 구체적인 활동을 전개하면서부터 신자의 의무 혹은 개인적 수행지침으로 머물던 절제의 덕목은 비로소 ‘절제운동’라는 위치로 상향됐으며 나아가 그 범위와 영향력을 넓히면서 본격적인 사회운동으로 자리 잡는 단초가 되었다.

이것은 1920년대 실력양성론이 부상하는 가운데, 식민지화 이후 악화된 경제적 상황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의 하나로서 금주금연이 강조되면서 비롯되었다.

## 2) 1920년대 전반 실력양성론의 대두

제1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세계적 조류였던 ‘세계 개조’ 혹은 ‘사회개조’의 분위기에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정의인도’ ‘자유평등’ ‘남녀평등’ 등의 구호 아래 현실세계가 도덕적 가치관의 확립에 따른 이상적 사회로 나아갈 것이라고 기대했다.<sup>60)</sup>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격에 기초하여 사회를 개조하는 데 기독교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基督教은 社會的宗教이요 社會를 求함에는 個人은 自然有益을 맞을 것이라”<sup>61)</sup>는 주장이 영향력을 확대해 가면서 “一般社會에 混在하여 暗黒한 社會로 하여금 光明하게, 汚穢한 罪人으로 하여금 聖潔케”하여 “地上에 天國을 建設”<sup>62)</sup>하는 것이 새로운 교회상으로 제시되었다. “사회를 개조하는 第一步가 實로 종교 그것을 개혁함에 있다 합니다. 심리를 개조하지 않는 사회운동은 무엇이든지 허공에 불과한 것이라 합니다”라고 하여 사회 개조의 중요성과 그 조건으로서 종교의 개혁 그리고 개인의 정신적 가치 변화의 선행을 요구하고 교회가 스스로 정책을 개혁하여 사회진화에 선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sup>63)</sup>

59) 『朝鮮예수敎長老會總會 第3回 會錄』, 1914.; 『朝鮮예수敎長老會總會 第9回 會錄』, 1920.

60) 이대위, 「청년과 사회」 『청년』, 1921년 3월.; 박제호, 「戰後思想의 추세와 그 根底的 정신」 『청년』, 1922년 4월.

61) 一記者, 「基督化와 半島敎會의 責任」 『청년』 3권 7호, 1923년 7·8월, pp. 38~43.

62) 金鎮憲, 「時代의 進歩와 敎會의 覺悟」 『청년』, 1922년 3월, p. 17.

63) 李大偉, 「나의 理想하는 바 民族의 敎會」 『青年』, 1923년 6월.; 李大偉, 「人類社會를 改造하는 根本的 方針」 『청년』, 1924년 1월.

이는 민족주의 세력을 대표했던 『동아일보』가 아시아가 서구열강의 침략으로부터 해방되어 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을 기대하며,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민족자결주의를 표방한 미국이 이를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듯이 당시 민족주의계의 전반적인 기대와 판단이었다.<sup>64)</sup>

그런데, 파리강화회의, 국제연맹의 결성과정 등에서 ‘정의’, ‘인도’, ‘개조’가 결국엔 모두 이상적인 구호였을 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조선의 물리적 힘과 조직이 부족함을 인식한 민족주의 계열은 실력 양성이 독립의 우선적 조건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正義人道’의 실현도 ‘실제세력’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었고, 그것이 없는 ‘정의’나 ‘인도’는 무력할 따름이었다. 세계개조의 이상적 분위기에 들떴다가 결국 ‘힘’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부르주아민족주의 계열은 1920년 이후 경제적 기반 확립과 사회 교화를 통한 조직화를 꾀하며 실력양성을 도모하기에 이른다. 이전의 정치운동노선에서 경제운동 노선으로 그 운동방향을 선회하였던 것이다. 이에 1920년대 전반기에는 물산장려운동, 후반은 협동조합운동이 활기를 띠게 된다.<sup>65)</sup>

“문화운동의 골자는 실력양성이며 실력양성 중에서 현대문명의 기초되는 자본주의적 경제력의 발달이 主眼이라”<sup>66)</sup>든가, “금일 吾人의 문화운동은 먼저 산업으로서 기초를 삼는 것이 가장 절실”<sup>67)</sup>하다는 등의 언설은 경제적 실력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무력전쟁의 시대’가 가고 대신 ‘경제적 전쟁, 문화적 전쟁의 시대’가 온다고 판단한 조선 지식인들은 ‘경제적 문화적 측면에서의 실력’을 기를 것을 주장하였다.<sup>68)</sup> “경제는 사회의 기초이며 인생의 제일 조건이고 문화 향상의 근본 토대”<sup>69)</sup>라는 진단 아래, “정치는 경제의 형식이고 경제는 정치의 실질이라”<sup>70)</sup>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눈에 보이는 경제력의 향상 및 성과를 추구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1920년대 초반 서울을 시작으로 전개된 물산장려운동은 실력양성운동의 가장 선구적이고 대표적인 예이다. 물산장려운동은 내부적으로 다양한 노선이 존재하였지만, 전반적으로 실력양성론에 근거하여 추진된 자본주의 경제건설 혹은 자본축적 운동이었다. 물산장려운동은 기술 집적을 위한 교육운동, 구매욕 창출과 자본축적을 위한 저축, 생활개선운동과 함께 경제적 실력양성운동으로서 서로 연계하여

64) 「正義와 人道를 爲하야 亞細亞를 解放하라」 『동아일보』, 1920년 8월 26일.

65) 이태훈, 「1920년대 전반기 일제의 ‘문화정치’와 부르주아 정치세력의 대응」 『역사와현실』 47, 2003.; 오미일, 「1920년대 부르주아민족주의계열의 협동조합론」 『역사학보』 169, 2001.

66) 「激變又激變하는 최근의 朝鮮人心」 『개벽』 37, 1923년 7월.

67) 梧村, 「물산장려에 관하야(1)」 『동아일보』, 1923년 3월 4일.

68) 필자미상, 「鷄鳴而起하야」 『개벽』 7호, 1921년 1월. pp. 4-5.

69) 「사설:경제적 각성을 促하노라- 금년에 결행할 강령」 『동아일보』, 1922년 1월 4일.

70) 「사설:정치와 경제-생산에 着意」 『동아일보』, 1922년 8월 17일.

나타났다.<sup>71)</sup>

기독교계도 이러한 인식과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부응하였다.

“大戰이후에 과학문명의 실패를 지적하여 온 세계는 새로운 生의 원리로 正義人道를 크게 제창하고 선전하여왔다. 自己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러나 正義人道는 실제 세력을 産出기 하여야 할 正義人道이다. 그리하여 正義人道가 실현되려면 實際勢力으로 더 부러 나아가야만 할 것이다. 正義人道는 예컨대 魂이요 실제적 세력은 體이다. 그리고 지금은 세월이 지남을 따라 정의와 인도만 云云함은 점차로 무기력한 것 같다”<sup>72)</sup>

세계열강의 군비축소가 모두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전쟁실력의 회복’에 분주하여 세계는 결국 ‘실력자의 천하’가 될 것이라는 분석에 따라 기독교계도 다양한 실력양성의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sup>73)</sup> 특히 예수가 세상을 구하려 할 때 먼저 그 자신이 목수가 되어 ‘노동사업’에 착수하였다는 점을 예로 들면서 실질적 사업을 전개하면서 자아의 실력부터 양성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sup>74)</sup>

이러한 때, 전국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물산장려운동과 소비절약 차원에서 촉발된 금주금연회 조직은 절제운동이 본격화 하는 하나의 계기로 작용하였다. 1919년 선교부에서 사회복지사업위원회를 조직하고, 1920년에는 지방 YMCA를 중심으로 금주회 등이 신설됐으나 초기에는 그 활동이 미미했다.<sup>75)</sup> 1922년부터 물산장려운동이 크게 일어나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금주회가 전국에 조직되고 점차 본격적인 절제운동이 시작되었다.

1920년대 들어와 일제의 정책이 이른바 문화통치로 바뀌며 언론·결사의 자유가 부분적으로 보장되자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사회단체들이 속속 조직되기에 이르렀다.

---

71) 물산장려운동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가 참고된다. 박찬승, 「일제하 ‘실력양성론’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0.; 윤해동, 「일제하 물산장려운동의 배경과 그 이념」, 『한국사론』 27, 1992.; 강영심, 1920년대 조선물산장려운동의 전개와 성격, 국사관논총47, 1993.; 오미일, 「1910-1920년대 평양지역 민족운동과 조선인 자본가층」 『역사비평』 28, 1995.; 유시현, 「나경석의 ‘생산증식’론과 물산장려운동」 『역사문제연구』 2, 1997.

72) 신흥우, 「우리의 活路」 『청년』, 1927년 10월.

73) 「세계사조-세계는 실력의 경쟁」 『청년』, 1922년 11월.

74) D.G.L.生, 「社會改造와 基督教」 『청년』, 1923년 4월.

75) 「朝鮮禁酒會의 講演」 『매일신보』, 1920년 4월 19일.

《표 2》 1920년대 초 각 사회운동단체의 조직현황

년 도	정 치 사 상	노 동	청 년 회	종 교 단 체 청 년 회	유 사 종 교	소 작 인 회	학 사	산 업	위 생	금 주	수 양	사 교	부 인 회	구 매 회 、 저 축 회	기 타
1920	11	33	251	98	345	0	19	83	4	46	25	1	12	16	24
1921	19	90	446	226	1,396	3	64	189	1	71	126	201	15	17	71
1922	19	81	488	271	1,245	23	114	195	1	75	84	146	29	20	185

「朝鮮人團體調査比較表」 『朝鮮治安狀況』, 1922.

이들 단체는 3·1운동이 실패로 끝나자 실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청년회와 수양회, 교육회 등이 주축을 이루었다. 이러한 가운데 금주회도 전국에서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나기 시작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방법으로 소비절약과 조선물산장려운동이 전개되면서, 절약의 한 가지 방법으로서 금주금연이 장려되었기 때문이다. 전국각지를 휩쓰는 금주금연과 물산장려의 열풍은 동리마다 금주금연회를 조직하고 토산장려를 결의하는 붐을 일으켰다. 이러한 금주회의 소식은 『동아일보』에 1921년에 15건, 1922년에 45건, 1923년에 이르러서는 무려 714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sup>76)</sup>

1923년 3월 14일 『기독신보』는 금주금연운동이 일어난 곳이 150여 처가 넘고 있다는 보도 아래 “근래에 회불과 같이 타오는 금주금연운동과 같은 것은 특별히 물질로 당하는 공박이 가장 많은 우리들에게 당연히 일어날 사업인 동시에 또한 우리의 생활을 좌우할 만큼 중대한 운동이라”고 평하고 “이 운동의 배후에 선 각 지방 청년단체 그중에서도 그리스도교청년단체에 많은 부탁을 보내고 싶다”고 하여 금주운동에 기독교인들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sup>77)</sup>

즉, 절제운동은 1920년대 초반 당시 사회 일반의 실력양성운동의 하나로 금주금연운동이 전개되면서 탄력을 받았고, 어려운 경제적 형편을 금주금연을 통해 조금이나마 개선해보고자 하는 열의가 금주금연운동에서 더욱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물론 음주, 흡연, 축첩의 근절은 개신교 수용 이후 신자라면 당연히 지켜야할 도리로 여겨졌고, 이의 실행여부에 따라 세례의 가부가 결정되기도 했다. 이처럼 주석

76) 一記者, 「벌서 一百四十同盟」, 『開闢』, 1923년 3월.; 「현대조선의 2대 풍조」 『기독신보』, 1923년 1월 31일.

77) 「遼遠의 火와 마치니러나는 全國의 禁酒煙운동」 『기독신보』, 1923년 3월 14일.

의 삼가와 절제하는 삶은 선교사들이 권유하고 조선인 신자들이 수용한 규범이자 다짐이었다. 그런데, 개인적 실행의 차원을 떠나 본격적인 ‘운동’으로 전개된 것은 1920년대 들어와서이다. 더불어 기독교계는 여기에 애초 절제운동이 갖고 있던 영적 의미를 부각시키며 청년운동이 취할 사업의 하나로서 이를 적극 추진하였던 것이다.

이렇듯, 초기 사회개조의 분위기와 3·1운동 이후 실력양성론의 고조로 기독교의 대사회적 역할에 대한 내부적 인식과 외부로부터의 요구가 비등해지는 가운데, 이를 더욱 부추긴 것은 반기독교운동이었다. 구한말 이후 근대문화의 선구자로 자타가 인정했던 기독교의 지위 및 역할은 더 이상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더 나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사상 및 조직으로 무장한 단체들의 도전을 받게 되었다. 특히, 현실사회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무관심한 목회자들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사회주의사상이 지식인사회에 급속도로 퍼져나가면서 반종교운동이 대두하였다.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정신과 물질의 분리를 강조하면서 세상의 것을 부정하고 천국만 생각하게 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한다는 것이 비난의 요지였다.<sup>78)</sup>

사회주의자들은 “종교야말로 강자의 약자를 정복하는 평화의 무기이오 강자의 약자를 마취케 하는 유일한 수단물”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하면서 “그들의 정복욕과 승리욕을 채우기에는 오히려 부족하여 최후의 수단으로 자선병원과 학교를 시설하고 교육의 마취제와 약병의 시혜적 공물로서 민중의 심리를 매수하기에 열중한다”라고 하여 기독교계에서 실시한 근대적 시설 및 의료, 교육 활동을 모두 자본주의적 야욕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폄하하였다.<sup>79)</sup> 또한 배후의 금력과 군사력을 배경으로 미국식 자본주의와 그리스도의 미신과 허위를 선전한다고 비판하고,<sup>80)</sup> 기독교인 가운데 보수적이지 아닌 사람이 없다면서 불신자를 ‘이방인’으로 부르는 기독교의 편협함을 조소하며 “종교의 사회화를 좀 계획하라”고 일침을 가했다.<sup>81)</sup>

이러한 반기독교운동에 대해 기독교계의 반응은 무시로 일관하거나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는 두 가지로 나타났다. 개인적 영성생활을 중시하는 측에서는 별로 대응하지 않았고, 일련의 반기독교적 주장에 대해 기독교가 오히려 사회개혁에 적극적이라는 반론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미 위생문제 노동운동 여성운동 등에 오히려 기독교계가 사회보다 먼저 주의를 기울여 왔다는 것이었다.

78) 「朝鮮基督教의 覺醒을 促하노라」 『동아일보』, 1923년 5월 19일.; 「時代錯誤의 見解를 克服하라」 『동아일보』, 1924년 4월 1일.

79) 裴成龍, 「反宗教運動의 意義」 『개벽』, 1925년 11월.

80) 朴憲永, 「歷史上으로 본 基督教의 內面」 『개벽』, 1925년 11월.

81) 「平壤雜觀」 『新民』, 1925년 10월.



“現代社會에 天主의 存在를 否認하며 教會는 寄生物이라 稱하며 宗教는 迷信이라고 嘲笑하는 이가 不少하다 然이나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辯論하여서는 別로 有益이 업슬 터이고 教會는 神靈上 뿐아니라 物質上으로도 人類의 恩人인것을 實地上으로 現出하는 것이 有力할줄안다 그뿐아니라 今日 朝鮮民族의 生活相態가 社會事業을 요구한다(중략) 社會에서는 衛生運動 勞動運動 小作人運動 少年運動 女子解放運動등의 운동이 每日 新聞紙上에 報道된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 耶蘇敎에서는 발서 討議한것인대 社會에서는 그런 問題가 教會에는 關係가 업는줄안다”<sup>82)</sup>

또, 사회주의자들이 기독교가 자본주의적이고 계급적이라는 비판에 대해 예수가 가난한 자에게 가진 것을 모두 팔아 나눠주라 했던 것을 인용하면서 비자본주의임을, 하나님 안에서 모두 형제자매라는 것을 들어 비계급적임을 역설하기도 하였다.<sup>83)</sup>

반기독교운동을 통해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았던 입장에서는 “반기독교 운동이 있던 업던 오늘의 기독교는 변해야 한다. 현대의 기독교는 반성해야 한다”는 자성문을 제기하며 민중을 위해, 무산계급을 위해 교회가 존재해야 한다고 하여 그러한 생각이 점차 설득력을 얻어갔다. 종교는 사회를 떠나서 성립될 수 없으므로 사회적 생활에 종교를 활용하고 종교의 가치를 완전히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 었다.<sup>84)</sup>

救靈운동에 머물렀던 그동안의 활동에 대한 반성은 기독교의 사회적 사명을 환기시키며 교회의 역할에 대한 의식을 더욱 배가시켰다.

“사회봉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수용하는 것이다. 주께서 세상에 오시어서 인류에게 대하여 선언하신 말씀은 「주의 성신이 내게 임하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사로잡힌 자를 다시 놓아주고 눈먼자를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복된 해를 전파하게 하셨다」고 웨치셨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를 온전히 실천하시어서 십자가까지 이름을 우리는 잘안다. 그런즉 그리스도와 같이 사회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 속죄하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중략)

그런즉 우리의 사회는 어떠한가 이것을 살피어 볼때에 눈물겨운 문제가 하나 둘이 아니다. 예를 들건대 소위 자본가와 노동자와 사이에 충돌되는 계급투쟁 술 공창 결혼 과이혼 유년노동 무식 문맹 범죄 빈궁 미신전장들이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교인으로서 취할 태도는 그리스도와 합동하여 하나가 되기를 원할 것과 그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밟기 위하여는 주께서 가르치신 사회문제를 성경을 읽

82) 梁柱三, 「今後的 朝鮮耶蘇敎」 『기독신보』, 1925년 12월 31일.

83) 「反基督教運動에 鑑하여 우리敎人의 自省을 促함」 『기독신보』, 1926년 1월 3일.

84) 申興雨, 「反基督教運動에 對하여」 『청년』 1925년 11월.; 洪秉善, 「社會生活과 宗教」 『청년』, 1925년 9월.

고 기도하는 중에 찾아야 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사회문제를 배우고 익히며 연구해야 그리스도의 사회훈에 비치어 자신 먼저 실현하여야 하겠다.”<sup>85)</sup>

‘사회의식’, ‘사회봉사’라는 말이 강조되었고, 예수와 같이 사회를 위해 목숨까지 바쳐 일하는 것이 사명이라 생각되었다. 이렇듯 교회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이 재확인되고 사회참여가 촉구되면서, ‘금주운동 공창폐지운동 문맹타파운동 협동운동 조합운동 이런 것들을 합동하여’ 수행할 것이 요구되었다.

기독교의 정신 아래에서 선의 승리를 확신하고 ‘완전’에 귀결될 것을 믿으며 사회개조의 당위성을 역설하는 가운데,<sup>86)</sup> 사회에 봉사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사회문제 해결이 그리스도교의 사명이라고 보아 사회운동에 매진할 것이 촉구되었다.<sup>87)</sup>

이러한 문제의식은 절제운동을 “조선의 急務”로 인식하면서 기독교 사회운동으로 추진하는 배경이 되었다.<sup>88)</sup> 기독교인으로 갖춰야 할 절제적 태도의 한 가지로서 교회 안에서 권면되던 금주·금연은 경제적 형편이 점점 악화되고 반기독교운동에 자극을 받게 되면서 보다 조직적인 운동으로서 교회밖으로 까지 확장되었고 그것은 민족경제를 살리는 한 방편으로 인식되었다.<sup>89)</sup>

기독교인들은 교회가 조선인의 일상생활의 안전과 향상에 도움이 있어야 진정한 기독교회로서 가치를 갖는다고 보고, 현재 경제적 파탄을 당한 조선에서는 그 어떤 신학적 이론이나 학설보다 경제생활의 구체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는 교회가 인류의 복리향상에 관계되는 모든 사업을 조장하고 실행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sup>90)</sup> 당시 조선은 “비상한 문제가 많은 비상한 시대”이니 만큼, 시대에 적응할 교회가 되려면 예수가 복음을 전할 때 떡과 생선을 주었던 것처럼 그를 본받아 조선에서 군중을 自助케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였다.<sup>91)</sup>

기독교가 세상을 구원하려는 포부와 이상을 가진 종교라면 세상문제에 적극적인

85) 「사실: 敎會와 社會運動」 『기독신보』, 1931년 12월 9일.

86) 金俊玉, 「社會에 對한 態度」 『신학세계』, 1930년 11월.

87) 「사실: 基督教과 社會問題」 『신학세계』, 12권 6호, 1927년 11월.

88) 「사실: 조선의 急務인 節制運動(1)」 『기독신보』, 1924년 5월 14일.

89) 「현대조선의 2대 風潮」 『기독신보』 1923년 1월 31일.; 「遼遠의 火ヲ치 니러나는 全國 禁酒煙運動」 『기독신보』, 1923년 3월 14일.; 손메레, 「안전훈 상황」 『기독신보』, 1926년 12월.; 「이래도 술을 마시렵니까?」 『기독신보』, 1927년 2월 9일.; 「사실: 禁酒號發行에 際하여」 『기독신보』, 1928년 1월 11일.; 「朝鮮에서 禁酒할 理由」 『기독신보』, 1928년 1월 11일.; 신형숙, 「술과 가뉘」 『기독신보』, 1929년 1월 16일.; 류형숙, 「우리의 경제력과 술」 『기독신보』, 1928년 6월 27일.; 李有喜, 「우리의 가뉘와 술」, 『기독신보』, 1928년 10월 10일.

90) 邊成玉 「基督教과 現實社會」 『신학세계』 12권 3호, 1927년 6월.

91) 『예수교미감교회 조선연회록』, 1925년.

관심을 갖고 개입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목하 조선은 경제적으로 파산을 당호여 日復日異域을 향호야 정치업시 가는 자가 그 통계를 아지 못할 이만큼 만흔 것이 사실이 아닌가 그러호대 날마다 늘어가는 것은 양 조가 음주점이며 일반을 통호야 생산보다 소비가 만호며 소수유산자는 무산대중을 小毫도 고려치 아니할 쯔만 아니라 其子弟는 천금을 앗기지 아니하고 낭비홀지라도 그냥 상 임호되 사회사업을 위호야는 일전을 앗기며 노동자는 땀을 흘려가며 10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고도 최저의 임금을 밋아 능히 생활을 유지호지 못호되 동정호는 자가 업스며 남북만주를 향호야 가는 자에게는 보호호는 자가 업도다 아 우리는 육적구원에도 착안 호여야호겟다”<sup>92)</sup>

육적 구원 즉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건설적 사업에 착수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인격에 동화된 자로서 사회를 그리스도화 하는 최종목표를 위해 노력해야 할 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기독교인들은 그 동안 경제방면, 즉 실생활을 등한시 하여 현재 역경을 당하게 되었다고 분석하고, 이 방면에 몰두해야 하는 정당성을 성경에서 찾았다.

“우리네 敎會에서 그 觀念에 눈이 어두엇슴이 오날의 苦境을 當하게 됨은 다시 辨明할 餘地가 업다. 勿論 예수 當時에 “富者는 天國에 들어가기 어렵은 것이 駱駝가 바늘구멍으로 나가기보다 어렵다”고 金富者를 非難하얏다. 그러나 이는 當時 資本家들의 過度한 吝嗇을 歎息한 卽 말하자면 境遇에 對한 말삼이며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한 말은 돈에 종이 되지 말나 함이오 決코 金力은 업서도 憚란다는 말은 아니다. (중략) 내 밋기는 “富者는 天國에 들어갈 수 업다”고 가라친 예수가 今日 朝鮮에 왔섯던들 “너희는 産業方面에 努力하라”는 말을 반드시 하엿스리라고 한다.”<sup>93)</sup>

‘산업방면’에 힘쓰는 것을 예수의 가르침으로까지 받아들이는 가운데 당시 기독교가 경제방면을 등한시 했던 점을 비판하고 경제적 토대위에 교회를 건설할 것을 설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렇듯, 절제운동은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시키는 가운데, 경제적 향상과 정신적 각성을 동시에 꾀하였다는 점에서 민족주의계 일반에서 유행하였던 실력양성운동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기독교인들이 실력양성을 주장하면서 각종의 경제적 문제 해결에 부심하는 가운데 바탕이 된 논리는 ‘이 땅에 천국건설이 가능하다’는 것으로서 기독교인들의 책임의식을 강조한 개조론이었다.<sup>94)</sup> 때문에, 경제적 실질적

92) 이순기 「사회문제와 기독교」 『기독신보』, 1927년 7월 27일.

93) 曹晩植, 「基督教와 實生活」 『청년』, 1927년 9월.

94) 신흥우, 「인간문제」 『청년』, 1925년 3월.

실력양성에 매진하는 가운데에도 견지한 것은 기독교적 도덕과 윤리, 정의와 인도에 대한 믿음과 그에 기반한 사회개조였다.

### 3) 일제 식민지정책의 피해

토지조사사업으로부터 시작된 일제의 식민지 수탈정책은 1920년대 접어들면서 식민지적 사회경제 체제로 정착되었다. 일본인 지주를 포함하여 식민지의 지주자본이 확실한 토대를 잡게 되면서 식민지 사회경제의 모순이 비롯되기 시작하였다. 지주제가 강화되면서 18세기 이후 농민전쟁을 통해 경작권과 地代의 경감을 획득했던 농민들은 보통 생산물의 50-70%에 이르는 고율의 소작료와 공과금과 비료대 등 각종의 부담, 소작기간 단축 등으로 소작지위를 위협받았다. 또한 일본의 심각한 식량부족을 조선미 수탈로 해결하고 일제 금융자본·독점자본의 조선농촌 지배를 지원함으로써 이식자본주의 토대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었던 산미증식계획은 조선농민을 파산으로 몰아갔다. 산미증산계획하에서 과다한 수리조합비 등 각종 개량사업의 제반 비용이 농민들에게 전가되고 지주들의 자본증식을 위한 고리대에 시달리면서 농민들은 생존마저 위태로운 상황이었다.<sup>95)</sup>

더구나 1920년대 말부터 시작된 공황이라는 경기변동은 농가경제에 극심한 타격을 주었다. 농산물 가격은 유래 없는 폭락을 거듭하고 이에 비해 주요 농가용 공산품 가격은 적은 폭의 하락에 그치게 되자 농공간 부등가 교환이 심각해지면서 농가 경제의 파탄을 초래하였다. 1932년 당시 농가 1호당 부채는 178원이 넘었는데, 이는 당시 일본의 1호당 부채보다 71원이나 많은 액수였다.<sup>96)</sup> “1800여만의 조선인 농민은 무害로 수확은 격감하고 박람회로 부채는 증가하고 해금영향으로 생산물의 가격은 폭락을 면치 못하는 지경에 빠졌다. 그리하여 그들은 쑥, 떡갈 같은 초근목피로조차 연명할 길이 없이 점차로 남부여대하고 혹은 일본으로 또 혹은 남북만주 및 시베리아로 향하여 유리”하는 형편이 심화되고 도시 빈민이 속출하자, 소비절약과 농촌구제가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sup>97)</sup>

생존에 필요한 것 이외에는 우선적으로 절약해야 하는 상황은 술, 담배 등의 기호품부터 줄이자는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더구나 기존에 자가용으로 주조되고 배제되던 술과 담배가 일제 강점 이후 주세, 연초세가 부가되는 소비품이 되면서 조선인들이 느끼는 체감 부담은 막대했다.

강점 이후 일제는 재정·금융기구의 ‘정리’ ‘조선토지조사사업’ ‘조선회사령’을 통

95) 강만길, 『일제시대 빈민생활사 연구』, 창작과비평사, 1987.; 김용섭, 『한국근현대농업사연구』, 일조각, 1992.

96) 朝鮮總督府農林局, 『朝鮮における小に關する參考事項摘要』, 1932, p.24.

97) 「농민아 너 같길이 어디냐」 『동아일보』, 1929년 12월 21일.

한 조선인 대자본의 통제 등을 통해 각종 식민지 기구와 제도를 조선에 확립시켜왔다. 1910년부터 1918년까지 8년에 걸쳐 실시된 ‘조선토지조사사업’은 조선에 대한 일제의 효율적 수탈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했다. 토지조사사업은 일본 자본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등기제도를 확립하고, 토지소유자인 지주에게 지세부담을 확인·의무화시킴으로써 지세는 조세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세원으로 자리매김했다.

일제는 지세제도를 정비하는 한편으로 끊임없는 稅源開發을 통해 식민지 재정을 확대하고자 했는데, 주세와 연초세의 도입은 그 일환으로 시작된 것이었다. 주세, 연초세는 1920년대 이후 1930년대까지 식민지 재정의 주요기반으로서 작용할 만큼 그 비중이 컸다.

‘합방’ 이전부터 자세하게 세원을 조사하던 통감부는 직물업, 고무공업과 함께 조선인의 대표적 업종이었던 주조업과 연초업 가운데 영세업체를 정리·축출하고 과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자본으로 흡수·통합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1909년 주세부과와 주조 면허제 시행을 주내용으로 하는 ‘주세법’을 발포하였다. 기존에 없는 세목이 일제 강점 후 신설되었기 때문에 세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조선인들이 느끼는 과세체감도는 대단히 컸다. 이어서 1916년에는 주세령을 발포하였는데, ①주류제조장별 최저생산 규모 설정, ②조선주 이외 자가용주의 제조금지 및 고율 과세에 의한 자기용주 제조면허제 ③‘신고’에서 ‘사정’으로 강화된 과세 기초단위인 생산량 결정 ④輸移入 酒稅 신설 등을 그 내용으로 했다. 조선 재래의 자가주조 금지와 주조업의 기업화·집약화, 수입주에 대한 세액 부과 모두 안정적인 세액 확보를 위한 정책이었다.<sup>98)</sup>

세율인상과 생산증가로 주세액이 급증하여 전체 조세액에서 주세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표 3》과 같다.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10년에 1.8%에 불과하던 주세는 주세령 발포 이후 4.7%로 급증하면서 1918년에는 5.9%를 차지했다. 토지조사사업이 마무리 되는 1915-1918년 사이에 주세 증가율(3.3배)은 지세 증가율(1.2배)는 물론 조세총액 증가율(1.7배)보다도 월등했다.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주세는 조세의 20%를 차지하면서 재정의 중요 부분을 담당했다. 조선총독부의 전체 세입상에서 보면 0.007%에서 7%내외의 비중으로 급증하였다.<sup>99)</sup>

98) 정태현, 「1910년대 일제의 식민지 자본주의 체제 구축 과정」 『아시아문화』 15,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00, pp. 18-23.

99) 이승연, 「1905년-1930년대초 일제의 酒造業정책과 조선 주조업의 전개」 『한국사론』 32, 서울대, 1994. pp. 77-96.; 정태현, 「日帝下 酒稅制度의 施行 및 酒造業의 集積 集中 過程에 대한 研究」 『국사관논총』 40, 1992, pp. 183-190.

《표 3》 조세수입에 대한 주세의 비중

연도	조세액(萬円)	주세액(萬円)	조세 중 주세 비율(%)
1910	906.2	16.3	1.8
1911	1,244.1	26.0	2.1
1912	1,336.2	38.4	2.9
1913	1,390.4	44.5	3.2
1914	1,668.4	47.7	2.9
1915	1,749.4	51.5	2.9
1916	1,887.6	88.1	4.7
1917	2,268.0	147.3	6.5
1918	2,918.4	170.8	5.9
1919	3,852.0	288.7	7.5
1920	3,484.0	376.8	10.8
1921	3,689.2	515.4	12.5
1922	4,252.5	850.5	17.3
1923	3,439.3	775.0	19.6
1924	3,739.6	833.5	18.7
1925	3,862.9	842.4	17.5
1926	4,194.8	946.0	17.3
1927	4,322.5	1,122.3	19.5
1928	4,463.3	1,286.0	22.3
1929	4,598.9	1,323.0	21.4
1930	4,347.8	1,232.2	20.2
1931	4,039.3	1,124.9	17.5
1932	4,116.5	1,136.6	19.2
1933	4,762.5	1,352.9	20.0
1934	5,618.8	1,658.4	22.1
1935	6,480.0	1,959.0	22.8
1936	7,539.2	2,175.6	21.7
1937	8,641.5	2,406.7	20.6
1938	11,448.8	2,649.2	17.4
1939	15,023.1	2,805.9	14.0

『조선총독부통계연보』 각 년도 참고

일제는 담배에 대해서도 1909년 연초세법을 공포하면서부터 연초재배세와 판매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연초제조세는 세금 징수의 측면뿐만 아니라 조선의 연초제조업에 일본 자본이 침입해 들어오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이미 일본은 1896년 엽연초 전매를 시작하고 1904년 권연초까지 전매하면서 일본 연초의 조선으로의 수출을 적극 권장했다. 1905년에는 일본연초수출주식회사를 만

들고, 조선 각지에 대리점을 설치하여 관제 일본연초를 싼 값으로 조선인에게 판매하면서 판로를 넓혀갔다. 연초제조 분야에서도 1900년 이후부터 일본인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에 의한 ‘동양연초회사’, ‘일한연초회사’ 등이 대자본으로 설립되면서 1908년 지권연초에서 일본인의 것이 90%를 차지할 정도였다.

일제는 1914년 연초세령을 발표하여 제조연초에 소비세를 부과·징수하였다. 연초소비세는 최초의 간접세로서 1918년 소매정가의 25/100, 1920년에는 35/100으로 차츰 그 세율을 높여가면서 1918년 조세액의 8.9%, 1920에는 조세액의 18%를 차지하여 지세 다음의 비중을 차지했다.<sup>100)</sup>

이렇듯, 고율의 소비세에 대하여 조선인들의 항의가 거세어지자, 일제는 1921년 7월 연초전매제도를 실시하여 총독부 재정을 확보하려 하였다. 세원확보를 통해 식민지 재정을 확장시키려 했던 일제는 재배와 판매이익이 많은 품목에 대하여 통감부시기부터 전매제로 전화시켜 오던 중이었다. 1908년 홍삼전매법 실시를 비롯하여 이후 연초전매수익은 총독부 재정의 상당부분을 차지했다. 조선총독부는 전매국에 연초판매관서를 두고 도소매인을 지정하여 유통망을 정비하고 조선인에게 전매연초를 강권하여 판매량을 증가시키면서 연초매출액은 전매 수입총액의 80%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서 전매수입금을 포함한 조선총독부의 조세수입은 크게 증가하였다.<sup>101)</sup>

---

100) 이영학, 「1910년대 일제의 연초정책과 조선인의 대응」 『한국사연구』 65, 1989, pp. 132-155.

101) 이영학, 「담배의 사회사」 『역사비평』 12, 1991, pp. 127-129.

《표 4》 조세수입에 대한 연초세의 비중

연도	조세액(萬円)	연초세액(萬円)	조세 중 연초세 비율(%)	전매수익액(萬円)
1910	906.2	25.6	2.8	
1911	1,244.1	29.2	2.3	
1912	1,336.2	34.6	2.6	
1913	1,390.4	38.0	2.7	
1914	1,668.4	74.0	4.4	
1915	1,749.4	95.3	5.4	
1916	1,887.6	98.0	5.2	
1917	2,268.0	120.8	5.3	
1918	2,918.4	258.5	8.9	
1919	3,852.0	484.9	12.6	
1920	3,484.0	626.9	18.0	
1921	3,689.2	397.2	7.2	424.8
1922	4,252.5	46.9	1.0	652.6
1923	3,439.3	41.9	1.1	518.0
1924	3,739.6	39.1	0.9	716.1
1925	3,862.9	36.0	0.7	946.7
1926	4,194.8	27.8	0.5	1,272.9
1927	4,322.5	39.4	0.7	1,435.1
1928	4,463.3	35.5	0.6	1,315.3
1929	4,598.9	25.4	0.4	1,571.1
1930	4,347.8			1,758.0
1931	4,039.3			2,387.1
1932	4,116.5			1,789.3
1933	4,762.5			1,999.8
1934	5,618.8			1,885.1
1935	6,480.0			2,102.2
1936	7,539.2			2,486.8
1937	8,641.5			3,068.6
1938	11,448.8			3,795.5
1939	15,023.1			5,048.5

『조선총독부통계연보』 각 년도 참고

높은 주세·연초세율에도 불구하고 《표 4》에서 보이듯 주류·연초 소비량은 해마다 증가하는 형편이었다.

한편, 일제의 아편정책은 식민지 재정의 또 하나의 충당원이자 조선민족을 정신적으로 파괴시키는 도구로 작용하였다. ‘병합’ 후 조선총독부는 1912년 조선형사령을 발포하여 아편에 관한 규제를 엄격히 하고 중독자 구제·치료방법을 강구하였다.



1914년에는 일반흡연자에 대해서는 절대금지, 중독자의 경우에는 반강제적인 치료를 하였는데, 이는 국제 사회의 비난을 피하고, 또한 아편이 식민 지배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1차 대전 발발로 외국으로부터 필요한 아편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자 가격 폭등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일제는 자국의 세력권내에서 아편재배 여건에 부합되는 지역으로 조선을 주목하였다. 여기에는 아편재배에 알맞은 조선의 지질과 기후, 토지와 저렴한 임금, 아편소비자가 거의 없다는 등의 조건이 작용하였다.

이를 토대로 일제는 1919년부터 조선에서 일련의 아편관련법규를 공포하고 아편정책을 추진하였다. 1919년 아편단속령 및 동시행규칙을 발포하여 허가받은 자 이외의 재배 엄금, 자유 매매 금지, 수납한 아편의 지정된 제약업자에게 불하 등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아편재배를 통한 마약생산은 약품의 자급책 이상의 목적이 숨겨져 있었다. 그것은 조선은 물론 만주, 남양, 중국에까지 모르핀, 헤로인을 공급함으로써 경제적 기여를 기대하고, 조선을 하나의 대규모 마약공급지로 삼고자하였던 것이었다.

당시 조선총독부는 민간지정업자에게 생산된 아편을 불하하여 모르핀을 생산하도록 하였는데, 그 생산 및 판매 독점권은 大正제약주식회사에게 있었다. 그런데 1차 대전이 예상외로 일찍 끝나자, 조선내 마약 원료인 아편 생산량은 급속히 감소되기 시작하였다. 전쟁 종결로 수요가 감소된 데다가 값싼 외국산 아편 수입이 재개되면서 가격경쟁에서부터 뒤졌던 것이다. 그 결과 大正제약주식회사는 매년 적자를 누적하게 되는 상황을 아편 밀매를 통해 해결하고자 했다.<sup>102)</sup>

대정주식회사의 밀매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생산된 마약도 수입되면서 조선내 마약중독의 피해가 증가하였다.<sup>103)</sup> 1920년대 조선에는 상당수의 마약중독자가 있었다. 모르핀의 주사 및 복용은 아편 흡입보다 간편하고 값도 저렴했다. 회춘약으로 오인되어 부유층에서 남용되기도 하였고, 식민지 현실의 우울을 달래는 방편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심지어 부녀자들이 아이를 재우고 일을 하기 위해 아편을 사용하는 예가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더했다.<sup>104)</sup>

여기에 조선 내에서 마약관련 처벌이 관대하였던 것이 마약중독자 양산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었다.<sup>105)</sup> 당시 아편흡연에 관한 처벌은 아편연의 수입·제조·판매 혹

102) 박강, 「조선에서의 일본 아편정책」,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0, 1998, pp. 306-321.

103) 「大規模의 몰핀 密賣團 싹틔는 송국」 『중외일보』, 1926년 5월 24일.; 「경관까지 관련된 몰핀 밀매사건」 『중외일보』, 1928년 4월 26일.

104)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활동」 『기독신보』, 1924년 12월 24일.

105) 「사설: 철저히 하지 못한 '모르핀' 취제」 『중외일보』, 1928년 10월 13일.

은 판매 목적으로 이를 소지한 자는 6개월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아편 연을 흡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였다. 이에 비해 모르핀을 판매 수여한 자는 3개월 이하의 금고 또는 5백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정도에 머물렀다. 본질적으로 동일한 물품에 대해 가벼운 형량을 둠으로써 마약이 남용되는 길을 방치한 것이었다. 결국 이러한 관대한 처벌과 마약밀매 상황은 조선내 아편 중독자의 수를 늘려갔다. 1922년 1,570명이었던 모르핀 중독자 수는 1926년 3,000명으로 늘어났고, 1932년에는 4,044명에 이르렀다.<sup>106)</sup>

그런데, 모르핀 중독자 수에 관한 통계는 공식적으로 믿을만한 것이 못되는데, 국제여론의 비난을 염두하고 중독자수를 축소·은폐하려 했기 때문이다. 1920년 당시 신문에 아편중독자가 전남에만 3천 명, 전국적으로 3만 명 정도로 추산되었고,<sup>107)</sup> 한 일본 아편연구가도 1926년 말 조선에서 실제 모르핀 중독자 수는 7만 여명을 헤아린다고 한 것을 보면,<sup>108)</sup> 실제 중독자는 훨씬 더 많았으리라 짐작된다.

이렇듯 일제는 조선을 원료아편의 재배지로서, 모르핀의 소비지로서 재편해 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1929년부터 전매국 관제를 개정하고 아편수납 사무 및 모르핀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전매국 소관으로 환원하여 실질적인 아편전매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식민지 통치 재정 획득의 또 하나의 도구로 삼았다.<sup>109)</sup>

술, 담배, 아편과 함께 사회의 향락적 분위기를 부추긴 것은 성문화였다. 1930년대 들어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농업중심의 ‘은둔의 나라’ 조선은 이제 빠르게 공업화·도시화 되어 가면서 환락적인 소비문화의 확산을 야기시켰다.<sup>110)</sup>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불만 등의 현실에 대한 좌절감은 청년들로 하여금 자포자기적인 향락문화에 빠져들게 하였다. 현실속의 고통을 술, 담배, 아편, 등을 통해 해결하려는 풍조가 만연해 가면서 주류·연초의 소비액은 점점 증가했다. 특히 일제의 공창제 설치와 운영은 사회에 퇴폐적 성문화를 양산시키면서 소위 ‘요리집’, ‘카페’, ‘유곽’은 늘어만 갔다.<sup>111)</sup>

공창제는 국가가 성매매를 공인하는 대신 세금징수 및 성병관리 등의 방법을 통해 성매매를 통제하는 제도이다. 근대국가 건설, 특히 강력한 군대 건설의 이익과 결합해 탄생한 이 제도는 19세기 프랑스를 비롯하여 유럽으로 확산되었다. 공창제는 선진 자본주의의 제국의 식민지 확대 과정에서 식민지에 도입되어 우수한 제국

106) 倉橋正直, 「日本の阿片・モルヒネ政策(その1)」 『近きに在りて』 (1984), 第4號, p. 195.(박강, 앞의 책 p. 318.에서 재인용.)

107) 「阿片은 朝鮮青年界에 해독」 『매일신보』, 1920년 6월 4일.

108) 구라하시 마사나오 지음·박강 옮김, 『아편제국 日本』, 지식산업사, 1999, pp. 166-167.

109) 「몰핀製造는 專賣局의 手로」 『중외일보』, 1929년 3월 5일.

110) T. Stanley, Soltau, *Korea The Hermit Nation and Its Response To Christianity*, 1932,

111) 綠眼鏡, 「카페여금 언파레-드」 『별건곤』, 1931년 11월.; 배의남, 「카페의 위험」 『기독교신보』, 1933년 5월 31일.

주의의 이익을 유지하는 성격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일본에 의해 식민지 조선에도 이식되었다.

일제시기 공창제도는 여성 개인에게 인격적인 모욕을 안기고 사회적으로 인신매매 등의 폐단을 야기시키는 성매매의 일반적인 문제는 물론이려니와, 그 일련의 과정에 국가권력이 조직적으로 관여하면서 식민지 지배정책의 하나로 이용되기도 했다. 더욱이 공창은 전쟁 말기에는 군위안부 동원의 중요한 공급지의 하나로 기능했던 점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성매매만을 목적으로 하는 유곽의 설치는 1876년 개항과 더불어 일본인들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개항지에서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여 시작되었다. 청일전쟁을 계기로 거류지가 확장되고 군인을 비롯한 상인, 건설업자 등의 거류민이 증가함에 따라 일본인 성매매업자에게 조선은 일확천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시장으로 인식되었다. 그들은 앞다투어 국내로 들어와서 성매매업을 시작했다.

1895년 개항장 부산의 일본거류민 수는 4,701명이었다. 이 가운데 상인의 업종별 호수를 살펴보면 전체 1,742戶의 86종의 업종 가운데, 단술장사, 양조업, 술소매, 담배가게, 양주가게가 62호에 이르고 있고, 접대부가 31호에 이르고 있다. 접대부는 단일 업종으로서는 낄품팔이(197), 거간(154), 방물장사(137), 목수(87), 어부(49), 과자점(41)에 이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sup>112)</sup>

이러한 성매매업의 상황은 1902년 부산에 최초의 유곽을 등장시켰다. 이것을 기점으로 전국 주요 도시에 유곽이 형성되었다. 유곽의 등장은 중앙 또는 지방 정부에 의해 성매매행위를 공인받은 公娼의 출현을 의미한다. 공창은 1904년 10월 일본공사관 산하 경성영사관령 제3호에 의해 시작되었다. 서울 소재 일본인 거류민단은 1904-1905년에 현재 중구 목정동에 8,300평의 토지를 확보하여 新町유곽을 만들었다. 1906년 용산에 彌生町유곽, 1908년 대구의 유곽, 목포와 대전에도 1910년 유곽이 생겼다.<sup>113)</sup> 유곽의 설립은 거류민단의 재정에도 도움이 되면서 각지의 민단도 앞다투어 유곽을 설치했다. 통감부는 1908년 9월 「창기단속령」·「기생단속령」을 발포하고, 같은 해 10월 경찰처벌령을 내려 제1조 1항에 밀매음 금지규정을 제정하여 사창을 단속하면서 공창제도를 구체화시켜갔다. 통감부의 기생, 창기 단속은 기생과 창기의 영업을 당국의 허가제로 하여 경시청의 관리 아래에 두는 것이었다. 강점 후 매춘정책은 각 도 경무부가 인계하여 추진하였다. ‘일반의 풍기 긴숙’이라는 의도하에 주로 성병 검사와 사창 단속이 이루어졌다. 1916년 3월 각 도 경찰서장이 지정한 장소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경무총감부령 4호 ‘貸座敷娼妓取締規則’이 제정되고 ‘宿泊營業取締規則’·‘料理店飲食店營業取締規則’·‘藝妓酌婦藝妓置屋營

112) 『日韓通商會報告』 4호, 1895, pp. 86-87.

113) 손정목, 「공창(유곽)이 폐지된 과정」 『도시문제』 37권 402호, 2002.

業取締規則'도 발포되어 성매매와 관련된 숙박소, 요리점, 음식점, 대좌부의 구별과 예기, 작부, 창기의 구분이 명시되면서 공창제는 법적으로 제도화 되었다.<sup>114)</sup>

‘貸座敷娼妓取締規則’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貸座敷引手茶屋娼妓取締規則’(경시청령 제40호, 1896년 7월)과 비슷하다. 건물 구조, 대좌부 영업자의 준수 사항, 경찰서에 신고할 내용, 영업 조합, 유객 명부와 창기와의 대차장부의 작성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 창기에 대해서는 대좌부 내에서만 영업할 것, 유곽 밖 거주나 숙박 및 외출 금지, 허가증과 건강 진단증의 휴대 의무, 전염성 질환에 걸렸을 때의 치료, 임신, 출산시의 규정 등이 정해졌다.

일본의 규정과 달랐던 점은 창기의 하한연령이 17세로서 일본보다 한 살 어리다는 것과 남편이 있는 자의 창기 영업이 금지된 점이다. 또 부칙에서 “조선인 창기의稼業을 목적으로 하는 영업자에 한해서”는 당분간 지정 지역 이외에서의 영업을 허락하고 있다. 일본 국내 및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의 공창제도가 유곽이라는 일정한 지역에 한정해서 실시된 것에 비해, 조선인 창기와 대좌부의 영업지는 지정 지역 즉 유곽 이외의 지역에서도 그 영업이 허락되었다. 이는 조선에 성매매를 만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sup>115)</sup>

또한 총독부는 總監部令 제4호, 제9조를 발포하여 대좌부경영자에게 유객명부 작성을 의무화 함으로써 남성유객들을 감시·감독했다. 경찰서장의 검인이 찍힌 유객명부에는 도착월일시간, 출발월일시간, 인상착의의 특징, 부른 창기의 기명, 유흥비, 주소, 직업, 씨명, 연령을 기록하고 2년간 보존하도록 하였다. 13조에서는 분에 넘치게 낭비하는 자나 거동이 수상한 자는 신속히 신고하도록 하고, 불시 단속을 수시로 하면서 치안유지의 거점으로 이용하였다.<sup>116)</sup> 즉 조선인 업자들을 친일세력으로 육성하여 식민지 지배에 이용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렇듯 공창제는 일본 제국군대의 성병 만연 방지 정책이라는 배경과 함께 조선에서 일본이 지배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그 지배를 강화·확립하는 하나의 장치로서 기능하게 되었다.

공창제도가 정착되면서 접객업부의 수는 점점 늘어났다. 전체 접객업부의 수는 貸座敷娼妓取締規則이 발포되던 1916년 6,018명이던 것이 1942년에는 15,623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대부분 교육받지 못한 가난한 농촌 여성들이 경제적 이유 때문에 스스로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경우도 있었고, 인신매매로 강제적으로 끌려오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이

114) 이상의 경무총감부령은 주석에 앉아서 술을 따르고 기예를 업으로 하는 일본 여인을 ‘예기’라 부르고, 조선 여성으로서 같은 일을 하는 자를 ‘기생’이라 호칭하여 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단속방안을 규정하는 한편, 성매매를 전업으로 하고 대가를 받는 자를 ‘娼妓’라 하여 전자와 엄격히 구별하였다.

115) 야마시다 영애, 「식민지 지배와 공창 제도의 전개」, 『사회와 역사』 51, 1997, pp. 153~165.

116) 宋連玉, 「朝鮮植民地支配において公娼制」 『日本史研究』 371, 1993, p. 63.

들은 열악한 거주 환경과 포주의 학대 속에 살아가면서, 성병을 비롯하여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고, 사회로부터는 배제와 질타를 받고 있었다.

이렇듯 성매매 여성의 열악한 처지를 비롯하여 사회에 성매매가 만연하고 향락적인 문화가 성행했음은 사회모습을 반영하는 지표로 볼 수 있는 광고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일제시기 신문지상에 게재된 광고상품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건강, 약 광고였고, 다음으로 담배, 주류가 뒤를 잇고 있다. 총 574건의 광고 중 건강·약광고가 173건, 30.1%였고, 그 중 상당수는 성병, 부인병에 관련한 것들이 차지하고 있다. 담배·주류가 55건, 9.5%로 그 다음에 위치하고 있다.<sup>117)</sup>

이를 통해서 당시 성병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음과 담배와 술의 소비가 만만치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일제의 정략적인 유포와 아울러 답답한 식민지 현실을 술과 담배를 통해서나마 해소하고자 했던 조선인들의 사정이 반영된 것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때, 절제운동은 술, 담배, 성병이 만연한 사회적 상태를 목도한 기독교인들이 조선기독교절제운동회가 창립취지문을 통해 밝히고 있듯이 “자아의 영원한 인격건설을 위하여 타인의 가련한 생명구제를 위하여 사회의 일반복지증진을 위하여 인류의 공동이상실현을 위하여 진리의 무한한 존귀광영을 위하여” 매진해야 할 사회운동으로서 떠올랐다.<sup>118)</sup>

기독교인의 사명은 “영적에만 국치지안코 육적에도 포함”되는 것이기에 사회운동에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금주와 폐창은 그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일로 규정되었다. 빈궁한 민족에게 매년 9천만원이라는 돈이 음주와 유흥비로 소비되고, 수출보다 수입이 초과되는 무역상태는 ‘자수로 멸망을 초래’하는 일로서 폐지해야 마땅한 일로 간주되었다.<sup>119)</sup>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구습개혁의 대상으로서, 개인적 성결의 방편으로 이해되던 금주·금연, 아편금지, 축첩폐지는 강점 후 식민지 경제현실을 목도하게 되면서 현실적 필요에서 촉발된 본격적인 사회운동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이전에 개인적 수양이나 기독교신자들의 의무로 생각되던 사항이 폭을 넓혀 조직적으로 전개할 운동이 되었던 것이다. 일제가 정략적으로 유포한 술, 담배, 아편이 대량으로 들어오고, 공장제도가 확립되면서 퇴폐문화가 조장되자, 기독교인들이 이에 반대하여 전개한 사회운동이 바로 절제운동이었다.

---

117) 분석대상 신문은 『황성신문』 『제국신문』 『대한매일신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다. 이도원·김인숙, 「근대 신문광고(1886-1949) 내용분석 연구: 근대 소비문화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광고학연구』 15, 2004. pp. 101-107.

118) 「조선기독교 절제운동회 창립」 『기독신보』, 1932년 5월 25일

119) 「사설: 今日의 朝鮮前導者의 使命」 『신학세계』, 1928년 11월.

#### 4) 기독교 여성의 자각과 운동 주체의 성장

개항 이후 근대국가 수립을 위한 국민형성이 중심과제로 떠오르면서 여성은 비로소 ‘국민’의 일원으로 포함되었다. 1890년대의 계몽운동론과 20세기 초의 애국자강운동론에서 남성지식인들은 여성을 어머니, 아내, 주부로 규정하는 새로운 젠더론을 제기했는데, 이는 문명국의 여성이 가정에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남편 일을 돕는 존재이나 조선 여성은 부계·부권 중심의 가족제도 속에서 남성에게 예속된 단순한 가사종사자에 불과하다고 인식한 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20세기에 들어와 여성의 역할은 가정의 총책임자로서 규정되고 강화되었다. 이제 가정생활을 책임지는 주부로 탄생하면서 여성영역의 전문가로서 등장하게 된다. 주부는 한 집안의 중심으로서 합리적이고 위생적인 의식주 생활, 예산 생활, 화목하고 단란한 가족생활을 만들 의무가 있었다. 사회개량·개조의 분위기가 유행하는 가운데, 여성은 가정의 책임자로서 가정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수용되었다.<sup>120)</sup>

“현 조선에 잇서 일세 미만 아동의 사망률이 자못 크다 한다. 幾千의 아동이 정신 及 육체의 불구로 신음한다. 불효자로 인하여 惱心하난 子母가 만타한다. 축첩의 풍이 잇고 賣淫, 怠情도 또한 만타. 금의 그 만흔 自殺은 그 원인이 어대잇슬가. 이러한 모든 악덕의 원인이 불합리한 가정생활에 잇난 것이 아닐가. (중략) 우리난 더 나흔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 남편과 안해의 협동적 노력을 요구한다. 그러나 가정 책임의 팔 구난 안해의 쌍견에 잇난 것이다. 안해된 자난 먼저 자기의 가정적 지위와 권리와 권위와 또한 의미를 知하여야 한다.(중략) 우리는 각 방면에 위대한 여자로서의 일군을 요구한다. 자기 사명의 무엇임을 깨다른 여성 현재 우리의 갈망하는 일반적 목적을 得達하기 위하여 능히 苦樂을 감내하는 힘과 용기가 잇난 여성을 요구한다. 과학, 예술, 법률, 정치 及 철학의 위대한 지도자를 요구한다. 즉 인생 각 방면에 잇서 진보와 발전이 잇기를 요구하는 우리다. 그러한 진보발전에 업지 못할 기초는 무엇일가. 그는 무를 것 업시 훌륭한 가정인 것이다. 우리난 하로밧비 이 기초에 지식을 확실히 깨닷고 수양하여 우리의 가정을 만들고 또한 이로 쫓차 원만한 우리 사회의 성립이 잇기를 바랜다.”<sup>121)</sup>

여기에는 가정학의 등장과 확산이 영향을 미쳤다. 가정학은 가사를 과학적이며 효율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만들어 근대성을 가정에 적용하려는 시도였다. 식품 영양, 위생, 신중한 소비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효율성과 과학성에 가치가 매겨졌다. 서구에서 비롯한 이러한 가정학은 중산층의 세계관을 제도화하는 데 기여

120) 박선미, 『근대 여성, 제국을 거쳐 조선으로 회유하다』, 창비, 2007, pp. 189-204.

121) 金合羅, 「조선의 급무는 가정 교육」 『청년』, 1930년 10월.

하였다.<sup>122)</sup>

근대적 과학적 합리적이라는 가정학의 보급과 도입은 일본유학 여학생들의 귀국 후의 활동과 내한 여선교사들에 의해 전파되면서 조선의 중상층 여성들에게도 내면화되었고, 각종 계몽활동을 통해 확산되었다.

이러한 당시의 인식은 절제운동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절제운동에 여성의 역할이 강조되는 것은 그 운동의 내용과 더불어 가정에서 주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근대적 합리적 가정주부상이 부상하면서 상호 상승 작용으로 나타난 결과였다. 음주, 흡연, 공장과 무절제로부터 가정을 지키는 수호자의 역할이 기대되었다.

더불어 개항 이후 성장한 여성들의 의식의 자각과 조직력이 절제운동이 사회운동화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개항 이전 조선여성은 가부장제의 울타리 안에서 자기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처지에 있었다.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생각에 교육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고, 소수의 양반 부녀자들만이 가정을 이끄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교양교육만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때에 선교사들에 의해 시작된 여성교육은 잠자고 있던 조선 여성들을 일깨우기 시작했다. 선교사들에 의한 여성교육이 제국주의적이고 ‘현모양처’ 양성을 위한 보수적인 이데올로기였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sup>123)</sup>, 실제로 학교를 세워 여학생을 받아들이고, 성경공부 등을 통해 여성교육의 초석을 다진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긍정적 역할이라고 할 것이다. 여성들은 기독교를 통해 남성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영혼의 소유자임을 깨닫게 되었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기 위해 한글을 깨치게 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스스로도 점차 그들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아가 민족의식을 깨우치게 되었다. 이들은 기울어가는 국권의 회복을 위해 국채보상운동에 앞장섰으며 2·8독립선언서를 국내에 잠입시키고 3·1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3·1운동에서 여성 기독교인들의 활약은 그들의 독립운동 역량을 확인시켜 주었고 이후 이들의 정치의식·사회적식은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또한 3·1운동 직후 국내외에서 비밀리에 조직된 ‘대한민국애국부인회’, ‘대한애국부인회’, ‘결백단’ 등에 참여하여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sup>124)</sup>

그러나 일제의 탄압 속에 그 활동이 불가능해지고 ‘개조론’이 대두되는 가운데 민족주의 여성운동이 실력양성운동으로 흐르게 되면서 기독교 여성들의 활동 또한

122) 사라 에번스 지음·조지형 옮김, 『자유를 위한 탄생』,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8. p. 261.

123) 길모어(G.W.Gilmore)는 이화학당의 교육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여학생들의 품격을 도야시켜 현모양처가 되게 하고 친척들과 친지들에게 십자가의 선교사로 만드는 일이다”-Gilmore, George W. *Korea from its Capital: with a Chapter on Missions*. Philadelphia, Presbyterian Board of Publication, 1892, p. 300.

124) 박용옥, 『한국 여성 항일운동사 연구』, 지식산업사, 1996.

사회·문화운동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1920년대 민족주의 여성운동단체들이 전개한 교육·계몽운동은 여성의 품성함양·지식계발 등을 목표로 주로 강연회와 부인야학, 토론회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 가운데 조선여자교육회, 조선여자청년회같은 민족주의 여성단체에 많은 기독교 여성들이 참여하여 활동하였고 기독교여자엠평청년회·보호회·기독교여자수양회·여자기독교청년회·기독교여자면려회 같은 교단산하 여성단체도 전국에서 조직되어 선교활동이나 신앙생활 뿐만 아니라 사회사업과 여성운동을 전개했다. 보혜여자관, 태화여자관, 고려여자관 등의 감리교단에서 조직한 여자관은 부인야학과 가사교육, 유치원 사업 등을 중점으로 전개하였다.<sup>125)</sup>

이러한 가운데 1923년 ‘기독교인의 품성 개발과 여자청년의 영적·지적·신체적 행복의 증진’을 목표로 전국 기독교 여성단체인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 연합회’(YWCA)가 조직되었다.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는 기독교신앙운동을 비롯하여 여성계몽(문맹퇴치, 부인야학, 수양강연회)·농촌운동·사회사업(고아원, 기숙사)·생활개선(편물, 재봉, 요리, 금주) 운동 등을 전개하는 가운데 여성 기독교인들의 의식화·조직화를 더욱 촉진시켰다.<sup>126)</sup>

이렇듯 여성계몽운동과 교육으로 여성들이 의식화 되고 여성단체들이 속속 구성되면서 조직력이 생기게 되자, 각종 사회운동에서 여성의 역할이 점차 두드러지게 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기독교여성들이 중심이 되는 절제운동도 시작될 수 있었다.

## 2. 절제운동 추진 기구

절제운동은 기독교계 각 교단과 이를 망라한 단체의 결성을 통해 폭넓게 전개되었다. 기독교계 양대 주류 교단이었던 장로교, 감리교는 물론 사회사업을 통한 구원에 비중을 두었던 구세군의 활동도 두드러졌다. 또한 교단별 활동 외에 각종 사회운동단체들이 절제운동 수행을 표방하고 조직되었다.

### 1) 교단 기구

#### (1) 감리교

---

125) 이덕주, 『한국감리교 여성교회의 역사』,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성교회전국연합회, 1991, pp. 145-170.

126) 유각경, 「조선그리스도교여성운동」, 『기독교신보』, 1928년 12월 31일.



사회개혁 및 참여활동에 여타 교단보다 적극적이었던 감리교<sup>127)</sup>는 기독교의 사회참여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천명하고, 개인적 신앙생활 못지않게 사회운동에 주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하느님의 敎會가 맞은 使命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福音을 各時代에 合當하게 繙譯하고 使役하야 乃終에는 萬物이 그이에게 屈服케 할것이며, 또 이 時代의 絶迫하게 된 經濟上 整理와 社會上 救贖의 問題가 敎會에게 挑戰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主되심을 社會的의으로 個人的과 又치 主張케 하라하며, 또 이 時代의 福音을 社會的으로 繙譯하기를 個人的으로 함과 갖치 하기라 要求하는지라”<sup>128)</sup>

127) 아래의 표를 보면, 장로교에 비해 감리교가 상대적으로 교육·의료사업 등의 사회활동에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교사의 사업 배당표(1912년)>

선교부		복음전도		교육사업		의료사업		기타	
		수	%	수	%	수	%	수	%
북장로교	남	34.5	61.61	9.5	16.96	11	19.64	1	1.79
	여	13	59.09	5	22.73	4	18.18	-	-
	계	47.5	60.80	14.5	18.59	15	19.23	1	1.29
남장로교	남	17	54.84	7	22.58	6	19.35	1	3.23
	여	10	52.63	5	26.32	4	21.05	-	-
	계	27	54.00	12	24.00	10	20.00	1	2.00
북감리교	남	13	54.17	5	20.83	5	20.83	1	4.17
	여	9	36.00	11	44.00	5	20.00	-	-
	계	22	44.90	16	32.65	10	20.41	1	2.04
남감리교	남	11.5	60.50	3.5	18.40	3	15.80	1	5.30
	여	8.5	38.60	12.5	56.80	1	4.60	-	-
	계	20	48.80	16	39.00	4	9.80	1	2.40
캐나다장로교	남	6.5	72.22	0.5	5.56	2	22.22	-	-
	여	2.5	50.00	1.5	30.00	1	20.00	-	-
	계	9	64.28	2	14.29	3	21.43	-	-
호주장로교	남	9	75.00	-	-	3	25.00	-	-
	여	4	40.00	4	40.00	2	20.00	-	-
	계	13	59.09	4	18.18	5	22.73	-	-
통계	남	91.5	60.59	25.5	16.09	30	19.87	4	2.65
	여	47	45.63	39	37.86	17	16.50	-	-
	계	138.5	54.53	64.5	25.39	47	18.50	4	1.58

The Christian Movement in Japan, Korea and formosa, 1912, p. 374. 민경배, 『한국 기독교 사회운동사』 p. 154.에서 재인용.

128) 「레문」 『南監理敎 道理와章程』, 남감리회조선매년회, 1919.

특히 교회는 “신령상 뿐 아니라 물질상으로도 은혜”를 나타내 보여야 한다고 하고, “투쟁시대에서 생활할 바를 알지 못하고 기갈중에서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평민들의 소리에 응할 것”, “예수가 전도할 때 떡과 생선을 주었던 것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경에 있는 현재 조선에서도 그리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自助를 강조하였다.<sup>129)</sup>

감리교의 한국선교는 미국의 미감리회(혹은 북감리회)가 1885년, 남감리회가 1896년 선교사를 파송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sup>130)</sup> 두 선교회 모두 각각의 연회를 조직하고 활동했는데, 연회 안에 금주위원회를 설치하여 금주금연 운동을 전개하였다. 미국에서 초기의 성결운동이 특히 감리교를 중심으로 성장한 것에서 보듯, 감리교는 개인의 성화 문제에 적극적이었다. 일찍이 선교사들은 미감리회 12회 연회에서 공식적으로 금주를 결의하고 교인들에게 금주를 권면하였다. 연회내에 조직을 둔 것은 미감리회의 경우 최초의 절제부가 1912년 ‘사회개량위원회’라는 명칭으로부터 비롯되는데, 이 조직은 이후 ‘금주위원회’, ‘절제회’ ‘사회사업위원회’ ‘풍속개량회’ 등 그 명칭을 달리하면서 계속되고 있다.<sup>131)</sup> 명칭이 조금씩 달라졌지만 활동내용은 금주금연사업이 대종을 이룬다. 절제와 풍속·풍기개량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한 것이 금주와 금연이었기 때문인 듯하다.

우선 조직을 살펴보면 회장(위원장)을 비롯하여 서기와 회계, 지방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연회 안에 회장과 서기, 회계를 두고 각 지방 산하에 절제회를 설치하여 위원 2명씩을 두었던 것이다. 지역은 경성을 비롯하여 해주, 평양, 공주, 수원, 원주, 강릉, 영변, 인천, 천안, 홍성, 이천 등으로 모두 선교지역 분할협정<sup>132)</sup>에 따라 미감리회의 선교구역으로 확정된 이래 조직된 지방회이다. 절제운동이 활발해지면서 거의 모든 지방회에 절제회가 설치되고 있다.

감리교는 1921년부터 각 지방에 순회강연대를 파견하여 금주운동을 전개했고,

129) 『조선남감리교회 8회 연회록』, 1925.

130)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기독교의 역사』 I, 기독교문사, 1989, pp. 185-189.

131) 『예수교미감리회 조선연회록』, 1912.

132) 한 지방에 여러 교파의 선교회가 진출함으로써 야기될 갈등과 마찰을 피하고 돈과 시간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선교지역 분할협정이 추진되었다. 1892년 미감리회와 북장로회 사이에 처음으로 이루어졌는데, 비록 공식적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이후의 선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선교회들 사이의 선교지역 분할의 기본 원칙으로 인식되었다. 미감리교회의 경우만 살펴보면, 1907년 남장로회와의 사이에 충남·전라도 지역에 대한 협정이 이루어져 공주를 분계점으로 북쪽을 미감리회가 담당하게 되었다. 1909년에는 북장로교와 충북·강원도 지역에 대한 협정이 이루어져 청주를 중심으로 충북의 남부지역이 북장로회 구역이 되었고 북장로회 구역이었던 강원도 원주와 충북 북부지역은 미감리회 구역으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미감리회 선교지역은 경기·충북·강원도 지방과 황해·평남의 일부 지역으로 확정되었다.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위의 책, pp. 213-218.

연회차원에서 금주서약서와 선전문 제작과 배포를 후원했다. 터링이 내한했을 때에는 전국금주강연회를 계획하고 이를 지원했다. 1923년에 벌써 매년 10월 첫째 일요일을 전조선절제주일로 지킬 것을 결의하고, 그날의 헌금은 연회 절제부에서 수합하여 절제사업에 사용하도록 했다.<sup>133)</sup>

《표 5》는 미감리교회 연회 산하 절제부 위원 명단과 각지방 절제부 현황이다. 1914년부터 연회록에 절제부 위원명단이 나타나는데,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지방절제부가 대폭 확대되고 위원들의 수도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1922년부터는 만주지방에도 절제회가 조직되었다. 1910년대 초반 손정도로부터 시작된 미감리회의 만주선교는 1918년 배형식을 만주선교사로 파송하면서 북만주 일대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 결과 1923년에는 만주지방회를 조직하는 등 북만주에서의 미감리회의 활동이 두드러지는데, 절제부의 조직도 이에 따른 결과인 듯하다.<sup>134)</sup>

남감리회 역시 연회 안에 ‘절제부’와 ‘사회봉사부’를 조직하여 금주운동 및 사회사업에 관심을 쏟는 한편, 음주를 ‘큰 악행’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남감리교회도리와장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sup>135)</sup> 연회 절제부 외에 지방 위원을 따로 조직하지는 않았지만 《표 6》에서 1923년에 10명이던 절제부 위원이 1930년에는 20명으로 꾸준히 위원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절제운동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된다.

《표 6》 조선남감리회 절제부 위원

연 도	위 원
1923	전약술 유시국 박종명 도마련 김기순 김성유 안 열 남궁억 김태식 노병두
1924	전약술 유시국 박종명 도마련 김기순 김성유 안 열 남궁억 김태식 노병두
1925	전약술 유시국 유한라 한만수 박태식 김기순 노종원
1929	오화영 이수만 김기순 양매륜 김홍순 어종원 서상열 최종경 유시국 김영주 김자선 어윤희 유한라 최경자 박신양 박영옥 전형옥 이윤석
1930	오화영 이수만 김홍순 유시국 김자선 최경자 박신양 김라대 전형옥 이윤석 김창하 김현심 이래수 이관운 전진규 남궁숙경 백설화 김난시 홍성선 피도수

『남감리교회조선매년회회록』 각 년도에 의해 작성

133) 『예수교미감리회 조선연회록』, 1921., 1922., 1923.

134)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기독교의역사』 II, 기독교문사, 1990, pp. 121-123.

135) 『남감리교회도리와장정』, 조선예수교서회, 1915.

《표 5》 조선미감리회 절제부 위원

연도	1914	1915	1916	1917	1918	1919	1920	1921	1922	1923	1924	1925	1926	1927	1928	1929
회 장	반복기	바울 의사	바울 의사	노본	오기선	방기순	방기순	방기순	방기순	홍순탁	홍순탁	홍순탁	홍순탁	홍순탁	안석준	최성모
서 기	동석기	동석기	동석기	동석기	안창호			김광국	김광국	김광국	조근영	조근영	이장한	이장한	주기원	김성대
회 계									김창준	김창준	김중우	김중우	김중우	김중우	홍순탁	안석준
경성	오기선 방죽신	리근준	김홍순 탁윤성	탁윤성	노본 최성모	반복기 신홍우	홍순탁 신홍우		김창준 김중우	김창준 김중우	김중우 이필주	김중우 이필주	김중우 이필주	김중우 이필주	김중우 이필주	김창준 김사복
해 주	홍순탁	주해광 홍순탁				노 오윤원	홍순탁 노임진국		김창석 이윤성	김창석 이윤성	이윤영 이윤성	이윤영 이윤성	홍성환 이윤성	박기준 조윤여	박기준 조윤여	김창준 조윤여
평양	현석칠 김창홍	현석칠 김창홍		배홍준 신김창환	식식홍 신김창환	박봉래 송이주	노대선 김홍식		주기원 안석준	주기원 안석준	송이주 주안석준	安昌福 주안석준	주안석준	주안석준	주안석준	주기원 안석준
공주	신홍식 정관호	신홍식 정관호	신홍식 정관호	안창호 정관호	안창호 정관호	김병제 김병제	김병제 김병제		박영석 동석기	박영석 동석기	방기순 김진국	방기순 김진국	방기순 김진국	방기순 김진국	박상덕 김성대	송득한 김성대
수원	대현우 리창희	송득한 송득한	송득한 송득한	한창석 이윤영	한창석 이윤영	이창희 김기익	한창석 김기익		송득한 임용순	송득한 임용순	송득한 임용순	송득한 임용순	송득한 임용순	송득한 임용순	송득한 임용순	김홍제 김교현
원주	박영만 강진화			강진화 박원배	강진화 박원배	방기순 방기순	방기순 방기순		김재한 박우영	김재한 박우영	김재한 박우영	김재한 박우영	김재한 박우영	김재한 박우영	김재한 박우영	김홍제 황희수
영변	리진현 박영만	리진현	리진현	김재한	김재한	김재한	김재한		김재한 박우영	김재한 박우영	김재한 박우영	김재한 박우영	김재한 박우영	김재한 박우영	김재한 박우영	오인근 최창신
인천		방죽신 박종래		방죽신 최석익	방죽신 최석익	오기선	아펜젤 리김광국		김현호 신홍식	신홍식 김현호	방 훈 유희일	권성집 박기진	권성집 박기진	권성집 박기진	권성집 박기진	권성집 박기진
강릉		리동석 안경록		이동석 안경록	이동석 안경록	안경록 이동석	안경록 이동석		안경록 조근영	안경록 조근영	김기정 황병호	김기정 황병호	김기정 황병호	김기정 황병호	김기정 황병호	김기정 황병호
천안						한태유 박원배	한태유		안석호 한기모	조근영 한기모	조근영 홍순오	조근영 홍순오	한태유 홍순오	홍순호 이장한	최성모 김준호	방기순 최성호
홍성										이준범 이장한	이준범 이장한	이준범 이장한	이준범 이장한	이준범 이장한	이준범 이장한	이준범 이장한
이천							홍성주 원용한		구서서 오원경	구서서 오원경	구서서 김홍제	김홍제 조윤여	김홍제 조윤여	김홍제	한기모 노준경	한기모 노준경
만주									배형광	배형식	동석기	동석기	동석기	안경록	한기모 노준경	한기모 노준경

『예수교미감리회조선연회록』 각 년도에 의해 작성

1930년 미감리회와 남감리회는 서로 합동하여 ‘기독교조선감리회’를 이루었다.<sup>136)</sup> 이 때 채택한 「감리교 교리적 선언」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라고 하여 현실 사회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931년에도 교회의 대사회적 입장을 밝힌 13개조의 「사회신경」을 선언하면서 사회에 대한 교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기독교조선감리회로 거듭나고 총회를 조직하면서 진보적 사회의식을 참여활동으로 연결시키려는 의지에서 중앙부서인 총리원에 사회사업국이 조직되었다. 사회사업국의 설립 목적에 “절제운동을 유지하고 확장”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이 운동에 대한 감리교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확인되고 있다.<sup>137)</sup> 그리고 그 산하에는 기존의 위원들이 연합한 가운데 절제부, 농촌부, 도시사회사업부가 조직되면서 이전보다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기에 이른다. 교단 차원의 사회운동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였던 것은 감리교의 사회운동 및 사회사업에 대한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이라 하겠다.

1934년 연합감리사회는 교회가 먼저 각성하여 영적 교양과 사회봉사에 앞장서야 한다는 생각에 교인들로 하여금 적당한 훈련 즉 전도, 선행, 기타 사회봉사 등을 시키도록 할 것을 결정하였는데,<sup>138)</sup> 이 또한 감리교의 사회적 성격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사회국에는 다른 교육국이나 전도국처럼 전담 총무를 두지는 않았지만, 상임 간사를 두고 사업을 총괄 담당토록 했다. 금주운동은 물론 미성년금주운동과 이에 대한 청원, 기독교 학교에 음주흡연하는 교사 채용 금지 건의, 농촌사업 전담할 지도자 양성, 미국 감리교회 본부에 농업전문 선교사 파송 요청, 문맹퇴치사업 등이 논의되었다.<sup>139)</sup> 각 부에는 약간의 실행위원을 두어 연회에서 세운 일반사업계획을 사회국 지도하에 실행케 하였다.<sup>140)</sup> 1933년부터는 농촌부·도시부의 2부로 나뉘지만 사회사업국의 활동 내용은 별반 다르지 않다. 각 지방의 절제회와 회원수도 꾸준히 증가하여, 1931년 현재 18개 지방에 76개의 절제회와 2,000명의 위원이 있었고 이후 1933년 절제회를 설치하는 지방은 28곳으로 더욱 늘어났다.<sup>141)</sup>

136) 미감리회와 남감리회는 총회를 미국 본국 교회에 두고 ‘선교회’, ‘선교연회’, ‘연회’로 조직·운영되다가 1930년 기독교조선감리회로 합동하면서 총회를 조직하고 산하에 중부·동부·서부·만주·선교 연회를 두었다.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위의 책, pp. 177-186.

137) 총리원 산하 기구로 사회국 외에 전도국, 교육국, 재무국이 있다. 『기독교조선감리회 교리와 장정』, 기독교조선감리회 총리원, 1931, pp. 113-114

138) 『중부연회3회회록』, 1933.

139) 『예수교미감리회 조선연회록』, 1930., 1931., 1932., 『남감리교회 동부 중부 서부 연합연회』 1회, 1931., 『중부연회3회회록』, 1933.

140) 『예수교미감리회 조선연회록』, 1931., 1932.

141) 『예수교미감리회 조선연회록』, 1928., 1929., 1931., 1932., 1933.

《표 7》 조선감리회 사회사업국 위원

	1931	1932	1933	1934		1934	1938
	동중서연합연회 1회	동중서연합연회 2회	중부연회 3회	중부연회 4회	서부연회 4회	총회 2회	총회 3회
체 제	사회사업국 - 절제부 농촌부 도시사회사업연맹부	사회사업국- 절제부 농촌부 도시사회사업연맹부	사회사업국- 농촌부 도시부			절제와 사회사업 농촌사업 심사위원:	학교와 병원과 절제와 사회문제 심사위원:
위 원 장	신홍식	신홍식 (김창준)	노병덕	김창준	박현숙	김창준	이호빈
서 기	유백희	유백희		권명주	서득범	이경선	배덕영
위 원	절제부실행위원: 김창준 이효덕 빌링슬리 김봉준 미쓰마이즈 손메레 이동옥	절제부실행위원: ·동부연회: 강문호 류신열 나에스더 ·서부연회: 주기원 박태성 김봉준 ·중부연회: 신공숙 최헬렌 김창준	각부 조사위원: 농촌부: 월니암 에모릭 유백희 도시부: 왕래양 심명섭 구자옥	사회사업 실행위원 김창준 우리암 유백희 박인덕 빨링슬리	사회사업 당무위원 : 김봉준 손창송 박현숙 버스양 이문혁	김창준 박인덕 현동완 김병호 윤귀련 이경선 김현섭 김광호 최경자 허영백	이호빈 이동옥 방훈 기이부 아편설라 오웅천 이문혁 배덕영 이홍주 윤대석 양재순 지용은 이종원 김근배

『기독신보』, 1932년 2월 3일.; 『동부·중부·서부 연합연회 1회 회록』, 1931.  
 『동부·중부·서부 연합연회 2회 회록』, 1932년.; 『중부연회 3회 회록』, 1933.  
 『중부 연회 4회 회록』, 1934.; 『서부 연회 4회 회록』, 1934.; 『감리회보』  
 1934년 10월 10일. 참고

연회에서는 구체적인 절제사업 진행을 위해 미국 선교본부에 여러 가지로 원조를 구했다. 1922년부터 미국 선교본부에 금주운동에 전념할 담당 선교사 1명을 보내줄 것을 매년 꾸준히 청원하는데, 이는 절제운동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의 실질적 활동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요청된 파송청원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전임 선교사 파송의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결국 1928년 연회에서 조선인 교역자 중에서 마땅한 이를 택하여 사업을 진행할 것을 결의하였다.<sup>142)</sup> 담당 선교사 파송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미국 선교본부로부터 기부금이나 경상비 명목으로 매년 재정적인 지원을 받았고, 이는 금주선전문 제작 등에 사용되었다.<sup>143)</sup>

감리교는 1929년 연회에서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의 제의로 서로 연합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결의하고,<sup>144)</sup> 1931년부터 전임순회총무 1명을 두기로 하고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 총무를 역임한 손메레를 선정하였다.<sup>145)</sup> 이미 1922년에 연회차원에서 세계여자기독교절제회 임원이었던 틴링(C. I. Tinling)의 내한을 맞이하여 기획한 전국금주강연회와<sup>146)</sup> 연회 기간중 손메레의 금주강연과 절제회 보고를 비롯하여<sup>147)</sup> 이효덕, 최활란 등의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 임원들이 감리교 연회 절제회에서도 임원을 겸하고 있다는 점<sup>148)</sup>, 그리고 매년 1회씩 각 교회에서 금주단연선전을 시행할 것과 이에 필요한 선전지와 순서 준비를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와 협력·실행하는 것<sup>149)</sup>을 볼 때 이 단체와 감리교단과의 밀접한 관계를 알 수 있다.

연회의 절제부와 아울러 실질적으로 각 지방별 개교회별 운동을 전개한 것은 감리교 청년회인 엡윳청년회(Epworth League)였다. 1897년 조직된 엡윳청년회는 민족의식을 가진 젊은 청년기독교인들이 많이 참여했던 관계로 자연스럽게 신앙운동 뿐만 아니라 토론회·의식계발 사업 등을 통해 점차 국권회복을 추구하는 사회·정치적인 단체로 그 성향이 기울었다. 그러자 이를 우려하던 선교사들에 의해 1906년 연회에서 해산을 당하였다. 그러나 개교회별 활동은 미약하게나마 지속돼오던 중 1916년 재건된다. 이후 엡윳청년회는 연회 산하에 조직되어 자립교회마다 설치할 것이 장려되었고, 특히 농촌사업과 금주운동을 주요 활동으로 주목하고 이를 추진하였다.<sup>150)</sup>

엡윳청년회는 1930년부터 남북감리교 통합 총리원 산하 교육국의 지도하에 위치하게 되는데 1933년 현재 총리원 교육국에 등록된 엡윳청년회는 26개 지방

142) 『예수교미감리회 조선연회록』, 1928년.; Charles A. Sauer, "Growth of Liquor Traffic", KOREA CONFERENCE, *Annual Report of the Board of Foreign Missions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Korea Mission 1994-1943), 1928.

143) 『예수교미감리회 조선연회록』 1922, 1923, 1925, 1926, 1928, 1929.

144) “기독교여자연합절제회 회장 유형숙이 본회 절제회와 협동적으로 사업을 하면 효과가 더 많겠다고 함으로 양회의 사업을 협동하기로 함”, 『예수교미감리회 조선연회록』, 1929.

145) 『감리회연회 절제부 순회 총무 손메레씨의 신임』 『기독신보』, 1931년 3월 10일.

146) 『예수교미감리회 조선연회록』, 1922.

147) 『예수교미감리회 조선연회록』, 1924, 1926, 1928.

148) 『예수교미감리회 조선연회록』, 1931, 1932.

149) 『예수교미감리회 조선연회록』, 1934.

150) 『제12회 남감리교회조선매년회회록』, 1929.

177회에 이르렀다.<sup>151)</sup> 애헌청년회는 전도부, 구제부, 문학부, 사교부, 서기부, 회계부를 두고 각각의 활동을 벌였는데 특히 구제부는 빈민 구제와 실업 장려, 금주금연 사업 등을 그 직무로 규정하고 이를 실천했다. 각지 교회의 금주금연선전, 소비절약과 저축회 조직을 이끄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sup>152)</sup>

## (2) 장로교

장로교는 감리교처럼 총회 차원의 절제부서를 따로 설치하지는 않았다. 절제부설립을 주장하는 논의가 제기되면서 1934년 평양노회가 절제부 설치를 논의하였으나 2년간 결정을 보류한 뒤에도 결국 설치하지 않고 다만 각 교회가 형편에 따라 후원할 것을 결의하였다.<sup>153)</sup>

비록 별도의 담당 기관을 따로 설치하지는 않았지만 절제운동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를 후원하였다. 총회에서는 1926년 공창폐지사업에 후원할 것과 1929년 미감리회 연회와 함께 미성년자 금주안 제출을 가결하고 있다.<sup>154)</sup> 혼례에 허례허식을 폐지하고 절약을 권면할 것을 결의하고, 농촌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금주금연, 소비의 합리화와 생활의 개선을 특히 강조하면서 절제운동과 농촌운동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1928년 총회에 농촌부를 설치하고 농촌운동을 시작한 장로교는 농촌지도자 양성, 『農民生活』 발행을 통한 계몽, 모범농촌 설치, 농학교 설립 등을 계획·실천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농촌전도·위생·교육·교풍·조합운동을 차례로 제시하였다.<sup>155)</sup>

장로교 절제운동은 각 노회별로 이루어졌다. 각 노회는 절제운동에 대해 총회에 논의하기도 하였고, 독자적인 절제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1922년 전남노회는 약용 물품과 아편을 약종상에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자혜의원에서만 적당하게 판매할 것을 조선총독부에 청원하였다.<sup>156)</sup> 1924년 함남노회는 누룩매매업에 관여하는 교인의 처리문제를 논의하였는데, 총회에서는 "누룩 장사하는 교인에 대하여 처리할 문제는 본 당회가 권면하여 보고 그 형편에 따라 처리할 것"을 결의하고 있다.<sup>157)</sup> 술의 원료가 되는 누룩에 대해서까지 금지하여, 음주에 단호한 태도를 보

151) 『감리회보』 제1권 3호, 1933년 3월 10일.

152) 조이제, 『한국감리교청년회100년사』, 1997. pp. 43-154.

153) 『기독신보』, 1934년 8월 8일.; 『朝鮮예수敎長老會總會 第23回 會錄』, 1934.; 『朝鮮예수敎長老會總會 第24回 會錄』, 1935.; 『朝鮮예수敎長老會總會 第25回 會錄』, 1936.

154) 『朝鮮예수敎長老會總會 第15回 會錄』, 1926.; 『朝鮮예수敎長老會總會 第18回 會錄』, 1929.

155) 『朝鮮예수敎長老會總會 第17回 會錄』, 1928.; 『朝鮮예수敎長老會總會 第18回 會錄』, 1929.; 『朝鮮예수敎長老會總會 第23回 會錄』, 1934.

156) 『朝鮮예수敎長老會總會 第11回 會錄』, 1922.



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회내 교회가 연합하여 금주·단연선전 깃발을 만들어 공동으로 사용한다든가 특히 기독교청년면려회의 활동을 후원하면서 연합하는 경우가 많았다. 황해노회는 금주단연 선전기를 제작하여 지역 교회마다 돌려가며 사용하면서 금주운동을 펼쳤고, 평북노회도 지역 면려청년회를 후원하면서 금주운동을 지지했다. 158)

장로교 청년연합회인 勉勵會는 장로교 절제운동의 실천자로서 기능했다. 1881년 2월 미국에서 시작된 청년단체인 면려회는 조선에는 1921년 2월 첫 주일에 경상북도 안동교회에서 선교사 안대선(Wallis Anderson)의 지도로 창설되었다. 그 이전에 이미 경성 新門內교회를 필두로 연동교회, 승동교회 등에서 소년면려회 등을 조직하여 활동해 왔으나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헌법에 의하여 정식으로 발족된 것은 안동교회가 처음이었다. 그 해 6월 26교회 600여 명의 회원으로 안동교회에서 경북 연합 대회가 조직되고 지방 대회를 처음으로 개최한 데 이어, 1924년 12월 ‘기독교청년면려회 조선연합회’를 창립하였다. 임원단 이하 사업부로 智育部, 조사부, 戒毒部, 농촌부, 소년부를 두었는데, 1935년 총지회수가 1250, 회원수가 전국적으로 32,000명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였다. 159)

면려회는 창립 총회에서 ‘3대결의’를 제정하면서 개인교양 수양과 전도, 자선사업과 기독교시민운동 등을 전개하였다. 160) 이후 면려회는 1928년 7월 26일 연희전문학교에서 개최된 제1회 조선연합회 하기대회에서 조직을 개편하면서 절제운동에 보다 열중하기에 이른다. 일찍이 기독교와 사회주의 모두 불만불평스런 사회의 제반 폐해를 개조하려는 동일한 지향과 정신을 갖고 있다고 보고 기독교의 대사회적 역할을 강조했던 이대위가 YMCA 학생부 간사에 이어 면려회 회장이 되면서 기독교청년들의 사회운동 참여를 독려했고, 일본의 대표적인 기독교사회운동가인 賀川豊彦<sup>161)</sup>의 영향을 깊게 받은 전필순, 최석주 등이 면려회에 참여하면서 금주운

157) 『朝鮮예수교長老會總會 第13回 會錄』, 1924.

158) 『朝鮮예수교長老會總會 第18回 會錄』, 1929., 『朝鮮예수교長老會總會 第19回 會錄』, 1930.

159) 『朝鮮예수교長老會總會 第24回 會錄』, 1935.

160) 그 내용은 1. (표어) ①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자 ②정직한 ‘나’가 되자 ③사람에게 신의를 지키자 2. (주장) ①쉬지 않고 나를 교양하자 ②나의 교회를 돕자 ③방방곡곡에 전도하자 ④외지 전도에 힘쓰자 3. (작정) ①매회원 매년 1인 전도주의자가 되자 ②회원마다 십일조를 바치자 ③내 동리에서 신앙운동을 일으키자 ④외지의 한국동포를 구하자이다.(김남식, 『한국기독교면려운동사』, 성광문화사, 1979에서 재인용)

161) 賀川豊彦(1899-1960)은 일본의 대표적인 기독교 사회운동가이다. 明治학원과 神戸학교를 졸업하고 1909년부터 神戸市 新川 빈민굴에 이주하여 빈민 구제사업을 시작한 것을 시발로 노동운동, 조합운동 등을 전개하였다. 關東대지진 때 구제사업을 전개하였고 일본농민복음학교, 무사시노복음학교 등을 경영하였다. 1930년대에는 정치적 혼란, 노동문제 확산, 사회주의 유입 등의 일본사회의 문제를 유물적 가치관의 배제, 협동사회, ‘협동과 희생’을 특징으로 한 일본정신’의 교양을 통해 해결하자는 神國운동을 주도하였다. 『기독교대백과사전』 1권, 기독교문사, 1980.

동이 더욱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던 것이다.<sup>162)</sup> 10개 연합회와 270여 지회, 5,300여 명의 회원이 참가한 이 대회에서 각 지회에 해독물을 경계한다는 의미의 계독부를 설치하고 금주금연을 철저히 실행하고 장려할 것이 결의되었다.<sup>163)</sup> 금주·단연·폐창·소비절약·위생청결이 계독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1924년 조선연합회 조직 후 초기 면려회의 활동이 성경연구, 교회봉사, 전도사업 위주였다면 조직개편 이후 면려회는 앞서의 활동에 더하여 자선사업, 기독교시민운동, 농촌운동, 절제운동 등 실천적인 사회운동에도 역점을 두었다. 특히 매년 단오절에는 1-2주에 걸쳐 대대적인 금주선전을 벌였다. 각 지역 면려회원이 회집하여 금주좌담회, 강연회, 뻘라 산포, 행렬 등을 이어 행했는데, 조선, 만주, 일본에 산재한 면려회가 망라되었다.<sup>164)</sup>

면려회는 1925년부터 기관지 『眞生』을 발간하였고 1931년부터는 『면려회보』를 월간으로 발행하였는데, 이와 같은 지면을 통해서도 절제운동의 필요성을 알리고 각지의 절제운동을 소개하였다. 1932년 장로교 총회에 면려부가 설치되어 명실상부한 장로교 청년연합회로서 자리매김하면서 장로교의 절제운동은 각지의 면려청년회를 통해 이루어졌다.<sup>165)</sup>

이렇듯 절제운동의 선봉에 섰던 것은 장로교·감리교 양 교단의 청년연합회였다. 이는 1920년대 제한적인 언론·집회·결사의 자유의 공간에서 수많은 정치·사회단체가 출현하는 가운데 청년단체의 결성이 가장 많고 활동이 활발했던 것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할 것이다. 3·1운동 이전까지 기독교세력의 조직적 토대는 기독교계

162) 「소식란」 『진생』, 1928년 9월

163) 「면려회연합회 총회」 『기독신보』, 1928년 8월 1일.

164) 김덕, 「1920-30년대 기독교청년면려회 연구」 『한국기독교와 역사』 18, 2003, pp. 230-232.

165) 안대선·이대위, 『勸勵會指南』, 기독교청년면려회조선연합회, 1933, pp. 11-21.; 『朝鮮예수敎長老會總會 第21回 會錄』 1932년. 1924년 결성된 ‘기독교청년면려회 조선연합회’가 실질적으로 지회와 연락하며 총괄하는 대중 조직이었다면 종교교육부 내에 있다가 1932년 독립하는 ‘면려회부’는 총회 차원에서 청년운동을 지도하는 부서였다.

<기독교청년면려회 통계>

연도	청년회수	회원수
1928	395	11,849
1929	596	12,297
1930	531	15,600
1931	813	22,413
1932	894	20,932
1933	1,067	28,599
1934	1,190	31,394
1935	1,279	33,528
1936	1,307	37,695
1937	1,425	36,743
1938	1,379	30,697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회록』, 각 년도

학교들이었다. 그런데 이후에는 앵릿청년회와 먼려청년회가 사회운동의 구심체로서 역할을 담당하였다.<sup>166)</sup>

### (3) 구세군

구세군도 절제운동을 적극적으로 실행하였다. 영국 국교회 출신으로 감리교 목사였던 윌리엄 부드(William Booth)에 의해 1865년 영국에서 창시된 구세군은 군대식 훈련과 조직을 통해 개인적 성화 체험과 복음전도를 통한 사회구원을 목표로 하였다. 구세군은 교회의 목적을 복음전도, 빈곤 및 사회악 타파라는 두 가지를 수행하는 것으로 삼고, 1908년 조선에서 선교를 시작한 이래 남녀평등, 노동자, 도시 빈민 선교 등 다양한 사회구제사업을 실천하였다.<sup>167)</sup>

구세군은 특히 음주와 흡연에 대해서 죄악시 하며 경계하였다. 개인의 ‘성결’이 중요시 되면서 흡연, 음주, 외부 사회의 관계, 세상 오락과 절연할 것을 요구하였다.<sup>168)</sup> 특히 금주는 구세군 兵士<sup>169)</sup>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서 명시되었다. 모든 알콜성 음료를 사용하는 사람은 구세군 병사가 될 수 없었고, 병사가 된 후에라도 음주 사실이 알려지면, 병사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없었다.<sup>170)</sup> 다음의 글은 구세군의 음주에 대한 생각을 잘 보여주고 있다.

“대개 술이라 한 음식은 항상 재앙과 패망과 죄악과 형벌을 이루는바 대단히 좃지못한 물건으로 세계각국에서 다 인증하는 바인고로 다만 우리는 야소교인이라하여 술을 마시는 것이 옳치아니한 것뿐 아니라 우리 육체에 대한바 위생에도 지극히 해가 도모지 이와갓치 괴악한바 술로는 상관하지마라야 가하도다”<sup>171)</sup>

담배에 대해서도 술과 마찬가지로 경계하였다. 그것이 ① 건강에 해가 되고 ② 자체로 더러운 것이며 ③ 금전을 허비하게 하고 ④ 주위에 불쾌한 감정을 주고 ⑤ 스스로를 타락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병사는 엄중히 금연할 것이 요구되었다. 다만, 음주한 병사가 그 자격을 유지 할 수 없는 데 반하여, 흡연한 병사는 하

166) 김권정, 「1920년대 전반 기독교 민족운동에 관한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7, 2007, pp. 34-35.

167) 이덕주, 「초기 내한 선교사들의 신앙과 신학」 『한국기독교와 역사』 6, 1997, p. 45.

168) 「구세군교훈 제 十九 성결」 『救世軍季報』 6권 2호, 1920년 4월.

169) 구세군은 교회가 군대식으로 조직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교회 조직은 營門이라 부르고, 구세군 교인은 兵士, 목회자는 士官, 목회자 양성신학교는 사관학교라 한다. 이덕주, 『초기 한국 기독교사 연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5, pp. 176-177.

170) 「兵士의 規則」 『救世軍季報』 6권 3호, 1920년 7월.

171) 「단음흡이 가함」 『救世新聞』, 1910년 10월.

사관으로서 영문에서 일할 수 없다고 하여 음주보다는 처벌이 덜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구세군은 1909년부터 7월부터 발행하기 시작한 월간 『구세신문』을 통해 금주운동을 펼쳤다. 구세신문은 1921년 3월 금주특집호로서 ‘금주호’ 2만부를 발행하기 시작하여 1927년 5월에 6만부를 배포하는 등, 1941년까지 금주특집호를 매년 3월 특별 제작하여 배포·판매하였다.<sup>172)</sup> 이와 함께 악대를 동원한 가두 금주선전도 빈번하게 실시하였다.<sup>173)</sup> 또한, 고아·빈민 구제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가운데 성매매 여성의 구제시설 마련에도 애를 썼다.

## 2) 사회운동 단체

### (1)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는 여성기독교인들이 결성한 초교파적 절제운동단체이다.<sup>174)</sup>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는 1911년 재한 여선교사들이 이미 세계적으로 조직되어 있던 기독교여자절제회의 외국지부를 조선에 설치하면서부터 촉발·조직되었다. 이 단체는 금주·단연·청결에 관한 소책자를 발행하고 1912년에 각 남녀중등이상 학교를 대상으로 금주논문을 현상 모집하였는데 그리 활발하지는 못했다.<sup>175)</sup> 이후 침체되었던 절제회 활동은 세계여자기독교절제회연합회 총무 틴링(Christine I. Tinling)의 내한을 계기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세계기독교여자절제회연합회 소속으로 북경에서 활동하던 그녀는 1919년 감리교 12회 연회에 참석하여 사회개량과 아편문제로 강연하고 청중들로부터 아편재배와 영업을 그만둘 것을 결의하는 호응을 끌어낸 바 있다. 이후 여러 차례의 순회 강연을 통해 절제운동의 중요성을 알리고 절제회 조직에 큰 영향을 주었다. 1919년에 처음으로 내한한 이래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한 틴링은 서울, 평양, 개성, 해주, 원산, 광주, 대구, 춘천, 재령 등지를 순회하며 절제 강연을 하면서 음주의 해독을 경계하고 절제운동 기관의 설립을 주장하였다.<sup>176)</sup>

172) 「救世軍 ‘禁酒號’ 발행」 『동아일보』, 1924년 2월 28일.

173) 「救世軍 禁酒宣傳」 『동아일보』, 1924년 4월 9일.; 「救世軍 禁酒宣傳」 『동아일보』, 1924년 12월 1일.; 『구세군아현영문70년사』, 구세군아현영문, 1986.

174) “우리의 회합은 교파를 초월한 관이며 연합적사업입니다. 장로교 혼자하는 사업도 안이요 감리교 혼자서하는 것도 안이요 구세군이나 성결교회서만 안입니다.” 홍애시덕, 「忍耐力」 『기독신보』, 1935년 9월 25일.

175) 田瑪大, 「절제운동」 『기독신보』, 1932년 3월 2일.

「깍연의 해독」이란 문제로 모집된 33인의 논문 가운데 장로교 학생이 1등을 수상하고 감리교 학생이 2등을 수상했다.

176) 『朝鮮美監理會十二會會錄』, 「틴링여사의 금주강연을 聽하고」 『기독신보』 1922년 2월 15일.; 1922년 2월 22일.; 1922년 3월 1일.; 「주초를 배우지 마라. 이가치 절규하며 세계를 답파하

이에 1923년 6월 여자절제회가 조직되었다. 그리고 9월 내한선교사연합공의회에서 여자절제회 지회를 각처에 설치할 것을 결정하면서<sup>177)</sup>, 지방 곳곳에 절제회 설립이 이루어졌고 마침내 1924년 8월 28일 이화학당에서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한 절제운동을 중심으로 가정과 나라를 부유하게 하며, 모든 사회악과 퇴폐 풍조를 일소하여 평화롭고 깨끗한 새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밝히며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연합회까지 결성하기에 이르렀다.<sup>178)</sup> 이날 참석한 인원만 회원 100여 명에, 신입회원이 50명 정도이고, 지방 지회가 이미 15처에 이르렀다.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의 성장에는 초기에 총무로 맡았던 손메례의 공이 컸다. 진명여학교와 감리교부인성경학원을 졸업하고 전도부인으로 활동하던 손메례는 틴링을 도와 강연을 다니면서 절제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의 조직 후 총무직을 맡아 전국을 순회하며 절제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한 끝에 1년 만에 16지방에 절제회를 조직하고 1,508명의 회원을 모집하는 성과를 거두었다.<sup>179)</sup> 이후에도 전국을 다니면서 순회강연을 열고 각지의 절제회 조직에 힘을 쏟으면서 1928년 경성 태화여자관에서 개최된 3회 총회에서는 전국적으로 53개 지회 3,217명의 회원을 거느린 대규모 단체로 성장시켰다.<sup>180)</sup> 1932년에는 만주에까지 지회가 조직되고, 전국적으로는 114개에 달하는 대규모 단체로 성장했다.<sup>181)</sup>

1929년 당시 전국적으로 조직된 절제회 지회는 다음과 같다.

---

는 ‘틴링’여사가 들어왔다」 『동아일보』, 1923년 5월 29일.; 「금주단연강연회(춘천)」 『동아일보』, 1923년 7월 7일.; 「틴링’여사 금주강연(해주)」 『동아일보』, 1923년 7월 12일.; 「틴링여사 금주강연(재령)」 『동아일보』, 1923년 7월 17일.; Miss Tinling's work in Korea, *The Korea Mission Field*, 1924. 1.

177) F.E.C. Williams-Gerald Bonwick, Korea Women's Christian Temperance Union, *The Korea Missions Year Book*, 1928., 「선교사단의 중요결의- 특히 교풍사업과 교육방면에 주목 중」 『기독신보』, 1923년 10월 17일.;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자료총서 27:The Fifth Anniversary Celebration of the Korea Mi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 S. A.』, 2000, p.102.

178) Cordelia Erwin, The W.C.T.U. Movement in Korea, *The Korea Mission Field*, 1925. 2.; 기독교여자의 금주단연 선전, 연합된 지방단체 십오처나 된다고」 『동아일보』, 1924년 8월 31일.; 「조선여자기독교 절제회연합회」 『기독신보』, 1924년 9월 10일.;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 근황」 『기독신보』, 1925년 7월 15일.; 손메례, 「순회강연일기 중에서」 『기독신보』, 1928년 1월 11일.

179) 「基督女子節制會」 『동아일보』, 1923년 10월 15일. ; 「耶蘇教節制會組織」 『동아일보』, 1923년 11월 1일.; 田瑪大, 「절제운동」 『기독신보』, 1932년 3월 2일.

180) 「절제회 총회」 『기독신보』, 1928년 8월 29일.

181) 「손마리아 여사, 금주와 금연 등을 목적으로 야소교 절제회 조직(성진)」 『동아일보』, 1923년 11월 1일. ; 「평북영변에서 여자 금주회조직, 야소교 여사경회를 기회로」 『동아일보』, 1925년 9월 11일.; 「여자금주회, 평북운사에서 조직」 『동아일보』, 1925년 9월 21일.; 「조선여자기독교 절제연합회 통계발췌」 『기독신보』, 1932년 4월 27일.

《표 8》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 지회 조직 현황

	지회 조직 지역
황해도	동창포 사리원 신계 신막 봉산 재령 안악 연안읍 연백 해주 염불
평안도	중화읍 겸이포 진남포 삼화읍 금리리 광량만 함동 강서 지작동 양덕 순천 신창 진지동 기양 철령 선천 정주 신의주 영변 개천 구장 회천 강계 벽동 박천 신안주
함경도	안평 원산 고성 함흥 홍남 북청 성진 청진 회령 산삼흥
강원도	삼천 북평 강릉 평창 원주 영월 홍천 춘천 화천 철원 삼방 창촌리 이천
경기도	경성 안양 시흥 노곡리 광주 수원 남양 제암 오산 여주 이천 거모리 인천 부천 반월 포천 가평 개성 의정부 장단 장호원
충청도	대전 공주 조치원 예산 삽교 대천 천안 평택 아산 온양 당진 논산 부여 홍성 제천 청주 충주 안성 진천 단양
경상도	부산 마산 통영 대구 김천 포항
전라도	광주 목포 순천 송정리 전주 이리 장한

『대한여자절제회연혁』, 송상석, 『한국절제교육연구사료집』, 1979, pp. 815-817.

평안도와 경기도의 지회수가 가장 많은데, 기독교의 교세가 컸던 대도시였기 때문이라고 짐작된다. 전라도와 경상도의 지회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가 감리교를 중심으로 조직되면서 감리교 우세지역을 중심으로 지회설치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한다.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는 초교파적 단체였지만<sup>182)</sup>, 1923년 감리교여자성경학원(협성여자신학교)에서 창립되면서 교장 채핀(Chaffin, Anna Bair)이 초대 회장을 맡았고, 단체 설립에 영향을 준 터링이 내한하여 감리교 연회에서 강연한 데 이어, 감리교 연회와 합동하여 사업을 전개하는 등 감리교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임원진도 대부분 감리교 여성이었다.<sup>183)</sup>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는 연합회 산하 각 지역에 지회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연합회에는 회장, 부회장, 서기, 회계, 총무 등의 임원을 두었고, 서적부, 소년부<sup>184)</sup>, 광청부(廓淸部), 회계부 등의 집행부를 두어 사업을 진행하였다. 서적부는

182) “우리의 회합은 교파를 추월한 관이며 연합적사업입니다. 장로교 혼자하는 사업도 안이요 감리교 혼자서하는 것도 안이요 구세군이나 성결교회서만 안입니다.” 洪愛施德, 「忍耐力」 『기독신보』, 1935년 9월 25일.

183) J. D. VanBuskirk, Korea Conference, *Annual Report*, 1924, pp. 87-88.; 『예수교미감리회 조선연회록』, 1929,

184) 1932년 소년소녀절제부를 조직하고 1933년에는 영아절제부를 조직했다. 이미 자기 생각이 완성되고 음주흡연에 길들여진 성인에 대한 절제운동보다 어릴 적부터 금주금연에 대한 의식과 절제생활을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에서였다. 참고로 소년절제부의 선서내용과 과업은 다음과 같다.

선서 : 1. 술마시지 않기 2. 담배안피우기 3. 더러운 언행 삼가기

잡지와 서적의 발행, 선전배라와 각종 포스터의 제작을 담당하였고, 소년부는 미성년의 음주흡연방지를 위한 영화·강연·그림·노래·유희물·체육 등의 지도를 통한 감화활동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미성년자의 음주·흡연 방지를 위한 노력은 이후 미성년자 음주흡연금지법안을 제출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광청부는 공창폐지운동과 성교육을, 회계부는 물산장려를 통해 각 지방 특산품을 선전하고 교환·판매하여 회의 유지와 관리를 담당하였다.<sup>185)</sup>

시기별 임원과 주요 인물은 《표 9》와 같다. 애초 절제회 설립을 발의했던 선교사들 여선교사들 중심의 절제회를 따로 구성했던 듯하다.<sup>186)</sup> 그러나 그 활동이 침체되면서 1927년 채신을 다짐하고 이후 임원을 개선하면서 조선여성들과 연합을 하는 듯하다. 1929년 남감리교 선교사 어윈(Erwin, Cordelia)을 총무, 이효덕을 순회총무로 직원편제를 개선하여 활동하기로 하고 연합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이를 알 수 있다.<sup>187)</sup>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회를 조직하고 금주선전을 주도·진행한 것은 조선여성들이었다.

과업 : 엽서나 편지로 친척이나 친구에게 금주 권면, 금주책자 보내기, 꽃씨 보내기, 약한 자에 대하여 강한자의 동정깊은 태도를 기를, 공중앞에서 자기 의견 당당히 발표하기.(「소년소녀 절제부」 『기독신보』, 1932년 10월 5일.; 이효덕, 「절제운동을 어떻게 할가」 『기독신보』, 1933년 1월 18일.)

185) 「朝鮮女子基督教節制會 聯合會의 事業계획」 『기독신보』, 1936년 7월 22일.

186) C. I. Tinling, The W.C.T.U. in Korea, *The Korea Mission Field*, Nov. 1923.; Cordelia Erwin, The W.C.T.U. Movement in Korea, *he Korea Mission Field*, Feb. 1925.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1923		1924-1925	1928
회장	A. B. Chaffin	회장: Mrs. Anna Chaffin,	회장 Billings, B. W.
부회장	E. A. Winn,	부회장: Miss Emily Winn	부회장 Avison. J. B.
	E. A. McLellan	Miss E.A. McLellan	서기 Bonwick, C. Amy Jones
총무	C. Erwin,	Miss A.S. Doriss	Tinsley, Hortense
서기	E. W. Koons	간사: Miss Cordelia Erwin	회계 T. Hobbs
회계	T. Hobbs	회계: Mrs. D.A Bunker,	순회강연부장 Miller, Ether
			과학적절제교육부 C. Erwin
			절제선전부 E. W. Koons

187) 「기독부인의 금주선전」 『매일신보』 1927년 1월 26일.; 「서양인연합절제회총회 금주운동을 대々덕 계획」 『기독신보』, 1927년 12월 7일.;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통일순서」 『기독신보』, 1929년 10월 30일.

《표 9》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 연합회 임원 구성

연도 임원	1923	1924	1926	1928	1929	1932	1933	1935	1938
회장	박인덕 (?)	유각경	유각경 최활란	유형숙 홍에스터	최활란	김병규	최활란 유각경	유각경 최활란	최활란
부회장		김 선							
총무	정마리아	손메레	빌링스 손메레	손메레	어원 (명예총무) 이효덕 (순회총무)	이효덕	이효덕	이효덕	장정심
서기		문인순	문인순 김보린	문인순		김현숙 이은경	김현숙 장정심	정현숙 장정심	
회계			밀러 홉스	최활란 양매륜		유형숙	황애덕 양매륜	양매륜 박양무	
연합 위원						유각경 장귀련 김병규 배의례 전마태 허어원 함스 채부인 멜링스 홍에스터 리숙정 밀너	채부인 배의례 미세쓰 함스 김선 김병규 윤활란 미세쓰 허스터 홍에스터	김폴닌 홍에스터 김선 김메볼 변부인 전마태 고숙원 윤활란	김폴린 김선 등

『기독신보』, 1924년 9월 10일.; 1926년 12월 1일.; 1928년 8월 29일.; 1929년 10월 30일.; 1932년 4월 27일.; 1933년 7월 19일.; 1934년 2월 21일.; 1935년 9월 11일.; 『감리회보』, 1933년 7월 10일.; 『동아일보』, 1938년 1월 4일.; 『동아일보』, 1928년 8월 21일.; 「공헌이 자못 큰 女基節制會」 『女性』 3권 6호, 1938년 6월.에 의해 작성<sup>188)</sup>

188) 초대 임원에 대해서 황애덕은 회장 박인덕, 총무 정마리아라고 회고하였는데(황애덕, 「대한여자 기독교절제회유래와그상황」 『절제』 재건2호, 1955.), 이것이 『한국절제운동 70년사』에 채수록되면서 초대회장이 홍에스터로 기록된다. 또 이 책에 수록된 임원진에 대한 기억은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 되도록 당시의 신문을 참고하여 기록하였다.



이들 임원진들의 면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본 것이 《표 10》이다.

《표 10》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 주요 인물

이름	생존기간	출신	교파	학력	경력
유각경	1892-1966	서울	장	정신여학교 북경 협화여자 전문학교	정신여학교 교사 1922 조선 YWCA창설 주역, 최초의 유급 총무 1932- 1936 YWCA연합회 회장 1927 근우회 발기인
김선	1896-?	평북 강계	감	강계여자보통공립 학교 일본 神戸신학교	대동단 활동 1921 조선여자교육회 부회장 1925-28 조선 Y연합회 연합위원 1927 근우회 창립 발기인 1928 근우회 경성지회 집행위원
손메례	1885-1963	서울	감	진명여학교 감리교여학당	1915년 경부터 이화여자보통학교 성경, 가사 교수 1930 경성지역 여전도인으로 활동 근우회 활동
최활란	1888	인천	감	일본 長崎의 活水 여학교 1915 이화학당 대학과	1907 이화학당 교사 1910년경 황에스터, 김보린, 김활란 박인 덕 등과 애국여성동지회 결성하여 애국운 동 1925 이화여자전문학교 교수
김보린 (김폴린)	1898-?	평양	감	이화 중등,대학과 노스웨스턴대, 에모리대학 신학, 교육학 일본 아오야마학 원 신학부	이화여자전문학교 교수 감리교신학대 교수 1934 기독교조선감리회 총리원 교육국 간사 전삼덕의 손녀
이효덕	1895-1978	평남 용강	감	숭의여학교 협성여자신학교	송죽회 활동 및 시위 주도로 체포, 수감 1924 졸업후 태화여자관성경학교 교감 1927-29 전주 기전여학교 사감 겸 교사 로 재직 전주 YWCA조직, 초대회장
홍에스터	1892-1975	서울	감	이화여전 테네시 스카렛대 학 신학부 졸업	이화여자보통학교 교사 1927 YWCA회장
장정심	1898-?	개성	감	호수돈여학교 이화여전 협성여자신학교	개성감리회 엠윗청년회 활동 1927 『청년』 통해 시인활동 시작

이덕주, 『한국 감리교 여선교회의 역사』, 기독교대한감리회여성선교회전국연합회, 1991.  
천화숙, 『한국 여성기독교사회운동사』 혜안, 2000.; 장병옥, 『한국감리교여성사』, 성광  
문화사, 1979.; 『기독교대백과사전』에 의해 작성

위의 표에서 살펴본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 주요인물 대부분은 기독교계 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이나 미국 등의 선진 학문을 경험한 신여성들이었다. 다년간 회장을 역임한 유각경은 임원진 가운데 거의 유일한 장로교 여성으로서, 정신여학교 졸업 후 장로교 여선교사의 주선으로 북경 유학을 했다. 1922년 조선 YWCA 창설의 주역으로서 YWCA 최초의 유급총무와 1932년부터 1936년까지 YWCA연합회 회장을 지냈다. 1927년 근우회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근우회 활동도 하였으나 1929년 해소 이후에는 YWCA 활동에 전념했다. 김선은 강계여자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유학 당시 조선여자총학회의 중심인물로 활약했던 인물이다. 귀국 후 전협·최익환 등이 조직한 독립운동단체인 대동단에 참여하여 활동하였고 차미리사, 방신영 등과 더불어 조선여자교육회를 결성하여 여자야학강습소, 강연회, 잡지 발간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sup>189)</sup> 특히 1921년 6월부터 10월에 걸친 전국순회강연은 지방 여성운동의 활성화에 크게 공헌하였다. 1925년부터 조선 여자기독교청년연합회 연합위원, 근우회 창립 발기인으로 활동했다.<sup>190)</sup> 문인순은 1923년 당시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 제정 감사위원으로 활약 중이었다. 최활란은 이화학당과 일본 活水여학교를 유학하고 1907년부터 이화학당 교사를 지냈다. 1910년경에는 황에스터, 김보린, 김활란 박인덕 등과 ‘애국여성동지회’ 결성하여 활동했으며 태화여자사회관과 연결되어 여성운동을 전개하였다.<sup>191)</sup> 김보린은 평양의 초기 전도부인 전삼덕의 손녀로 이화 대학과를 8회로 졸업하고 이화여학교 교사로 활동중이었다.<sup>192)</sup> 황에스터는 갑오개혁의 중진으로 활약하던 흥정후의 장녀로서 이화학당과 미국 내쉬빌 스카리트 대학을 졸업하고 협성여자신학교에서 교수하였다. 1927년부터 조선여자기독교청년연합회 회장, 1931년부터는 조선감리회 여선교회 회장을 역임한 중진 기독교여성이었다. 장정심은 호수돈여학교와 이화학당, 감리교 협성여자신학교를 졸업했다. 개성감리교회 엠윗청년회에서 적극 활동하던 중 1927년 『청년』에 시를 발표하면서 시인으로 알려졌다. 특히 1934년 발간한 시집 『琴線』은 빼앗긴 조국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것으로 각종 잡지와 신문에 게재되었다. 그녀가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 총무로 재임시 북간도와 남만주 지역에 절제회 지부 개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길림성 지회 활동이 눈에 띄게 발전하였다.<sup>193)</sup>

이효덕·김선·김보린은 평안도, 손메레·유각경은 서울, 장정심은 개성, 최활란은 인

189) 『동아일보』, 1920년 4월 24일, 5월 9일, 1922년 1월 9일.

190) 이덕주, 『한국 감리교 여선교회의 역사』,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선교회전국연합회, 1991, pp. 259-269.

191) 천화숙, 『한국 여성기독교사회운동사』, 혜안, 2000, pp. 107-108

192) 장병옥, 『한국감리교여성사』, 성광문화사, 1979. pp. 321-379.

193) 이덕주, 『한국교회 처음 여성들』 기독교문사, 1990, pp. 240-249.

천 출신인데 이들 지역은 일찍이 기독교가 수용되고 선교활동도 활발했던 지역이었다. 따라서 장정심이나 홍에스터와 같이 부친에게서나 김선의 경우처럼 조모 등에게서 신앙을 물려받은 경우가 많았으며 대부분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에서도 임원을 맡았던 대표적인 기독교 여성 지도자들이었다. 또한 이들은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 결성 이전 각각 교육·계몽·비밀결사 등의 민족운동을 펼쳤고, 근우회 창립부터 그 활동에 참여하여 왕성히 활동한 민족주의 여성들이었다.<sup>194)</sup>

이들이 소속된 교단별로는 감리교인의 수가 월등하다. 이는 1923년 조직될 당시 협성여자신학교(전 감리교여자성경학원)에서 시작된 것과도 연관이 있다.<sup>195)</sup> 협성여자신학교 교장 채핀(Chaffin, Anna Bair)이 초대 회장을 맡았던 것, 감리교 연회와 합동으로 사업을 전개하던 정황과도 관련하여 감리교 여성들의 참여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는 세계단체의 일원이었던 만큼 대외 교류활동도 있었다. 중국여자절제사업 활동 상황도 참고가 되었고, 1930년 최활란이 캐나다 토론토회의에, 1937년엔 유각경이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절제회에 참석하는 등 세계적 단체의 일원으로 참가하기도 했다.<sup>196)</sup> 일본여자교풍회와의 교류도 있어서, 그들의 활동을 견학하기도 하였고, 협조하에 절제관련 책을 번역출판하기도 하였다.<sup>197)</sup>

## (2) 금주단연동맹

평양에서는 평양YMCA의 임원으로 있던 김봉준을 비롯하여 지군식, 김형집 등 북감리회 남산현교회 청년들을 중심으로 1927년 3월 금주단연동맹이 창립되었다.<sup>198)</sup> 이 단체는 감리교단의 후원을 받은 유관단체라고 할 수 있다. 감리교 연회

194) 김선, 유각경, 이효덕, 최활란, 홍에스터, 손메레, 양매륜 모두 근우회 발기인이었다. 이지원, 앞의 글, 179-180쪽.

195) J. D. VanBuskirk, Korea Conference, *Annual Report*, 1924, pp. 87-88.

196) 「京城女子節制會月曜座談會 開催」 『동아일보』, 1933년 11월 12일.; 「세계절제회출석한유각경씨귀국」 『동아일보』, 1937년 7월 17일.; 『구세신문』, 1934년 3월.; 『조선일보』, 1937년 5월 4일.

197) 홍에스터, 「일본본여자교풍회 견학 보고」 『기독신보』, 1934년 5월 30일.

198) 「금주단연동맹」 『동아일보』, 1927년 3월 14일. 참고로 금주단연동맹 회원 및 임원상황은 다음과 같다.

연도	임 원
1927	회장: 김봉준 부회장: 김정선 총무: 김몽진 서기: 지군식 회계: 김형집, 박준국
1931	회계 한정훈: 서기: 현원겸 외 1인 선전부: 이성근 외 3인 검찰부: 변용만 외 3인 사교부: 오웅천 외 3인 출판부: 김희하 외 3인
1931	회장: 김봉준 총무: 홍기완 교양부: 이문혁 외 3인 조직조사부: 이정방 외 3인

평양지방 금주위원회인 안석준이 금주단연동맹의 기관지인 『절제생활』에 대하여 연회에서 보고를 한다든지 “평양지방부의 경영인 『절제생활』이란 잡지를 위하여 300불을 청구하여 주기로 한다”라든지 “평양지방 회장이 절제생활사 경비로 백원 보조청구한 데 대하여는 금 오십원 보조기로 한다”라는 등의 연회록의 기록을 살펴볼 때, 금주단연동맹이 직접적인 감리교 절제운동 기구라고는 할 수 없어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sup>199)</sup>

창립 이후 적극적인 활동을 벌인 결과 금주단연동맹은 1년 만에 130 여명의 회원과 상당액의 회금을 지닌 탄탄한 단체로 일어섰다. 1928년부터 『節制生活』이라는 기관지까지 발행하고 금주선전활동에서 나아가 공동저축운동을 추진하기도 했다. 또한 각 지방의 우의단체 조직에 노력하여 江西와 龍岡에도 협력단체로서 각각 두만리절제회와 란유리절제회를 탄생시켰다.<sup>200)</sup>

금주단연동맹은 의연금을 모집하여 평양부내 곳곳에 금주선전 간판을 세우고, 각종 강연회 개최했다. 특히 1930년 2월 평양물산장려회와 공동으로 진행한 선전행렬은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회원증원을 위해 한 명의 회원이 신입회원 한 명 이상을 책임모집하기로 결의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보다 효과적인 금주운동전개를 위해 전국에 있던 각종의 금주 유사 단체를 종합하여 전국적인 금주연맹 조직을 도모하기도 했다.<sup>201)</sup>

### (3) 조선기독교절제운동회

조선기독교절제운동회는 1932년 5월 5일 평양신학교에서 조직되었다. 조만식, 채필근, 송상석 등의 장로교 남성들이 발기인이 되어 결성한 이 단체는 “주류, 연초, 아편, 창기, 약질, 폐습 등의 해악을 제거하여 자아의 영원한 인격을 건설하고 가련한 생명을 구제하며 사회 일반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그 취지로 삼았다.

---

「금주단연동맹총회(평양)」『동아일보』, 1928년 4월 5일.; 「금주단연동맹 정기총회 개최」『동아일보』, 1931년 4월 24일.

199) 『예수교미감리회 조선연회록』 1928, 1929. 동아일보도 이 단체가 “감리교내의 절제회와 상호 합작하여 절제생활 선전”을 할 예정이라 보도하고 있다. 「『節制生活』發刊(平壤)」『동아일보』, 1928년 1월 7일.

200) 「평양중앙교회 잡보」『기독신보』, 1927년 8월 3일.; 「금주단연동맹회 위원회」『동아일보』, 1927년 10월 11일.; 「금주단연동맹 창립기념식」『동아일보』, 1928년 3월 12일.; 「절제생활 평양금주단연동맹회에서 발간준비중」『동아일보』, 1928년 1월 3일.; 「兩地 「節制會」創立」『동아일보』, 1930년 2월 4일, 1931년 2월 18일.

201) 「금주단연동맹 정기총회 개최」『동아일보』, 1931년 4월 24일.; 「평양금주동맹 적극선전계획」『동아일보』, 1931년 9월 22일.; 「禁酒斷煙同盟會와 朝鮮物産獎勵會」『매일신보』, 1931년 2월 19일.

조직 당시 50명의 발기인으로 시작되었는데, 임원은 회장 채필근·조만식, 총무 송상석, 서기 우호익·이권찬, 고문 객안련·편해도, 회계 정두현·강봉우, 이사 채필근·조만식·정인파·정두현·우호익·강봉우·이성휘·박형룡·이창호·정태희·송상석·이권찬·한영신(女)·김화목(女)·안인대(女)이다.<sup>202)</sup>

면면을 살펴보면 장로교 인사들 중심임을 알 수 있다. 장로교 직속의 절제운동 기관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임원 대부분이 장로교인이었고, 장로교 총회에서 공인을 받고 적극적인 후원을 받았다.<sup>203)</sup> 이것은 이 단체가 1933년 2회 총회에서 장로교 총회에 절제부 설치를 청원할 것과 장로교 각선교부에 보조금을 청구할 것을 결의하고, 회장이었던 채필근이 『기독신보』에 공개적으로 장로교 총회안에 농촌부, 종교교육부처럼 절제부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sup>204)</sup>

조선기독교절제운동회는 금주, 단연, 교풍, 공창폐지, 저축장려, 미신타파 등을 주요사업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조사, 연구, 출판, 선전, 순회강연, 강습회개최, 기금적립, 지회설치에 노력하고, 1933년부터 기관지 『節制時報』를 발행하였다.<sup>205)</sup>

회장 채필근과 조만식은 장로교의 중진으로서 각종 강연과 설교, 신문논설을 통해 사회문제에 대한 입장을 피력하면서 절제운동의 중심인물로 활동했다. 조선절제운동회의 실무를 담당한 인물은 총무 송상석이었다. 조선기독교절제운동회 이전부터 절제운동에 매진해왔던 그는 1925년 「절제운동서한지」를 제작하는 등 전국적인 절제운동을 준비하면서 1927년 황주에 금주선전단을 조직하고 황주주일학교 연합대회기간 중 대대적인 금주선전을 펼쳤다. 당시 조선금주운동단은 임시로 단원 이동회의 황주제중의원을 사무소로 사용하면서 금주표어·논문·동요·동화 모집, 근검저축, 위생사상과 체육을 장려하는 활동을 펼쳤다. 또한 알콜문제 연구부와 중독자 치료부를 설치하여 운영하였고 금주신문과 잡지 발행도 계획하였다. 재단법인 설립, 전국적인 조선민중금주운동총동맹회의 조직, 국제금주연맹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sup>206)</sup>

이후 조선금주운동단의 특별한 활동은 눈에 띄지 않지만, 미성년자음주흡연금지

202) 「조선기독교 절제운동회 창립」 『조선일보』, 1932년 5월 20일.; 「조선기독교 절제운동회」 창립」 『기독신보』, 1932년 5월 25일.

203) 『朝鮮 예수敎長老會總會 第21回 會錄』, 1932.

204) 「基督教節制會 평양에서 대회」 『동아일보』, 1933년 11월 22일.; 「조선기독교절제운동회 제2회 정기총회개황」 『기독신보』, 1933년 12월 6일.; 蔡弼近, 「敎會의 本務로서 본 節制運動」 『기독신보』, 1934년 8월 8일.

205) 「朝鮮基督教 節制運動會創立」 『동아일보』, 1932년 5월 20일.

206) 「금주하시오」 『동아일보』, 1924년 2월 26일.; 「世界的으로 된 黃州 禁酒宣傳 顛末」 『기독신보』, 1927년 12월 14일.; 「朝鮮禁酒運動團 今後 計劃」 『기독신보』, 1928년 1월 11일.

법실시촉성회에 금주운동단 이동회의 이름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계속 존재한 것 같다. 송상석은 1928년 5월 황주기독교청년면려회가 새롭게 조직 편성될 때 회장으로 피선되면서 면려회 활동을 하였고, 1929년 경성으로 상경하여 중앙예배당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하고 ‘조선을 구할 십대요소’라는 선전지를 배부하면서 절제운동을 계속하였다. 이후 그는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의 금주논문현상에도 당선되면서 절제운동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보이는데, 특히 조선기독교절제운동회를 거점으로 미성년자음주흡연금지법 제정에 노력하였다.<sup>207)</sup>

절제운동단체로 이밖에도 평양금주동맹회가 있다. 1920년 4월 韓永吉 외 34인이 발기인회를 구성하고 120여 명의 입회로 성대히 창립되었다. 평양부내 남산현예배당, 청년회관 등지에서 강연회를 수시로 개최하였고, 금주선언서를 배포하며 선전을 하여 때마다 수 천명의 열렬한 호응을 얻었다. 회장은 鄭七鉉이었고 이하 金純秀 金昌輝 金光植 金基演 등이 임원으로 있었으며, 조만식이 강연회 연사로 활동하면서 평양지역의 금주운동단체로 활약했다.<sup>208)</sup>

기독교청년연합회인 YMCA와 YWCA의 활동도 빼놓을 수 없다. 기독교 청년·학생 조직 연합체로서 각종의 계몽운동과 사회사업 농촌운동 등 기독교계 사회운동 전개에 가장 선두에 섰던 그룹이 바로 이 두 단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 청년기독교연합체였던 YMCA는 1920년대 중반부터 농촌사업을 전개하면서 절제운동을 병행하여 전개하였다. 청년학생들이 특히 이 운동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조선학생금주연맹’을 조직할 계획을 세웠다. 각 학교에 세포단체를 두고 전국적인 학생금주연맹을 조직한 후, 만국학생금주연맹에 가입하려는 계획이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외국의 금주문제에 대한 문헌 번역·소개, 신문·잡지를 통한 계몽활동, 특별강연, 학생현상대회, 방학을 이용한 전국적 선전 및 금주촌 건설 조직 등이었다.<sup>209)</sup> 1924년 8월 10회 학생하령회에서 금주단연의 실행 선전, 공창폐지 운동의 전개, 성경에 위반되는 이혼과 축첩 반대, 토산 장려를 결의한 이래 각 지역 혹은 학교별 절제운동이 이어졌다. 특히 신성학교와 선천의 YMCA는 매년 단오절을 이용하여 대대적인 금주시위 행렬을 주도하면서 절제운동을 선도했다. 김화식, 채필근, 장리옥, 서춘, 현동완, 유각경, 홍병선, 이대위 등이 강사로 초

207) 「금주운동단의 활동」 『중외일보』, 1927년 12월 31일.; 「黃州基靑解體新組織」 『중외일보』, 1928년 5월 14일.;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 현상논문당선발표」 『기독신보』, 1932년 5월 25일.

208) 「청년 삼십명이 금주회를 조직해」 『매일신보』, 1920년 4월 17일.; 「平壤禁酒同盟創立總會」 『동아일보』, 1920년 5월 4일.; 「평양금주선전, 평양금주동맹회 설립코 금주선전」 『동아일보』, 1920년 5월 8일.; 「평양금주동맹회 대강연(평양)」 『동아일보』, 1920년 5월 19일.; 「금주동맹회강연」 『기독신보』, 1920년 5월 26일.; 「평양청년회관내에서 금주동맹총회 개최」 『동아일보』, 1920년 6월 6일.

209) 「朝鮮學生禁酒運動團組織」 『청년』 1930. 5.

청되어 대대전인 대회를 이루었다.<sup>210)</sup> 학생들의 하기 방학을 이용한 계몽운동에도 농촌사업과 아울러 금주운동이 핵심 사업으로 지목되어 금주강연회 및 강습회, 협동조합 조직 지도, 생활개선의 절제운동이 이루어졌다.<sup>211)</sup>

YWCA도 기독교여성운동에 앞장서는 가운데, 공창폐지, 조혼폐지, 생활개선을 주장하고 절제운동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또한,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에서 활동하였던 여성들이 YWCA에도 많이 있었던 만큼, YWCA의 농촌계몽 활동 등에서 소비절약과 생활절제, 금주교육 등이 같이 이루어졌다.

다만, 이 두 사회단체는 절제운동을 위해 조직된 단체가 아니니 만큼 따로 다루지는 않고, 운동의 전개 과정 가운데 이 단체들의 활동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sup>212)</sup>

---

210) 「우리 學生夏令會의 決議案」 『청년』 4권 10호, 1924년 10월.; 「地方青年會活動」 『청년』 9권 8호, 1929년 9월.

211) 「青年會消息一束」 『청년』 9권1호, 1929년 1월.; 「青年會活動」 『청년』 10권 5호, 1930년 7월.; 「學生基督教青年會事業決議案」 『청년』 12권 6호, 1932년 6월.

212) YMCA와 YWCA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저가 참고된다. 전택부, 『한국 기독교청년회 운동사』, 범우사, 1994.; 장규식, 「YMCA 학생운동과 3·1운동의 초기 조직화」 『한국근현대사연구』 20, 2002.; 천화숙, 『한국 여성기독교사회운동사』, 혜안, 2000.

### Ⅲ. 금주금연운동

#### 1. 금주금연의 배경과 논리

기독교계가 전개한 절제운동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금주·금연운동이다.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는 창립된 이후, 간접으로 직접으로 제가 듣기는 이 회 명칭은 금주회라고 알게 되었습니다”<sup>213)</sup>라고 말한 것처럼 금주금연운동이 곧 절제운동을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될 만큼 금주금연운동은 절제운동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금주금연운동을 강하게 주장한 이유와 논리를 『기독신보』에 보이는 금주할 이유로 제시된 것들을 통해 정리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1》 『기독신보』에 나타난 금주금연의 이유<sup>214)</sup>

이유	건수
종교적 이유(‘음주는 죄’, ‘성전된 몸’)	7건
경제적 이유(개인적 소비절약, 문명부강 사회 등)	17건
건강상 이유(육체적·정신적 해독, 위생, 유전 등)	40건
사회적 이유(범죄감소, 가정·국가·민족·사회 평화)	46건
* 미국 및 외국의 사례	30건

대략 경제적 이유, 심신의 건강, 종교적 이유, 문명부강의 문제로 정리될 수 있다. 한 가지 이유만 주장한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복합적인 이유들이 거론되었으며, 단일 이유로서 최다 강조된 것은 건강문제이다. 그런데, 개인의 신체와 정신을 해치는 것에서부터 비롯된 주장들은 대부분 음주가 민족발전과 문명부강을 방해한다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다. 결국 음주가 신체를 상하게 하고 경제를 파탄시켜 모든 패가망신의 근원이 되는 죄악으로 귀결된다.

213) 이효덕, 「절제운동을 어더케할가」 『기독신보』, 1933년 1월 18일.

214) 1915년 2월에서부터 1937년 5월까지 『기독신보』에 보이는 사실, 논설 및 기사를 토대로 작성함. 하나의 글에서 여러 가지의 이유가 언급될 경우, 각각 분류하였음.



금주금연에 대한 다양한 이유와 논리는 금주금연운동이 촉발되는 밑거름이 되었다. 건강한 신체와 정신은 건강한 국민을 근간으로 하는 근대국가 건설에, 경제적 이유는 식민지 현실의 소극적 대책으로서, 윤리·종교적 이유는 기독교 신앙의 실천이라는 면에서 전개되었다.

이 장에서는 금주금연운동의 배경으로서의 금주금연론과 금주금연운동의 구체적인 실천양상을 살펴면서 절제운동의 단면을 보고자 한다.

## 1) ‘성전된 몸’의 수호와 종교적 구원론

금주금연을 주장한 논리 가운데 하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신 聖殿된 몸’을 더럽히거나 망가뜨려서는 안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성경말씀을 보건대 주를 신봉하는 사람의 몸은 성신의 성전이 된다 흐섯는지라 엇던 스럼은 주를 밋는다 하며 성신의 성전을 가지고 더럽고 내암새 나는 굴뚝을 삼는거시 도치 안토다.”<sup>215)</sup>

기독교에서 인간의 신체는 신께 받은 형상이자, 신이 거하는 거룩한 곳으로 인식되면서 건강하고 성결하게 몸을 지켜야 하는 것이 신자의 도리로 여겨졌다.<sup>216)</sup> “하느님께서 신성으로 거하시고저 하시는 성전이 된 우리 몸에다가 미치게 하고惡하게 하는 술을 피뵈으며 담배내를 피워서 더럽게 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큰 죄악”이었다.<sup>217)</sup> 때문에 술뿐만 아니라, 담배와 아편 모두 ‘성전’을 망가뜨리는 해악물로서 금해야 할 것이었고, 다음 장에서 언급되듯이, 이런 맥락에서 몸을 성결하게 보전해야 하기 때문에, 음행도 경계의 대상이었고, 공창은 음행을 조장하는 것으로서 폐해야할 대상이었다.

술과 담배, 음행 같은 ‘반절제의 행동’은 구원의 최대 방해물로 인식되면서 종교적으로 큰 문제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음주와 흡연이 거룩한 몸을 더럽히는 것으로 인식되기는 하였지만, 음주흡연하면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논리로 흐르지 않았다. 그것이 ‘구원의 방해물’이 된다고는 했지만, 구원의 필수적인 조건은 아니었다. 다만, 신자로서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성결한 삶의 자세로서 강조되었던 것이다.

때문에, 금주금연운동이 사회운동으로 활발히 전개되면서 강조되었던 논리는 중

215) 에프 에스 밀러, 「굴뚝」 『언설초집』, 조선야소교서회, 1913.

216) 이은경, 「禁酒의 利益」 『기독신보』, 1931년 8월 26일.; 『기독신보』, 1934년 8월 8일.

217) 蔡弼近, 「教會의 本務로서 본 節制運動」 『기독신보』, 1934년 8월 8일.

교적인 것보다 경제적, 사회적 이유가 훨씬 두드러졌다.

## 2) '경제력 증진'과 문명부강론

금주금연해야 할 이유로 제시된 여러 주장 가운데 당시 조선인들의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 닿은 것은 경제적인 문제였다. 기독교인들은 술과 담배로 소비되는 액수를 아래와 같이 통계수치로 제시하고 그것이 총독부 수입의 상당액을 차지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금주금연을 주장하였다.

“우선 술로 말하면 조선에서 매년 총생산량이 170여 만석으로 酒稅만이 1년 동안에 1,170만원이라고 하면 이것으로 인하여 매년 9천만원식 낭비되는 것은 조금도 이상히 생각할 것이 아니다. 담배로 말할지라도 조선전매 사업에 첫째가는 수입재원으로써 1932년 매상고는 3,217만원이라는 거액에 달한 것이다. 그러함도 불고하고 어떤 郡에 서는 다만 술값이 매인 평균 14원 되는 곧도 있고 혹은 17원 되는 곧도 있어서 한달에 단 60전만 두면 자녀교육을 시킬 수 있지만 그것도 내지못하여 교육을 시키지 못하는 것도 또한 우리의 현상이다.<sup>218)</sup>

기존에 자가용으로 주조되고 경작되었던 술, 담배가 점차 대규모 공장화되자 이에 지출되는 비용이라도 절약하여 경제적으로 궁핍한 현재의 생활을 절제적 생활을 하는 것으로써 극복하고자 했던 것이다. 특히 담배는 전매를 통한 수익이 총독부 재정의 주요 부분을 차지한다고 비판하면서 이에 대한 시정과 반성을 촉구하였다.<sup>219)</sup>

또, 당시 조선의 부채가 4억 8천만원으로, 1인당 24원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금주함으로써 이 빚을 갚고, 음주에 허비되던 돈을 교육에 투자하자고 하였다.<sup>220)</sup> 이러한 점에서 금주금연운동은 “물질노 당흔는 窮迫이 7장만흔 우리들의게 당연히 니러날 스업인 동시에 쏘흔 우리의 생활을 좌우할만큼 중대흔 운동”<sup>221)</sup>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술은 빈궁의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지적되었다.<sup>222)</sup> 음주는 직접적 지출을 야기하는 경제적 손실일 뿐만 아니라 미래의 수입을 가로막는 방해물이었다. 역의 논리로 금주는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혜택이었다. 금주로 사람의 육체가 건강해지고 정신상 능력이 증진되면 생산력, 구매력, 저축이 늘어날 것이고 교육받는 사람

218) 李大偉, 「朝鮮教會와 節制運動」, 『종교시보』, 1934년 4월.

219) 「煙草로 빠른 黃金」 『기독신보』, 1933년 4월 12일.

220) 「우리의 急先務」 『기독신보』, 1932년 7월 27일.

221) 「遼遠의 火7치 니러나는 全國 禁酒煙運動」, 『기독신보』, 1923년 3월 14일.

222) 石我, 「술은 빈궁의 원인이 된다 음주자의 각성을 촉하노라」 『구세신문』, 1924년 3월.

이 많아지게 되면서 의식주 생활이 개선되고 사회 전체의 경제력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었다.<sup>223)</sup> 술과 담배에 소비되는 비용이라도 절약해서 생계에 필요한 일에 쓰자는 주장, 즉 금주금연한 돈을 저축하여 소비조합 등을 조직하고 다른 산업을 도모하는 일은 이러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손메레는 경제공황을 당한 조선의 현 처지에서 해야 할 일은 안입고 안먹는 것이 아니라 필요없는 술을 끊는 일이 먼저라고 금주의 이유를 밝혔다.<sup>224)</sup> “파멸하여가는 조선경제에 이같이 막대한 금전을 무용히 소비되는 것을 우리는 힘을 다하여 막아야 한다. 장래의 조선민족을 계승할 어린이는 밥에 주리고 배움에 주려 있는 처지에 술값으로 거대한 금액을 헐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현재의 조선을 더욱 구렁으로 끌어넣는 것”이었다.<sup>225)</sup>

류형숙도 “경제력이 날로 감하여 가는 조선”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경제력을 적극적으로 증진시키고 소비를 감소하는 데 노력해야 할 터인데, 그 방법으로 가장 먼저 금주를 꼽았다.<sup>226)</sup> 또, 통계를 제시하며 술이 경제를 파멸시킨다는 내용으로 설교하는 교역자가 적다고 비판하면서 금주설교가 실제로 이루어져야 하고, 교회와 교역자가 모두 이에 나서야 된다고 하였다. 그는 과거 기독교 교역자가 사회와 종교교육, 문화사업에 ‘중등인물’들이었으나, 현재에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다고 비판하고 목사와 장로, 전도부인 등의 교역자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이는 신자들의 정신생활 뿐만 아니라 실제생활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기에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부터 솔선하여 경제계를 재흥시킬 책임이 있다고 파악한 데 따른 주장이었다.<sup>227)</sup>

신자 및 교회의 사회적 사명 내지 책임론에 입각한 이 논리는 술을 조선을 망하게 하는 원인으로 보는 데에서도 나타난다. 술이 조선을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망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데, 이를 막지 않고 망해가는 조선을 외면하는 일은 신자의 본분을 망각한 행동으로서 화를 당할 것이라고까지 하였던 것이다.

조선사람의 정신과 물질이 이것으로 인하여 아울러 망하는 것을 보고 교회까지 제삼자의 태도를 취한다고 하면 우리는 맛당이 멸망을 받아야 옳은 것이요 이것으로 인하여 저들이 지금 망하는 길에 선 것을 보고도 우리 신자들이 동하지 안을 것같으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화가 미칠 것이다.<sup>228)</sup>

223) 「社會問題에 對한 基督教의 態度를 再考함」 『기독신보』, 1926년 3월 10일.

224) 손메레, 「안전한 生活」 『기독신보』, 1926년 12월 27.

225) 「禁酒運動의 意義」 『기독신보』, 1933년 2월 22일.

226) 류형숙, 「우리의 경제력과 술」 『기독신보』, 1928년 6월 27일.

227) 柳滢淑, 「敎役者와 禁酒運動」 『기독신보』, 1928년 7월 25일.

228)李大偉, 「朝鮮敎會와 節制運動」 『종교시보』, 1934년 4월.

기독교인들은 살림살이가 날마다 줄어가는 반면 술집이 늘어가는 것을 비판하면서 조선의 경제적 파산의 근본 원인이 술에 있다고는 하지 못할지라도 술로 인한 낭비는 민족 전체에 큰 폐가 된다고 하였다. 비록 금주를 한다고 하여 복잡다단한 사회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지만, 술값으로 지출되는 돈이 교육비를 상회하는 상황을 볼 때, 음주는 경제문제에 큰 타격을 주고, 금주는 그것을 조금이라도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sup>229)</sup>

금주금연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기대는 금주 문명부강론에 기인했다. 금주는 국가적, 민족적, 개인적 경쟁이 치열한 현재에, 시간·건강·교육·정신수양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었고, “국민의 해독물을 제거함은 문명부강에 기초”가 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sup>230)</sup>

이런 맥락에서 음주는 “만약의 本”으로서 “개인을 죽이며 가정을 깨뜨리며 민족 국가 사회를 있는대로 모조리 망하게 하는 세상에 있는 무서운 독약”이므로 개인의 건강, 사회의 행복, 국가의 부강을 위해 반드시 퇴치해야 할 대상이었다.<sup>231)</sup>

이러한 가운데, 금주법이 시행되었던 미국의 금주운동 상황이라든가 유명 인사들의 금주금연 사례가 금주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전인 191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꾸준히 소개되었다.<sup>232)</sup>

당시 기독교 문명부강 국가로 인식되었던 미국의 예는 기독교인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금주법은 문명국가로 나아가는 하나의 방편으로까지 인식되었다. ‘정의롭고 잘사는 나라 미국’은 하나님을 믿고 금주를 했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근거로 제시되면서, 잘사는 나라 미국도 금주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하물며 조선에서 시행하지 않을 수 있겠냐며 금주법 시행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국가로 인식되었고 그 이유를 금주법에서 찾으면서 금주가 ‘致富’의 주요한 방법이 되는 것으로 여겨졌다.

미국에서 금주법 시행 이후 경제가 부흥하고 사회범죄가 감소하였으며, 질병으로 사망한 자도 줄었다는 등의 내용이 소개되면서, 미국을 선망하고 이를 따르고

229) 勉勵生, 「禁酒即 活路」 『기독신보』, 1930년 4월 30일.

230) 劉貞善, 「금주단연은 국가문명부강의 기초」 『기독신보』, 1920년 6월 16일.

231) 「사설; 禁酒와 基督教」 『기독신보』, 1930년 4월 30일.

232) 「미국의 금주와 동양의 영향」 『기독신보』, 1919년 3월 12일.; 「미국에서 금주한 첫주일형편」 『기독신보』, 1919년 11월 12일.; 「외보 : 미국에서 금주한 후에 된 형편」 『기독신보』, 1919년 12월 10일.; 「금주와 금연 : 전미의 금주효과」 『기독신보』, 1921년 12월 28일.; 「금주와 금연 : 미국의 금주효과」 『기독신보』, 1922년 1월 4일.; 「금주와 금연 : 금주로 인하여 진흥된 미국의 각사업계」 『기독신보』, 1923년 1월 31일.; 「금주의 필요」 『기독신보』, 1923년 7월 18일.; 「致富의 途: 제일 부요한 나라는 미국이요」 『기독신보』, 1923년 9월 12일.; 「금주담총」 『기독신보』, 1924년 5월 7일.; 「미국의 금주조약」 『기독신보』, 1924년 6월 4일.; 「절제부: 십년간 금주의 결과로 다른 사업도 크게 번창」 『기독신보』, 1926년 3월 16일.; 「금주담총: 미국 철도계의 금주영향」 『기독신보』, 1926년 3월 17일.

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아동과 청년교육에도 금주운동이 반드시 필요함을 미국의 예에서 찾고 술의 해독이 만연한 조선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금주운동을 이해했다.<sup>233)</sup>

조선의 기독교인에게 미국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 선택받은 ‘복받은 나라’, ‘정의롭고 잘사는 나라’의 이미지로 다가왔다. 때문에 미국에서 시행되었던 금주법은 조선에게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 비춰졌고, 금주법도 문명국가로 나아가는 하나의 방편으로까지 인식되었던 것이다. 운동의 주체들에게는 조선도 금주운동을 열심히 하고 금주국이 되면 미국처럼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도 있었다. 이에 1933년 미국의 금주법이 폐지되자<sup>234)</sup>, 이를 안타깝게 여기면서도 조선은 미국과 사정이 다르니만큼 조선의 형편으로는 금주운동을 멈출 수 없다면서 계속하여 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sup>235)</sup>

그리고 이렇게 문명부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척도로 여겨졌던 금주금연을 실행하기 위해 기독교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을 촉구하였던 것이다.

### 3) 심신의 건강과 우생론

금주금연의 또 하나의 이유로는 원초적이고 물리적인 필요로서 음주와 흡연이 신체와 정신에 해독을 준다는 것이었다. 술은 모든 장기를 손상시켜 신체를 병들게 하고 뇌를 파괴하여 정신을 혼미케 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해치는 독이었다. 또한 이것이 자손에게까지 유전되어, 개인과 가정, 국가까지 파멸로 몰아넣는다는 논리이다.<sup>236)</sup> 술이 염치를 못차리고 부도덕한 일을 하게 하고 방탕케 하는 자극물이기 때문에, 음주자는 반드시 화를 당하고 금주자는 복을 받는다는 극단적인 해석까지 나타났다.<sup>237)</sup> 담배도 마찬가지였다. “연초는 인명을 살해하는 독의 뭉치”로

233) 河馬連, 「禁酒運動의 新方法」 『진생』 64, 1930년 4·5월.

234) 미국의 금주법은 연방정부의 권한이 확대되던 혁신주의 시대 사회개혁의 대표적 산물이었다. 그러나 금주법 시행 2년 후인 1922년 Literary Digest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미국민의 금주법 무시·경멸 의견을 볼 수 있다. 약 72만의 모집단 중 38.6%만 찬성 및 집행을 요구했고 40.1%는 금주법 수정, 20.6%는 폐지를 원했다. 적어도 61.4%가 시행에 불만을 가졌던 것이다. 많은 지식인, 기업가, 정치들이 불만을 표했고, 많은 미국인들이 여기에 동조했다. 1933년 12월 정식으로 폐지되었다. 김덕호, 「미국의 보수주의와 금주시대의 반금주법운동」 『미국사연구』 1, 1993. pp. 124-125.

235) 坐石, 「禁酒運動의 獨立性」 『기독신보』, 1934년 2월 28일.

236) 로튼민, 「금주, 참을말하라」 『기독신보』, 1926년 2월 10일.; 「술의科學的影響」 『기독신보』, 1928년 1월 11일.; 리용설, 「술의 해독」 『기독신보』, 1929년 3월 6일, 3월 13일.; 어원, 「신체에 미치는 술의 해독」 『기독신보』, 1928년 4월 4일.; 최상현, 「술과 죄」 『기독신보』, 1929년 5월 1일.

생명을 위협하는 해악이니 단연할 것을 주장하면서, 그 독이 장성한 사람보다 어린아이에게 더 해독됨을 경계하였다.<sup>238)</sup> 특히 술이 신체에 해독이 된다면 여러 가지 질병을 그 결과로 제시하는 강연이나 경제적 손실을 수치상으로 보여주는 선전은 술이 단순히 죄가 된다는 추상적 주장 비하여 과학적 방법으로 인식되어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신체를 병들게 하는 술은 개인에게 해가 될 뿐만 아니라 심신이 건강한 국민을 기간으로 하는 근대국가 수립을 위해 반드시 금해야 할 대상이었다. 술은 인간의 생명과 능률을 파멸시키고 “국민을 빈약케 하는 유일한 원인”, “질병과 죄악의 원인도” 되므로 금해야 할 것이었다. 효율, 능률이라는 근대적 가치 실현에 방해되는 것으로서도 술은 배척받아 마땅한 것이었다.<sup>239)</sup>

“나는 내 몸을 건강하게 할 의무가 있다. 그것은 내 몸이 내 몸이 아닌 까닭이다. 내 몸은 사회를 위한 몸이요 나를 위한 몸이 아니다. 나는 사회에 대하여 나의 맡은 일을 천직을 리행할 의무가 있다. 그것을 완전히 리행하기 위하여 활동력의 근원인 신체를 건강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다.

건강은 의무뿐이 아니요 행복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모든 불행 중에 불건강과 같이 끊임없이 감각되는 불행은 없을 것이다.(중략) 술과 방탕- 그것은 풍기상에 해를 주는 것보다도 건강상의 해가 더욱 문제된다. 공부를 위하여 사업을 위하여 건강을 해하는 것은 아직도 용서할 점도 있으려니와 방종한 습관을 버리지 못하여 건강을 잃는 것은 용서하지 못할 사회적 범죄다.”<sup>240)</sup>

개인의 몸은 더 이상 그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사회 구성의 일부분으로서, 신사회를 이루기 위해 건강한 개개인이 필요하기에 그것을 저해하는 술을 끊지 못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사회적 범죄로까지 취급되었던 것이다.

개인적·사회적 차원에서 동시에 강조된 신체 건강에 대한 논리는 우생학론으로 파급되었다. 우량종에서 좋은 결실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 건강한 신체의 부모에게서 건전한 자녀를 얻을 수 있고, 음주로 건강을 잃은 육체를 가진 허약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 자녀는 유전적으로 저능아, 허약자, 불구자 및 ‘폐륜부도덕자’가 많으므로 사회에 끼치는 폐해가 막대하다는 것이었다.<sup>241)</sup>

237) 「禁酒者必有福」 『구세신문』, 1924년 3월.; 一遇, 「나의 飲酒觀」 『기독신보』, 1929년 10월 2일.

238) 「담배의 독은 인명을 살해함」 『구세신문』, 1914년 7월.; 「연초는 인명을 살해하는 독의 뭉치」 『구세신문』, 1914년 11일.

239) 「社會問題에 對한 基督教의 態度를 再考함」 『기독신보』, 1926년 3월 10일.

240) 「우리주장」 『동광』, 1926년 8월.

241) 宋相錫, 「酒草의 害毒을 알자」 『신동아』, 1933년 1월.

“家庭과 社會에 崩壞를 가져오는 이 貧困, 低能亞, 精神薄弱者, 變態發狂者 등을 없애려면 이 禁酒運動을 하여야 하겠으며 一時에 다 禁酒斷煙을 實施하기는 어려우나 極力努力하여 우리의 理想과 所望의 十分之一 式이라도 窴쳐나가기를 바란다.”<sup>242)</sup>

술은 ‘저능아’, ‘정신박약자’, ‘변태발광자’를 양산하여 사회를 붕괴시키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주일학교 절제공과에서는 미국의 조사 통계를 예로 들면서 이러한 우생학적 믿음의 근거로 제시했다. ‘술을 많이 마시고 흉악한 측의 자손 800여 명’ 가운데 살인자, 강도, ‘거리지와 극히 가난한 자’, 매음부, 실업자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이들이 국고를 허비한다고 하였다. 반대로 ‘술을 아주 금하고 착한 신자의 자손 700여 명’은 목사, 교수, 대학교장, 변호사, 재판장, 기타 대학 졸업생, 육해군 장관과 같은 인물들로 이루어지고 이들은 ‘좋은 서적’을 출판하여 사회에 기여했다고 하였다.<sup>243)</sup>

금주와 음주가 ‘건강한 자’와 ‘허약한 자’를 낳는 근본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는 ‘좋은 사람’과 사회에 폐를 끼치는 ‘나쁜 사람’을 낳는 원인이 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렇듯, 신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금주를 주장한 이면에는 개개인의 안위를 위한 것도 있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개인, 보다 구체적으로 사회 유지에 기여할 수 있는 우량한 유전자를 가진 개인과 그들로 이루어진 정화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함이었다.

#### 4) 개인의 정신 개조와 사회정화론

금주금연운동은 개인 및 민족의 정신개조, 폐습타파를 목적으로 한 운동이었다. 기독교인들은 당시 사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원인을 허욕에 빠져 절제하지 못함에서 찾고 불평불만이 쌓여있는 사회를 개조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금주금연운동이 필요하다고 여겼다.<sup>244)</sup> 다음의 글은 이러한 생각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거름 더 나아가 금주운동은 경제적 입장을 떠나서 더욱 원대한 의의를 가지게 되는 것이니 그것은 민족의 건실성을 길러 민족의 경륜하는 바의 건실한 토대가 되어 민족발전에 건실한 동력이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 민족으로 하여금 건전한 도덕을 가

242) 文善好, 「女傳道師論(二)」 『신학세계』, 1938년 5월.

243) 송상석 편, 『韓國節制敎育研究史料集』, 성광문화사, 1979, pp. 115-117.

244) 손메레, 「節制는 成功의 基礎」 『기독신보』, 1928년 12월 5일.

지게 하며 그로 말미암아 한 민족으로서의 영원한 존재와 발전을 도모하게 될 것이요 세계를 향하여 공헌과 웨침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금주운동은 경제적으로 보아 필요한 운동인 동시에 그 보다도 한민족으로 하여금 건실한 민족성을 가지게 하며 도덕적 토대를 건전케 하는 데 절대적 의의가 있는 것이다.”<sup>245)</sup>

즉, 금주의 이유가 경제적 효과에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건실한 민족성’과 ‘도덕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데 있었다. 개인과 사회의 도덕적 완성은 물리적 요인보다 중요시 되었고 금주는 그것을 완성해 나가는 데 절대 필요한 것으로서 사회개조와 정화에 바탕이 된다는 논리이다. “내부에 隱伏된 최악의 근본적인 惡性”의 개량은 사회개혁의 기초로 인식되었는데, 금주는 그것을 실천하는 첫걸음으로 여겨졌다.<sup>246)</sup> 금주는 개인적으로 인격완성, 사회적으로 문화향상과 국가융성, 국제적으로 인류행복을 가져오는 길로 여겨졌다.<sup>247)</sup> 절제는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도덕과 인격을 이룰 수 있는 길이었고, 절제생활을 통해 궁극적으로 완성하고자 하는 것도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사회였다.<sup>248)</sup>

채필근은 사회의 개조나 풍속의 개량은 제도를 고치는 것보다 먼저 사람의 정신을 바꾸는 것이 근본이 되는데, 금주는 정신개조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이라고 했다. 따라서 풍속개량회나 저축계, 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할 때에도 이들 기관을 중심으로 하여 금주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자 의무이며 이는 기독교인 뿐만 아니라 사회를 지도하는 자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자발적으로 실천할 사항이라고 하였다.<sup>249)</sup>

김창진은 음주가 개인의 생명을 망치는 데에서 나아가 사회와 국가까지 폐망시키는 백가지 최악의 근본이 된다고 성토했었다. 그는 “금일에 있어서 음주는 일 사회의 일지엽적 부분문제가 아니라 전민족이 경제적 도덕적으로 갱생하는 최초의 발로”라고 하면서, 현재 조선은 세계 각국에 비교해 볼 때 ‘타락국’인데, 금주운동에 열심을 다한다면 ‘회생국’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금주선전에 힘있게 운동하여 사회와 국가까지 평화국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여 행복의 민족이 되기를” 바랐던 그의 글에서, 금주를 통해 ‘평화롭고 행복한’ 사회 건설을 도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250)</sup>

인격을 완성시키고 도덕을 함양시키는 금주금연은 기독교인들이 사회에서 감당해야 할 책임으로 인식되면서 더욱 강조되었다. 금주금연운동은 이 땅에 천국 실현

245) 「사설：禁酒運動의 意義」 『기독신보』, 1933년 2월 22일.

246) 吳太郁, 「社會改良은 基督教의 精神」 『기독신보』, 1925년 7월 29일.

247) 송상석, 「절제운동은 어떠한 것이며 敎會가 하는 理由」 『기독신보』, 1934년 8월 8일.

248) 「사설：節制運動의 眞意」 『기독신보』, 1934년 8월 8일.

249) 채필근, 「술에 대하여」 『농민생활』, 1930년 6월.

250) 金昌鎭, 「음주폐망자」 『禁酒實話集』, 조선예수교서회, 1936.



을 위해 영혼구원과 함께 사회사업에 노력해야 할 기독교인이 경제문제, 민족문제에 당면하여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중요한 운동이었다. 술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은 교회의 사회적 사명 중 하나였다. 술이 있으면 “경제학자의 부국론과 사회주의의 계급철폐와 평균분배론, 위생론, 윤리, 도덕이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었다.<sup>251)</sup>

“그리스도교인의 사업을 크게 말하면 둘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구령사업이요 하나는 사회사업이다. 구령사업은 사람의 마음속에 모든 죄악을 제거키 위한 운동이요 사회사업은 사회의 모든 죄악을 제거하여 신성한 신사회를 건설코저 함이다. 이 둘이 일치하여 완전한 천국사회를 이 땅에서부터 건설코저 함이 우리 기독교인의 최고 이상이다. 이 둘은 다같이 중대하여 언제나 병행치 않으면 안될 것임이다. 현하 조선문제에 있어서는 매우 복잡다단하다. 정치문제 경제문제 민족문제 남녀도덕문제 아동문제에 있어서 내것이나 우리의 당면한 문제가 아니되리오마는 이 모든 운동을 철저히 하고저하면 먼저 근본적으로 기초운동은 곧 금주운동이다. 저 민족운동의 수령인 인도 간디는 민족운동 경제운동을 할 때에 왜 먼저 금주운동금주법안 실시운동을 먼저 토대하였는가 여기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을 우리는 깊이 알아야 한다.”<sup>252)</sup>

교회의 사회에 대한 책임 및 사회운동에 대한 역할을 강조하면서, “기독교인이 조선을 구원하기 위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술을 금하는 일에 힘쓸 것”이 당부되었다.<sup>253)</sup> “禁酒禁煙의 切實이야말로 우리 可憐한 朝鮮民族의 活路이며 가장 急先務”이자, “禁酒禁煙問題解決이 朝鮮救援의 捷徑”<sup>254)</sup>으로, 나아가 “죽어가는 조선을 살리는 운동”<sup>255)</sup>으로까지 인식되었다.

“금주운동은 산업혁명에 계속되는 일종의 사회운동이요 획시대적인 발전이다. 그의 발동은 특수인으로부터 일반인에 그의 대상은 개인에서 사회 그의 철학은 자기보존으로부터 사회연대책임에 나아가는 것이다. 이것은 나 한 사람 때문에 그러함이 아니요 사회의 번영, 국가의 흥성, 인류의 행복 때문에 하여야 되겠다.”<sup>256)</sup>

금주가 사회발전과 국가흥성의 원동력이 된다고까지 믿어졌던 것이다.

특히 “청년은 신사회 건설의 주인공이요 사회의 자랑거리”가 되므로 금주운동의 선봉에 설 것이 요청되었다. 그것이 “조선학생의 사명”이었다.

“사회를 인도하는 인도자 대중을 거느리는 인도자는 그 누구인가? 청년학생들이니 청년

251) 「사설:節制運動에 總動員하라」 『기독신보』, 1933년 2월 1일.

252) 김창준, 「禁酒運動과 朝鮮基督教人」 『기독신보』, 1932년 2월 3일.

253) 김창준, 「講臺: 禁酒運動과 朝鮮基督教人」 『기독신보』, 1932년 2월 3일.

254) 李孝寬, 「昌城의 禁酒組合」 『진생』, 1930년 6월, pp. 70-72.

255) 손메레, 「朝鮮의 禁酒運動」 『기독신보』, 1930년 4월 30일.

256) 정태희, 「우선 금주단연운동에」 『진생』, 1930년 2월.

학생은 세기의 꽃이요 국가의 심장이요 시대의 신경이요 미래의 주인공이요 금주문제 해결의 把持者이다. 인류사회의 일절죄악을 타파하기 위해 신사회의 통로를 개척하기 위하여 사회죄악의 근원에 침재한 주를 단절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것을 금주의 사명으로 삼은 우리학생들은 어서 속히 자진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 되겠다.”<sup>257)</sup>

이대위는 청년이 금주운동의 선두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첫째, 금주운동의 과학적 연구 둘째, 사회사업과 금주문제와의 관계 연구 셋째, 無酒國 실현의 방법 연구를 구체적인 과제로 꼽았다.<sup>258)</sup>

결국, 금주금연을 통해 기독교인들이 목적하고 의도했던 것은 개인적으로 기독교의 인격을 형상화 하기 위해 정신을 개조하는 것과 아울러 이러한 인간들이 모여서 이룬 사회의 정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조선민족의 정신적 갱생을 목적으로 하였던 것이다.

## 2. 금주금연운동의 전개

### 1) 강연회와 금주금연회 조직

금주금연운동은 대개 가두시위와 강연회를 통한 선전의 형태로 행해졌다. 보통 낮에 금주선전깃발을 내세우고 악대를 동원하여 가두선전을 펼치고 저녁에는 금주에 관한 강연회를 열어 금주금연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고 계몽하는 것이 가장 많이 행해진 운동의 형태였다.

감리교는 각 지방에 순회강연대를 파견하여 금주강연을 실시하였으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방 사경회(査經會) 기간과 단오, 추석 등의 절기를 이용하여 선전효과를 높였다.<sup>259)</sup> 각 지방에 조직되어 있던 애플청년회가 해당 지역 금주강연의 선봉이 되기도 하였다. 인제읍에서는 애플청년회 임원들이 군의 후원을 얻어 면사무소와 보통학교를 강연장소로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각 면에 순회강연을 펼치면서 수 천 명의 청중에게 호응을 얻는 결과를 끌어내기도 하였다.<sup>260)</sup> 감리교 유관 단체였던 평양의 금주단연동맹도 조병옥, 손메레 등 유명 인사를 초청하여 강연회를 개최하였다.<sup>261)</sup>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는 터링이 내한하여 각 지방을 순회하며 강연회를 열었던

257) 「朝鮮學生禁酒運動團組織」 『청년』, 1930년 5월.

258) 이대위, 「민족적 자각과 금주」 『진생』 64, 1930년 4·5월.

259) 『예수교미감리회 조선연회록』, 1921., 1925., 1926., 1933., 1934.

260) 「교회통신」 『기독신보』, 1930년 2월 19일

261) 「平壤禁酒斷煙同盟會 禁酒斷煙 講演會」 『동아일보』, 1927년 8월 3일.

것에서부터 그 활동을 시작하였던 만큼, 지방 순회강연 활동이 두드러졌다. 특히 순회총무를 두어 각 지방을 순회하며 강연회를 개최하고 금주·금연회를 조직하는 일에 주력하였다.<sup>262)</sup> 가장 의욕적으로 활동을 전개한 사람은 틴링과 함께 강연회를 시작하였던 초대총무 손메레와 그 후임이었던 이효덕이었다.

상동교회 출신으로 진명여학교와 감리교 부인성경학원을 졸업하고 이화학당 교사로도 봉직했던 손메레는 이후 절제운동에 투신하여 두드러진 활동을 보였다. 손메레는 각지의 교회에서 금주운동의 필요성과 술의 해독에 대해 74회의 대강연회를 개최하고 지회조직과 회원모집에 힘을 쏟았다.<sup>263)</sup> 술의 해독을 실험을 통해 보여주었고, 당시 조선의 한 가구당 월급이 360원도 안되던 때에 酒稅로 총독부에 들어가는 돈이 1년에 83,429,170원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민족의식을 깨우치기도 했다.<sup>264)</sup>

여자협성신학교를 졸업하고 태화여자관 교감으로 있던 이효덕은 손메레의 뒤를

262) 「팅닝女史禁酒講演」 『동아일보』, 1923년 7월 12일.; 「기독교여자의 금주단연 선전, 연합된 지방단체 십오처나 된다고」 『동아일보』, 1924년 8월 31일.; 「여자기독교절제회 주최 금주강연개최」 『동아일보』, 1924년 11월 16일.; 「여자금주강연」 『동아일보』, 1925년 9월 22일.; 「금주강연회, 전주서문밖 예배당에서」 『동아일보』, 1925년 12월 5일.; 「금주강연성황 부인금주회에서(영변)」 『동아일보』, 1926년 9월 7일.; 「금주금연운동 정주여자절제회」 『동아일보』, 1932년 11월 20일.; 「경성교역자연합회와 경성여자기독교절제회에서 금주단연운동」 『동아일보』, 1934년 2월 25일.; 「금주단연 기행렬의 선전, 17일 부인절제회주최」 『동아일보』, 1935년 2월 10일.; 「부인절제회 주최로 선전기 행렬(경성)」 『동아일보』, 1935년 2월 19일.; 「조선여자기독교 절제회에서 보름날 대선전행렬」 『동아일보』, 1936년 2월 5일.; 「여자절제회서 금주금연 선전(영변)」 『동아일보』, 1936년 2월 7일.;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가 금주를 크게 선전」 『조선일보』, 1926년 12월 3일.; 「여자 節制會 강연」 『조선일보』, 1927년 9월 15일.; 「여자 절제회 주최, 長蛇의 기행렬, 정주의 선전과 강연」 『조선일보』, 1933년 2월 12일.; 「여자기독절제회 주최 禁酒旗 행렬과 강연」 『조선일보』, 1935년 2월 17일.; 「사설: 조선여자 절제회」 『기독신보』, 1924년 11월 12일.;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활동」 『기독신보』, 1924년 12월 24일.; 「절제회의 활동」 『기독신보』, 1926년 7월 7일. 1928년 4월 18일.; 「금주강연회」 『기독신보』, 1929년 5월 8일.; 「여자절제회조직과 강연회」 『기독신보』, 1929년 11월 27일.; 「절제회소식」 『기독신보』, 1930년 4월 23일.; 「각 절제회의 사업」 『기독신보』, 1933년 7월 26일.; 「강계읍교회 금주선전」, 『기독신보』, 1934년 7월 11일.

263) 「손메레 여사 금주강연(북진)」 『동아일보』, 1925년 9월 21일.; 「금주강연회」 『동아일보』, 1925년 12월 5일.; 「술과 담배를 끊고 절제생활을 꿈자, 실행하는 각지 농촌남녀, 여자기독절제회 총무 孫메레씨 談」 『조선일보』, 1928년 12월 27일.; 「沿江기청주최 금주선전강연 손메레씨 청하여」 『동아일보』, 1929년 2월 17일.; 「광화문 기독교연합전도관에서 손메레씨 금주강연」 『동아일보』, 1929년 10월 2일.; 「대전기독교절제회조직」 『동아일보』, 1930년 2월 28일.; 「조선여자기독교 절제회연합회」 『기독신보』, 1924년 9월 10일.; 「孫女史의 禁酒講演」 『기독신보』, 1926년 12월 1일.; 「순회강연일기 중에서」 『기독신보』, 1928년 1월 11일.; 「손여사의 금주강연 식주 각 교회에서」 『기독신보』, 1928년 4월 18일.; 「금주강연회」 『기독신보』, 1929년 5월 8일.; 손메레, 「재미있고 괴롭던 옛 추억」 『한국절제운동70년사』,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1993.

264) C. Erwin, Mrs. Mary Son of W.C.T.U., *The Korea Mission Field*, Jan., 1928.

이어 1929년 충무를 맡은 이후로 전국 각지에서 금주강연을 시행하면서 300여 지회를 설립하였다.<sup>265)</sup> 특별히 1929년 조선박람회(박람회)에 참가하여 50일 동안 빠짐없이 금주강연에 대한 강연을 하고 금주를 선전하는 연극을 공연하였다.<sup>266)</sup>

손메레와 이효덕의 순회강연에 힘입어 전국 각지에 지회가 조직되고, 지회 중심으로 지방의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됐다. 강사를 초청하여 금주강연회를 개최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었고 지회별 가두시위와 소비조합·물산장려부 조직, 야학설립, 구제 활동이 이어졌다.<sup>267)</sup> 간간히 특별 강연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는데, 일례로 1930년 11월 29일에는 동아일보 학예부의 후원을 얻어 백낙준의 통역으로 감리교 감독 니콜슨이 “세계의 최대 해독”이라는 강연을 하고, 여기에 현제명의 독창과 바이올린연주를 겸하는 대강연회를 개최하고 금주의 취지를 설명했다.<sup>268)</sup> 1933년 2월 9일 전교파를 망라하여 대대적인 금주선전을 개최할 때에도, 저녁에는 황에스더의 사회로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교수 이용설의 ‘금주단연에 대한 의학상으로 본 해독’이라는 제목의 금주강연회를 종로청년회관에서 개최하였다.<sup>269)</sup>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는 각 지회마다 매월 월례회를 개최하였는데, 대체로 회무 낭독과 강연, 기도회 순으로 이루어졌다. 각 지회별로 월례회를 진행하되 강연의 내용은 『기독신보』에 게재하여 각 월례회에서 공통적으로 낭독, 사용되었다. 마지막으로 대개 다음과 같은 절제회가를 부르고 폐회하는 형식이었다.<sup>270)</sup>

265) 「안악금주강연」 『동아일보』, 1931년 9월 26일.; 「금주강연성황」 『동아일보』, 1933년 5월 27일.; 「이효덕 금주강연회(성진)」 『동아일보』, 1933년 5월 30일.; 「節制講演盛況：節制生活과 우리의 活路(李孝德)(定州)」 『동아일보』, 1933년 9월 20일.; 「대구금주강연」 『동아일보』, 1934년 6월 12일.; 「금주대강연, 이효덕양을 청하여」 『동아일보』, 1936년 4월 15일.; 「절제회소식」 『기독신보』, 1930년 4월 23일.; 「禁酒斷煙運動」 『기독신보』, 1930년 7월 16일.; 이효덕, 「개척자의 고심기」, 『한국절제운동70년사』,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1993.

266) 이효덕, 「개척자의 苦心記」 『절제』 제권2호, 1955.; 최은희 『조국을 찾기까지』 탐구당, 1973, pp. 210-212.; 김정주, 『한국절제운동70년사』,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1993. pp. 29-133.

267) 춘천에서는 4백여 교도들이 旗행렬을 벌였고, 개천 복원, 경성, 복진 등에서는 단오날이나 장날 같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특별한 날을 이용하여 금주선전을 주로 행하였으며 청주, 횡성 등에서는 성탄절 같은 때에 구제미를 걷거나 떡을 판매하여 구제사업을 벌였다. 또한 광주, 철산, 수안, 복진, 경성지회에서는 물산장려부를 따로 두어 생산을 도모하고 야학을 설치하여 계몽활동을 폈다. 「宣川女子節制會 禁酒宣傳」 『東亞日報』, 1924년 6월 6일.; 「禁酒斷煙宣傳 北鎭女節制會서」 『동아일보』, 1934년 3월 9일.; 「여자절제회서 금주단연선전」 『동아일보』, 1936년 2월 7일.; 「음력보름날을 기회로 4백 교도가 기 행렬(춘천)」 『동아일보』, 1933년 2월 8일.; 이효덕, 「각 절제회의 사업」 『기독신보』, 1933년 7월 26일.; 「금주운동」 『기독신보』, 1934년 2월 21일.; 「강계읍교회 금주선전」 『기독신보』 1934년 7월 11일.; 「영변여자절제회 활동」, 『감리회보』, 1934년 8월 10일.

268) 「明夜! 女子節制會 節制大講演會」 『동아일보』, 1930년 11월 29일.

269) 「基督教各機關總動員 禁酒斷煙色衣 街頭宣傳大行進」 『기독신보』, 1933년 2월 15일.

270) 「하나님과가정과세계를 위하여:절제회가」 『기독신보』, 1932년 5월 25일.

#### 절제회가 - 김형준 작

1. 무궁화 동산에 한배임자손 주사청루에 남용과 랑비를 절검절약에 노력 다하여  
살길개척토록 운동하세
2. 허영시에 팔린 공창과 사창 우습파리에 시들은 자매들 정의인도로 건져내여서  
새생활하도록 운동하세
3. 삼천리의 큰집 열세 식구가 풍족한 살림퍼노케 될 그때 즐거운 노래한껏 하리라  
축하하세 절제회만만세.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 총무의 순회 강연을 통해 곳곳에 지회가 설립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와는 별도로 각지 교회에 절제회가 조직되는 경우도 많았다.<sup>271)</sup> 이후 각지에 조직된 금주단연회 및 절제회에서 금주금연과 소비절약을 강조하는 각종 강연회와 좌담회, 토론회, 음악회가 실시되었다. 춘천금주단연회에서는 엽윳청년회의 후원으로 소비절약 선전을 위한 음악연주회를 마련하였고, 黃海道 鳳山의 禁酒斷煙同盟會에서는 조만식, 김봉준을 초빙하여 강연회를 개최하였다.<sup>272)</sup>

한편 금주강연은 전도의 발판이 되기도 했다. 금주강연을 듣고 기독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주류상을 경영하던 사람이 장사를 그만두고 교회에 출석하기도 하고, 강연회를 감시하기 위해 입회했던 경관이 감화 받고 신자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계몽적인 강연내용은 어린아이에게 아편을 주사하여 잠들게 하던 농촌부녀자들의 행동을 깨우치기도 했다.<sup>273)</sup>

## 2) 금주금연 가두선전

1920년대 초반 금주회 조직과 강연회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금주금연운동은 1930년대 들어오면서 대규모 가두선전 활동이 활발히 행해진다. 물론 1920년대에도 금주선전이 있었지만, 그 선전규모와 참가하는 단체 및 인원이 1930년대에 대폭 확대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보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1920년대에 『기독신보』에 금주의 해독을 경계하는 계몽논의가 주로 게재되었다면, 1930년대부터는 대대적인 가두선전에 대한 소식이 부쩍 늘고 있다. 절제운동단체의 대규모 선전시 위 뿐만 아니라 지방 교회의 소규모 선전도 활발하게 이어졌다.<sup>274)</sup>

271) 「교회통신」 『기독신보』, 1930년 1월 22일.

272) 「東西音樂會」 『조선일보』, 1923년 8월 29일.; 「禁酒斷煙同盟會 講演會」 『東亞日報』, 1930년 2월 25일.

273)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활동」 『기독신보』, 1924년 12월 24일.

이것은 192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만주, 일본 등지로 유랑하는 농민이 증가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더욱 악화되면서 금주금연을 통한 경제적 효과를 계몽·선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표출된 현상이었다.

“최근 수년에 와서는 정치적으로 특수한 경우에 처하여 있는 동시에 軟文學的의 영향을 받아서 청년층에 더욱이 음주가 많이 증가하여 모든 중 삼사년이래 경제의 공황으로 인하여 도시와 농촌을 물론하고 중산계급의 몰락으로 파산자 수가 격증하고 실업군이 다수가 생겨서 대자본가나 대지주들 극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한 일반대중의 생활이 불안하여져서 민심이 소란한 가운데 나날이 생활에 고통이 심하여감으로 인하여 일반 무산층에 있는 사람들은 낙망하고 자포자기하여 자연이 방탕한 생활을 하는 자가 많아졌다. 민중의 생활의 고통이 심하여질수록 그들은 임시적이거나 자기의 번민과 고통을 이겨바리기 위하여 음주하는 자가 점점 늘게 되었다. 그리하여 현재에 와서는 조선안에서만 삼백만석이라는 다량의 술을 소비하게 되었다.”<sup>275)</sup>

금주금연의 경제적 효과를 선전을 통해 계몽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결하고 정신적 각성의 계기로 삼고자 하는 의도는 가두선전에 많은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대규모 금주선전은 1927년 11월 3일부터 7일까지 황주주일학교 연합대회 기간에 전개된 금주운동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선전은 33곳의 주일학교와 3개의 금주동맹회가 공동으로 참여한 대대적인 규모였다. 이 행사는 황주주일학교연합회와 조선금주운동단이 주관이 되어 동경금주동맹본부와 우편국 금융조합 및 동아, 조선, 중외 3개 신문사 지국 등 19개 단체의 후원을 얻어 진행되었다. 황주 특산품인 사과를 금주선전 뼈라와 함께 열차승객에게 배포하고 자동차와 자전거, 악대로 이어지는 시위선전이 천여 명이 넘는 참가인원의 호응아래 5일간 계속되었다. 술을 몸과 사회를 망치는 해독으로 보아 전투식으로 ‘주마정벌행군’과 ‘주마공판’이 열리기도 하였다.<sup>276)</sup>

교단별, 단체별 가두선전이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감리교는 1924년부터 매년

274) 「禁酒煙宣傳 안악교회에서」 『동아일보』, 1930년 11월 20일.; 「旗行列로서 禁酒斷煙宣傳 洪川教會에서」 『동아일보』, 1931년 2월 21일.; 「禁酒宣傳講演 령변야소교회주최」 『동아일보』, 1931년 2월 27일.; 「포항야소교회, 금주로 시위행렬」 『중앙일보』, 1931년 12월 4일.; 「순천교회에서 금주단연 선전」 『중앙일보』, 1932년 11월 8일.; 「안동서도 금주단연선전」 『중앙일보』, 1933년 2월 14일.; 「신천양교회에서 금주단연 선전」 『조선중앙일보』, 1934년 2월 21일.; 「금주단연 선전대 청양시장에 행렬」 『조선중앙일보』, 1934년 3월 2일.; 「개천야소교회 금주선전행렬」 『조선중앙일보』, 1934년 4월 21일.; 「안악 팔교회서 금주단연 선전」 『조선중앙일보』, 1935년 3월 12일.; 「진남포 각교회에서 금주강연 기행렬」 『조선중앙일보』, 1936년 6월 24일.

275) 윤용현, 「금주와 조선의 장래(1)」 『기독신보』, 1933년 1월 25일.

276) 「黃州의 禁酒宣傳大會」 『동아일보』, 1927년 11월 15일.; 「世界的으로 된 黃州 禁酒宣傳 顯末」 『기독신보』, 1927년 12월 14일.; 송상식 편, 『韓國節制教育研究史料集』, 성광문화사, 1979, pp. 142-146.

2월 첫째 일요일을 금주선전주일로 정하고 각 교회마다 같은 순서로 예배를 진행한 뒤 선전문을 배부하고 가두선전을 가졌다. 당일의 헌금은 연회 절제부로 송부하도록 하여 선전문 제작 등 절제운동 기금으로 활용하였다.<sup>277)</sup>

각지의 금주선전은 장날이나 정월 대보름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여 선전빠라를 살포하면서 가두행진을 벌이고 저녁에는 가극, 음악회, 강연회를 개최하여 금주운동의 필요성을 고취하는 것이 대중을 이루었다. 일정 구역의 절제사업을 해당 애플리케이션회가 일임하여 진행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선전활동은 인천, 원산, 수원, 사리원, 철원, 홍천 광주, 서산, 창성, 성진, 원주, 회양, 서흥 등 전국에서 이어졌다.<sup>278)</sup>

특히 감리교 각 지방의 교회들은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와 연합하여 금주운동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1929년 감리교 연회에서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와 협동하여 사업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면서 각지에서 연합하는 형태가 나타났다. 감리교 공주교회 절제회는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 공주지회와 공동으로 가두선전을 진행하는 가운데, 500여 명이 십자가를 앞세우고 행진했다. 음주에 반대하는 기독교인이 십자군병으로 상징된 것이었다.<sup>279)</sup> 원산 지방에서도 그 지방 감리교회와 절제회, 청년회가 연합하여 금주선전을 펼치며 1,200여 명이 참가하는 성황을 이루었다.<sup>280)</sup>

장로교의 가두선전은 주로 기독교청년면려회를 통해 이루어졌다. 면려회는 1920년대까지는 지회별로 각각 금주선전을 펼쳐오다가 1930년부터는 정기적으로 매년 5월 단오절을 택해 연합회 주최로 전조선 금주운동을 실시하였다.<sup>281)</sup> 면려회는 1920년대까지의 금주운동이 전민족층의 생활의식과 거리가 있어 그 반응이 적었다고 판단하고, 농촌과 도시에서의 활동을 구분한 뒤, 청년층을 앞세워 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는 농촌과 도시의 생활 패턴에 따른 구분으로서 농촌에서

277) 『예수교미감리회 조선연회록』, 1924., 1925., 1926., 1928., 1931., 1932.; 「금주주일에배운서」 『기독신보』, 1932년 2월 3일.

278) 「도화동구역회」 『기독신보』, 1929년 10월 16일.; 「新倉교회금주선전」 『감리회보』, 1933년 3월.; 「광덕구주역금주선전과 전도회」 『감리회보』, 1933년 3월.; 「중앙교회금주선전(원산지방)」 『감리회보』, 1933년 3월.; 「인천지방: 信島교회의 노력으로 금주단연회 조직」 『감리회보』, 1934년 3월 10일.; 「공주금주단연선전기 행렬」 『감리회보』, 1934년 3월 10일.; 「각지 금주선전」 『감리회보』, 1935년 3월 10일.; 「금주강연」 『감리회보』, 1935년 4월 10일.; 「沿江基督青年協會 禁酒宣傳講演을 감리교회에서」 『동아일보』, 1929년 2월 17일.; 「감리회통신: 단연기념중」 『기독신보』, 1919년 10월 1일.; 「교회통신: 금주선전」 『기독신보』, 1924년 8월 6일.; 「소년단의 금주선전」 『기독신보』, 1924년 9월 10일.; 「禁酒斷煙運動」 『기독신보』, 1930년 6월 18일.; 「禁酒斷煙運動」 『기독신보』, 1930년 7월 16일.; 「기행렬로서 금주단연선전 / 홍주교회에서」 『동아일보』, 1931년 2월 21일.

279) 「공주금주단연선전기 행렬」 『감리회보』, 1934년 3월 10일.

280) 「중앙교회금주선전」 『감리회보』, 1933년 1월 16일.

281) 「만국 기독교청년면려회」 『기독신보』, 1923년 5월 23일.; 「勉勵青年會禁酒運動」 『기독신보』, 1930년 4월 16일.; 「제7회 기청면려회 주회 금주운동성황」 『기독신보』, 1936년 6월 24일.

는 금주좌담회 개최, 빠라·포스터 배부, 금주강연을 실시하였고 도시에서는 거리선 전행렬과 강연회 개최를 제안하였다. 나아가 일시적 선전으로 지속적인 효과를 얻기 어렵다고 보고, 선전으로 일반인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은 뒤, 금주회를 조직하도록 하여 운동을 계속할 것을 계획하였다.<sup>282)</sup> 1938년 면려회가 해체되기까지 전개된 금주선전운동은 경성과 평양을 중심으로 전국의 면려회와 일본, 만주에 산재한 면려회까지 총망라된 운동이었다.

각지에서 대대적인 금주선전기행렬이 이어졌고 강연회, 부인강연회, 토론회가 열렸고, 금주회가 곳곳에 조직되었다.<sup>283)</sup> 특히 이 운동은 조선일보와 공동으로 개최되면서 사회 일반의 큰 호응을 얻었다. 1929년 5월부터 생활개신운동을 전개하던 조선일보가 면려회의 금주운동을 “조선인의 소극적인 절약운동”, “민중운동이 침체한 근일에 있어서 가장 긴거운 현상의 하나”로 높이 평가하고 후원하면서 면려회의 금주선전은 대대적인 규모로 진행되었다.<sup>284)</sup> 또, 조선기독교절제운동회와도 연합하면서 면려회의 금주선전은 매년 그 규모와 선전지역이 확대되었다.

금주선전은 청년면려회 뿐만 아니라 소년면려회, 유년주일학교까지 합세하여 진행되는 곳도 많았다. 특히 같은 노회 내의 지역교회들이 면려회를 중심으로 연합하여 선전과 순회강연을 전개하기도 했다.<sup>285)</sup> 곳에 따라서는 매일신보의 후원을 받고 구세군과 합동하여 진행되기도 했다.<sup>286)</sup> 1930년 전국에 40만부의 선전지를

282) 「1930년의 금주운동-전조선면려회청년동지에게 飛檄하나다」 『진생』, 1930년 45월.

283) 면려회 선전 방식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음악대의 군악과 고성창가하면서 일순회 후에 설비된 천막, 강단, 좌석에 군중을 앉히고 禁酒강연을 하고 금주창가를 합창함
2. 市街 중요한 도로 및 장소에 禁酒漫畫 수십종을 크게 그려 수십처에 세운 게시판에 일매씩 붙임.
3. 각 상점에 교섭하여 상품 포장지에 수종 간단한 金言을 인쇄 사용하며 만화포스터를 門前에 掛함. ‘금주하는 가정에 평화가 오고 斷煙하는 마을에 금전이 모이나니라’ ‘술 한 잔에 논 한 평, 담배 한 대 받 한 평’
4. 금주단연이라 四字의 큰 간판을 山上에 세움. 처음 비용이 50원 드림.
5. 매년 선전비용은 평균 60원 되는바 면려회가 부담하고 타 단체 보조금으로 충당함.
6. 결과 금주서약회가 생김. 외국인도 있음. 張愛敬, 「금주회 조직」 『勉勵會報』, 1935년 6월 10일.

284) 「禁酒運動의 價値」 『조선일보』, 1930년 5월 1일.; 「朝鮮과 禁酒禁煙運動」 『조선일보』, 1930년 5월 27일.; 「면려청년연합회의 금주단연의 대선전」 『조선일보』, 1933년 5월 19일.; 「禁酒宣傳의 意義」 『조선일보』, 1933년 5월 21일.; 「사설: 禁酒運動」 『조선일보』, 1934년 6월 2일.; 「전조선금주선전, 단오 기하야 면려회 주최 본사 후원, 농촌엔 좌담 도시서는 행렬 강연」 『조선일보』, 1934년 6월 3일.; 「禁酒運動」 『조선일보』, 1934년 6월 2일.; 「禁酒運動」 『조선일보』, 1935년 6월 1일.; 「禁酒運動」 『조선일보』, 1936년 4월 29일.; 「少年少女의 禁酒禁煙法」 『조선일보』, 1937년 1월 22일.

285) 「삼천여 기독교도 동원, 절제생활을 선전」 『조선중앙일보』, 1935년 6월 1일.; 「鶴巢教會禁酒斷然大宣傳」 『기독교보』, 1936년 8월 11일.; 「石橋龍淵二所教會聯合禁酒斷然大宣傳」 『기독교보』, 1936년 7월 28일.

286) 「금주선전/ 옹기기독교청년면려회에서 시가 행진 금주강연」 『기독교신보』, 1933년 6월 28일.



배포하였던 것이 1935년에 이르러서는 선전지 90만부를 배포하고 지지단체가 1,200 곳에 이르는 성대한 운동으로 발전했다. 도시를 중심으로는 선전시위 행렬과 강연이 이어졌고 농촌에서는 각 지회별로 좌담회가 열렸다.<sup>287)</sup>

특히 1930년 8월 5일부터 8월 11일까지 독일에서 열린 세계면려대회에 안대선과 조희염이 출석하고 돌아온 후, 그 대회에서 결의한 ‘四年倍加운동’ ‘市民 基督教化운동’을 조선에서도 적극 수행하기에 이른다. 이에 따라 1934년 9월 1일부터 6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제1회 四年大會에서는 평양 내 30개 교회가 참여하였고 7개 교회 악대와 전국에서 모인 면려청년회원 1만 5천명이 회년기념행렬을 이루는 가운데, ‘잘살자’ ‘새로와지자’를 표어로 내세우고 각종 강연들이 이어지고 새로운 결의들이 모아졌다.<sup>288)</sup>

면려회는 基督教新文化運動의 중요안건으로 절제운동을 강조하면서 강연과 웅변대회를 개최하고 절제운동을 “靑年の 新決心! 靑年の 新出發! 靑年の 新生活!”로 부각시켰다. 그 일환으로 면려회는 실행요강을 발표하는 가운데 차기 4년까지 회원배가, 전국적인 면려청년기념일 제정, 문맹타파·청년지도자양성·소년선도 등과 아울러 허례폐지, 관혼상제 비용 절약, 매년 단오절에 맞춘 금주대선전대회 실행을 결의하였다.<sup>289)</sup>

특히 평양에서는 평양물산장려회와 면려청년회가 함께 금주선전을 진행하였다. ‘내살림내것으로’ 라는 슬로건 아래 소비절약과 물산장려를 주장한 평양물산장려회

287) 「禁酒宣傳」 『기독신보』, 1930년 4월 30일.; 「禁酒斷煙運動」 『기독신보』, 1930년 6월 11일.; 「禁酒斷煙運動」 『기독신보』, 1930년 7월 23일.; 「禁酒叢林」 『기독신보』, 1931년 10월 28일.; 「禁酒宣傳消息」 『기독신보』, 1933년 6월 7일.; 「禁酒宣傳」 『기독신보』, 1933년 6월 14일.; 「강계읍교회 금주선전」 『기독신보』, 1934년 7월 11일.; 「기독교면려청년 중심 전조선에 금주운동」 『조선일보』, 1930년 5월 4일.; 「조선과 금주금연운동」 『조선일보』, 1930년 5월 27일.; 「長淵읍교회서 금주단연 대선전」 『조선일보』, 1931년 8월 17일.; 「장연읍기청 주최 금주단연강연 금지」 『조선일보』, 1931년 8월 29일.; 「금주단연 선전, 장연서 2일에 개최」 『조선일보』, 1931년 9월 2일.; 「금주단연 선전, 장연 勉靑 주최로」 『조선일보』, 1931년 9월 11일.; 「사설」 『조선일보』, 1934년 6월 2일.; 1934년 6월 3일.; 「금주운동」 『조선일보』, 1935년 6월 1일.; 「금주단연선전 長淵면려회에서」 『동아일보』, 1931년 8월 29일.; 「재령 동서 면려청년회 금주단연선전 33일부터」 『동아일보』, 1933년 2월 28일.; 「3만면려청년회원 동원 경향에서 금주대선전 부내 14교회가 연합하여 금야 시내에서 강연회」 『동아일보』, 1934년 6월 17일.; 「3만 CE청년동원 금주금연선전 오는 22, 23일 전조선적으로 빼라 배부 기행렬 금주촌 건설」 『동아일보』, 1936년 6월 7일.; 「단오를 기하여 맹렬한 금주운동 수만면려회원동원」 『동아일보』, 1936년 6월 24일.; 「단오절 이용하여 금주단연선전(선전)」 『동아일보』, 1936년 6월 27일.; 「별하금주금연 강계군성간면 별하 기독교청년 면려청년회 주최로」 『동아일보』, 1936년 7월 1일.;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록』 1932년, 1933년, 1934년.

288) 이 대회의 표어는 ‘새로워지자’(個體, 家庭, 教會, 社會)였고, 주요 강연제목과 토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변화하는 시대와 그리스도청년(맥카비 박사), 교회농촌사업의 현재와 장래(배민수), 조선이 요구하는 기독교(백영업), 금후 청년운동의 발전책(이대위), 조선기독교청년운동에 대한 의견(이용설) 등. 『勉勵會報』, 1934년, 팜플렛.

289) 雲成, 「敎十字軍의 大行進 -基督教勉勵靑年大會後記-」 『삼천리』 6권 11호, 1934년 11월 1일.

와 면려회의 금주선전은 그 지향하는 바가 같았다.

한편, 평양면려회의 금주선전에는 평양 正昌고무공업사에서 인쇄비용을 부담하는 등의 후원을 받아 진행되었다. 대부분 기독교인들로 이루어진 평양 고무공장이 기독교적 인맥과 인식을 공유하고 금주운동에 후원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예이다.<sup>290)</sup>

금주운동은 기독교인은 물론 비기독교인들을 향한 것이었다. 면려회는 회원뿐만 아니라 일반 교인을 비롯하여 교회 밖의 일반인들까지 망라하여 술, 담배, 아편이 개인과 인류에게 해로운 것임을 잘 설명하고 권면할 것을 당부했다.<sup>291)</sup> 또, 금주운동을 전개하는 가운데, 믿지 않는 이들에게 술이 인생을 죽이는 해독이라는 것을 알게 한 후 금주결심서약서를 받을 것을 제안하면서 전조선적 금주를 주장했다.<sup>292)</sup> 이는 “기독교청년회는 그 입장이 교회와 사회 중간에 서서 신자가 불신자를 인도하여 교회로 인도하며, 사회사업을 하자는 것이요”라고 이대위가 말하듯, 절제운동이 사회를 향하여 비신자들까지 아우르는 사회운동으로서 기능하고자 한 데 따른 것이었다.<sup>293)</sup>

구세군도 선전대를 조직하여 시위행렬을 갖고 가두연설, 금주신문 판매를 통해 금주선전을 계속했다.<sup>294)</sup> 연회나 면려청년회연합회 차원이 아닌 개교회별 금주선전도 이어졌다. 경남 삼천포장로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전후하여 “주린배를 움켜지고 지향없이 유리하는 우리 동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120여 명의 주일학교 학생과 80여 명의 선전대원이 시내를 행진하며 금주선전을 펼쳤다.<sup>295)</sup>

금주단연동맹은 독자적인 금주선전을 펼치기도 했고, 1929년부터 평양물산장려회와 함께 설날 조선물산장려 선전행렬을 주도하는 등 물산장려운동과 연합하면서 운동의 영역을 확대해 나갔다.<sup>296)</sup> 또, 일본금주영화선전회와 교섭하여 사진전을 열기도 했다. 1928년 5월 4일-8일까지 평양에서 활동사진대회와 강연회를 개최하고 이후 선전지방을 넓혀 9, 10일 진남포를 시작으로 안주, 정주, 선천, 신의주, 의주, 안동현, 용암포, 검이포, 사리원, 신천까지 한 달여 동안 활동사진 순회선전을 하였다.<sup>297)</sup>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종로 예수교서회 앞에 금주선전

290) 「平壤基青勉勵禁酒宣傳」 『기독신보』, 1929년 10월 30일.

291) 안대선, 「만국 기독교청년면려회(三)」 『기독신보』, 1923년 5월 23일.

292) 안대선·이대위 著, 『勉勵會指南』, 기독교청년면려회조선연합회, 1933, p. 110.

293)李大偉, 「면려청년의 사업과 조선교회」 『眞生』, 1929년 1월.

294) 「葉書通信-救世軍과 禁酒」 『별건곤』 28, 1930년 5월.; 『구세신문』, 1924년 7월.

295) 「교회통신」 『기독신보』, 1930년 1월 22일.

296) 「平壤禁酒斷煙同盟會 朝鮮物産獎勵會와 共同으로 宣傳 決意」 『동아일보』, 1929년 1월 11일.

297) 「巡廻禁酒活寫, 節制生活社에서(平壤)」 『동아일보』, 1928년 5월 5일.

판을 내걸어 술값으로 인한 경제적 낭비를 통계 수치로 명시함으로써 경각심을 일깨웠다.<sup>298)</sup>

“술을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놀라지 마시다. 조선안에서 1년간 소비되는 술값이 八천三百四十二萬 九千一백七十원이외다. 우리 민족 한 사람의 생활비가 1년간 二백원이라고 가정하면 四十一萬 七千一백 四十五人의 생활비가 됩니다. 이런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그저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부르짖는 생활난으로 인하여 해마다 고국을 떠나 외지에 류리 방황하는 동포와 주립을 참지 못하여 자살하는 형제들을 다 합하여도 전민족의 五分 一이 못된다. 그러나 1년간 소비되던 술값은 전민족의 五分의 一의 생활비가 되고도 남는다. 그러면 1년간만 술을 먹지 안는다 할지라도 능히 생활난에 빠진 형제를 五十年간 구제할 수 있다. 그래도 술을 마시렵니까?”<sup>299)</sup>

이러한 선전문구를 통해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가 당시 경제적 어려움을 금주·금연으로 극복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가 금주선전을 통해 경제문제 해결을 도모하고자 했던 것은 세계여자기독교절제회연합회에 참석하여 협의한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1930년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세계여자절제회연합회의에 조선 대표로 참석한 최활란은 금주교육, 금주입법, 절대금주 등을 협의하고 돌아와 다음과 같이 결의를 밝히고 있다.

1. 미청년자와 미성년자에게 금주를 장려하자고 사회여론을 환기하기로 함
2. 우리는 그보다 더 결속하여 금주운동의 목적을 관철하기로 함
3. 국력을 진흥케함이 금주에 있음을 선전할 일
4. 우리는 먼저 본고향을 비롯하여 금주화하게 힘쓰기로 함
5. 금주교육은 현재에 급무라고 함 우리는 널리 힘을 합하여 공동적 활동을 촉진케 하기로 함<sup>300)</sup>

즉, 금주가 곧 국력을 기르는 일이며 현재 할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인 일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이전보다 적극적인 금주선전이 계획·실행되었다. 이듬해인 1931년 9월 19일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가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sup>301)</sup>에

298) 「이리도 술을 마시렵닛가?」, 『기독신보』, 1927년 2월 9일.; F.E.C. Williams-Gerald Bonwick, Korea Women's Christian Temperance Union, *The Korea Missions Year Book*, 1928.

299) 「금주빼라 선전」, 『기독신보』, 1927년 11월 16일.

300) 최활란, 「금주운동의 대세」 『구세신문』 제3권 제25호, 1934년 3월. 장금현, 위의 글, p. 161. 에서 재인용.

301) 조선기독교연합공의회는 1931년부터 바뀐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 명칭이다.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는 1924년 9월 조직되어 1937년에 해체한 한국교회 에큐메니칼 운동의 한 형태로서 협의체

가입하면서 절제운동은 더욱 확대되었다. 12개조의 ‘사회신조’를 채택한 이래 절제운동에 적극적이었던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는 1933년을 금주년으로 정하여 음력 정월대보름을 기회로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와 협동하여 대대적인 금주선전을 일으키고 전국 각 교회에서 동일한 순서로 금주선전을 진행시켰다.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는 음주흡연비를 절약하여 자녀교육비로 사용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금주포스터와 가두시위에 사용되는 선전빠라도 제작하여 각 교회와 학교에 배포하고 선전시 이용하도록 했다.<sup>302)</sup>

1933년 2월 9일의 금주선전은 기독교 전교파가 참여한 대대적인 것으로서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자세하게 보도되었다.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에서 미리 선전지를 발행하여 각 노회 서기 및 감리사, 개별 교회에 보내어 홍보와 협조를 당부하였고, 감리교와 장로교 그리고 각각의 청년단체인 엠윗청년회와 면려청년회 및 주일학교 단체 등 기독교 각 기관이 참가했다. 배재·경신 등의 기독교계 중학교와 이화전문학교 학생까지 약 2천 여 명이 참가하여 중앙전도관악대, 구세군악대, 배재·연희전문·경신악대를 앞세워 경성 시내를 행진하면서 “술을 마시지 마라. 담배를 피우지 마라. 술과 담배값은 우리의 자녀 교육비의 5배가 된다”는 빠라 10만 매를 산포하였다. 행진은 광화문통-서대문-경성역-남대문-황금정-광희문-동대문-종로 예수교 청년회관-광화문으로 이어지며 시내를 일주했다. 이후 1년 중 한 주일은 ‘전조선 절제주일’로 지키기로 결의하여 1936년까지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와 공동으로 전국적으로 금주선전을 이어갔고, 금주선전을 널리 보급시키기 위하여 상무간사도 두었다.<sup>303)</sup>

---

형식의 교파 협력기관이다. 1918년 조직되어 1922년까지 존속했던 「조선예수교 장감연합회의」를 좀 더 발전적으로 추진시킨 것이다. 그 구성단체는 기존의 장감에서 나아가 한국인 본위로 조직한 교회단체, 한국에서 사업하는 선교사 단체와 외국에서 한국인에게 선교하는 단체, 한국에서 기독교 사업을 하는 ‘무교파(초교파)’ 단체 등을 포함하였다. 기존의 장감연합회의 목적에 더하여 기독교 단체들이 연락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나, 기독교의 원리로 사회 문제를 해결코자 하는 것, 경력과 지식을 교환하는 것, 모든 기독교 운동에 협동코자 하는 것에 특별한 목적을 두었다.

기독교 농촌운동과 절제운동 등의 사회운동에 열심이던 이 단체는 1933년부터 내부 분열의 조짐이 보이다가 1935년 장로교가 탈퇴하고 1937년 마침내 해산되었다. 『기독교대백과사전』 13권, 기독교문사, 1984.

302) 이효덕, 「개척자의苦心記」 『절제』 재건2호, 1955.; 「금주포스터발매」 『기독신보』, 1931년 1월 21일.; 「금주선전포스터」 『기독신보』, 1935년 2월 6일. 참고로 1935년 발행된 포스터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① 주국토벌- 5전 ② 금주- 5전 ③ 술의 해독 ④ 우리의 살길 ⑤ 술과 빛 ⑥ 기생? 선생?

303) 「全鮮禁酒運動準備」 『기독신보』, 1932년 12월 21일.; 「全鮮禁酒運動日 迫到」 『기독신보』, 1933년 2월 1일.; 「京城長監聯合 禁酒旗 行列準備」 『기독신보』, 1933년 2월 8일.; 「基督教各機關總動員 禁酒斷煙色衣 街頭宣傳大行進」 『기독신보』, 1933년 2월 15일.; 「기독교 각 기관 총동원 금주단연가두 행진」 『동아일보』, 1933년 2월 8일.; 「금주단연의 시위행진, 기독교도의 패거」 『동아일보』, 1933년 2월 10일.; 「基督教聯合公議會」 『기독신보』, 1931년 9월 23일.; 「전조선금주금연선전주일」 『기독신보』, 1935년 1월 23일.; 「전조선절제주일 순서」 『기독신보』

### 3) 언론·출판을 통한 계몽활동

금주금연운동은 강연회와 가두선전 외에 신문, 잡지의 발행 등 언론출판 등의 활동으로도 진행되었다. 절제운동 단체들의 기관지 발간과 절제운동가들의 논설 게재, 절제동화집·실화집 등의 발행이 그것이다. 각종 잡지의 발행은 금주금연운동의 의도와 목적을 알려 절제운동에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술의 해독을 경계하는 글을 실음으로써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계몽적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또 각지에서 일어나는 금주금연운동의 사례를 신문에 보도함으로써 금주금연운동의 상황을 알리고 더 많은 지방으로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언론·출판을 통한 금주에 관한 계몽운동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술의 해독을 설명하여 금주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각지의 금주운동 상황을 보도하고 그 방법을 소개하여 운동의 추진력을 가속화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기독교계 대표 언론인 『기독신보』의 꾸준한 절제운동 관련 기사 및 사설의 게재, 각 절제운동단체의 잡지 발행과 논문현상공모는 절제운동에 대한 여론을 불러일으키는 데 기여했다.

한편, 언론·출판을 통한 계몽운동 가운데 드러나는 특징 중의 하나는 금주법이 시행되었던 미국의 금주운동 상황이라든가 유명 인사들의 금주·금연 사례가 금주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전인 1910년대에서부터 1930년대까지 꾸준히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금주문명국으로 인식된 미국의 사례는 조선이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 (1) 절제공과 발행과 금주가

금주금연에 관한 계몽활동은 우선 교회내의 교육활동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조선 예수교연합공의회는 일 년 중 한 주일은 절제주일로 지키도록 결정하고 일 년에 세 차례 금주문제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였다. 1917년부터 1941년까지 성경공부 교재인 주일학교 장년 및 유년공과에 절제에 관한 내용을 삽입하여 교회학교에서 절제교육을 실시하였다.

---

보』, 1935년 2월 13일.; 「금주단연색의 장려 二천여명 大 기행렬」 『동아일보』, 1934년 2월 23일.; 「경성교역자연합회와 경성여자기독교절제회에서 금주단연운동」 『동아일보』, 1934년 2월 25일.; 「금주단연 기행렬의 선진」 『동아일보』, 1935년 2월 10일.; 「禁酒斷煙의 長蛇陣」 『동아일보』, 1935년 2월 18일.; 「금주단연하라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에서 보름날 대선전행렬」 『동아일보』, 1936년 2월 5일.; 『조선기독교연합공의회 회의록』, 1933., 1934.

《표 12》 주일학교 ‘절제공과’ 제목

년도	호수	제 목
1917	7	믿는 사람은 성신이 계시는 집이다
	10	음행한 사람 다스리는 일
	12	음욕품은 죄라
	11	숭사하는 일
	15	정남정녀를 권면함
1918	45	술취함으로 패망
1919	37	온전히 순종하는 자의 받는 유익
1921	35	금주할 것
	44	금주
1922	19	엘리와 그 아들
	38	절제없는 것으로 생기는 절제공과
	44	악한 열매를 맺는 나무를 찍어버림
1923	15	위생에 대한 교육
	17	빈궁과 재산
	29	담벽에 쓴 글
	38	다른 사람을 위하여 절제할 것
	44	술과 나라에 관계
1924	11	아모스가 이스라엘을 경계함
	44	금주와 태평한 세상
1926	25	베드로가 절제를 가르침
1927	9	금주
	45	술의 해독
1928	8	선량한 인민
	18	금주의 이익
	33	금주
	44	세계의 금주주일
1929	44	탕자의 비유
1934	6	노예와 자유
	19	예서가 장자의 권리를 팝
	31	엘리사가 빈궁한 선지의 미망인을 도움
	43	그리스도 신자의 생활의 모범
1935	7	베드로가 백성의 자격을 가르침
	25	그리스도인의 재정권
	32	다니엘(절제와 건강)
	43	벤사살의 연회
1936	8	음주와 사회의 해독
	17	부자와 거지 나사로
	21	금전을 어떻게 쌓아야 할까
	33	심은대로 거두는 원리
	44	신자의 정당한 생활
1937	5	음주의 경제적 소실
	16	음주의 결과

	35	절제의 필요
	44	도덕상으로 본 금주 문제
1938	12	몸을 건강하게 지킬 것
	33	절제는 인격의 요소
	44	개인 자유 문제
1939	21	술과 가정
	34	술의 해독
	44	술과 천국
1940	5	일상생활의 성결(절제생활의 원리)
	22	행위는 그 결과를 증거함(절제생활의 원칙)
	30	결과를 생각할 것(절제생활의 원리)
	43	기독교인의 절제에 대한 원동력
1941	5	술의 해독과 신자의 책임
	19	음주 문제와 가정
	29	술에 대한 교회의 책임
	43	술에 대한 백성의 책임

송상석, 『韓國節制教育研究史料集』, pp. 70-141. 참고

위의 표는 주일학교 절제 공과 중에서 본문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한 것이다. 대체로 성경 구절을 먼저 제시하고 본문에서 내용을 설명한 뒤, 문답을 통해 복습하는 형태로 구성되었다. 주일학교 성경공부 중에 포함되느니만큼, 술과 담배로 인해 죄를 저지르거나 부도덕한 행위를 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상당수이고, 금주금연을 통해 개인과 국가가 이득을 보았던 예를 성경속에서 찾아서 제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절제공과는 “술을 제조하고 매매하는 사람들의 부도덕한 행위를 공격하고 술의 독해를 말하고자 함이라”고 선언했듯이, 술의 해독을 경계하고 기독교인으로서의 금주할 이유를 ‘성신된 몸’을 지키는 일, 신체 건강, 사회적 역할에 대한 책임으로서 강조하고 있다. “빈천하고 곤고한 때에는 근검저축하지만 재산과 지위가 있을 때 주색에 빠지는 예가 많으므로 신자들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신자도 육신을 가지고 사회에 살아가는 존재이므로 다른 사람보다 사회에 더 봉사하고 도덕적으로 좀 더 건전 하여야 할 것”이라고 금주운동의 당위성을 피력하였다.

한편, 감리교인 임배세가 작사한 절제계몽가인 ‘금주가’는 1931년 간행의 『신정 찬송가』(230장)에 포함되었다.

1. 금수강산 내 동포여 술을 입에 대지 말라 건강지력 손상하니 천치될까 늘 두렵다
2. 패가망신될 독주는 빛도 내서 마시면서 자녀교육 위하야는 일 전 한 푼 안 쓰려네
3. 전국 술값 다 합하여 곳곳마다 학교 세워 자녀수양 늘 식히면 동서문명 잘 빛내리
4. 천부 주신 네 재능과 부모님께 받은 귀체 술의 독기 맞지 말고 국가 위해 일할지라

후렴 아 마시지 마라 그 술 아 보지도 마라 그 술 조선사회 복 받기는 금주함에 있나니라

신을 찬양하는 내용과 신자의 감사로 구성되는 찬송가에 금주가 포함된 것은 기독교계가 금주금연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이를 중요시 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것이다. 또한, 계몽적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노래가사를 통해 기독교절제운동이 지향하고 있던 사회 계몽운동적 성격을 알 수 있다.

## (2) 신문·잡지의 사설과 기사

『기독신보』는 사설을 통해 꾸준히 금주를 주장하면서 절제운동에 경주할 것을 당부하였다. 절제운동에 대한 사설은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20년대 중반부터 1930년대 중반까지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기독교계의 관심이 꾸준함을 보여준다.

《표 13》 『기독신보』의 절제관련 사설 일람

일 자	제 목
1924. 5. 14.	사설: 조선의 急務인 절제운동(1)
1924. 5. 2.	사설: 조선의 急務인 절제운동(2)
1924. 11. 12.	사설: 조선너즈절제회
1928. 1. 11.	사설: 禁酒號發行에 際하여
1930. 4. 30.	사설: 禁酒와 基督教
1931. 8. 26.	사설: 教會와 節制運動
1932. 2. 3.	사설: 節制生活과 그 運動 ‘生道の 調節’
1933. 2. 1.	사설: 節制運動에 總動員하라
1933. 2. 22.	사설: 禁酒運動의 意義
1934. 8. 8.	사설: 節制運動의 眞意

사설을 통해 『기독신보』는 절제운동을 ‘조선의 急務’로까지 인식하면서, 조선여자절제회를 비롯한 절제운동단체의 활동을 주목하고 절제운동의 본의가 기독교의 삶의 방식을 실현하는 길이며 현실적으로 조선민족의 경제 및 정신을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하였다. 특별히 1928년 1월에는 ‘금주특별호’를 발행하여 금주운동의 활성화를 독려하는 가운데,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도모하고 현실에 눈을 돌릴 것을 촉구하였다.<sup>304)</sup>

1920년대부터 금주금연에 관한 내용을 외국과 조선내의 사례를 망라하여 게재



했던 기독교신보는 1921년 3월부터 「금주와 금연」, 그리고 1924년 3월부터는 「절제부」, 「금주담춤」, 「금주총림」 등의 고정란을 두어 술의 해독을 경계하고 금주의 방법, 외국의 사례, 금주의 이유를 설명하며 절제운동을 독려했다.

《표 14》 『기독교신보』에 게재된 ‘절제란’

단제목	필자	글제목	일자
禁酒와禁煙	魯解理	음주의 폐습과 폐결핵환자	1921. 3. 9.
"	魯解理	每人日에 死亡者가 一千五百餘名式	1921. 3. 16.
"	魯解理	금주의 효력으로 감옥서를 뷔게함	1921. 6. 1.
"	魯解理	麻酔劑의 害毒	1921. 6. 8.
"	魯解理	금주법에 대한 미국장관의 말	1921. 6. 22.
"	魯解理	유력한 금주의 지도자가 생기었다	1921. 6. 29.
"	魯解理	금주연설	1921. 7. 6.
"	魯解理	아프리카의 금주	1921. 7. 13.
"		煙草는 미국의 적	1921. 12. 4.
"		戰時 금주법의 효과	1921. 12. 21.
"		전미의 금주효과	1921. 12. 28.
"		미국의 금주효과	1922. 1. 4.
"		煙酒와 壽命	1922. 1. 11.
"		學業과 吸煙	1922. 1. 18.
"		담배먹는 큰 나라	1922. 1. 25.
"		담배와 생명	1922. 2. 1.
"		금주는 정치상의 큰 유산이요 접는 수 (Handicap)이 아님	1922. 2. 8.
"	이진구	‘틴링’여사 금주강연을 聽하고(1-3회)	1922. 2. 15. 1922. 2. 22. 1922. 3. 1.
"		아프리카의 금주	1922. 3. 29.
"		금주와 생명 금주는 모든 병의 방지선 露國의 금주	1922. 4. 12.
"		대학생의 흡연벽	1922. 4. 19.
"		일본의 금주담.	1922. 4. 26.
"		일본의 금주동맹	1922. 5. 3.

304) 1928년 1월 11일자 기독교신보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사설: 禁酒號發行에 際하여/ 朝鮮에서 禁酒할 理由/ 朝鮮禁酒運動團 今後 計劃/ 술의科學的影響/ 술먹는 자와 질병/ 교육의 효과/ 금주명단 / 완전치 못한 사람/ 금주기도는 쉬지 않는다/ 각국의 금주운동- 미국, 분란, 일본, 이태리, 영국, 오스트리아/ 동물과 술/ 所謂基督教國과 禁酒運動(윌리엄 존슨)/ 禁酒問題의 根本的 解決策(편집인)/ 금주의 필요(손메레)/ 심리학상으로 본 술의 해독(채필근)/ 금주운동의 선구 푸란시스 . 이 . 윌나드(김태원)/ 순회강연일기 중에서(손메레)/ 단편소설- 술과 죄.

		캔박사의 助力	
"		음주자의 회개	1922. 5. 10.
"		중요한 이대원리	1922. 5. 17.
"		필리핀의 주정군 평양호 술장사들	1922. 5. 24.
"		‘밀큰’씨의 연설 ‘쫄’주의 큰 성적	1922. 5. 31.
"		버지니아리치몬드의 금주효과	1922. 6. 7.
"		금주와 범죄자수	1922. 6. 14.
"		금주와 생명보험	1922. 6. 21.
"		뉴욕의 범죄통계	1922. 7. 5.
"		인도의 금주상황	1922. 7. 12.
"		맥주의 해독	1922. 7. 19.
"		금주실시의 효과	1922. 7. 26.
"		각종범죄자의 수가 감소됨	1922. 8. 2.
"		캐나다의 금주	1922. 8. 16.
"		니유욕의 의사들이 맥주가 약에 소용없음을 개달음	1922. 9. 6.
"		과학과 음주	1922. 10. 11.
"		술을 쓰지 말자 의약회의 반대 학생의 금연	1922. 11. 8.
"		열가지 의문	1922. 11. 15.
"		금주와 결핵병 금주운동의 세계적 경향	1922. 11. 29.
"		범죄자가 감소	1922. 12. 6.
"		세계와 싸호자	1922. 12. 20.
"		과학과 금주	1922. 12. 27.
"		핀랜드의 금주 주정군이 업다 범죄자가 감소	1923. 1. 3.
"		마살윈수와 금주 하딩씨와 금주	1923. 1. 10.
"		금고의 돈이 늘어 8천개의 술집	1923. 1. 17.
"		금주로 인하여 진흥된 미국의 각 사업계	1923. 1. 31.
"		아프리카의 금주 미국의 금주운동	1923. 2. 21.
禁酒煙	로해리	금주의 효과	1923. 3. 7.
금주와 금연		술 끊은 보람 제일 큰 화재	1923. 3. 14.
禁酒談片		酒의 害毒	1923. 5. 2.
誓不飲		금주와 행복	1923. 5. 9.

禁酒		학생들의 대답	1923. 6. 13.
금주와 금연	뿌드부인	(구세군에 대해 쓰고 있음)	1923. 7. 11.
禁酒		헨리포드씨의 규칙과 명령 포드가 노동자에게 금주를 명령	1923. 7. 18.
禁煙		담배의 해(사람의 너를 해롭게, 학생음주는 공부 못하게)	1923. 7. 25.
禁煙		담배와 종교/팔커씨의 말	1923. 8. 15.
禁煙		백만원 돈모험 이야기	1923. 8. 22.
禁酒		먼저 지방에서(영국의 금주운동)	1923. 9. 19.
禁酒		최후의 승리(아스톨부인의 열심, 영국)	1923. 9. 26.
禁酒		청십자 불란서의 금주	1923. 10. 3.
禁酒		술의 범죄 사실	1923. 10. 17.
禁酒		만국금주대회(1)-여덟가지 결의사항	1923. 11. 14.
禁煙		담배를 끊은 이유	1923. 11. 28.
禁煙		自上犯之(선생된 이의 책임)	1923. 12. 5.
禁煙		용사의 사망	1923. 12. 12.
禁煙		금연과 뿌커워싱턴	1923. 12. 19.
禁酒		일본의 금주법 -소년에 한하여 금지	1924. 1. 2.
禁煙		흡연하는 선생에게 배우지 말라	1924. 1. 9.
禁酒		癲癇病도 흡연에서 난다	1924. 1. 16.
禁酒		‘뿌라이언’씨 ‘술없는세상이온다’	1924. 1. 23.
절제부		금연의 절대 원인 금주의 영향으로 체포되는 자가 감소함 금주국의 직업유여	1924. 3. 26.
절제부		煙鬼와 酒美人	1924. 4. 9.
절제부		아동의 단연법	1924. 4. 16.
禁酒談叢		술먹는 학생을 출학	1924. 5. 7.
禁酒談叢		금주의 결과	1924. 8. 6.
禁酒談叢		술먹는 여자	1924. 10. 1.
절제부		세계여자기독교절제회문답(2) 금주에 대한 성경말씀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	1924. 12. 24.
절제부		禁酒奇談	1925. 1. 14.
절제부		禁酒講話 -금사과세알 酒煙談叢	1925. 2. 4.
禁酒談叢		禁酒講話 -금사과세알	1925. 2. 18.
절제부	노해리	흡연의 해	1925. 4. 15.
절제부	노튼부인	미국여자기독교금주동맹회사업의 과거현 재미래	1925. 5. 13.
절제부	로해리	일본의 금주운동	1925. 5. 20.
절제부	멜링스부인	해독을 주는 술을 금하자	1925. 7. 22.
절제부	멜링스부인	큰포도원 주인 루터 멜뱅크의 ‘술과담배’ 에 대한 이야기	1925. 8. 26.

절제부	로해리	신자가 금주서약할 열네가지 이유	1925. 9. 9.
금주담충	벨링스부인	금주는 그리스도의 교훈을 실현함 미국철도계의 금주영향	1926. 3. 17.
절제부		십년간 금주의 결과로 다른 사업도 크게 번창	1926. 6. 16.
절제부	로해리	일본이 금주연맹	1926. 7. 28.
절제부	로해리	금주사업은 성공이다	1926. 10. 6.
금주담충	로해리	금주의 효력 술먹는 나라에서 보지 못할 일 금주의 주인공 빠취	1926. 12. 1.
禁酒講話	노튼민	술마시는 습관에서 자유를 얻어라	1926. 12. 15.
禁酒斷煙 運動		각 지방 소식	1930. 6. 2. 1930. 6. 11. 1930. 6. 18. 1930. 7. 16. 1930. 7. 23.
禁酒叢林	로해리	금주법의 아버지	1930. 10. 15.
禁酒叢林	로해리	경기계에서 술을 허락지아니함 내가 굳은 금주가인 이유	1930. 10. 22.
禁酒叢林	로해리	금주법이 이론 대사업	1931. 3. 11.
禁酒叢林	로해리	세계의 술의 상황	1931. 10. 28.

위의 《표 14》에서 보면, 연희전문 교수이자 조선예수교서회 편집위원이었던 로드(Rhodes, Harry Andrew)가 주로 집필을 맡고 있는데, 필자가 명시되지 않은 것도 거의 그의 글이라 미루어 짐작된다. 미국을 비롯하여 외국의 금주사례를 제시하고 술의 해독과 금주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게재되고 있는데, 이는 하고 있다. 미국의 예가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금주법이 실시되고 있던 상황과 미북장로교 선교사였던 로드의 영향이 크다고 하겠다. 그러면서 금주선진국으로서의 미국을 본받아 조선에서도 금주해야 한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

1928년부터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의 강연내용이 『기독신보』에 게재되면서 계몽적인 내용을 대신하게 되고, 1930년대 이후에는 외국의 사례나 교훈보다는 「금주선전」이라는 제목 아래 전국 각지에서 조직된 금주회 상황이라든가 금주선전소식을 전하고 있다. 또, 금주금연회 설립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각지에 조직된 금주금연회의 명칭, 회원 수, 설립년도 등을 상세히 적어 보내 줄 것을 요청하는 社告를 게재하여 금주금연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sup>305)</sup>

305) 「社告」 『기독신보』, 1922년 3월 29일.; 1922년 5월 17일.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 연합회는 1928년 1월부터 각 지회마다 매월 열리는 월례회 순서를 일괄적으로 정하여 매월 『기독신보』에 “절제회통일 순서”라는 제목하에 게재하였다.

《표 15》 『기독신보』에 게재된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 통일순서 중 강연제목

	일자	제목	필자	단제목
1	1928. 1. 11.	금주운동의 선구자 프란시스 윌나드의 전기	김태원	여자절제회통일순서 (1월분)
2	1928. 2. 29.	술과 도덕	홍애시덕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통일 순서(3월분)
3	1928. 3. 28.	신체에 미치는 술의 해독	어원	”(4월분)
4	1928. 6. 27.	우리의 경제력과 술	류형숙	”(7월분)
5	1928. 10. 10.	우리의 가정과 술	이윤희	”(10월분)
6	1928. 12. 12.	절제는 성공의 기초	손메레	”(12월분)
7	1928. 1. 16.	술과 가정	신형숙	”(1월분)
8	1929. 5. 1.	술과 죄	최상현	”(5월분)
9	1930. 9. 24.	마시면 죽는다	홍애시덕	절제회순서(10월)
10	1931. 3. 4.	자극물을 삼가라	배아양	”(3월)
11	1931. 4. 1.	미성년자를 위하여	최활란	”(4월)
12	1931. 6. 3.	맛당이 금주할 때	유각경	”(6월분)
13	1931. 7. 8.	버릇을 고쳐 선한길로 나아가자	최활란	”(7월분)
14	1931. 10. 28	가정과 절제	장정심	”
15	1931. 12. 2.	음주와 사회적 곤란	田馬大	”
16	1932. 2. 3.	아동에게 주는 음주의 악영향과 미국의 금주령의 결과	위대모부인	”
17	1932. 3. 2.	절제운동	田馬大	”
18	1932. 3. 30.	어떻게 절제할까	허길래	하나님과가정과세계를 위 하여/ 절제회순서
19	1932. 4. 27.	각성의 필요	리숙정	”
20	1932. 5. 25.	술에 관한 이야기		”
21	1932. 6. 29.	절제운동의 시기	정현숙	”
22	1932. 8. 31.	술은 왜 마시는가?		”
23	1932. 11. 2.	그리스도의 군병은 금주전선에 총동원하라	靑潭	”
24	1932. 11. 30.	청춘아! 淸行을 힘쓰자	최활란	”
25	1932. 12. 28.	가정에서부터 절제하자	蔡富仁	”

26	1933. 1. 25.	절제란 무엇인가	홍애덕	"
27	1933. 3. 1.	‘잇음’과 ‘삶’		"
28	1933. 3. 29.	금주의 필요	류형숙	"
29	1933. 4. 26.	사람과 습관	홍은경	"
30	1933. 5. 31.	카페의 위험	배의남	"
31	1933. 6. 28.	節制運動의 合理化	유각경	"
32	1933. 7. 26.	각 절제회의 사업	이효덕	"
33	1933. 8. 30.	節制運動은 家庭으로부터	김선	"
34	1933. 9. 27.	제목없음	HS	"
35	1933. 10. 25.	음주와 범죄	石園	"
36	1933. 11. 29.	어린이의 예수 탄일	裴義禮	"
37	1934. 1. 31.	소년시대부터 절대금주하는 습관을 지을 것	許濟夫人	"
38	1934. 2. 28.	禁酒運動의 獨立性	坐石	"
39	1934. 3. 28.	내가 할 일	이효덕	"
40	1934. 4. 25.	공창폐지	이효덕	"
41	1934. 5. 30.	원가지에 붙었는가?	홍에스터	"
42	1934. 6. 27.	생각있는 부모가 되자	이효덕	"
43	1934. 7. 25.	夏期와 節制	정현숙	"
44	1934. 8. 29.	실제적 방침으로	이효덕	"
45	1934. 10. 3.	節制와 生産	윤활란	"
46	1934. 10. 31.	어머니건강 생활의 영향	유각경	"
47	1934. 11. 28.	절제회진흥방침	金炳圭	"
48	1935. 3. 6.	교회와 절제운동	金保麟	"
49	1935. 3. 27.	갱생의 도	장정심	"
50	1935. 5. 1.	節制問題	김선	"
51	1935. 5. 29.	지혜로운 사람의 말(금주미담에서)	유각경	"
52	1935. 6. 26.	완전한 사람이 되는 법	최활란	"
53	1935. 7. 31.	합동의 힘	이효덕	"
54	1935. 8. 28.	합하자	정현숙	"
55	1935. 9. 25.	忍耐力	홍애시덕	"
56	1935. 10. 30.	인생과 경제	박양무	"
57	1936. 1. 1.	술은 왜 먹는가	전마대	"

위의 《표 15》에서 확인된 강연의 필자와 제목을 살펴보면, 57회 가운데 9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조선인 여성들의 글이다. 절제회연합회 회장과 총무를 역임했던

유각경, 최활란, 이효덕, 홍에스터의 글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여선교사들이 절제회 활동에 관여하고 때로는 연합하기도 했지만, 실제 활동을 주도해 나갔던 것은 조선인 여성들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제목을 통해 내용을 살펴보면, ‘술과 가정’ ‘가정과 절제’ 같은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가정을 중요시하고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이 많다. 강연대상 회원이 여성이었고, 대부분 가정주부였던 점을 감안해 볼 때,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술과 담배, 공창을 반대하여 도덕적인 가정을 지키고, 절약함으로써 경제적으로 탄탄한 가정, 나아가 사회를 만드는 일이 여자절제회가 애초 목적하는 바였다.

‘하나님과 가정과 세계를 위하여’라는 표어는 세계여자절제회가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슬로건이었다. 가정은 부절제하고 부패한 사회와 구별되는 성결의 장소이고 여성은 그 가정을 지키는 존재로서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 세계를 구한다는 의지와 구상이 표현되어 있는 구호이다. 절제운동에서 여성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은 이처럼 가정을 지키는 존재로서 부각된 역할에서 기인했다.

1916년 창간되어 격월간으로 발행되던 감리교 신학잡지 『신학세계』는 1922년부터 1927년까지 「절제부」란을 마련하여 상당의 지면을 할애하면서 금주를 주창했다. 술의 해독이 자손에게까지 유전되어 신생아 사망률이 높다고 하였고 자손에게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주는 것이 민족이 영구히 멸망치 않을 길이라고 하는 등 술이 개인과 민족에게 미치는 해독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sup>306)</sup> 그를 바탕으로 선진 금주국의 예를 소개하고 있는데, 미국과 특히 러시아에서 금주법 시행 이후 범죄율과 빈민수가 감소하고 인간생활이 풍요로워졌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세계가 금주하면 ‘온화한 대국’이 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하면서 선진국들이 금주하는데 하물며 ‘後進하는 吾儕’가 금주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였다.<sup>307)</sup> 특히 『신학세계』는 금주운동뿐만 아니라 공창폐지에 관한 글을 다수 게재하면서 그 폐해와 공창들의 참담한 실상을 지적하고 공창제도를 비판하였다.<sup>308)</sup>

장로교 기독교청년면려회 기관지인 『眞生』은 1925년 창간되어 매월 발행되었는데 인격수양, 청년의 역할, 성서와 신학, 면려청년회소식, 면려회 예배순서, 문학작

306) 蔡聖錫, 「酒의 害毒과 民族의 將來」, 『신학세계』 8권 3호, 1923년 6월.

307) 李昌植, 「禁酒論」 『신학세계』 8권 3호, 1923년 6월.; 金蓉子, 「滅亡의 原因」 『신학세계』 8권 3호, 1923년 6월.; 抄譯, 「如何히 戒酒는 惡癖」 『신학세계』 8권 3호, 1923년 6월.

308) 山室軍平, 「公娼廢止와 其先後策」 『신학세계』 9권 4호, 1924년 8월.; 山室軍平, 「公娼廢止와 其先後策(承前)」 『신학세계』 9권 5호, 1924년 9월.; 安部磯雄, 「廢娼運動에 就하야(一)」 『신학세계』 10권 3호, 1925년.; 安部磯雄, 「廢娼運動에 就하야(二)」 『신학세계』 10권 4호, 1925년.; 邊成玉, 「米國禁酒運動史概觀」 『신학세계』 11권 4호, 1926년 7월.; 姜明錫, 「歐美의 社會事業과 朝鮮의 社會事業」 『신학세계』 11권 6호, 1926년 7월.; 吳兢善, 「公娼廢止에 對하야」 『신학세계』 11권 6호, 1926년 7월.; 李應淑, 「廢娼運動의 戰士가되자」 『신학세계』 12권 2호, 1927년 4월.

품소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회원의 교양함양과 소식전달을 목적으로 하였지만 과학지식의 전달과 기독교에 대한 사회의 비판을 통해 자성을 촉구하는 글들을 실음으로써 기독교청년의 세계관을 넓히고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였다. 금주·금연에 관련한 글들은 1928년 이후부터 지면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1930년 4·5월호를 금주특별호로 발간하면서 금주운동에 박차를 가하였다.<sup>309)</sup>

구세군은 1910년 『구세신문』에 「단음흡이 가흡」이란 글을 싣고, 지속적인 금주운동을 전개했다. 1920년에는 『Anti-Drink War Cry』라는 잡지를 간행하기 시작하여 1925년에는 그 발행부수가 5만부에 이르렀다.<sup>310)</sup> 1921년부터는 매년 한 차례 기관지 『구세신문』의 특집으로 ‘금주호’를 발행하였다. 가두 판매는 물론 철도 공무원 전체에 배부하기도 하였고, 호별 방문하여 배부함으로써 금주의 필요성을 계몽하는 데 앞장섰다. 특히 ‘금주호’에 첨부된 금주 서약서가 많은 독자들의 관심과 금주 결심을 촉발시켰고, 이것이 작성되어 구세군 본영에 송부되면서 절제운동은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일익을 감당했다.<sup>311)</sup>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도 자신들이 제작한 선전문과 함께 구세군의 ‘금주호’를 함께 판매하면서 절제운동과 전도를 동시에 도모하기도 했다.<sup>312)</sup>

### (3) 절제운동 단체의 기관지 발행

평양을 중심으로 금주선전, 소비절약, 절제회 조직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던 금주단연동맹은 1928년 『節制生活』이란 기관지를 발행했다.<sup>313)</sup> 선교사 사우어가 절제운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으로 평양을 꼽고 그 예로서 자원자들에 의해 절제잡지까지 출간을 했다는 보고를 하고 있는데, 장소와 시기적으로 볼 때, 이 『節制生活』

309) 李容高, 「朝鮮靑年과 飲酒」 『진생』, 1929년 6월.; 崔啓哲, 「朝鮮의 三大問題와 基督教」 『진생』, 1929년 9월.; 이대위, 「今後 朝鮮基督靑年의 事業」 『진생』, 1929년 10월.; 金洙喆, 「基督教社會事業의 一考察」 『진생』, 1929년 10월.; 逍遙山人, 「禁酒卽 活路」 『진생』, 1930년 5월.; 이대위, 「民族的 自覺과 禁酒」 『진생』, 1930년 4·5월.; 「1930년의 금주운동」 『진생』, 1930년 4·5월.; 河瑪蓮, 「禁酒運動의 新方法」 『진생』, 1930년 4·5월.; 崔啓哲, 「朝鮮敎化의 新紀元」 『진생』, 1930년 4·5월.; 李孝寬, 「昌城의 禁酒組合」 『진생』, 1930년 6월.; 韓目見相, 「酒狂人의 子女는 얼마나 죽나?」 『진생』, 1930년 10월.

310) W. E. Twilley, The Salvation Army, *The Christian Movement*, 1920, p. 520.

311) 「구세군의 금주호」 『기독신보』, 1924년 3월 12일.; 「구세군의 금주」 『기독신보』, 1926년 3월 10일.; 「금주선전에 적용할 구세신문특별금주호」 『기독신보』, 1928년 2월 29일.; 장형일, 『한국구세군』, 구세군대한본영, 2004, p.74.

312) 「여자절제회 금주선전」 『기독신보』, 1927년 11월 16일.

313) 「절제생활, 평양금주단연동맹회에서 발간준비중」 『중외일보』, 1928년 1월 3일.; 「節制生活」準備, 禁酒斷煙同盟의 잡지(平壤) 『동아일보』, 1928년 1월 1일.; 「「節制生活」發刊(平壤)」 『동아일보』, 1928년 1월 7일.



을 의미하는 듯하다.<sup>314)</sup>

그런데, 『節制生活』은 여러 차례 압수되는 수난을 겪었다. 1928년 1월 23일 “당국의 忌諱에 저촉되어” 창간호를 압수당하고 발매금지 처분을 받아 같은 해 3월 1일 창간호를 새로 발행했으며, 2,3호 발행 이후 4호도 압수조치 당했다.<sup>315)</sup> 이후에도 여러 차례 기사 삭제 조치를 받았다. 3호는 소년 교육에 절제생활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는 주장이 문제시 되었고, 6호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성공요인을 기술하고 酒類를 배척하는 내용 때문에 삭제당했다. 8호에서는 ‘조선국어를 존중하자’, 9호는 ‘술취한 순사의 失行’이란 글이, 10호에서는 ‘緊縮政策과 우리들’이라는 글이 삭제처분을 당했다.<sup>316)</sup>

술취한 순사의 실행이라든가 조선국어 존중,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야기 등은 경찰을 조롱하고 민족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다. 금주금연운동이 개인적 절제생활과 단순한 절약에만 머물지 않고 이를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하고자 했음을 엿볼 수 있다.

여러 차례 압수와 삭제 조치를 당하긴 했지만, 『節制生活』은 감리교단의 후원을 받으며 ‘술의 해독’, ‘금주의 교훈’, ‘각국의 금주정책’ 및 ‘춘궁에 시달리는 농촌의 실상’ 등을 그 내용으로 1932년 이후까지 발행되었다.<sup>317)</sup>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는 1931년 1월 기관지 『절제』를 발행하여 각 지방 지회의 활동과 계몽, 선전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sup>318)</sup> 성경학원, 청년회, 주일학교, 부인회 등의 지지로 첫 발행 10,000부가 모두 소비되는 호응을 얻었다.<sup>319)</sup> 『절제』에는 연합회 및 각 지방 지회의 소식을 비롯하여 ‘금주할 방법’ ‘범죄와 술’ 등의 술

---

314) Charles A. Sauer, "Growth of Liquor Traffic", KOREA CONFERENCE, *Annual Report of the Broad of Foreign Missions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Korea Mission 1894-1943), 1928.

315) 「『節制生活』 創刊號押收(平壤)」 『동아일보』, 1928년 1월 27일.; 「『節制生活』 押收(平壤)」 『동아일보』, 1928년 7월 24일.; 「잡지 절제생활, 원고 전부 압수」 『중외일보』, 1928년 7월 22일.

316) 「『節制生活』 第3號」 『不許可 出版物 竝 削除記事 概要譯文』, 1928년 5월 4일.; 「出版警察概況-不許可差押及削除出版物記事要旨-『節制生活』 第六號」 『朝鮮出版警察月報』 第4號, 1928년 12월 5일.; 「出版警察概況 -不許可差押及削除出版物 記事要旨 -『節制生活』 第八號」 『朝鮮出版警察月報』 第8號, 1929년 4월 8일.; 「出版警察概況-不許可差押及削除出版物記事要旨-節制生活 第九號」 『朝鮮出版警察月報』 第11號, 1929년 7월 30일.; 「出版警察概況-不許可差押及削除出版物記事要旨-節制生活 第十號」 『朝鮮出版警察月報』 第15號, 1929년 11월 5일.

317) 「절제생활(제2호)」 『동아일보』, 1928년 4월 6일.; 「절제생활(제5호)」 『동아일보』, 1928년 9월 25일.; 1931년 9월 23일.; 1932년 4월 6일.; 「신간소개- 절제생활(3월호)」 『기독신보』, 1932년 4월 6일.

318) 「절제 창간호」 『기독신보』, 1931년 1월 21일.

319) Jean L. Delmarter, The Temperance Army Marches Forward, *The Korea Mission Field*, 1932. 1.

의 피해를 기록한 글에서부터 화류병예방법 등의 공창폐지에 관한 내용, 허례폐지와 경제생활의 내용, 여성 직업문제에 이르기까지 여성과 절제운동에 대한 글들이 수록되어 있다. 절제회원 뿐만 아니라 조만식, 홍병선 등 당시 절제운동, 농촌운동에 열중하던 남성들도 필자로 참여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발행되지는 못한 듯하고 매년 한 두호씩 간행되다가 1938년 8호를 끝으로 중단되었다.<sup>320)</sup>

조선기독교절제운동회는 1936년 4월 『朝鮮節制時報』를 월간으로 발행하였다. 8면의 신문형태로 발행된 이 잡지는 절제운동의 계몽활동을 목적으로 하여 극기 자제생활, 사회정화, 신앙실제화 등 세 가지 강령에 입각하여 발행되었다.<sup>321)</sup>

《표 16》 절제운동 단체의 기관지

발행처	서명	창간일	저자 및 편자	목 차
조선여자 기독교 절제회	節制	31. 1. 23.	편집 겸 발행인: 許魚源 (1931) 蔡富仁(1933 ~) 홍에스터(~1938)	2호 내용: 어머니의 사명, 범죄와 술, 이상촌, 음주자와 직업, 공창폐지, 기독교와 금주, 소년소녀 금주, 기타 3호 내용: 절제운동의 필요, 농촌과 술담배, 예 절과 술, 인생비극과 광명, 음주와 교 육, 절제생활 등 8호 내용: 홍에스터(당시 편집겸 발행인)의 사설 김원근 <조선고대위인의 경제생활> 이건영 <금주할 방법> 황신덕 <직업부인과 절제의 정신> 이영준 <화류병예방법> 조만식 <조선인의 혼례식> 홍병선 <주초와 여자>, 안수경 <産婦의 주의> 단편 소설 2편, 절제회 소식란
조선절제 운동회	朝鮮節制 時報	36. 4. 1.	주간: 송상석 발행인: H. A. Rhodes	창간호 내용: <미성년자 음주깍연금지법을 실시 할 입안을 보기까지 된 경로> <청년과 금주문제> <술먹는 사람의 정신적 해독은 어 떠한가> <조선에 실시될 금주법, 금연법> 윤치호, 정인과, 조만식, 양주삼, 김창준 등의 창간 축하
금주단연 동맹	節制生活	28. 1. 23.	편집 겸 발행인: 吳基善	1931. 9.: <금주연맹체의 출현을促함> <正路의 所在>

320) 「신간 소개/ 절제 제2호 발행」 『동아일보』, 1931년 12월 4일.; 「신간 소개/ 절제 제3호 발행」 『동아일보』, 1932년 12월 4일. 1932년 제2,3호, 1933년 제4호, 1934년 제5호, 1935년 제 6, 7호, 1938년 제8호 발행.

321) 송상석, 『한국절제교육연구사료집』, 성광문화사, p. 534.; 윤준병, 『한국기독교신문·잡지백년사 (1885-1945)』, 대한기독교출판사, 1984.

				<술은 무슨 해가 되는가> <주정의 영향> 1932. 2.: <물가는 오른다> <색의장려에 대한 나의 견해> <대중의 위기와 절제운동의 급무> 등 1932. 3.: <窮春은 헛친다> <미국금주령이 가르치는 교훈> <세계 각국금주정책> 등
--	--	--	--	---

#### (4) 단행본 발행

절제운동단체의 기관지 외에 금주금연에 관한 단행본 발행도 이루어졌다.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는 『禁酒實話集』과 『禁酒讀本』, 『절제금주론문집』, 『꿈을 껴때』 등의 단행본을 발행하고, 각 절제회와 서점에서 위탁 판매토록 하여 회원 및 일반에게 절제운동의 방법과 상식을 알렸다.<sup>322)</sup>

『禁酒讀本』은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가 발행한 것으로 이효덕이 편집을 맡은 책이다. 그녀는 서문에서 이 책이 일본교육회 회장이었던 澤柳政太郎의 책으로서 일본 금주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 일본기독교교풍회의 모리야(守屋東)의 호의로 번역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sup>323)</sup>

즉, 이 책은 번역서인데, 다만 부록으로 조선의 금주운동과 관련된다고 여겨지는 여러 가지 정황을 첨부하여 편찬했다. 조선총독부 통계연보를 활용하여 조세 총액 중 주세액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도표로 명시하고, 주세액이 국세총액의 28-29%를 점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술 소비액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보여주고자 한 의도로 보인다. 조선의 출생률과 사망률이라든가 자살이나 변사 등의 통계표를 수록하고 있는 것은 술이 영유아 사망 및 자살과 사고에 원인이 된다고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sup>324)</sup>

이 책은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가 일본부인교풍회와 교류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되는 동시에 조선의 상황에 적용시키려는 편집의도도 엿볼 수 있다.

『禁酒實話集』도 총무였던 이효덕이 편집한 책으로서 발행은 예수교서회에서 했다. 술 때문에 패가망신한 사람들의 사례와 그에 따른 후회 등의 실제 이야기를 모아 술의 해독을 경고하고 있다.

322) 「朝鮮女子基督教節制會 聯合會의 事業계획」 『기독신보』, 1936년 7월 22일.; 「禁酒讀本, 朝鮮女子基督教節制會發行」 『조선일보』, 1937년 2월 14일(夕).

323) 李孝德 編, 『禁酒讀本』, 朝鮮女子基督教節制會聯合會, 1936, pp. 1-2.

324) 李孝德 編, 『禁酒讀本』, 朝鮮女子基督教節制會聯合會, 1936, 附錄 pp. 1-12.

『금주미담』은 틴링이 지은 『IT IS WRITTEN』이란 책을 채성석이 번역하고 예수교서회에서 발행한 것이다. 그는 서론에서 “이 책의 기록한 이야기의 목적은 교사나 부모되신 이에게 현대 청년으로 하여금 개인의 건강과 사회의 윤리기초에 주요한 원칙을 깨닫게 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술취함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징계하시고 모든 일에 절검(節儉)함을 권장하사 이를 준행하는 사회나 국가에는 행복이 되게 하신 것을 알게 할 재료를 소개하기 위하여 기록”한다고 번역의 취지를 밝히고 있다.<sup>325)</sup>

금주는 하나님이 신자에게 내리신 경계사항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건강과 행복 나아가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책의 내용은 성경 속 인물인 솔로몬, 다윗, 다니엘 등의 행적과 그들의 미담을 기록하고 있는데, 뒤에 각 장의 내용에 대해 문답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성경을 통해 배우고 이를 복습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또 중간에 술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의 통계, 술이 유전병을 발생시킨다는 도표 등을 두어 술의 해독을 경계하였다.

예수교서회에서는 이밖에도 반복기(Van Buskirk, James D.)의 『신체삼해론』, 송상석의 『유년절제독본』 『술의방지책』 등의 단행본을 발행하는 한편, ‘금주방책’ ‘운전수가 술을 먹을 것인가’ ‘술의 해’ ‘술의 결과’라는 제목의 선전지도 발행하였다.

《표 17》 절제관련 단행본 및 내용

발행처	서명	발행 년도	저자 및 편자	목 차
조선여자 기독교절제회	禁酒讀本	1936	편집자 이효덕 발행자 변영서	1편 술의 과학 2편 술과 사람 3편 금주문제 부록: 조선주세액 조선주세령 조선의 술 生産商 조선의 술 輸入商 국세총액과 주세 조선의 아동생산과 사망률 自殺통계표 變死통계표 조선제학교일람표 보통학교생도이동표
”	禁酒論文集	1933	許漁源	1 금주- 徐金讚 2. 금주론- 정재호 3. 조선의 금주운동은 누가 할 것인가- 朴鶴田 4. 금주의 필요- 金武生 5. 조선금주운동- 朴仁寬

325) C. I. Tinling, 저·채성석 역, 『금주미담』, 朝鮮耶蘇敎書會, 1923.

조선예수교서회	禁酒實話集	1936	편집자 이효덕 발행자 반우거	飲酒破産記, 飲酒敗家者 飲酒로 敗家不具者, 술로 자식 태운자 음주 墮落者 술밋치광이(酒狂) 깨여진 그릇 취인 酒幕 飲酒家の 末路
조선예수교서회	금주미담	1923	C. I. Tinling, 저 채성석 역	제1과 사막안에 한 아이 제2과 지혜로운 사람의 말 제3과 요행히 화를 면함 제4과 서약을 완전히 지키 제5과 용감한 결심 제6과 용감한 세 사람 제7과 경주함 제8과 자긍하는 왕 제9과 광대한 성이 파괴됨 제10과 척후병의 이야기
조선예수교서회	주초계언*	1924	C. I. Tinling, 저 채성석 역	
"	청년립지요결 *	1924	채성석	“이는 청년들 요구에 큰 주의를 준 사회적 직 무의 특별한 것이요 유익하고 유효한 책으로 크게 권장하는 바이외다
"	중국의강덕*		C. I. Tinling, 저 채성석 역	이 책도 아편과 연초와 술의 해되는 것을 명백 히 분배해야 음악과 그림으로 설명한 것이외다
"	신체삼해론		반복기	“술, 담배, 성욕 3가지가 사람의 신체에 가장 큰 해독을 준다”
"	유년절제독본		송상석	“조선의 절제운동은 어린아이에게로부터 시작 할 필요를 느끼고 이 방면에 연구를 많이 가진 송상석씨의 재미있는 절제이야기” 절제동화12개 수록
"	술의방지책		송상석	“여러 방면으로 사람에게 불행을 주는 이 악마 술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자”
"	꿈을 꺾 때		전영택	“금주에 대한 연극을 간이하게 각색하여 아무 라도 조그만 연습하면 실연할 수 있게 함”
"	금주미담		최상현	“금주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재밋게 적어 누구든 한번 읽으면 자연이 술을 금할 생각이 나게 하는 좋은 책”

\*는 『기독신보』 1924년 10월 1일자, 1935년 6월 5일자 예수교서회 광고에 의함.

##### (5) 논문현상과 웅변대회

논문현상논문 모집과 웅변회와 토론회도 절제운동을 알리고 확산시키는 좋은 방

법이였다. 조선기독교절제운동회는 순회 강연회를 개최하고 전국 각지에서 계몽, 선전운동과 교육을 펼치면서 중등학교와 전문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주를 주제로 한 논문을 현상 모집하여 『기독신보』에 그 전문을 게재했다.<sup>326)</sup>

면려청년회는 조선절제운동회와 연합으로 논문현상이나 웅변대회를 마련하기도 하였고, 독자적으로 진행시키기도 했다. 이러한 행사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기독신보 등의 후원을 얻어 선전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sup>327)</sup>

평양의 장로교 신학교도 연례 행사로서 교내 현상금주웅변대회를 개최하면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sup>328)</sup> 학교내에 사회교화사업연구부를 두고 조선기독교절제운동회와 연합하여 금주강연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는데, 이렇듯 장로교 계통의 면려청년회, 조선기독교절제운동회, 장로회평양신학교는 서로 연합하여 운동을 진행시켰다.<sup>329)</sup>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는 중등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논문을 모집하고 가극 공연까지 하면서 운동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논문현상은 해를 더할수록 참여와 호응이 좋았다.<sup>330)</sup> ‘민족건강으로 본 금주’, ‘민족경제로 본 금주’ 등의 논문제목을 통해 금주문제를 민족의 활로로 파악하고 이를 계몽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sup>331)</sup>

논문현상이나 웅변대회는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았다. 금주선전 등이 일반을 향한 캠페인의 성격을 갖는다면 이것은 학생·청년층을 상대로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진행된 것이었다.

326) 「절제운동회 주취 절제순회강연」 『조선일보』, 1935년 1월 10일; 윤용현, 「禁酒와 朝鮮의 將來(1)」 『기독신보』, 1933년 1월 25일; 「禁酒와 朝鮮의 將來(2)」, 1933년 2월 1일; 황선이, 「禁酒運動(상)」, 1933년 2월 22일; 「禁酒運動(중)」, 1933년 3월 1일; 「禁酒運動(下)」, 1933년 3월 8일.

327) 「금주단연현상웅변대회」 『기독신보』, 1931년 2월 4일; 「節制問題 顯賞雄辯大會 一等은 女演士」 『기독신보』, 1934년 9월 12일; 「禁酒禁煙運動 長淵」 『기독신보』, 1930년 6월 4일; 「節制운동 장려의 懸賞웅변대회」 『조선일보』, 1932년 2월 11일; 「면려회 제양회 연합 현상 절제 웅변회 5일 오후에 서문 외교당」 『조선일보』, 1934년 9월 4일; 「節制懸賞雄辯大會」 『동아일보』, 1934년 9월 5일; 「절제생활을 연제로 현상 ‘10분간’ 웅변」 『조선일보』, 1936년 6월 21일; 「基督教勉勵會主催로 少年小女 현상웅변대회」 『동아일보』, 1936년 6월 26일.

328) 『朝鮮예수敎長老會總會 第22回 會錄』, 1933.

329) 「節制大講演會」 『동아일보』, 1935년 3월 3일.

330) Jean L. Delmarter, The Temperance Army Marches Forward, *The Korea Mission Field*, 1932. 1.

331) 「절제회의 懸賞」 『기독신보』, 1931년 7월 22일;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 현상논문당선발표」 『기독신보』, 1932년 5월 25일; 「懸賞論文 모집」 『동아일보』, 1932년 3월 11일; 「여자절제회에서 현상논문 모집」 『조선일보』, 1935년 5월 9일; 「현상공모」 『기독신보』, 1936년 1월 1일; 『종교시보』, 1935년 9월호.

## IV. 공창폐지운동

공창제는 국가가 성매매를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제도 자체의 모순과 거기에 ‘성을 파는 여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중의 문제의식을 전제로 한 것이다. 때문에, 공창폐지운동은 국가가 성매매를 공인하는 데 반대하는 제도의 철폐와 아울러 여성정조이데올로기에 기반하여 ‘성을 파는 여성’의 존재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결합하여 진행되었다. 이 장에서는 성매매에 대한 다양한 개념은 논외로 하며 일제 시기 절제운동의 일환으로 기독교계에서 전개한 공창폐지운동을 논의의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 1. 공창제 실시와 폐창론의 대두

#### 1) 일제의 공창제 실시와 성매매 여성의 실태

1876년 개항 이후 개항장 일본인 거류지를 중심으로 설치되기 시작한 유곽은 1908년 9월 「창기단속령」·「기생단속령」의 발포로 구체화되기 시작하여 1916년 3월 각 도 경찰서장이 지정한 장소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경무총감부령 4호 「대좌부창기취체규칙」이 제정되고, 「숙박영업취체규칙」 「요리점음식점영업취체규칙」 「예기작부예기치옥영업취체규칙」도 잇달아 발포되면서 공창제로 제도화되었다.<sup>332)</sup>

332) 『朝鮮總督府官報』, 1916년 3월 31일자 제 1095호.

일반적으로 성매매 여성을 가리키는 명칭은 창기, 갈보, 기생, 작부, 공창 등으로 뒤섞여 불리고 있다. 그러다가 1916년 ‘대좌부창기취체규칙’이 발포되면서 매매춘에 관련되는 숙박소·요리점·음식점·대좌부의 구분과 예기·작부·창기의 구별이 명확히 이루어졌다. 이 규정에 의해 성매매 여성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娼妓	유곽내 거주(유곽밖 출입 통제), 성매매 영업만 인정받음. 가무음곡 금지된 직업적 ‘매춘부’
藝妓	요리점에서 객의 시중드는 존재. 가무음곡. 공식적으로 성매매 금지. 이를 위해 요리점에서의 숙박 금지
酌婦	음식점에서 객의 시중드는 존재. 가무음곡 금지. 공식적으로 성매매 금지. 이를 위해 음식점에서의 숙박 금지됨
女給	카페의 등장으로 생겨남. 객의 음료 시중. 공식적 성매매 금지.

그러나 기생과 작부 등의 매매춘은 숙박업소 등에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정기적인 성병검사를 받는 국가 관리 대상의 공창은 창기였다. 그리고 예기, 작부, 여급은 사창이

공창제가 확립되면서, 초기에는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일본인 접객업부가 대부분이었지만, 점차 조선인 여성의 숫자가 늘어났다. 1916년 일본인 접객업부의 수가 4,310명으로, 1,708명이었던 조선인보다 월등히 높았는데, 1929년 이후 역전이 되어 1942년 일본인 접객업부는 5,454명이고 조선인 접객업부는 무려 10,169명에 달하고 있다. 일본인 창기는 1916년 2,077명에서 1942년 1,774명으로 감소하는 반면, 조선인의 경우 1916년의 774명에서 계속 증가하여 1939년에는 일본인을 웃돌아 1942년에는 2,076명이 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무학자였는데, 일본인보다 조선인의 그 비율이 훨씬 높았다. 또, 성매매업 종사 이전의 직업을 살펴보면, 일본인의 경우 비슷한 일에 종사했던 경우가 많았지만, 조선인은 가사 돌보기와 음식점 종업원, 농업에 종사했던 자가 전체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sup>333)</sup>

《표 18》 접객업부 통계(1916~1942)

연도	조선인					일본인				
	娼妓	藝妓	酌婦	女給	계	娼妓	藝妓	酌婦	女給	계
1916	774	586	348	-	1,708	2,077	1,110	1123	-	4,310
1917	862	679	573	-	2,114	1,920	1,105	1011	-	4,036
1918	987	931	913	-	2,831	1,945	1,210	926	-	4,081
1920	1,400	1,224	868	-	3,492	2,289	1,336	705	-	4,330
1921	1,262	1,343	877	-	3,482	2,599	1,640	782	-	5,021
1922	1,249	1,161	926	-	3,336	2,547	1,415	812	-	4,774
1924	1,091	767	889	-	2,747	2,245	1,234	727	-	4,206
1925	1,017	826	962	-	2,805	2,034	1,409	642	-	4,085
1926	1,039	1,535	1,013	-	3,587	2,109	1,630	657	-	4,396
1927	1,022	1,746	999	-	3,767	1,860	1,748	565	-	4,173
1928	1,064	2,098	1,043	-	4,205	1,842	1,975	532	-	4,349
1929	1,262	2,263	1,219	-	4,744	1,789	2,186	493	-	4,468
1930	1,370	2,274	1,241	-	4,885	1,833	2,156	442	-	4,431
1931	1,268	2,450	1,355	-	5,073	1,824	2,058	479	-	4,361
1932	806	2,531	1,131	-	4,468	1,380	1,945	426	-	3,751
1933	1,009	2,635	1,056	501	5,201	1,551	1,985	382	1,988	5,906
1934	1,113	3,091	1,086	739	6,029	1,647	1,975	442	2,331	6,395
1935	1,330	3,933	1,290	939	7,492	1,778	2,128	414	2,395	6,715
1936	1,653	4,712	1,364	1,399	9,128	1,921	2,271	385	2,661	7,238
1937	1,647	4,953	1,330	1,691	9,621	1,946	2,211	404	2,599	7,160
1938	1,703	5,216	1,336	1,733	9,988	1,923	2,161	426	2,552	7,062
1939	1,866	6,122	1,445	1,956	11,389	1,845	2,226	351	2,346	6,768

라고 할 수 있다.(하지만 이후 사창이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검진도 강제된다). 그렇지만 전차금을 받고 팔려와 노예같은 생활을 했던 것은 창기에서부터 여급까지 마찬가지였다.  
333) 야마시다 영애, 「식민지 지배와 공창제도의 전개」 『사회와 역사』 51, 1997. pp. 169~170.



1940	2,157	6,023	1,400	2,145	11,725	1,777	2,280	216	2,226	6,499
1941	2,010	4,828	1,310	1,998	10,146	1,803	1,895	292	1,893	5,883
1942	2,076	4,490	1,376	2,227	10,169	1,774	1,796	240	1,644	5,454

\* 宋連玉, 「日本の 植民地支配と國家的 管理 賣春-朝鮮の 公娼を中心に」 『朝鮮史研究會論文集』 32, 1994, p. 58에서 재인용

조선인接客업부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대부분이 무학자였다는 사실은 당시 교육받지 못한 빈민층 여성들이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성매매업에 종사한 것을 반증하고 있다.

“妙齡少女들이 엇더케 公娼으로 오게되는가? 그는 卽장이라는 것의 일입니다 이 卽장은 서울 안에 잇서서 食料 各處에 聯絡을 取호야 女子를 弄絡호여 오는 것인디 그 方法은 大概如此합니다 鄉村貧民家에 가서 女息의게 富者로 잘사는 곳으로 出嫁호여 주갓다 호고 又は 서울노 工夫식혀주마호며 그 女子의게 衣服指環等으로 好奇心을 니르켜 父母를 모르게 誘여가지고 逃亡호야 停車場으로 오면 停車場에서는 다른 卽장이가 (自己들의 約束이 秘密히 有호야 引導호야 서울노 와서는 旅館으로 引導합니다. 그리고 그 者는 他處로 가서 七八日이 지나도 오지아니호야 旅館主人은(亦是 同類의) 食價를 支拂호라고 직촉호면 그 女子는 糶수업시 돈벌디를 指導호야 달나고 請求케되여 主人이 갓다가 팔면 거기는 몇놈의 惡漢이 有 호야 戲弄호다가 強制로 印을 밟고 公娼으로 다려감니다. 그러나 警察에서는 捺印호었다고 默認합니다 그리호야 못침찍 公娼이 되면은 다시 나올 道理가 업습니다.”<sup>334)</sup>

위에 예시한 것처럼 공창이 되는 대부분의 경로는 인신매매였다. 인사소개소라는 불법 소개소가 결혼이나 취업을 미끼로 여성을 속여서 팔아넘기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농촌여성들이 주된 대상이 되었다. 남편이나 부모가 몰래 팔거나 노골적으로 성매매를 강요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sup>335)</sup>

특히 빈민가의 어린 딸을 수양녀로 삼은 뒤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팔아넘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아예 종로에는 6,7명에서 10명 정도의 수양녀를 데리고 기생수업을 시키는 곳이 많았으며 그 중에는 수양녀가 백여 명이나 되는 곳도 있었다.<sup>336)</sup>

334) 오궁선, 「공창폐지에 대하여」 『신학세계』, 1926년 12월.

335) 「同棲하자 誘引하여 창기를 파러서 먹고자」 『동아일보』, 1921년 10월 4일.; 「婦女를 誘引密賣, 심질세된 녀자를 창기로 팔어먹어」 『동아일보』, 1922년 10월 24일.; 「人身賣買業者 全州署에 또 檢舉」 『동아일보』, 1925년 2월 20일.; 「順天地方에 人身賣買盛行」 『동아일보』, 1932년 9월 3일.; 「養女 妓生 賣淫, 人身賣買의 惡風」 『동아일보』, 1934년 2월 14일.; 「妻로 娶호야 娼妓에 팔아」 『每日申報』, 1923년 4월 25일.; 「남의 딸을 꺾여 娼妓로 팔아」 『每日申報』, 1932년 8월 28일.; 「시골處女교여 遊廓에 팔아먹고」 『朝鮮中央日報』, 1934년 11월 7일.

336) 「기생 노릇은 해도 창기 노릇은 죽어도 싫소, 수양딸로 데려다가는 요리점에 팔려고」 『중외일

인신매매 금액은 천차만별이었다. 최저 20원부터 최고 1,400원까지 다양했다. 음식점 등에 팔리는 경우가 대체로 가격이 낮았고, 유곽이나 카페가 비교적 높은 값을 받았다. 그들은 수입의 상당액을 포주에게 빼앗겨 실질적으로 전차금을 갚아 나갈 길이 막막했다. 대부분의接客업부들은 매달 받는 월급에서 포주에게 전차금과 이자, 세금, 식비, 목욕료, 의류비, 침구비, 미용료, 자리값, 약값, 잡비를 뜯겨 결국 빚을 남길 뿐이었다. 더구나 영업지를 옮길 때 전포주가 중간에서 이익을 남기고 팔면서 이들의 차금은 늘어만 갔다.<sup>337)</sup> 때문에 전차금을 갚을 길이 없어 도망치거나 음독자살하는 경우도 많았다.<sup>338)</sup>

또한 일정한 수입을 올리지 못하면 포주들에게 잔혹행위를 당했는데, 포주들이 이들을 죽도록 구타하거나 결박하고 심지어 굶기는 경우도 있었다.<sup>339)</sup> 견디다 못한 창기들은 자살을 기도하거나 간혹 도주하기도 했다.<sup>340)</sup> 그러나 대부분은 감시원에 의해 도로 붙잡혀 오기 일쑤였고, 유곽을 벗어나더라도 경찰에게 잡힐 경우 포주에게로 다시 넘겨지기 마련이었다.

성매매여성들은 이른바 ‘화류병’이라 불리는 각종 성병에도 시달렸다.<sup>341)</sup> 국가가 제도적으로 규정한 성병 검진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는 형식적 절차일 뿐이었다. 1904년 인천에 있던 일본인 창기를 대상으로 시작된 검사는 1906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었다. 그러나 남성은 검사하지 않기 때문에 전염을 막을 수 없고, 감염자로 판단되어도 영업을 계속하기에 실효가 없으며, 검사의 정확성 또한

---

보』, 1929년 11월 8일.; 「어린養女에게 賣春을 強迫」 『每日申報』, 1932년 8월 21일.; 「賣春 하단다고 少女가 泣訴」 『每日申報』, 1933년 11월 15일.; 「乃妻를 내세워서 賣春強要코 暴行」 『每日申報』, 1936년 7월 19일.; 「수양딸로 誘拐하여 賣春強要의 惡黨」 『每日申報』, 1937년 3월 17일.

337) 「賣笑群 千七百名 前借金 二百萬圓! 遊廓으로 輾轉賣身에 借金만 부러 本町一帶 娼妓調査表」 『동아일보』, 1937년 11월 27일.

338) 「前借金에 苦心, 妓生投身自殺」 『동아일보』, 1936년 4월 5일.; 「酌婦가 飲毒, 전차금 四백 원에(三陟)」 『동아일보』, 1936년 8월 6일.; 「前借金 잇는 娼妓와 辯士가 飲毒情死, 醫專에 入院, 生命危篤」 『동아일보』, 1937년 7월 27일.

339) 「殘酷한 抱主虐待로 娼妓自殺企圖」 『동아일보』, 1926년 6월 15일.; 「娼妓를 結縛亂打, 청년과 수작하였다는 트집, 抱主는 四個月 服役」 『동아일보』, 1926년 10월 20일.; 「日人抱主의 虐待로 餘娼妓絶食」 『동아일보』, 1927년 5월 20일.; 「賣淫안는다고 娼妓를 毆打, 무리한 포주가」 『동아일보』, 1930년 2월 1일.

340) 「逃走하려는 娼妓, 잡히어 囹圄生活(馬山)」 『동아일보』, 1927년 3월 3일.; 「逃走한 酌婦 사기죄로 붙잡아 도라가」 『동아일보』, 1927년 3월 23일.; 「抱主의 虐待로 娼妓飲毒苦悶」 『동아일보』, 1927년 7월 7일.; 「日本人 抱主虐待로 朝鮮女子兩人 自殺」 『동아일보』, 1928년 2월 1일.; 「抱主壓迫으로 娼妓飲毒謀死(城津)」 『동아일보』, 1928년 3월 22일.; 「娼妓飲毒自殺, 포주의 학대로」 『동아일보』, 1928년 5월 29일.

341) 「창기보군자 격증」 『每日申報』, 1925년 12월 15일.; 「新町遊廓花柳病 娼妓保菌자가 만다」 『每日申報』, 1935년 11월 9일.; 「十名中の 一名은 花柳病있는 娼妓」 『동아일보』, 1927년 9월 2일.

믿지 못할 만큼 허술한 것이었다. 검사 방법과 절차도 야만적이었고 강제적으로 창기들을 색출하여 검사받게 하는 과정도 폭력적이었다.<sup>342)</sup> 강제검진을 폭력적으로 실시하면서 병을 치료해 준 것도 아니었다. 이에 따라 성병발병률은 점차 늘어나 1928년 30% 이상의 성병감염률은 1934년에 이르러 공창 중 57%, 작부 중 46%, 예기 중 37%가 화류병에 걸려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sup>343)</sup> 이 외 밀매음 여성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을 것이다. 성병 이외에도 열악한 환경과 부실한 영양 상태로 인해 성매매여성들은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 있었다.<sup>344)</sup>

이렇게 성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그 폐해가 심각해지면서, 폐창운동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기독교계는 1919년 선교사들이 총독부에 공창폐지에 대한 것을 건의한 이래, 1920년대 중반부터 공창폐지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여타 여성계에서도 공창폐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기독교계 외의 전국적 조직이나 단체의 활동은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다.

1924년 창립된 최초의 사회주의 여성단체 조선여성동우회가 결의사항에서 ‘공창 여성에 관한 건’을 언급한 이래,<sup>345)</sup> 1926년 조선공산당은 조선여성운동의 나아갈 방향을 ‘사상혁명’으로 규정한 뒤 여성자신의 인권 회복을 일차적 과제로 보고, ‘현모양처주의’ ‘복종주의’를 철저히 배격할 것과 ‘미신과 종교적 생활의 청산’으로 요약되는 반봉건적 활동을 전개하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성매매여성에 대한 현실적 고려를 결의하고 있지만, 가시적 운동이나 성과는 눈에 띄지 않는다.<sup>346)</sup>

여성운동의 통일전선체로서 조직된 근우회는 1929년 제2회 대회 때 7개의 행동강령 가운데 ‘인신매매 및 공창폐지’를 포함시키고, 지방지회에서 공창폐지를 결의하였다. 그러나 본격적인 운동을 전개하지 못한 가운데 해체되었다.<sup>347)</sup> 다만 1931년 청진의 한 유곽 창기들이 포주의 학대에 저항하여 머리를 깎고 아사동맹을 맺어 단식 투쟁이 들어가면서 34명이 먹지 못해 죽을 지경에 이르는 사건이 발생하자 근우회 지부가 이를 조사하고 대책마련에 노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sup>348)</sup>

342) 권희영, 「호기심 어린 타자-구한말~일제 시기의 매춘부 검진」 『사회와역사』 65, 2004, pp. 119-122.

343) 「花柳病患者推定統計」 『동아일보』, 1928년 12월 2일.; 「朝鮮娼妓酌婦等 萬二千名の 多數, 公娼二千五百中 朝鮮人 一千餘, 花柳病者五十七%」 『동아일보』, 1934년 12월 8일.

344) 「娼妓와 虎眼病」 『毎日申報』, 1924년 4월 17일.

345) 「女性同友會定總」 『동아일보』, 1926년 3월 6일.

346) 星山學人, 「朝鮮社會運動概觀」 『동아일보』, 1926년 1월 1일.; 「女性同友會定總」 『동아일보』, 1926년 3월 1일.; 「女性同友會定總」 『동아일보』, 1926년 3월 6일.; 朴惠蘭, 「1920년대 社會主義女性運動의 組織과 活動」, 이화여대 석사논문, 1992, pp. 51-53.

347) 「權友會 平壤支會의 執行委員會」 『동아일보』, 1928년 7월 5일.; 「平南 鎮南浦에서 權友會支會 설립대회」 『동아일보』 1928년 12월 22일.; 「間島 延邊權友會總支會 設置大會」 『동아일보』, 1929년 12월 16일.

348) 「解放을 絶叫코 斷髮餓死同盟을 組織」 『동아일보』, 1931년 4월 14일.

그러나 그 외의 공창폐지운동은 잘 보이지 않는다. 지방청년단체들의 강연회나 토론회는 대부분 기독교청년회 중심이었다. 심지어 『조선일보』는 현재와 같이 도시가 발달한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매음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인정했다. 다만, 인도상 위생상의 문제를 고려할 때 사창은 개인의 의사가 어느 정도 존중되는 점이 있고 공창은 성병의 전염을 방지하기 쉬운 점이 있다면서 부득이하게 제도를 취한다면 양자의 장점을 취해야 할 것이라며 은근히 공창제도의 존속을 지지하였다.<sup>349)</sup>

이러한 때, 기독교계는 여러 가지 폐창의 이유를 주장하면서 공창폐지운동을 전개하기에 이른다.

## 2) 폐창론의 대두와 전개

### (1) 국민위생론과 도덕적 순결주의

기독교계가 공창폐지운동을 전개하면서 인식한 공창에 대한 개념은 그것이 우선 국민위생을 위협하는 제도라는 것이었다. 근대문물의 수입과 함께 들어온 위생에 대한 관념은 개개인의 건강한 신체가 근대적 국가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이해되면서 철저히 지켜야할 규범이 되었다.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것이야말로 근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되면서, 위생은 사회의 근대화, 문명화를 위한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인 동시에 사회적 덕목이 되었다.<sup>350)</sup>

이러한 위생에 대한 관념은 문명자강개화론이 유행하면서부터 조선에도 전파되어 부국을 위해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할 정책으로서 위생론이 대두되었다.<sup>351)</sup>

“국가는 개인의 집합체라. 개인의 신체가 완전하며 완전히 못함으로써 基國의 부강과 빈약을 比例함노지라. 고로 신체의 건강을 保有하고 생명을 長遠케 함은 개인의 행복뿐 아니라 국가 장래에 多大한 영향이 有함나니”<sup>352)</sup>

개인의 건강과 질병을 관리하여 ‘식산흥업’의 바탕이 되는 노동력을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시스템으로써 근대위생과 의학이 주목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특히 성병은 전염병이라는 점에서 확산을 막아야 했다. 그런데, 일제시기 성병은 그 어떤 질병보다 만연하여 사회문제가 되었다. 경성 신정에만

349) 「사설:公娼 우대문제」 『조선일보』, 1926년 7월 23일.

350) 이종찬, 「근대적 위생론과 사회적 몸」 『역사와 문화』 6, 2003, p. 69.

351) 김옥균, 『治道略論』, 1882.; 「위생은 문명의 척도」 『每日申報』, 1917년 10월 16일.

352) 『西北學會報』 16, 1909.

‘화류병 환자’가 1,000명이 넘는다는 기사가 있고, 장년 이상 인구의 절반이 화류병 환자라는 추정 통계가 있을 정도였다.<sup>353)</sup> 당시 신문, 잡지상에 등장하는 의약품 광고를 보면, 성병치료제가 가장 많이 보인다. 성병 치료제의 경우 1900년대 이후 보이기 시작하여 1920년대에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근대 전시기를 거쳐 가장 많은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sup>354)</sup> 이는 조선사회에 성병문제가 심각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일제는 성병의 확산 방지와 창기의 관리를 목적으로 공창제를 실시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기능을 하지 못했다. 이에 위생적인 측면에서 공창의 폐해를 지적하며 공창폐지를 주장하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의학적 지식과 통계자료가 인용되면서 주로 의학계에 있던 이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세브란스병원 의사였던 함컱(C. C. Hopkirk)은 성병을 공창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들어 공창제를 비판하였다. 그는 공창제가 결코 매독이나 임질 같은 성병을 예방하지 못한다고 공창제의 성범죄방지책 및 성병관리론에 반론을 펼치고 있다.<sup>355)</sup> 대표적인 폐창운동가이자 피부과 의사였던 오궁선도 “화류병은 민족을 멸망시키는 전염병”이라며 성병확산에 따른 위험을 경고하고, 특히 성병이 유전되어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역설하였다.<sup>356)</sup> 해마다 매독, 임질 등의 성병환자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도표를 통해 보여주며 공창제가 성병을 예방하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sup>357)</sup> 이들은 공창제가 성병검진 강화를 통한 성의 통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와 같은 검진으로는 성병을 예방하기보다 오히려 음지로 스며들게 하여 더욱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것이 유전을 통해 민족 존립을 위협하는 망국의 원인이 된다고 보았다.

성병이 유전이 된다는 것은 우생학적 입장의 공창폐지론으로 이어진다. 성병이 현재 개인을 병들게 하고 사회를 파괴하는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장차 우량한 후손을 낳아 건강한 사회를 이어나가는 데에도 방해물이 된다는 것이었다. 성병이

353) 「花柳病이 增加」 『동아일보』, 1920년 6월 7일.; 「可恐할 花柳病」 『동아일보』, 1922년 5월 1일.; 「花柳病患者推定統計」 『동아일보』, 1928년 12월 2일.

354) 서범석·원용진·강태완·마정미, 「근대인쇄광고를 통해 본 근대적 주체형성에 관한 연구: 개화기-1930년대까지 몸을 구성하는 상품광고를 중심으로」 『광고학연구』 15권 1호, 2004, p. 243.

355) 씨. 씨. 함컱, 「公娼廢止(제5회)」 『기독신보』, 1924년 6월 4일 ; 씨. 씨. 함컱, 「公娼廢止(제6회)」 『기독신보』, 1924년 6월 11일 ; 씨. 씨. 함컱, 「公娼廢止(제7회)」 『기독신보』, 1924년 6월 18일.; 씨. 씨. 함컱, 「公娼廢止(제8회)」 『기독신보』 1924년 6월 25일.; 씨. 씨. 함컱, 「公娼廢止(제9회)」 『기독신보』, 1924년 7월 2일.

356) 씨. 씨. 함컱, 「公娼廢止(제1회)」 『기독신보』, 1924년 4월 16일.; 오궁선, 「廢娼運動과 그 理由」 『每日申報』, 1924년 6월 1일.; 「萬二千名이 署名 廢娼을 陳情, 梅毒은 佛人15% 朝鮮人45%, 公娼廢止會長 吳兢善氏談」 『동아일보』, 1934년 12월 8일.; 오궁선, 「공창폐지에 대하여」 『神學世界』 11권 6호, 1926년 7월.

357) 오궁선, 「폐창운동과 그 이유」 『每日申報』, 1924년 6월 1일.

‘정상’이 아닌 ‘저능아’ 혹은 ‘불구자’를 배출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은 공창폐지론에 더욱 강력한 당위성을 부여했다.<sup>358)</sup>

“타락한 성욕문제, 특히 창기영업 등을 철저하게 광청하지 않고는 성병은 점차 만연되어 장정은 용모가 초췌해지고 부녀들은 저능아만 산출케 되면 조선의 운명은 몇 해나 지속하게 될 것인가? 건전한 백성을 낳코자 하면 먼저 인간을 개량치 않으면 안될 것이다.”<sup>359)</sup>

신체 건강한 후손을 낳기 위해 정숙한 여성들을 성병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더 많은 여성들을 이로부터 지켜내고 그들을 계몽해야 했다.

그런데, 위생적 차원에서 제기된 공창폐지론은 도덕적 순결주의 입장과도 맞닿아 있었다. 위생론은 도덕적 규범의 전제 조건이 되기도 하였다. 건강한 삶을 위한 위생론은 빅토리아 시대의 ‘건강은 도덕적 의무이며, 질병은 죄악’이라는 경건주의적 금욕주의까지 연결되어 있었다. 건강의 의무는 세계 지배와 자기 통제(절제)라는 기독교적 소명의 일환이었다.<sup>360)</sup>

기독교 공창폐지운동가들은 이러한 도덕적 순결주의에 입각하여 공창의 폐해를 지적하고 공창제 폐지를 주장했다. “몸을 파는 것은 영혼과 생명을 파는 것”<sup>361)</sup>과 같은 행위로 간주되었다. “절대적 일부일처주의를 지키고 가정의 순결을 힘쓰는 것”이 “그리스도교의 특색이요 실로 만물의 영장인 사람의 가장 崇嚴한 本務”라고 여겨졌다. 때문에 이를 어긴 것은 인간으로서의 윤리를 저버린 행동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것이었다. “貞操를 女子의 生命으로 녀이는 것은 또한 古來로 東洋(특히 朝鮮)의 美德”이라면서 여성의 순결을 중시했을 뿐만 아니라, 남성의 “不品行”과 “貞操에 對한 道德感이 薄弱”한 것이 성매매 존립의 원인이 된다면 남성의 성욕을 비판하고 남녀 모두 성적으로 정숙해야 한다는 기준을 내세워 공창제를 공격했다.<sup>362)</sup>

공창폐지운동의 목적은 공창을 “법률적으로 공인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데 있지 아니”하고 “창기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짓지 아니하면 안된다”는 데 있었다.<sup>363)</sup> 즉,

358) 「사설: 社會改良의 必要」 『기독신보』, 1927년 5월 11일.

359) 최계철, 「조선교화의 신기원」 『진생』, 1930년 4·5월.

360) Turner, B. S., 임인숙 옮김, 『몸과 사회 The Body and Society』, 몸과 마음, 2002, p. 192.

361) 逸名, 「사회봉사에 관하여 -공창폐지」 『기독신보』, 1928년 11월 14일.

362) 「娼妓와 人道問題」 『기독신보』, 1928년 11월 28일. 하지만,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순결이 훨씬 요구되었다. 남성에게는 여성의 정조를 존중해 줄 것을 강조하는 한편, 여성에게는 “그 인격적 자존심과 정조의 신성하고 고귀함이 그 생명과 영혼과 같은 것을 힘써 철저히 가르쳐서 이 부끄러운 죄악을 근본적으로 방지” 하라고 하여 스스로의 자존심과 정조를 신성시하라고 하고 있어 순결 담론의 경중이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363) 「公娼廢止의 宗教的 意義」 『神學世界』 19권 4호, 1934년 7월.

단순히 국가가 성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공창제에 반대하는 것 뿐만 아니라, 모든 성매매와 ‘음행’을 반대하는 것이었다. “형제들아 우리의 몸이 하느님의 거룩하신 성전인줄 아지 못흐느뇨”<sup>364)</sup>에서 보이듯 기독교에서 몸은 ‘성전’이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몸을 해치는 모든 욕망과 행위는 죄악으로 간주되었고, 욕망을 억제하고 절제하는 것이 철저히 요구되었다. 기독교인들에게 몸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항상 깨끗하고 성결하게 관리하고 유지하며 이런 맥락에서 순결하게 지켜야만 하는 것이었다.

공창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기본적으로 여성에게 순결과 정숙함을 요구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의 총무 손메레가 부랑배들이 여성을 희롱하는 데 대하여 남성들의 무례함과 부도덕함을 지적하기 보다 여성들에게 먼저 몸가짐을 조심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에서나 ‘음탕한 태도’의 여성에게 정숙한 외모와 행동을 충고할 것을 당부하는 데에서도 이러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sup>365)</sup>

이러한 순결주의에 입각한 도덕적 인식은 성매매 여성을 배척해야 할 존재로 바라보게 하였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깨끗한 가정내의 여성과 그러지 못한 가정 밖의 여성으로 양분된 시각은 그들을 사회에서 일소해야 할 존재로 인식하게 했다.

때문에, “할 일 많은 조선의 주인공”인 청년에게 공창은 최우선으로 경계해야 할 대상이었으며, 청년은 폐창운동에 앞장설 것이 요구되었다.<sup>366)</sup> 특히 카페는 “술의 마귀와 색의 마귀가 연합하여” “일반청년에게 가일층으로 위험”한 “악마”의 공간으로 규정되어 출입금지가 당부되었다.<sup>367)</sup>

공창과 사창의 영업지를 민가로부터 격리시킬 것을 관에 요구하는 행동은 공창을 일반 부녀자들과 격리시켜야 하는 부도덕한 존재로 보는 시각에서 기인한 것이었다.<sup>368)</sup> ‘이상적 가정’과 ‘이상적 사회’ 건설을 위해 공창제는 반드시 없애야 할 ‘추업’으로 인식되었다.

“사회공인하에서 인류의 최대죄악인 人身을 賣買하는 잔인한 醜業이 依然히 存在하니 이 무슨 人生社會의 不合理한 矛盾이었을까? 아니 萬物의 靈長이란 이름을 더럽힐 人間의 罪惡일가보나? 이러한 逆境에서 人類의 幸福을 絶對로 求할수 없는 以上에는 만드시이 不合理한 制度를 根本的으로 改革한 後에야 따라서 男女共同의 幸福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理想的 家庭도 理想的 社會도 建設될 것이라 한다.(중략) 만천하형제여 오늘 우리의 사회에 있어서 무엇이 급선무가 아니라마는 正義와 人道를 위하고 그들의 再生을 위하여 또는 男女共同幸福을 위하고 人生사회에 理想을 위하여 不合理的 制度를 根本的으로

364) 「계주론,」 『조선크리스도인회보』, 1897년 4월 7일.

365) 「男性에 對한 宣戰布告 各界 新舊女性의 氣陷」 『동아일보』, 1932년 1월 1일.

366) 「사회봉사에 관하여」 『기독신보』, 1928년 11월 14일.

367) 배의남, 「카페의 위험」 『기독신보』, 1933년 5월 31일.

368) 『동아일보』, 1925년 4월 23일

이를 위해 “朝鮮사람다운 朝鮮사람이라면 다같이 이 運動戰線에서 共鳴共闘하여야 할 것이다. 더욱이 朝鮮民族의 生活를 道德化시키려는 아니 基督教化시키려는 基督教信者들은 加一層 先進勇闘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기독교인들은 성매매 여성들이 증가하는 상황을 통탄해 하면서 공창이 선량한 가정을 파괴하고 일반인들의 정조관을 박약케 하며 사회의 도덕적 표준을 낮춘다고 비판하고 “성결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을 역설하였다. 그리고 그 중심적 역할을 가정이 해야 한다고 보았다. 화목한 가정환경으로의 개선이 성매매업에 빠지는 여성을 막을 수 있는 최초의 안전망으로 여겨지면서 부모들의 도덕생활, 성결한 생활이 자녀들의 모범이 되어야 했고, “一夫一婦의 法은 社會上으로 宗教上으로 完全無缺한 萬古의 眞理”라는 성교육 시행이 장려되었다. 성결한 사회 건설을 위해 가정을 원만케 하는 것이 기초적인 일로 거론되었다.<sup>370)</sup>

즉, 일부일처의 단란하고 도덕적인 가정의 완성이 이상적 가정의 모습이었고, 성매매 여성은 이 제도권 밖에 있던 여성이었다. 사회의 해악으로서 퇴치의 대상이었고 한편으로는 구제의 대상이었다.

이러한 가정의 강조는 여선교사들을 통해 이루어진 여성 교육에도 그 기원이 있다. 미국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 빅토리아적 가정윤리와 청교도적 신앙관에서 성장했던 대부분의 내한 여선교사들은 여성 삶의 궁극적 중심은 가정으로서, 여성들은 역사의 변화 조류와 흐름에 대해 안정화 세력으로 작용해야 한다고 믿고 이를 조선 여성들에게도 가르치려 했다. 여선교사들은 결혼과 가정에서의 순종을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봉사하는 숭고한 미덕으로 강조하였고, 학교 수업에서 신체적 청결, 도덕적 자기 절제, 가정과 사회에서의 순종 등을 제시하였다.<sup>371)</sup>

여성선교사들 가운데 특히 선교사 남편을 따라 내한한 경우 남편에게 평온하고 안온한 가정을 제공함으로써 빅토리아조의 이상적 여성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 선교 주민에게 기독교 여성으로서 모범을 보이는 것이 통상적인 모습이었다.<sup>372)</sup>

가정은 남자들의 세계, 즉 험한 자본주의적·세속적 사회를 정화시키고 유지시키는 개인적 삶의 중심지로서, 여성들이 만들고 책임지는 세계였다. 따라서 절제운동은 남자들의 비도덕적인 세계로부터 가정을 지키기 위한 여성들의 노력의 일환으

369) 이응숙, 「廢娼運動의 戰士가 되자」 『신학세계』 12권 2호, 1927년 4월.

370) 金昌俊, 「賣笑婦와 基督教의 急先務」 『신학세계』 18권 1호, 1933년 1월.

371) 강선미, 「조선파견 여선교사와 (기독교)여성의 여성주의 의식형성」, 이대 여성학과 박사논문, 2002, pp. 132-136.

372) 바버라 J. 맥해피 저, 손승희 역, 『기독교 전통속의 여성』,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5, p. 145.



로서 강조되었다. 이러한 가정성의 강조는 가정안의 여성들에게는 순결함을 강요하고 가정 밖의 여성들에 대해서는 배척하는 도덕적 순결주의에 입각해 있었다.

## (2) 제도적 철폐와 인도적 구제론

기독교계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성매매의 폐해를 강조하면서 운동을 전개하자,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노동자가 밤낮없이 일하는 것과 창기가 그 맘에도 없는 정조를 파는 것이 모두 먹고살기 위함”이면, “근본되는 현 사회의 경제적 제도를 혁신하여 貧病을 업시하기 전에는 쓸데없는 지상공론에 지나지 못할 것이다. 도덕이니 종교이니 법률이니 하는 것으로는 이 악덕의 醜業은 絶種식힐 수가 없으니 폐창론자들의 근본적 잘못이 이곳에 있지 아니한가 한다”라고 하여 윤리적, 도덕적 논리에 근거한 공창폐지운동론의 공허함을 지적하고 공창폐지운동의 귀결점을 먼저 불합리한 사회제도의 개혁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sup>373)</sup>

성매매 여성들 스스로도 자신들을 보는 곱지 않은 시선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하면서 사회경제적 환경 때문에 성매매업에 발을 들여놓게 된 그들의 처지를 하소연 하였다.

“인테리 女性들이 말하는 女給은 무용지물이다 가엾은 존재이다! 색에 주린 리성에 주린 남성의 가엾은 제물이니 하고 가혹한 비판을 읽을 적에 나는 너무나 어굴하며 생애 허무를 느낀다 운적이 한두번이 안입니다. (중략) 女給인 우리들도 이 직업이 신성하다고는 생각지 않는 바입니다. 노래를 팔다 술을 팔고 우습을 웃는 이 직업이 신성하겠습니까? 그러나 現社會! 資本主義의 奴隸가 된 우리로써는 엇지할 수업시 직업을 사랑하고 세상 인테리들에게 비판을 듣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존재를 理解치 못하고 가튼 동포의 심한 비판을 들을 적에 너무나 세상이 무정한 거와 갓해서 생을 비판한 적도 있습니다.”<sup>374)</sup>

이러한 비판에 직면하여 기독교계는 성매매 여성과 그 고객인 남성의 양심에 호소하던 그 동안의 공창폐지운동을 반성하고 성매매문제의 사회경제적 요인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sup>375)</sup>

김창준은 성매매 여성에 대한 비난에서 벗어나 성매매의 원인을 자본주의와 사회제도에서 찾았다.

“賣淫女 그의 죄악보다 연약한 여자를 利用하여 營利的 事業을 하며 여자를 자기의 獸

373) 石重生,, 「公娼廢止運動者에게 一言」 『동아일보』, 1924년 5월 12일 ; 김안서, 「20세기의 최대병원은 ‘가난’에서 창기로(2회)」 『동아일보』, 1927년 9월 21일.

374) 張英順, 「내가 女給으로 되니까지- 이 職業을 멸시하지요」 『신여성』 7권 3호, 1933년 3월.

375) 吳基永, 「賣淫制度論」 『동광』 29호, 1932년 1월,

的 본능을 만족키 위하여 物品化하는 그 獸的 男性과 一般勞動者의게 생활하여 나아갈 만한 적당한 임금을 주지 않는 資本主와 弱肉強食의 모든 不公平한 社會制度가 더 큰 罪악이 아닌가”<sup>376)</sup>

즉,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 대부분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비롯된 것인데, 이는 자본주의하에서 발생한 빈부의 차이와 약자를 외면하는 사회구조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주요한도 성매매는 ‘남성지배’와 ‘기업지배’로부터 비롯됨을 지적하고, 이를 “도덕문제보다는 경제문제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성문제를 개인에게서 사회적 관점으로 확대시켰다.<sup>377)</sup>

이처럼 공창제도를 자본주의의 산물로 인식한 것이 기독교 공창폐지운동의 또 다른 논리이자 성격이라 할 것이다.

한편, 자본주의 제도의 구조적 산물이라는 인식과 관련하여 공창제를 사회의 필요악으로서 인정하고 오히려 그것의 유지를 지지하는 의견이 있었다. 성매매는 깊숙이 뿌리박힌 사회의 필요악으로서 현실적으로 폐지하기가 어렵다는 전형적인 존창론이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도시노동자가 가정을 꾸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기에 성매매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 때문에 무리하게 공창을 폐지하면 또 다른 폐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성병의 확산을 막고 성범죄 발생을 예방하여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없이 공창제를 존속시키야 한다는 의견이다.<sup>378)</sup>

이에 대하여 기독교인들은 다음과 같이 성병 검사의 허술함을 지적하며 공창제 존립이유의 허구성을 비판하였다.

“정부의 정책상으로 보면 사회에 성병만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배필업는 자의 성욕 만족을 얻게 하기 위하여 부득불 있어야 할 것으로 말한다. 그러나 생각하여보라 여간 일주일에 한번씩 신체검사를 하는 것이나 창기집을 한 곳으로 모아 놓는 것쯤으로 성병 만연을 방지할 수 있을까? 그뿐 아니라 창기집에 출입하는 자로서 거진 다 아내있는 자임을 볼지라도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우습고 부끄러운 구실 뿐임을 알 것이다.”<sup>379)</sup>

당시의 공창제가 ‘사회적 하수구’의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날카로운 비판이었다.

공창제가 자본주의 구조의 산물이라고 인식한 것은 존창론자들과 같았지만, 존창론들이 그것을 바꿀 수 없는 구조로서 인정한 데 반하여 기독교인들은 구조적

376) 金昌俊, 「賣笑婦와 基督教의 急先務」 『神學世界』 18권 1호, 1933년 1월,

377) 주요한, 「性에 關한 諸問題」 『동광』, 1931년 12월,

378) 石重生 「公娼廢止運動者에게 一言」 『동아일보』, 1924년 5월 12일.; 「公娼 卽대문제」 『조선일보』, 1926년 7월 23일.; 安碩柱, 黃賢順, 「性에 關한 問題의 討論(其二)- 理想的 家庭制 妓生 撤廢」 『동광』 28, 1931년 12월.

379) 「禁酒問題의 根本的 解決策」 『기독신보』, 1928년 1월 11일.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할지라도 그것을 개선하거나 여성들의 구제를 모색하는 방법을 취했다.

기독교인들은 극단에 달한 경제공황이 생활곤란에 빠진 ‘창기지원자’의 숫자를 늘려 간다고 당시의 경제현실을 분석하고, 공창제를 “경제상 원인으로 이론 실패의 생활”의 산물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7만여 명의 동족이 욕과 돈의 노예가 되어 계급자와 유물주의자들의 잔인한 욕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이를 일시라도 정지할 수는 없는 것”이라면서 자본주의 제도하에 희생된 여성들의 구제와 사회제도의 개선을 주장하고,<sup>380)</sup> 여성에게 안정적인 생활방법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sup>381)</sup>

“廓清運動이나 矯風會사업 등으로 우리 생활개선과 경제해결 건강증진 등을 힘써야 하겠다. 이 공창폐지운동은 누구보다도 우리 여자가 솔선하여야 할 것이다. 카페의 여급, 대좌옥의 매소부 아니 그보다 더욱 심한 매음부녀 공공연하게 당국의 허가를 받은 자나 안에서 비밀함 정조를 파는 소위 사창 기타 기생이니 무엇이니 하는 不祥한 여자들을 생각해보자 환경과 형편이 그들로 그러한 생활을 하게하고 그들의 직업은 오직 자기를 亡치고 타인을 망치는 惡策을 강제하였다. 즉 경제적 원인이 제일문제요 제이는 무식하고 도덕의 관념이나 인생의 사명과 가치를 무각성한 연고라 하겠다. 그리하여 수많은 남녀청년이 세월가는 줄을 모르고 정신을 잃어버린 채로 생리적 손해를 주고받는 일이 그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고로 우리는 공창이 되어있는 자 여급선상에 입각한 여성의 뒤를 차저가서 그 과거원인과 현재와 장래를 생각해줄진대 그들의 현재의 結縛된 것을 풀어줄 道理가 있어야 하겠다. 즉 더들의 부자유한 유곽의 울타리에서 해방을 주어 공창을 폐지하고 여급의 정신을 깨우쳐서 신성한 사람노릇을 하도록 지도하여 주어야 하겠다. 아모리 돈이 없어도 여급이나 기생이 되지 않도록 어린 여자를 길러야 하겠으며 현재 화류계의 여성을 할 수만 있으면 구원할 방침을 강구하면 좋겠다.”<sup>382)</sup>

경제적인 문제가 성매매에 나서게 되는 가장 큰 원인임을 지적하고 그들을 ‘해방’시킬 방도를 찾아 구제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던 것이다.

또한, 인도적 차원에서도 공창제도는 용납받지 못할 제도였다. 정부가 법률로써 성매매를 공인한다는 것은 여성의 인격을 무시한 비인도적 처사였다. 더구나 대부분의 여성들이 인신매매로 거래되면서 인격적인 대우를 전혀 받지 못하는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형식상으로 ‘창기’와 포주는 계약관계였지만, 전차금을 받고 팔려온 대부분의 여성들은 포주의 갖은 학대에 시달리고 있었고, 전차금을 갚기는 커녕 이런저런 명목으로 빚만 늘려가는 상황이었다. 포주제 아래에서 여성의 인권 유린 상황은 마치 노예와 같은 처지여서, 인도적으로 마땅히 폐지되어야 할 것으

380) 최계철, 「조선교화의 신기원」 『진생』, 1930년 45월,

381) 「勸善懲惡 공창제도 가튼 해독 잇는 것을 배척」 『동아일보』, 1927년 4월 30일.

382) 文善好, 「女傳道師論(二)」 『신학세계』, 1938년 5월.

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인식의 바탕위에 성매매 여성들을 “男女同等인 今日에 있어서 些少한 金錢에 팔려 女權蹂躪”을 당하는 “男子의 一種 玩弄物”이라고 보고 인도적 차원에서 그들을 구제하고 공창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383)</sup> 사회경제적 구조속의 희생양, 인도적 차원에서의 구제의 대상이 공창제하의 여성들이었다. 이에 따라 여성의 인격을 무시하는 공창제도와 人身私賣는 해결해야 할 “조선의 가장 중대하고 긴급한 일”로 생각되었다.<sup>384)</sup> 그리고, 공창폐지운동은 “예수의 뜻을 몸소 나타내”는 일로서, 성매매 여성들을 구제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히 할 일”로 인식되었다. 현실적으로 공창이나 사창의 제도를 혁파하지는 못하더라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이”, “스스로 그 지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 그보다도 이미 벗어난 이를 돌아보아” 그들을 위한 기관을 설치하고 구제할 것이 주장되었다.<sup>385)</sup>

이상과 같이 기독교 공창폐지운동가들은 인도주의적, 위생적, 도덕적, 자본주의 비판의 입장에서 공창제도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것이 공창폐지운동의 준거틀로 인식·적용된 공창폐지의 이유이자 논리였다. 즉, 기독교적 도덕관념 혹은 순결주의와 근대적 위생개념에 근거하여 공창제 폐지 및 성매매 여성의 근절이 주장되는 한편, 인권유린에 대한 인도주의적 입장과 사회구조의 모순 인식에서 비롯된 비판이 ‘창기구제’라는 실행안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 2. 공창폐지운동의 전개와 변화

### 1) 공창폐지운동의 전개

성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그 폐해가 심각해지면서, 기독교계에서는 폐창운동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그것은 술취함과 호색, 음행을 경계하던 성경의 내용에 바탕을 두고 절제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처음으로 폐창운동을 시작한 이들은 선교사들이었다. 그들은 강점 이후 일제가 아편과 창녀 등의 사회악을 조선에 조직적으로 퍼뜨리고 있고 따라서 재래의 미풍양속이 심각한 위협을 당하고 있다고 보았다.<sup>386)</sup> 선교사들은 당시 평양에는 한국

383) 李舜基, 「성에 관한 問題의 討論(其二)- 理想的 家庭制 妓生撤廢」 『동광』 28, 1931년 12월.

384) 安部磯雄, 「廢娼運動에 就하여(一)」 『神學世界』 10권 3호, 1925년 6월.; 安部磯雄, 「廢娼運動에 就하여(二)」 『神學世界』 10권 4호, 1925년 8월.; 「공창폐지안」 『동아일보』, 1929년 3월 21일.; 崔啓哲, 「조선의 3대문제와 기독교」 『진생』 5권 7호, 1929년 9월.

385) 「사회봉사에 관하여」 『기독신보』, 1928년 11월 14일.

386) Calton W. Kendall, *The Truth about Korea*, The Korean National Association, 1919.; 신

인 600명당 창녀 23명이 존재하고, 한 고을의 경우 인구 1만 명에 유곽이 17개소라는 통계를 제시하면서 사회사업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sup>387)</sup>

구체적으로 공창폐지운동이 시작된 것은 1919년 9월 25~29일간 개최된 전조선 선교사연합대회에서 종교와 관계된 요구 항목과 함께 매춘제 폐지를 총독부에 건의하면서 부터였다.<sup>388)</sup> 여성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하는 ‘여성구제사역위원회’가 구성되고 이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여선교연합회에 긴급예산을 신청하였다. 특히 호주장로회 선교부는 1920년 사이토 총독에게 공창폐지 청원서를 제출한 이래, 1923년에는 경남노회, 청년회와 협력하여 공창폐지운동을 전개하였다.<sup>389)</sup> 이들은 총독부에 청원하는 것과는 별도로, 신자 및 일반인들에게 공창이 사회의 해독이 되고 국가적 수치이며 도덕에 어그러진다는 것을 깨우치게 하는 계몽선전을 의도하였다. 공창의 폐해를 깨닫게 하여 자연스럽게 이를 방지할 것을 유도하자는 것이었다. 그 방법으로 제시된 것들이 청년 대상의 강연회, 교인 개인과 교회 단체의 권고 및 운동, 아울러 성매매 여성의 구제방안의 강구 등이었다.<sup>390)</sup>

호주장로회의 맥라렌(C. I. McLaren)은 일본인 성매매 여성의 구제탄원서를 접한 뒤, 진주 경찰서장, 경남도지사 및 일본인변호사와 접촉한 끝에 윤락업주에게 돈을 지불하고 그 여성을 해방시킨 일이 있었다.<sup>391)</sup>

마산에서는 일본인에게 속아 창기가 된 조선인 여성이 고향의 영국인 선교사에게 구출을 의뢰한 편지를 쓴 것을 계기로 폐창을 성공시키고, 구출된 여성이 자활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는 재봉기술을 가르치고 있다.<sup>392)</sup> 1924년에는 영국인 선교사가 발기인이 된 「공창폐지대회」가 개최되었다.<sup>393)</sup>

---

복룡 역, 『한국독립운동의 진상』, 평민사, 1986, pp. 96-97.

387) Miss. A. S. Doriss, Needs and Opportunities for Socail Service in Korea, *The Christian Movement*, 1920, p.329. 민경배, 위의 책, p. 192.에서 재인용

388) 1919년 9월 선교사들이 새로 부임한 사이토 총독에게 제출한 건백서 중 공창폐지에 관한 건은 다음과 같다. “제6. 도덕적 개선. 우리는 유곽 설립에 관한 법류를 단호히 개정해줄 것을 희망하며 정부의 허가과 보호하에 조선인의 관습과 감정을 무시한 현행 유곽제도에 반대한다./ 우리는 아편, 모르핀의 생산 제조 및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을 개정해줄 것을 희망한다./ 우리는 주류 판매에 관한 법률을 수정하고 구한국 시대에 있었던 지방적 선택권을 부활시켜 촌민의 희망에 따라 주점 개설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할 것을 희망한다. 현재로서는 경찰 보호하에 허가를 주어 인민의 희망에 반하여 주점을 개설할 수가 있다.” 半井清, 『朝鮮の統治と基督教』, 朝鮮總督府, 1921, p. 55 : 김승태, 「일본군 ‘위안부’ 정책 형성의 일본측 역사적 배경」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 역사비평사, 1997, p. 52.에서 재인용.

389) 정병준, 『호주장로회 선교사들의 신학사상과 한국선교, 1889-1942』,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7, pp. 383-385.

390) 「宣教會老會青年會의 연합으로 防娼運動의 三角同盟」 『기독신보』, 1923년 8월 1일.

391) 정병준, 『호주장로회 선교사들의 신학사상과 한국선교, 1889-1942』,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7, p. 386.

392) 「運命에 呪呪바든 也勿의 哀話」 『동아일보』, 1921년 9월 23일., 9월 25일.

393) 「공창폐지대회」 『동아일보』, 1924년 6월 28일.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일련의 활동들은 1924년 선교사연합공의회 내에 사회봉사위원회가 설립되면서 보다 조직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사회봉사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된 맥라렌(C. I. McLaren)은 모든 미션스쿨에서의 성위생학 교육,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실태 조사 등을 언론과 한국인 교육자, 일본 기관들과 연합하여 전개할 것과 성매매여성들을 위한 시설 설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구세군과 선교사연합회가 연합하여 1926년 18명의 여성들을 수용할 수 있는 갱생원이 완성되었다.<sup>394)</sup> 지속적인 총독부 청원은 얼마간의 효과를 얻어 이 구제기관 설치에 총독부 내무당국이 후원하여 구세군에 운영을 의뢰한 것이었다.<sup>395)</sup> 이후 선교사연합공의회는 총독부에 지속적으로 청원서를 제출하는 한편 ‘교풍사업에 힘쓸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

1. 세계의 구원과 모든 필요용의 충족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제공된 용서와 新生안에서만 발견된다고 믿는다.
2. 문제가 되는 사회적, 산업적 경제적 개혁의 실현에 대해서는, 현재의 궤질과 不調의 결정적 치유가 예수의 원칙과 주의를 산업 경제의 질서의 표준으로 받아들이는 경제적 관계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고 믿는다.
3. 개인의 방종적 자유라든가 가정 관계의 소위 자유라고 하는 위험한 시대적 사조에 대하여는 사회 경제문제들에 대한 건설적 문서의 간행이 급속히 수행되어야 한다고 보며,
4. 연합회로서 우리들은 사회봉사위원회나 여자절제회(W.C.T.U.)와 협력해서 공창과 같은 사회악의 박멸에 정진할 것을 확인한다.<sup>396)</sup>

이외에도 성매매여성들을 위한 구제시설 설치와 책자 발간을 통한 교육·계몽 활동을 전개하였다.<sup>397)</sup>

한편, 공창폐지운동은 인신매매를 반대하는 국제적인 운동과 그것의 영향을 받아 일본에서 활발해진 폐창운동과도 관련이 있다. 일본의 공창폐지운동은 1880년 群馬縣에서 기독교 민권운동가인 현회 의원들이 공창폐지 청원을 현회에 제출한 것이 발단이 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1890년 전국폐창동맹이 결성되었다.<sup>398)</sup>

394) 정병준, 앞의 책, pp. 386-387.

395) 「公娼救濟機關」 『동아일보』, 1926년 5월 6일.

396) E. T. Rosenberger, Social Service, *The Christian Movement*, 1925, pp. 637-638.

397) 「宣教師團의 重要決議 특히 公娼사업과 교육방면에 주목중」 『기독신보』, 1923년 10월 17일.; 하리영, 「장감민순련합회」 『기독신보』, 1925년 10월 7일.; 「宣教師大會에서 娼妓救濟를 宣誓」 『毎日申報』, 1926년 9월 24일.

398) 1888년 群馬縣의 폐창은 이후 교풍회 등에 의한 폐창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의 공창폐지운동은 일본기독교부인교풍회<sup>399)</sup>와 구세군, 1911년 조직된 廓清會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나, 1920년대 들어와 소강상태에 있었다. 그러던 중 1921년 국제연맹에서 20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부인 및 아동의 매매금지에 관한 국제협약’이 체결되었다. 당시 일본도 2개의 유보조건을 붙여 1921년 9월 30일에 조인했다. 이는 일본의 공창폐지운동을 활성화시켜 1926년 전국경찰부장회의에서의 공창폐지론의 등장과, 1927년 ‘부인 및 아동의 매매금지에 관한 국제조약’의 제한연령유보 철폐에 영향을 미쳤다.<sup>400)</sup>

일본의 폐창운동은 조선에도 건너왔다. 일본기독교부인교풍회는 1921년 서울, 부산에 지부를 설치한 데 이어, 평양, 진남포, 대구 등에도 설치하고 조선에서의 활동을 시작하였다. 1888년 群馬縣의 폐창을 이끌어냈던 이 단체는 관동대지진 당시 吉原유곽에 대화재가 일어난 후 일본 각지에서 공창폐지운동이 재차 활발해지자, 이것을 계기로 1923년 인천지부에서 폐창운동을 개시하였고<sup>401)</sup>, 1929년 경성지부는 이후로 공창영업허가를 내주지 말 것, 창기와 포주 사이에 금전대차관계를 합리화하게 하고 종래의 창기의 계약 기한의 연장을 허가치 말 것, 창기 대우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공창폐지와 창기·예기의 개선문제에 대한 진정서를 총독부에 제출하였다.<sup>402)</sup>

이러한 국제적 분위기와 일본의 폐창운동은 이 시기 조선의 공창폐지운동이 본격화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독신보』는 일본의 폐창운동과 조선에서의

---

이에 정부도 창기의 자유 폐업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군마현 폐창은 창기의 단속이 폐기되었을 뿐, 강제 성병 검진이 존속되었고, 성매매 여성의 숫자도 감소시키지 못했다. 때문에 처음으로 창부의 인간성이 인정되었다는 것과 인신을 노예로서 매매하는 것을 공공연하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에 진보적 의의가 있다는 견해와(井上清, 『일본여성사(하)』 어문학사, 2004년.) 구조적 모순을 외면한 창기반대론으로서 단지 부유층의 계급적 이익에 기반한 운동이었다는 상반된 평가가 있다.(후지메 유키 저, 김경자·윤경원 옮김, 『성의 역사학』, 삼인, 2004.)

399) 1886년 6월 WCTU 선교사 레비트(Mary Clement Leavitt)의 방문을 계기로 그해 12월 기독교여학교 櫻正여학교의 교장 야지마카지코 및 사사키토요코, 에비나미야 외 수십명의 여성에 의해 동경부인교풍회가 설립되었다. 1880년 말부터 1890년대에 일어난 폐창론과 폐창운동을 담당한 민간 단체의 효시가 되는 단체이다. 부부와 친자식 간 봉건적 차별 없이, 남녀동권의 투명한 시민적 가정을 만들고, 일부다처 금지, 매춘의 국가 공인 금지, 금주금연 권장을 목적으로 했다. 애초 소위 사회적 계몽단체였으나 여성의 정치 참여, 공창 폐지, 금주금연 등에 대한 주장은 상당부분 정치운동의 색을 띠었다. 특히 구세군과 협동하여 폐창운동에 앞장섰다. 日本キリスト教婦人矯風會編, 『日本キリスト教婦人矯風會百年史』, ドメス出版, 1986, p. 27.; 井上清, 『일본여성사(하)』, 어문학사, 2004, pp. 118-119.

400) 후지메 유키 저, 김경자·윤경원 옮김, 『성의 역사학』, 삼인, 2004, pp. 107-122.

401) 「인천에도 폐창열-교풍회 지도부 활동」 『동아일보』, 1923년 9월 29일.; 「廢娼運動의 旗幟」 『기독신보』, 1923년 12월 19일.; 「朝鮮에서도 廢娼運動」 『毎日申報』, 1923년 12월 12일.; 「廢娼운동의 구체화. 인천 교풍회가 先幹으로 동의자의 조인이 3백명에 달해」 『조선일보』, 1923년 10월 6일.; 「廢娼운동. 인천 부인교풍회도, 대활동을 시작하였다」 『조선일보』, 1923년 12월 14일.

402) 「娼妓營業을 더 許可하지 말라」 『毎日申報』, 1929년 12월 16일.

활동을 보도하면서 국내에서의 운동을 촉구하였다.<sup>403)</sup>

조선인들에 의한 공창폐지운동은 192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다. 강연회 개최, 선전시위, 신문과 잡지에 논설 게재, 총독부에 진정서 제출의 양상으로 나타났다. 공창폐지기성회, 조선여자기독교결사회 등의 단체가 조직되었고, 교단별 활동 뿐 아니라 교파를 초월한 연합활동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1923년 12월 공창폐지를 목적으로 혁정단이 창립되었다. 감리교 목사로서 연회 절제부 임원이던 김창준, 정신여학교의 김필례, 세브란스병원 의사 오궁선 등 기독교계 인물들과 전문학교 학생이 중심이 되어 시작되었다. 풍기개선을 목적으로 하면서 제일 먼저 공창폐지운동을 시작할 것을 가결하고 계몽선전활동, 직업소개소 설치, 동정금 모집, 경찰과의 협조아래 밀매음·색주가 단속 등을 기도하였다.<sup>404)</sup>

연회내에 절제부와 사회개량부를 두고 금주·금연, 사회개량 등의 사업을 진행하던 감리교는 공창폐지운동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우선 1923년 12월 연회에서 최성모, 최병헌, 김중우, 노블(Noble, W. A.)이 공창폐지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이들은 금주금연회 조직과 강연회 개최, 미성년금주단연 교섭, 공창폐지 등을 결의하고, 각 교회에 여론을 일으켜 운동에 착수할 것을 모색하였다.<sup>405)</sup>

그리고 외국인 선교사, 조선인, 일본인 연합으로 공창폐지운동을 도모하였다. 1923년 12월 11일 경성 일본인기독교청년회에서 감리교 공창폐지위원 4명을 포함한 30여 명의 목사와 외국인, 일본인 대표자들이 모여 각각 공창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였다. 단체는 각각 조직하지만 운동에 대해서는 공조하기로 하고, 조선인측 오궁선, 일본인측 丹羽清次郎, 외국인측 합컱(C. C. Hopkirk)을 대표로 선출하였다.

1923년 12월 15일 조선측 조직으로서 공창폐지기성회가 설립되었다. 공창폐지기성회는 곧 대대적인 강연회를 개최하고 계몽·선전 책자 발행, 보호기관 설립 등을 추진하면서 1924년에는 외국인 종교사연맹회, 일본인 기독교청년회와 연합으로 총독부에 공창폐지 진정서를 제출하였다.<sup>406)</sup> 조선, 일본, 서양인 연합으로 이루어

403) 「賣肉奴의 해방을 절규하는 新동경과 폐창운동」 『기독신보』, 1923년 12월 5일.; 「廢娼運動의 旗幟」 『기독신보』, 1923년 12월 19일.

404) 「風紀革新의 第一着으로 娼妓廢滅의 新運動」 『每日申報』, 1923년 12월 17일.; 「公娼폐지를 주장」 『조선일보』, 1923년 12월 11일.; 「革靑團 창립」 『조선일보』, 1923년 12월 21일.

405) 「北監理派의 年會, 금주단연과 공창폐지등 여러가지 사항을 결의해」 『동아일보』, 1923년 6월 29일.; 『每日申報』, 1923년 6월 39일.; 「廢娼運動의 先鋒」 『每日申報』, 1923년 12월 13일.; 「廢娼運動의 旗幟」 『기독신보』, 1923년 12월 19일.

406) 「경성에서 폐창운동」 『기독신보』, 1923년 12월 12일.; 「구체화하여야 하는 경성의 교풍운동」 『기독신보』, 1923년 12월 26일.; 「公娼廢止講演」 『기독신보』, 1924년 5월 14일.; 「公娼폐지, 기성회까지 조직」 『조선일보』, 1923년 12월 26일.; 「公娼廢止運動」 『동아일보』, 1923년 12월 5일.; 「公娼廢止期成會 講演」 『동아일보』, 1924년 5월 8일.; 「再燃한 廢娼問題」 『每日申報』, 1924년 5월 30일.; 「공창폐지운동」 『동아일보』, 1924년 5월 31일.



진 이 단체가 취한 공창폐지운동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된다. 첫째 총독부에 폐지안 청원안을 제출하는 것과 일반 대중에게 공창의 폐해를 알리는 선전활동이었다.<sup>407)</sup> 이에 따라 1926년 9월 공창폐지기성회가 장로교 감리교를 망라하여 확대 조직되면서 1927년 1월과 5월에도 12,000명의 서명을 받아 다음과 같이 총독부에 공창폐지안을 제출하였다.

朝鮮 公娼廢止 申請書

國家를 爲하던지 教育을 위하던지 道德으로 보던지 公娼의 弊害가 莫大한 것은 閣下도 이미 아시는 바이니 公娼을 速히 廢止하여 主심을 伏望함.<sup>408)</sup>

또, 선전지 10만 매를 인쇄 배포하면서 폐창의 취지를 설명하고 당위성을 선전했다.<sup>409)</sup> 제령교회에서도 공창폐지의 내용을 담은 격문을 각지에 발송하고 총독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다.<sup>410)</sup> 평양의 금주단연동맹회에서도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데, 1929년 작부폐지를 찬성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2천 여 명으로부터 호응을 얻었다.<sup>411)</sup>

공창폐지운동에서 두각을 보인 사람은 오궁선이었다.<sup>412)</sup>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 의사였던 그는 공창폐지기성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고, 이후 각종 신문, 잡지 등에 공창의 폐해를 지적하고 폐지를 주장하는 글을 게재하면서 폐지운동에 앞장섰다.<sup>413)</sup> 특히 그는 의학상의 지식을 동원하여 성병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한편, 당시 경성부에서 공창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하여 “인육시장의 세금으로 사회에

407) 「폐창연합위원회」 『기독신보』, 1924년 6월 11일.

408) 「總督의 첫 政事로 公娼廢止請願」 『東亞日報』, 1927년 5월 11일.

409) 「京城에 廢娼運動」 『每日申報』, 1926년 12월 1일.; 「公娼廢止請願提出」 『每日申報』, 1927년 2월 19일.; 「각 종교단체를 망라, 公娼 廢止의 炬火」 『조선일보』, 1927년 5월 11일.; 「公娼폐지 운동회 경과」 『조선일보』, 1927년 5월 12일.

410) 「載寧耶蘇敎 公娼廢止運動」 『조선일보』, 1926년 11월 20일.

411) 「平壤禁酒斷煙同盟에서 酌婦廢止運動」 『동아일보』, 1929년 2월 9일.

412) 1894년 배재학당에 입학하여 아펜젤러로부터 세례를 받고 졸업한 오궁선은 당시 남장로회 의료선교사였던 알렉산더(Alexander, Margaret L.)의 도움으로 루이빌 의대에 유학하였다. 1907년 귀국하여 군산의 남장로회 병원에서 일하다가 1912년부터 세브란스연합의학교 교수로 일하기 시작하여 1920년에는 학감으로 취임하였고, 이후 세브란스의학교 교장을 역임했다. 1919년 경성보육원을 설립하고, 1931년 경성양로원을 설립하는 등 다양한 사회사업을 추진하였고, 공창폐지기성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폐창운동에서 두드러지는 활동을 보였다. 해관오궁선선생기념사업회 편, 『해관 오궁선』, 1977.; 애너벨 메이저 니스벨 지음, 한인수 옮김, 『호남 선교 초기 역사(1892-1919)』, 경인, 1998, pp. 63-64.; 이만열, 『한국기독교의료사』, 아카넷, 2003, p. 356.

413) 「공창폐지강연」 『기독신보』, 1924년 5월 14일.; 오궁선, 「廢娼運動과 그 理由」 『每日申報』, 1924년 6월 1일.; 「風紀革新의 第一着으로 娼妓廢滅의 新運動」 『每日申報』, 1923년 12월 17일.; 「京城에 廢娼運動」 『每日申報』, 1926년 12월 1일.; 吳兢善, 「當面한 모든 主張-公娼廢止」 『신민』 33, 1928년 1월.

사용함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면서 공창제를 비판했다.<sup>414)</sup>

구세군은 금주, 금연 운동 및 폐창운동을 통해 사회악을 일소한다는 취지하에 『구세신문』을 통해 지속적인 계몽활동을 전개하고, “실천적으로 몸소 예수 뜻을 나타내기 위해 불쌍한 이를 구해주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편으로 성매매여성 보호시설을 마련하는 일에 적극 나섰다.<sup>415)</sup> 일찌기 구세군은 1917년 겨울 43일 동안 도시빈민들을 위한 국밥 제공, 여성과 아동을 위한 숙소와 식사 제공, 신탄염가판매소 개설 등의 활동을 통해 사회사업에 열심을 보였다.<sup>416)</sup> 1918년 걸아양육원을, 1923년에는 총독부에 진정하여 서대문밖에 동사자 구제 시설을 설치하고 육아원도 설립·운영하였다.<sup>417)</sup> 1924년 겨울 서대문에 15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빈민구제소를 설치하고 구휼활동을 펼쳤다.<sup>418)</sup> 이것은 이듬해까지도 반복되었고, 여자 빈민숙박소도 개설 운영하였다.<sup>419)</sup> 1926년에는 과부 구제시설을 마련하기도 하였다.<sup>420)</sup>

장로교의 공창폐지운동은 주로 면려회를 통해 이루어졌다. 1926년 면려회 조선연합회 안에 戒毒部가 설치되면서 ‘금주, 금연, 공창 폐지 운동 등 일체의 계독사업’을 주도하였다.<sup>421)</sup> 장로교 총회는 1926년 공창폐지사업에 후원할 것을 가결한 이래, 1933년부터 총회내 면려부에 이대위를 유급총무로 두어 면려운동을 전담케 하여 공창폐지운동을 간접적으로 실시하였다.<sup>422)</sup>

YWCA는 1923년 제2회 하령회에서 주요한 사업계획중 하나로서 공창폐지를 결의하고, 1925년 사회문제연구부를 설치하여 당시 가장 급선무의 문제들을 조사하여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는데, 축첩, 조혼, 금주·금연과 공창폐지운동이 여기에 포함되었다.<sup>423)</sup>

절제운동 기관들이 중앙연합회나 교단 차원에서 공창폐지운동을 착수하기 시작하면서 폐창운동은 지방으로 점차 전파되어 갔다. 각 단체의 지방 지회를 중심으로 청년회가 주축이 되었다. 우선 1923년 7월 평양에서 12개 YMCA가 기생조합

414) 오금선, 「공창폐지에 대하여」 『신학세계』 11권 6호, 1926년 12월.

415) 「公娼救濟機關逸名」 『동아일보』, 1926년 5월 6일.; 「샤회봉사에 관하여, 공창폐지」 『기독신보』, 1928년 11월 14일.

416) 장형일, 『한국구세군사』, 구세군대한본영, 1975, p. 62.

417) W. E. Twilley, The Salvation Army, *The Christian Movement*, 1925, p. 521.; 「可憐한 孤兒를 위하여 아현리에 구세군육아홈 건축」 『동아일보』, 1923년 6월 12일.; 「救世軍營育兒院落成式」 『동아일보』, 1923년 12월 1일.

418) 『救世新聞』, 1925년 2월.

419) 장형일, 앞의 책, p. 87.

420) 「救世軍의 寡婦救濟」 『每日申報』, 1926년 5월 21일.

421) 김덕, 「1920~30년대 기독교청년면려회 연구」 『한국기독교와역사』 18, 2003, pp. 212~235.

422) 『朝鮮예수敎長老會總會 第15回 會錄』, 1926.

423) 천화숙, 『한국 여성기독교사회운동사』, 혜안, 2000, pp. 178~182.

의 폐지를 요구하는 선전문을 제작하여 시위를 벌였고,<sup>424)</sup> 선천에서는 선천기독교청년회, 선천여자기독교청년회와 신성학생기독교청년회의 3개 기독교청년회가 음주·흡연·공창을 三害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선전문을 배포하고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개인적인 권고활동과 아울러 공창의 영업장을 민가와 격리시킬 것을 당국에 청원하기도 했다. 마산, 군산, 거창, 재령, 목포 등지의 기독교청년회도 공창폐지를 결의하였다. 군산기독교청년회와 거창청년회와 면려회는 술, 담배, 아편, 공창폐지를 결의·선전하고 있는데, 보통 이런 것들은 인생 공통의 해악물로 간주되어 함께 폐지해야 할 대상으로 언급되었다. 술과 담배, 아편은 인생을 망치는 해악물이니 이것을 금하고 그 돈으로 저축을 할 것, 공창, 사창, 작부 모두 인도상 최악의 제도이니 그 폐지에 진력해야 할 것, 특히 아편중독자는 구제할 방법을 모색할 것 등이 논의되었다. 특히 경남 마산에서 공창폐지운동대회를 개최하고 공창폐지기성회를 조직하였다.<sup>425)</sup> 강연회, 강습회, 토론회, 선전활동 등 전국적으로 폐창운동의 열기가 고조되어 갔다.<sup>426)</sup>

청년회뿐만 아니라 학생회에서도 폐창의 구호가 제창되었다. 함흥에서도 여자청년회와 영생여학교, 숙명여자학원의 학생들과 여자청년회가 협력해서 18인의 작부를 구출하기 위해 분주하고 있다.<sup>427)</sup> 평양 숭의여학교에서는 구습의 일망타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서약하고 潔白會를 조직하여 금주, 단연, 축첩, 공창 폐지 등 12개 조목의 실천을 위해 전국을 순회하며 선전활동을 펼쳤다.<sup>428)</sup> 재령에서는 교단이나 단체가 아닌 개교회가 중심이 되어 각지의 뜻을 모아 총독부에 별도의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sup>429)</sup>

각 지방의 공창폐지운동은 단독으로 추진되기보다 금주·금연이나 아편금지 등의 운동과 함께 전개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절제해야 할 대상으로 가장 먼저 거론된 것이 이 3가지 ‘해독물’이었기 때문이다.<sup>430)</sup>

424) 「기독교청년회가 중심으로 평양의 矯風運動」 『기독신보』, 1923년 7월 25일.

425) 『시대일보』, 1924년 6월 23일.

426) 「선교회회청년회 연합으로 防娼운동의 삼각동맹」 『기독신보』, 1923년 8월 1일.; 「금주, 단연, 폐창선전」 『기독신보』, 1925년 7월 8일.; 「群山基督靑年會 討論會」 『동아일보』, 1924년 2월 13일.; 「公娼廢止運動」 『동아일보』, 1924년 6월 24일.; 「公娼廢止大會, 英國人宣教師의 發起(馬山)」 『동아일보』, 1924년 6월 28일.; 「馬山靑年決議, 迷信을 打破하고 公娼을 廢止 할 일」 『동아일보』, 1924년 7월 20일.; 「公娼廢止演說, 馬山靑年會主催로」 『동아일보』, 1924년 8월 6일.; 「吸煙飲酒公娼三割廢止宣傳決議」 『동아일보』, 1925년 4월 23일.; 「禁酒禁煙講演」 『동아일보』, 1925년 12월 3일.; 「公娼制度는 貞操賣買의 一大罪惡」 『每日申報』, 1927년 1월 27일.

427) 「不運의 女性을 救코저 여학생이 奮起」 『동아일보』, 1926년 6월 24일.

428) 「潔白會, 금주공창폐지의 깃발을 들고」 『동아일보』, 1927년 9월 2일

429) 「載寧 耶蘇敎會 公娼廢止運動」 『조선일보』, 1926년 11월 20일.

430) 「禁酒禁煙講演, 「모히」과 公娼도 廢止, 居昌靑年會及 基督靑年勉勵會主催」 『동아일보』, 1925년 12월 3일.; 「誠毒講演 : 술의 害毒(全弼淳), 公娼의 害毒(李容高)」 『동아일보』, 1929년

공창폐지에 대한 여론 형성은 신문과 잡지에 이에 대한 논설을 게재하면서 활성화되었다. 일본 구세군 사령관이자 폐창운동가인 山室軍平이 내한하고 일본 기독교사회운동가인 安部磯雄의 글이 1924년 『신학세계』, 『신학지남』에 잇달아 게재되면서 폐창운동 초기 사회 여론을 환기시키는 데 일조하게 되었다.<sup>431)</sup> 또, 『기독신보』가 세브란스 병원 의사였던 합콕(C. C. Hopkirk)의 공창폐지론 연재를 비롯하여 「절제부」란을 만들어 금주, 금연, 폐창론을 계속 기사화하면서부터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의 언론에서도 이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신문들이 성매매 여성들의 비참한 실태를 보도하고, 사설을 통해 공창폐지를 주장하면서 공창제 폐지에 대한 여론은 점점 고양되었다.<sup>432)</sup>

《표 19》 1920년대 기독교 공창폐지운동의 주요 내용

단체명(주체)	활동 내용
선교사(회)	1919.9.25.~29. 전조선선교사연합대회에서 총독부에 공창폐지 등의 종교관계 요구 건백서 제출 1920 경남 호주장로회 선교사들, 사이토 총독에게 공창폐지 건의 1923. 9. 연합선교사회에서 창기 구육소 설치를 위한 의연금 모집, 계몽책자 발간, 강연회 개최 등을 결의 1926 창기구제에 선서하고 구제기관 설립에 합의
장로교	1926 15차 총회에서 공창폐지운동 후원을 가결 면려회 계독부에서 공창폐지운동 실시
구세군	1926. 5. '창기구제기관' 설치
감리교	1922 연회에서 총독부에 공창폐지, 미성년자금주금연 청원서 제정위원 선정 1923. 12. 연회에서 최성모, 최병헌, 김종우, 노블 공창폐지위원으로 임명 금주단연회 조직, 강연회 개최, 미성년금주단연의 당국교섭, 공창폐지 등 결의

10월 26일.; 「鐵山禁酒禁煙 及 公娼廢止 講演」 『동아일보』, 1929년 11월 15일.; 「公娼可否論 男女聯合討論」 『동아일보』, 1932년 8월 20일.

431) 「산실군평씨 강연」 『동아일보』, 1923년 6월 3일.; 山室軍平, 「公娼廢址와 其先後策」 『神學指南』, 6권 4호, 1924년 10월.; 山室軍平, 「公娼廢址와 其先後策」 『神學世界』 9권 4호, 1924년 8월.; 山室大佐, 「公娼廢址와 其先後策」 『神學世界』 9권 5호, 1924년 9월.; 安部磯雄, 「廢娼運動에 就하야(一)」, 『신학세계』, 10권 3호, 1925.;; 安部磯雄, 「廢娼運動에 就하야(二)」, 『신학세계』 10권 4호, 1925.

432) 「朝鮮의 公娼廢止 방침을 권한다」 『동아일보』, 1926년 8월 6일.; 「公娼廢止運動의 歸着點」 『동아일보』, 1927년 5월 14일.; 「公娼과 私娼」 『동아일보』, 1927년 8월 7일.; 「載寧 耶蘇敎會 公娼廢止運動」 『조선일보』, 1926년 11월 20일.; 「公娼 폐지안」 『조선일보』, 1927년 5월 12일.; 「公娼制度를 廢上하라」 『조선일보』, 1934년 4월 1일.

공창폐지 기성회	1923. 12. 11. 선교사, 조선인, 일본인 각국별 공창폐지 단체를 조직하고 운동 공조하기로 함. 조선인측 오궁선 (15일)/ 일본인측 丹 羽清次郎(16일)/ 외국인측 C. C. Hopkirk 1924. 3. 공창폐지에 관한 책자와 전단지 발매 1924. 5. 8. ‘公娼廢止와 社會缺陷’(현덕신), ‘公娼廢止의 理由’(오궁선)의 강연 1924. 5. 조선공창폐지기성회, 외국인종교사연맹회, 일본인기독교청년회 연합으로 공창폐지 진정서 제출 1927. 5. 12,000명의 서명으로 宇垣 총독에게 공창폐지 청원서 제출
조선기독교 연합 공의회	1925. 성매매여성 수용기관 설립, 운영 1929. 공창폐지 주장 1932. 7. 12개의 사회신조의 하나로 공창폐지 주장
YMCA	1923. 7. 평양지역 12개 Y연합, 기생조합폐지 요구 선전시위
YWCA	1923. 제2회 하령회에서 공창폐지를 주요사업으로 결의 1925. 사회사업의 급선무로 축첩, 조혼, 금주, 금연, 공창 포함
조선여자기 독교절제회	1923~1930년대 금주, 폐창 강연, 선전시위 확청부: 성교육, 포스터 제작, 화류병 예방 강연 등
청년회	1924. 6. 마산청년회 ‘공창폐지대회기성회’조직 결의 1924. 7. 마산청년회 미신타파, 공창폐지 주장 1924. 8. 마산청년회 공창폐지 강연회 개최 1924. 2. 군산기독교청년회 공사창 폐지 결의. 토론회 1925. 4. 선천기독교청년회, 선천여자기독교청년회, 신성학생기독교청년회 연합으로 금주·금연·폐창 선전문 배포 1925. 12. 3. 거창청년회와 면려회 공동주최로 공창폐지 선전 1927. 1. 목포야소교청년회 강연회 강연회 개최, 개인 권고, 성매매영업장의 민가 격리 당국에 청원
학생회	1926. 영생여학교 성매매여성 전차금 내주고 구제시킴 1927. 결백회(승의여학교 내) 금주, 단연, 축첩, 공창폐지 등 주장하며 전국 순회 선전

『毎日申報』, 『동아일보』, 『기독신보』, 『감리교연회록』, 『장로교총회록』 등 참고

한편, 일본 기독교는 조선의 공창폐지운동과 협력하였을까? 1923년 일본기독교청년회는 조선 공창폐지기성회, 외국인 종교사연맹과 연합하여 총독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또 일본 구세군의 山室軍平과 安部磯雄의 폐창운동론은 조선 기독교계에 소개되기도 하였다. 일본기독교부인교풍회도 조선 각지에 지부를 설치하고 공창폐지운동을 전개하면서 한국의 공창폐지운동을 지원하고 협력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sup>433)</sup>

그러나 일본의 폐창운동은 조선의 그것에 더 이상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일본기독교부인교풍회의 대상은 일본인 여성이었다.<sup>434)</sup>

433) CHAS. I. McLAREN, Progress Report of the Social Service Committee of the Federal Council, *The Korea Mission Field*, 1933. 6.

434) 宋連玉, 「日本の植民地支配と國家的管理賣春-朝鮮の公娼お中心に」 『朝鮮史研究會論文集』 32.

일본기독교부인교풍회는 일본의 팽창주의와 식민지배를 일관되게 지지하면서 해외 성매매가 대일본제국의 식민정책에 장애가 된다고 보았다. 그들은 일찍이 청일전쟁이 발발하자 기관지에 애국충군을 노래하는 기사를 게재하면서 국난에 직면해 여성의 각오를 환기시키고, 금주·금연으로 절약해 군비를 돕자고 선동했으며, 조선은 축첩의 폐습이 만연한 사회이니 “사려 깊은 우리나라 부인이 그 나라에 건너가 그들을 지도하고 가르칠 수 있다면 그 나라의 독립 문명을 구제하는 데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라며 일본의 조선침략에 참여하도록 여성들을 독려했다. 만주에서도 공창제가 도입되었지만, 폐창 세력은 이를 비판하기보다 오히려 공창제를 통괄하는 민정서와 제휴해 밀접하게 협력해 나갔다. 때문에 이러한 일본 폐창운동론자들에게 조선의 여성은 도외시되었고, 조선여성단체와의 연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sup>435)</sup>

애초 일본기독교부인교풍회가 주장했던 폐창의 논리는 국가의 여성에 대한 강제적 성병 검진과 조세 수탈에 반대하는 데 있지 않았다. 그들은 국가의 체면을 논하면서 성매매 여성을 ‘醜業’에 종사하는 치욕적 존재로서 단속의 대상으로서 인식하고 있었다. 국가가 추업을 나라 밖으로 몰아 국가 위신을 깎아내리지 않도록 하는 데 관심이 있었던 것이다.<sup>436)</sup> 그들이 성매매여성을 보는 입장은 창기가 윤리도덕을 파괴하고 풍속을 혼란시키며, 자산을 잃게 하고 일을 게을리 하는 모든 범죄의 원인이 된다는 창기 반대론이었다. 사회·경제적으로 중산층 이상에 속하던 교풍회 회원들은 자신들의 딸이나 친구, 주변인들은 절대로 창기가 될 리 없는 배경에 있던 존재로서 이들에게 성매매 여성들은 언제나 ‘醜業婦’ ‘賤業婦’로 불리며 멸시되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구제’는 성매매 여성 자신이 스스로를 ‘부정 불결한 자’로 수치스러워하고 비천하게 여기는 관점을 내면화시키는 것이었다.<sup>437)</sup>

## 2) 공창폐지운동의 변화

1930년대 들어와 공창폐지운동은 한층 활발해진다. 이는 조선경제의 파탄과 전쟁에 따른 매춘 수요의 급증으로 성매매 여성들의 수가 대폭 늘어난 것과 관계가 있다. 1929년 세계대공황은 일본과 식민지 조선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쳐 1930년대 농촌은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소작빈농층의 생계유지가 막막한 여성들이

---

1994 p. 76.

435) 후지메 유키 저, 김경자·윤경원 옮김, 『성의 역사학』, 삼인, 2004, pp. 107~122.

436) 日本キリスト教婦人矯風會 編, 『日本キリスト教婦人矯風會百年史』, ドメス出版, 1986, p. 367.

437) 우에노 치즈코 지음, 이선이 옮김, 『내셔널리즘과 젠더』, 박종철출판사, 1999, pp. 98~148

유곽으로 흘러들어왔다.<sup>438)</sup> 도시에서는 상공업이 침체되고 노동자의 실업화가 증폭되어 “전인구에 비례 큰 일할 취업, 직업 잇는 사람은 십분의 일 추측되는 생활난”<sup>439)</sup>을 겪으면서, 경직된 노동시장은 아버지나 남편을 대신해서 아내나 딸을 성매매업으로 내몰았다.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실업문제가 성매매에 발을 들여놓게 되는 원인이 됨을 명시하고 있다.

“妓娼의 존재 이유는 첫째 먹지 못하는 데 있고, 둘째로 돈 벌 수 없는 데 있으며, 셋째로는 이 虛隙에서 돈을 모으겠다는 特種人肉業者가 발생된 데 있는 것이니, (중략) 조선인척의 사회적 빈곤 및 실업이 특히 얼마나 심각화했나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중략) 그러므로 농촌의 기아에서 도시의 빈곤에서 손쉬운 그 그릇된 직업을 찾게 되는 것이었으니 이 숫자가 늘면 늘어갈수록 사회적 퇴폐가 增長되고 민족적 風紀가 혼탁되어질 것은 물론이다”<sup>440)</sup>

이렇듯 빈곤층 여성들의 성매매업으로의 유입이 늘어나는 가운데, 1931년 만주 사변 발발직후의 전쟁경기는 매춘의 수요를 늘렸고, 성매매업은 호황을 누리며 접객업부의 수는 늘어만 갔다. 그런데 전쟁 직후의 호경기가 곧 그치자 접객업에도 불황이 닥쳤다. 이에 일본인 업주들은 일본인 여성에 비해 전차금이 훨씬 저렴한 조선인 여성의 고용을 늘려갔다. 하녀나 공장 노동자 보다 한꺼번에 큰 돈을 前借할 수 있었으므로, 농촌의 빈곤층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혹은 부모나 남편 손에 팔려서 접객업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특히 공창보다 작부, 기생, 여급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공창이 유곽에 갇힌 생활을 하면서 경찰의 단속을 받는 데 비해, 여급이나 작부는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고 공창 허가 나이보다 더 어린 나이로도 취업이 가능했기 때문이었다.<sup>441)</sup> 이에 따라 평양에서는 유곽의 매춘방식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면 유곽업자들이 공창을 예기와 작부로, 貸坐業은 요정으로 전환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sup>442)</sup>

한편, 1930년대 들어와 일본의 독점자본이 조선에 대거 진출하면서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이는 필연적으로 도시적 소비·향락문화의 확산을 빠르게 진행시켰다. 여급은 근대적이고 도시적 분위기의 카페가 유행하면서 급증했다.

카페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11년이었는데, 처음에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다가

438) 이만열·김영희, 「1930~40년대 조선 여성의 존재 양태」 『국사관논총』 89, 2000, pp. 325~326.

439) 「深刻한 恐慌裏에 失業者激增彷徨 七千餘名이 所做無業 京城府社會課調査」 『동아일보』 1932년 7월 15일.

440) 「여성의 비애, 점증되는 실업 여성의 妓娼化」 『동아일보』, 1932년 12월 19일.

441) 「花柳界에도 時代反映 公娼沒落 私娼全盛」 『동아일보』, 1932년 5월 21일.

442) 「全朝鮮 籠鳥 2천-평양선 예기해방, 공창폐지 실현」 『동아일보』, 1934년 5월 22일.

1920년대 중반 이후부터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카페는 “10전짜리 동전 한 톨만 있어도 브라질에서 온 커피에 곁하여 미인 여급까지 볼 수 있어 경성 젊은이들의 ‘사막 중의 오아시스’ 같은 위안거리”로 작용했다.<sup>443)</sup> 1931년 경성의 本町署長 小松寛美가 “시대의 진화로 예·창가를 통해 생리적 욕구를 만족하는 자가 감소한 점, 노래 부르는 것은 과거의 것이 되고 현대의 유럽식 생활화와 재즈의 기분에 적응해온 점, 요리점의 연회비가 지나치게 비싸 중산계급 이하가 만족할 수 없는 점, 카페가 갖는 현대건축물로서의 광도와 조명 등이 시대적 쾌감에 적합한 점”<sup>444)</sup>을 카페 번성의 이유로 거론하고 있듯이, 카페는 기존의 요리점이나 선술집과는 다른 근대적인 분위기에 힘입어 1930년대 초반 번창했다.

창기나 작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급스런 이미지로 출현했던 카페의 여급은 실제로 보통정도 이상의 교육을 받고, 수준 높은 이용자와 시국담을 나누는 것이 가능한 여성들이었다. 더구나 이들은 고정급이나 비율제의 임금을 받지 않고 손님에 주는 ‘팁’으로 수입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아, 전차금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업주와 고용, 피고용의 관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고, 단골손님을 확보하여 카페 매상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다.<sup>445)</sup> 그러나 결국 여급에게 요구되던 것도 고급스런 ‘에로서비스’였다. 손님의 팁이 수입의 전부인 경우, 카페 밖 여관에서 2차 만남은 필연적인 것이었다.<sup>446)</sup>

여급의 성매매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기생, 작부 등의 성매매도 공공연한 것이 되면서 공창과 사창의 구분은 점차 모호해져갔다.<sup>447)</sup> 사창이 번성하면서 공식적으로 성매매가 금지된 일반 음식점의 여종업원이 업주로부터 매음을 강요당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sup>448)</sup>

공·사창의 구분이 모호했던 것은 용어의 쓰임에서도 그러했다. 공창폐지를 주장하는 글에서도 ‘공창제’ 자체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과 모든 성매매행위와 성매매여성이 사회의 해독이 된다는 것, 인도적 차원에서 그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혼용되면서, 공사창의 구분이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기본적으로 기

443) 김을한, 「경성야화」 『별건곤』, 1930년 7월

444) 小松寛美, 1931. 10, 「カフェ營業とその取締」 『警務彙報』 79쪽.; 김연희 「일제하 경성지역 카페의 도시문화적 특성」 서울시립대학교 석사논문, 2002, p. 13.에서 재인용

445) 김연희, 위의 글, 2002, pp. 38~47.

446) “대개의 웨이트레스는 카페에서 먹기만 하고 붙어 있으면서 일정 수입으로는 별로 정한 바가 없어 오직 손님에게서 받는 팁을 모아 그네들은 생활비를 보태어 쓴다 한다. 그리고 보니 웃음을 팔며 애교를 팔아서라도 손님의 호의를 사서 한푼이라도 얻은 궁리를 아니할 수 없게 된다. …… 이러하여 처음에 다소의 괴롭던 것도 사람다운 마음을 잃게 됨을 따라 점점 적어지고 그것보다도 매춘부의 행동은 배우는 새 없이 늘어가는 것이다.”(「돈벌이 하는 여자 직업 탐방기(9) : 새로 살림을 발견한 듯 덤비는 ‘카페’의 ‘웨이트레스’ 설움」 『동아일보』, 1928년 3월 4일.)

447) 「극도로 문란해가는 카페의 昨今風紀」 『毎日申報』, 1934년 11월 6일.

448) 「‘大京城을 廓清하라’ 雇女에게 賣春을 強要한 雇主」 『동아일보』, 1934년 12월 19일.



독교인들은 국가가 성매매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서의 ‘공창제도’를 비판했다기 보다는 모든 성매매를 불의와 비도덕, 비윤리로 파악하였다. 공창과 사창, 기생, 작부 등을 구분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현상적 명칭의 구분이었고, ‘공창’이란 명칭 속에 ‘사창’은 금하고 ‘공공연하게 창기가 되는 공창’은 면죄부를 준다는 말이나며 그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성매매에 대한 거부감을 강하게 드러내었다.

“妓生制度에 對하야는 妓生은 娼婦와 달라서 藝術家인 關係上 撤廢할 것이 아니라고 主張할 이도 잇을 줄은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나치는 形式論일 줄로 나는 알읍니다. 實際上에 잇어서 民族 保健과 社會風紀問題에 들어가서 娼婦 以上으로 危險한 것이 더 많은 것이 우리 社會의 現狀인가 합니다. 이러한 意味에 잇어서 撤廢하는 것이 宜當할 줄로 생각합니다.”<sup>449)</sup>

기생과 창기, 여급이 별도로 존재하고 운영된다는 것을 알지만, 모두 금지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가련한 창기를 구제하자’는 주장에서의 ‘창기’는 제도적 명칭으로 엄밀히 말하면 ‘공창’을 의미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성매매에 종사하는 모든 여성을 가리켰다. ‘공사창폐지’라고 하여 공창과 사창을 구분하고 이를 모두 폐지해야 할 것으로 아우르는 경우도 있지만, 용어상에서 ‘공창폐지’를 사용하였어도 공창제도만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공·사창 및 모든 성매매 금지를 의미했다.<sup>450)</sup> 공창제나 밀매음 모두 폐지해야 할 제도이자 관행으로서, 공창이나 사창이나 계몽과 구제의 대상으로서 인식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도시의 발달과 더불어 소비문화가 더욱 확산되고 빈곤층 여성의 성매매가 증가하는 상황은 공창폐지운동에 박차를 가하게 하였다. 더욱이 그동안 진행되던 기독교 농촌운동이 1930년대에 들어서 총독부 주도의 농촌진흥운동이 나타나고 함께 쇠퇴하게 되자, 절제운동이 새삼 주목받게 되면서 활성화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금주·금연, 폐창, 아편금지, 소비절약, 조합설립 운동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졌다.<sup>451)</sup>

“연래에 기독교신보가 종종 절제에 대한 특호도 발행하고 또는 근년에 와서 매월 1회씩은 반드시 절제문제를 포함한 소론을 실어서 일반 신자들에게 절제사상을 격려하는 것이 있으므로 적지 아니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 운동이 막연한 선동으로만은 절대로 될 수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런고로 이 철저한 과학적·조직적 운동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절제운동이 결코 범연한 운동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생

449) 蔡弼近, 「性에 關한 問題의 討論(其二)- 理想的 家庭制 妓生撤廢」 『동광』 28, 1931년 12월.

450) 「공창의 해독」 『기독교신보』, 1931년 6월 17일.

451) 윤정란, 『한국 기독교 여성운동의 역사』, 국학자료원, 2003, pp. 168~177.

명의 선을 잡고 꾸준히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긴요한 운동 중의 하나라고 할 것이면 기회와 형편에 의한 강연회 혹은 선전지 또는 피동적으로 설립되는 회의 조직 등으로써는 큰 효과를 보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그 제도 여하는 불문하고 전 조선교회가 이 운동에 참가하며 또는 전 조선교인들이 다 이 운동에 나선 투사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중략) 그러므로 이 운동은 조직으로 기관을 형성하며 따라서 유기적 연락을 갖도록 할 것이며 따라서 전반화시킬 것이며 또는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올시다. 그리고 실제에 있어서는 명실 상부하는 운동이 되어야 하겠고 상대자를 향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투철한 과학적 지식을 요구하게 됩니다. 즉 절제운동을 하는 개인, 절제운동을 하는 기관은 먼저 절제 그것에 있어서 백방으로 산 모본이 되어야 하겠다는 말 씀이올시다. 말로는 글로는 절제를 주장하지만 실지 생활에 들어가서는 절제를 못하거나 또는 아니하는 형편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술집이 없어지며 양주회사가 파산이 되며 카폐가 전멸이 되며 공창이 폐지가 되도록 적극적 투쟁을 계속 하여야 하겠습니까.”<sup>452)</sup>

성매매 여성이 급증한 원인이 생계문제에 있었던 만큼, 1930년대 공창폐지운동에서는 무엇보다 실업여성의 구제가 강조되었다. 공창제의 법률적 폐지보다 그들을 구제하고 재활을 돕는 것이 우선시되었다. 그 동안 ‘창기’의 폐해를 지적하고 박멸을 주장하던 데에서 나아가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할 방법을 모색하는 주장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성매매여성의 대부분이 임질과 매독과 같은 ‘화류병’에 감염되어 있는 데다가, 1931년 신정유곽의 135개 영업소와 562인의 창기가 1년간 벌어들인 돈이 827,370원에 달할 정도로 도시내 유흥비는 증가하였지만, 실제로 여성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각종 성병과 빈곤, 학대에 뿐이라며 그들의 구제에 보다 노력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sup>453)</sup> 성매매 여성의 참담한 현실을 보면서, 공창폐지운동은 “농촌운동, 교육운동, 의학사업보다 현재 조선이 요구하는 기독교 사회사업”으로서 인식되어 교파를 초월하여 실천할 것이 촉구되었다.<sup>454)</sup>

강명석은 성매매 여성에 대한 구제는 동정론에 기인해서는 안되고 그들의 성매매 하게 된 원인이 사회에 있느니만큼 책임론에 입각하여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매음부 또는 불량여자라고 하니까 이러흔 여자들은 우리의 자선으로써 소위 구제할일 이라는 생각이 발서 여러분들의 머리에 썬나잇슬줄 안다. 그러나 실상은 어느 편으로 보던지 구제할일이 아니다. 우리의 책임이라 다시 쓴다. 매음부나 불량여자들은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산출흔 것이다. 만일 매음부라던지 불량여자가 산출됨으로

452) 유각경, 「節制運動의 合理化」 『기독교신보』, 1933년 6월 28일.

453) 송상식, 『韓國節制敎育研究史料集』, 성광문화사, 1979, p. 746.

454) 김수철, 「기독교사회사업의 일고찰」 『진생』 5권 8호, 1929년 10월.

인하여 악한 결과가 전파된다고 확증한다면 그는 그 자신의 죄가 아니고 우리의 죄라  
정조를 깬트리게 되고 사생아가 속산하게 되고 사창이 생기고 공창이 생기게 되는 그  
죄는 그러한 여자자신의게 돌리는 것보담 우리의게 돌리는 것이 정당하니라. (중략) 只  
今은 娼女의 弊害를 討論만 하고 잇슬 쟁가 아니다 實際로 效果를 나타내여야 할것이니  
다 根本的으로 具體的으로 事業을 着手하여야 할것이며 그 길은 오직 救濟하는 길밖에  
업습니다 賣淫을 하고잇는 娼女를 불너다듯코 무려보십시오 자랄새버터 娼女되기를 願한 만  
옴이 있어서 女娼된 女子가 한 사람이나잇는가 우리는 묻거 娼妓가 되지안으면 어떻게 할수업는 運  
命에 빠져잇는 女子를 救濟하여 주자 또그러한 運命에 빠져기쉬운 環境에잇는 女子를 救濟하여  
주자 引導하여 주자 여기서 天國의 曙光을 밟쳐여 줄것이다”(455)

실질적 구체론에 대한 논의는 공창제를 사회구조의 문제로 이해하고 이를 비판하는 주장으로 확산되었다. 『기독신보』는 총독부가 “노골적으로 허가한 공창제도가 우습고 붓그러운” 것이라며 일제의 파렴치한 술책을 비판하였다.<sup>456)</sup>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 총무였던 이효덕은 공창제도가 조선에는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서, 조선의 예의와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이해했다. 또 국가가 공식적으로 성매매를 허락하고 영업장을 허가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각국에서 폐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조선에서는 손쉽게 성매매영업이 허가되고 성행한다면서 성토했다.<sup>457)</sup> 당국이 공창제 운영을 통해 세금을 확보하고 그것을 식민지 지배에 이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sup>458)</sup> 즉, 공창제를 식민정책의 산물로 이해하고 이의 폐지를 주장하였던 것이다.

기독교인들은 초기에 공창제를 법률적으로 폐지해야 할 제도로, ‘창기’는 도덕적 잣대로 보아 박멸의 대상으로 여겼다. 그러나 점차 감화와 구제의 대상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되었다. 인신매매에 넘어간 여성들의 처지를 딱하게 여기고 공창을 “자기 동생, 자기 자식으로 인정하고 대우하고 보호할 만한 심리가 일어나도록 교화를 통해 가르치는 것”과 “공창폐지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에게 요구되었다.<sup>459)</sup> 공창폐지운동은 “예수의 뜻을 몸소 나타내”는 일로서 불쌍한 ‘창기’의 구제는 “그리스도인의 마땅히 할 일”로 인식되었다.<sup>460)</sup> 금주와 폐창은 청년문제, 교육문제와 더불어 교회에서 중요시해야 해야 할 부분으로서 국가가 국방을 위해 육해항공을 중요시 하는 것에 비견되었다. 때문에 이 문제를 각지교회에 맡길 것이 아니라 통일적 지도 기관을 통해 교회전체사업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

455) 강명석, 「歐米의 社會事業과 朝鮮의 社會事業」 『神學世界』 11권 6호, 1926년 7월.

456) 「禁酒問題의 根本的 解決策」 『기독신보』, 1928년 1월 1일.

457) 李孝德, 「實際的方針으로」 『기독신보』, 1934년 8월 29일.

458) 오금선, 「공창폐지에 대하여」 『神學世界』, 11권 6호, 1926년, ; 「廢娼及娼妓獻納品不受理法」 『기독신보』, 1928년 11월 24일.

459) 李孝德, 「實際的方針으로」 『기독신보』, 1934년 8월 29일.

460) 「사회봉사에 관하여, 공창폐지」 『기독신보』, 1928년 11월 14일.

기되었다.<sup>461)</sup> 성매매 여성 구제기관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가 조선과 비교되어 소개되고<sup>462)</sup>, 선교회와 각 절제회에도 구제기관 설치가 촉구되었다.<sup>463)</sup>

당시 성매매 여성들은 ‘油頭粉面の怪物’, ‘썩어진 고기덩이들’, ‘사회의 암’이라는 극단적이 용어로 불리며 멸시를 받았다.<sup>464)</sup> 이러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려 하고 구제에 노력했던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점이라 하겠다. 이는 다른 사회운동 단체들의 태도와 비교되는 부분이다.

공창문제는 여성 인권과 지위의 문제였지만, 기독교 여성단체를 제외하고 여타 여성단체들은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공창제가 여성문제의 하나라는 시각은 있었지만, 이러한 인식은 넓게 확산되지 못하고 있었다.<sup>465)</sup>

앞서 언급했듯이 기독교계 외의 전국적 조직이나 단체의 공창폐지운동은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다. 애초 기독교계 인물 중심으로 공창폐지를 위해 창립되었던 혁청단은 1924년 화요회 및 신흥청년동맹계에 인계되어 좌익사상단체로 전환된 뒤 더 이상의 활동이 보이지 않는다.<sup>466)</sup>

한편, 유곽업주들의 폐업도 있었다. 진주에서는 유곽업자가 자발적으로 창기를 해방시킨 일이 있었고,<sup>467)</sup> 평양에서는 유곽주인의 딸이 창기들을 대상으로 폐창교육을 실시하던 중 방화한 창기의 변론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운 적도 있었다.<sup>468)</sup> 과격한 한 운동가는 유곽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는 경우까지 있었다.<sup>469)</sup> 그러나 이러한 것은 간간히 보이는 개인적인 활동이었을 뿐 조직적으로 전개된 것은 아니었다.

많지는 않았지만, 성매매 여성들 자신들에 의한 폐창운동도 있었다.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전반기까지 노동쟁의와 소작쟁의가 빈발하면서 창기들의 파업

461) 李容高, 「朝鮮耶蘇教會의 現在及將來」 『기독신보』, 1931년 2월 21일.

462) 姜明錫, 「歐美의 社會事業과 朝鮮의 社會事業」 『神學世界』 1권 6호, 1926년 12월.

463) 「사회봉사에 관하여, 공창폐지」 『기독신보』, 1928년 11월 14일.

464) 「人肉商을 撲滅하자」 『동아일보』, 1925년 7월 2일.; 「社會의 反映」 『동아일보』, 1925년 11월 28일.; 「사회의 암 창기」 『조선중앙일보』, 1934년 8월 8일.

465) 「公娼廢止運動과 社會」 『조선일보』, 1926년 11월 10일.

466) 「革靑團의 단원 정리. 강령을 변경함에 따라」 『조선일보』, 1924년 7월 19일.

467) 「娼妓解放」 『每日申報』, 1926년 9월 14일.

468) 평양 진정유곽의 주인 小林彌平의 딸인 さや子는 하천풍언의 <人肉의市>를 인용하여 팜플렛을 만들어 여러 창기들에게 읽히면서 공창폐지운동을 해왔다. 그러던 중 유곽주들의 총회에서 이것이 말썽이 되어 부친이 질책하자 집을 나갔다. 그러던 중 3개월 후에 그 유곽에 있던 창기 한 명이 주인의 가혹한 행위를 참다 못해 방화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자 사야꼬는 방화의 책임이 가혹행위 위한 자신의 아버지에게 있다면서 평양과 경성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창기를 도왔다. 「樓主의 딸이 廢娼運動」 『每日申報』, 1932년 8월 28일.; 「自家放火犯 辯護士에 依囑, 창기가 주인집에 불은 사건」 『동아일보』, 1932년 11월 28일.

469) 「籠中之鳥解放次로 揮發油로 遊廊衝火」 『동아일보』, 1929년 4월 1일.

도 나타났다. 손님을 접대하는 데 곤란하도록 머리를 깎아버리는 소극적인 태업에서부터 포주의 횡포에 아사동맹을 맺고 단식으로 투쟁하는 적극적인 파업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사건들이 당시 신문지상에 적잖이 보도되었다.<sup>470)</sup> 유곽주의 횡포에 대항하여 연대하여 파업하는 형태는 창기들의 의식이 성장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그들의 고달픈 처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행동은 엄밀히 말하면 대우 개선을 요구하는 ‘파업’이 대부분이었고, ‘폐창’은 아니었다.

사회적으로 약자였던 성매매 여성 스스로 폐창운동을 전개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세상에서 저희를 보고 악마라고 기생충이라고 좀벌레라고요, 그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사회의 도덕을 문란히 하고 청년의 풍기를 부패케 한다고요. 사실 저희들로 인하여 불량청년이 많이 생기고 부자의 자제들이 타락하는 것이 많음은 사실이겠습니다. ... 우리가 사회에 해독을 끼친다 하면 이 어떻게 하려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무리를 구원해 내고 이 사회제도를 좀 고쳐 주세요.”<sup>471)</sup>

실질적으로 그들이 ‘창기’가 된 것이 전적으로 원하여 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도 알고 있듯이, 사회구조적 모순으로 된 것이었기에 그들의 힘으로 운동을 전개하고 이를 이루어내는 데에는 무리가 있었다.

이러할 때, 기독교계는 여러 절제운동 단체를 중심으로 공창폐지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활동을 펼쳤던 조직은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였다. 명실상부한 기독교 최대의 절제운동조직이었던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는 중앙연합회 산하에 서적부, 소년부, 광청부, 회계부 등의 집행부를 두어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광청부에서 공창폐지운동과 성교육을 담당하였다. 청년 남녀의 성교육, 서적과 포스터 제작 및 발행과 이를 통한 선전이 이루어졌다. 여성들을 대상으로 ‘화류병’ 예방 강연을 하면서 결혼 전에 남성의 건강진단을 요구할 것을 교육시키기도 하였다.<sup>472)</sup> 경성지부를 비롯하여 연합회 산하의 지부에서도 동일한 선전과 활동이 이어졌다.<sup>473)</sup> 또 성매매 여성의 사정을 파악하기 위해 유곽에 직접 찾아가 그 실정을 조사하기도 하였다.<sup>474)</sup>

470) 「馬山娼妓 突然 盟罷」 『每日申報』, 1926년 12월 12일.; 「抱主의 壓迫에 反抗코 自由廢業한 娼妓」 『每日申報』, 1931년 6월 20일.; 「娼妓가 同盟罷業」 『每日申報』, 1938년 11월 23일.; 「馬山娼妓盟休」 『중외일보』, 1926년 12월 12일.; 「娼妓同盟斷食」 『중외일보』, 1927년 5월 20일.; 『동아일보』, 1927년 2월 16일, 1927년 2월 22일, 1928년 10월 20일, 1931년 4월 14일, 1931년 4월 17일, 1931년 6월 20일, 1931년 7월 13일.

471) 匿名女, 「모다 동정뿐」 『신여성』, 1924년 4호,

472) 「朝鮮女子基督教節制會 聯合會의 事業계획」 『기독신보』, 1936년 7월 22일.

473) 리효덕, 「각 절제회의 사업」 『기독신보』, 1933년 7월 26일.

구세군도 실제로 유곽을 방문하여 여성들의 실태를 살피고 그들이 문제를 의뢰하게끔 도왔다. 또, 그들을 위한 “구제의 집”을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와 협력하여 마련하면서 실질적인 구제사업에 노력하였다.<sup>475)</sup>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는 2차 반기독교운동에 대한 대응으로서 기독교의 대사회적 입장을 밝힌 12개조의 사회신조를 채택하면서, 공창폐지를 결의하고 절제운동에 매진하였다. 이미 1925년 사회부를 설치하여 남녀직공 보호와 전도, 공창폐지운동, 금주운동 등을 실행하고 있던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는 성매매여성들을 위한 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1933년을 금주년으로 정하여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와 협동하여 대대적인 금주선전을 일으킬 정도로 절제운동에 적극적이었다.<sup>476)</sup> 세브란스병원 학생기독교청년회에서는 대중 의학강연을 통해 화류병 예방법을 강의하였다.<sup>477)</sup>

감리교도 남북감리교가 합쳐 조선감리회로 된 이후에도 총회에서 계속 공창폐지운동을 추진할 것을 결의하였다.<sup>478)</sup> 공창에 대한 구제활동은 장로교 총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1931년 총회에서는 평안북도 벽동에 사는 김인명이란 여성이 요리점으로 팔려가는 것을 구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서 연보하여 구제하기도 했다.<sup>479)</sup>

한편, 1931년 국제연맹이 각국에 전문 조사단을 파견하여 부녀매매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자 일본내에서는 세계의 이목을 경계하여 공창폐지의 목소리가 고조되었다. 이에 조선에서도 국제연맹 조사단의 일정과 일본내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되었다.<sup>480)</sup> 기독교인들은 국제연맹의 도덕적 호소가 과연 실효를 거둘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하면서도, 조선에도 그 영향이 미치기를 기대하며 폐창론을 적극 주장했다.<sup>481)</sup>

이후 신문마다 일본의 공창폐지안 성안 과정을 자세히 보도하면서, 1934년 6월 22일 『新家庭』社 주최하에 옥선진, 김활란, 이영준이 강사로 참여한 공창문제에

474) 이효덕, 「개척자의苦心記」 『절제』 재건2호, 1955.

475) E. T. Rosenberger, Social Service, *The Christian Movement*, 1926, p. 638.; 「사회봉사에 관하여, 공창폐지」 『기독신보』, 1928년 11월 14일.

476) 「全鮮禁酒運動準備」 『기독신보』, 1932년 12월 21일.; 「全鮮禁酒運動日 迫到」 『기독신보』, 1933년 2월 1일.; 「基督教各機關總動員 禁酒斷煙色衣 街頭宣傳大行進」 『기독신보』, 1933년 2월 15일.; 「朝鮮耶蘇教聯合公議會會議錄」, 1929년, 1934년.

477) 「世專學生基青會 第二會 通俗醫學講演」 『동아일보』, 1932년 11월 18일.

478) 『남감리교회조선매년회회록』, 1930.; 『동부·중부·서부 연합연회 1회 회록』, 1931.; 『동부·중부·서부 연합연회 2회 회록』, 1932.

479)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제20회 회록』, 1931.

480) 「국제연맹부녀매매조사단」 『중외일보』, 1931년 6월 1일.; 「쑨손博士一行 內相, 拓相 방문」 『동아일보』, 1931년 6월 13일.

481) 「공창조사위원 동정」 『기독신보』, 1931년 4월 1일.; 「공창폐지안」 『기독신보』, 1931년 4월 15일.

대한 대대적인 강연회가 개최되었고, 7월 13일에는 인천 내리에배당에서 이영준이 공창폐지에 대한 강연회를 하는 등 조선에서의 폐창을 촉구하는 여론이 비등해졌다.<sup>482)</sup>

이에 대해 총독부는 일본에서 공창폐지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식민지 조선은 사정이 다르다면서 폐지요구를 회피해 왔다.<sup>483)</sup> 그래도 공창폐지에 대한 요구가 점점 거세지자 총독부 경무국은 창기취체규칙 가운데 우선 외출제도를 개정하기로 하고, 1934년 부령 제114호로 「貸坐敷娼妓取締規則」을 발포하여 창기들의 자유 외출을 허용하였다.<sup>484)</sup> 1935년 각도 보안과장회의에서는 여급이나 작부의 수를 제한하는 제도와 공창폐지에 대한 문제가 협의되었다.<sup>485)</sup>

그러나 기대했던 폐창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1935년 이후 공창폐지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결국 공창폐지운동의 성과는 공창폐지에 대한 여론을 고양시키고 창기들의 대우가 개선되는 데에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정도에 그치고 말았다.

총독부는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전쟁시 화류병의 위험을 경계하며 화류병 예방에 치중하면서 화류병예방법 입안을 계획하고 이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며, 예방협회 설립을 도모하여 1939년 6월 ‘화류병예방령’을 시행했다. 결국 공창제를 존속시키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성병을 막는 데에 중점을 두면서 공창폐지는 해방 이후 미군정 시기에 가서야 이루어졌다.<sup>486)</sup>

482) 이호덕, 「공창폐지」 『기독교신보』, 1934년 4월 25일.; 「公娼廢止前提로 最新改革案作成」 『朝鮮中央日報』, 1933년 3월 17일.; 「公娼廢止問題를 內務省에서 調査」 『朝鮮中央日報』, 1934년 4월 2일.; 當面の 社會問題인 公娼問題 大講演 『동아일보』, 1934년 6월 12일.; 「공창폐지문제의 사회적 제1성」 『동아일보』, 1934년 6월 18일.; 「公私娼問題의 大講演은 今夜」 『동아일보』, 1934년 6월 22일.; 「公娼制度를 廢止 積極的으로 進行할 意向, 統一的 取締內規를 定코, 內務省에서 調査着手」 『동아일보』, 1934년 4월 1일.; 「공사창문제강연」 『동아일보』, 1934년 7월 18일.; 「사실: 公娼制度를 廢止하라」 『조선일보』, 1934년 4월 1일.; 「내무성의 公娼廢止案」 『조선일보』, 1934년 6월 12일.; 「공창제도 폐지안 내무성에서 입안」 『조선일보』, 1934년 6월 13일.; 「내무성 英斷으로 明春에 公娼폐지」 『조선일보』, 1934년 12월 9일.; 「사실: 公娼제도 폐지안 조선에도 즉시 실시하라」 『조선일보』, 1934년 12월 13일.; 「明春四月佳節까지 內務省管下公娼廢止」 『每日申報』, 1934년 12월 9일.

483) 「公娼廢止 朝鮮서는 問題」 『每日申報』, 1931년 2월 28일.

484) 「해방될 농중조 2,500명 창기에게 금족을 일제해방, 하룻길에는 허가없이 자유외출」 『동아일보』, 1934년 12월 6일.; 「창기 자유외출 금일 부령으로 발포」 『동아일보』, 1934년 12월 13일.; 「공창제도 폐지안-조선에도 즉시 실시하라」 『조선일보』, 1934년 12월 13일.

485) 「公娼 폐지 가부. 보안과장 회의에 상정. 카페 여급, 작부 수 제한제도와 광산관계 부정사건 취체 등」 『조선일보』, 1935년 2월 19일.

486) 吳元錫, 「花柳病의 豫防과 滅絶策」 『신동아』 17, 1933년 3월; 이영준, 「조선인과 성병」 1, 2 『신동아』 42, 44호, 1935년 4월, 5월.; 「화류병 예방법 실시 앞두고 조선 최초의 집계 완성」 『동아일보』, 1939년 4월 4일.; 「화류병 예방에 기본자료 수집」 『동아일보』, 1940년 8월 10일.; 「健全한 社會로 一步前進, 惡質違反者엔 體形, 制令으로 發布되던 花柳巷의 自肅自戒를 可期, 花柳病豫防令 八月부터 實施」 『每日申報』, 1939년 5월 13일.

## V. 소비절약과 생활개선운동

1920년대 후반 이후 금주운동 중심이었던 절제운동은 그 동안의 활동에서 나아가 소비절약과 저축회 및 조합 조직, 생활개선운동으로까지 그 영역을 넓혀갔다. 이는 당시 조선의 경제사정이 더욱 악화된 데 따른 조치로서, 절제운동이 보다 적극적으로 경제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 방면으로 전개되는 사정을 보여준다.

더불어 절제운동은 당시의 경제상황에 대한 같은 인식과 대응에서 촉발된 기독교 농촌운동과 상호 연계하면서 추진되기 시작했다. 기독교계가 금주·공창폐지·문맹타파·협동운동·조합운동을 사회운동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그의 실천을 다짐하는 데서 보이듯이 일련의 운동들은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며 이루어졌다. 특히, 1920년대부터 1930년대 중반까지 평양을 중심으로 전개된 물산장려운동과 소비절약, 생활개선, 조합설립운동은 절제운동이 그 외연을 넓히면서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며 동반적으로 진행된 적절한 예라 할 수 있다. 더구나 경성의 물산장려운동이 초기에 확산되다가 곧 침체되어버린 것에 비하면 평양의 물산장려운동은 상공업자와 기독교계의 든든한 조직력에 힘입어 상당한 성과까지 거두었다.

이 장에서는 기독교 사회운동으로서 조합설립, 생활개선, 소비절약 등의 전반적인 움직임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절제운동 및 농촌운동과 어떤 맥락에서 연결되는지를 알아보고, 절약과 생활개선논의 속에 드러나는 기독교인들인 추구하고 모색했던 사회의 모습과 그들의 기대 및 의도를 추적하고자 한다.

### 1. 소비절약과 소비조합 설립

#### 1) 소비절약의 강조와 소비조합 조직

절제운동은 1920년대 후반 들어서면서부터 보다 활성화되었다. 이는 토지조사사업과 산미증식계획으로 조선의 경제적 형편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었던 것과 관계가 깊다. 1923년 이후 자작농과 자소작농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에 반해 소작농은 크게 증가하면서 지주호수도 증가하는 농민층의 양극화 분화가 심화되었다. 중견 자소작·자작농의 희생으로 지주·소작농만 크게 증가하는 이러한 현상은 소작지율의 증대, 기생지주율의 구도화 현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sup>487)</sup>



《표 20》 계층별 농가 구성 비율(%)

	지주	자작농	자소작농	소작농	화전	피용자
1913	3.1	22.8	32.4	41.7		
1916	2.5	20.1	40.6	36.8		
1920	3.3	19.4	37.5	39.8		
1926	3.7	18.7	34.0	42.4	1.2	
1932	3.5	15.7	27.7	51.1	2.0	
1933		18.1	24.1	51.9	2.7	3.1
1934		18.0	24.0	51.9	2.7	3.4
1935		17.9	24.1	51.9	2.5	3.7
1936		17.8	24.1	51.8	2.5	3.8
1937		18.0	24.1	51.7	2.4	3.8
1938		18.1	23.9	51.9	2.3	3.8

小早川九郎 編著, 『朝鮮農業發達史』 資料篇, 1960, p. 93.

1926년 전체 조선인 호수 가운데 세민 및 공민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13.8%였고, 전체 농가의 46.7%가 적자농가였다. 농가소득은 갈수록 급감하여 1930년 조사에 의하면 자작농의 18.4%, 자소작농의 37.5%, 소작농의 68.1%, 전체 농가의 48.3%가 준공농가였다.<sup>488)</sup>

당시 조선에서 1인당 식량 소비량을 통해 사정을 살펴보면, 1915-1919년 1인당 미곡 0.7071석, 잡곡 1.3242석이었으나 1920-1924년에는 미곡 0.6379석, 잡곡 1.3413석, 1925-1929년 미곡 0.5124석, 잡곡 1.3000석, 1930-1936년 미곡 0.4256석, 잡곡 1.2120석으로 소비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조선 민중의 식량 소비상태는 더욱 열악해져 갔다.<sup>489)</sup>

절제운동은 이러한 형편에 직면하여 1920년대 후반에 이르러 한층 활발해진다. 감리교 1929년 연회가 열릴 때, 각 지방 사업보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절제운동은 가장 주요한 활동의 하나로 거론되었다. 경성지방 감리사 김종우는 “현금 조선에 절제사업이 제일급무”로 여겨지면서 기독교 청년들이 비기독교인들과 협력하여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보고하였고, 평양지방 감리사 오기선도 절제회 사업보고를 하는 가운데, 평양지방에서 경영하던 절제생활 잡지의 출간을 보고하며, 개인의연과 현금을 통해 절제사업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음을 밝혔다. 수원지방에서도 절제운동의 성과로 조직된 금주금연회가 신자와 비신자를 망라하여 조직되면서 절

487) 강태훈, 「일제하 조선의 농민층분해에 관한 연구」 『한국 근대 농촌사회와 농민운동』, 열음사, 1988, pp. 203-208

488) 허수열, 『개발없는 개발』, 은행나무, 2005, pp. 278-282.

489) 이송순, 「미곡공출」, 김인호, 『식민지 조선경제의 종말』, 신서원, 2000, pp. 396-398.

제운동이 교회밖으로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와 사업진행을 협동하여 할 것을 결정하면서, 이후 대규모 선전에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의 순서지, 선전지가 감리교 각지 교회에서 이용되었다.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는 1929년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열린 임시대회에서 비기독교인까지 망라되어 금주금연의 절제운동이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을 고무적으로 여기면서 여기에 위생과 경제문제까지 덧붙여 계몽·선전할 것을 당부하였다. 연합공의회는 특히 조선교회의 영적 단결은 경제적 산업적 단결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하여 교회가 경제문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그럼으로써 ‘신도들의 생활을 더욱 원만하게 하는 동시에 교회 자체의 생명을 조직화하고 풍부하게 할 것’으로 기대했다.<sup>490)</sup>

여기에 1932년 조선예수교 연합공의회가 12개조의 ‘사회신조’<sup>491)</sup>를 채택함으로써 절제운동은 보다 활성화되었다. 조선 내 대부분의 교단과 기독교 각 단체가 참여한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는 1929년부터 2차 반기독교운동이 전개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유물사상이나 계급적 투쟁, 혁명수단에 의한 사회개조와 반동적 탄압에 반대하고 기독교인들이 사회 중건이 되어 사회정의를 이룬다는 입장을 밝히는 사회신조를 천명하였다. 특히 1932년 총독부의 농촌진흥운동이 시작되면서 기독교계의 농촌운동이 쇠퇴하자 이를 대신하여 절제운동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결의하고, 1931년 9월 19일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가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에 가입하면서 절제운동은 교파를 망라하여 전교회적 차원으로 확대되었다.<sup>492)</sup>

이러한 절제운동의 확대는 경제문제에 이전보다 더욱 관심을 쏟는 방향으로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변하였다. 기독교인들은 그 동안 절제운동의 주축을 이루었던 금주운동이 도덕적 의미에 치중되어 권고되었던 점을 반성하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였다. 과거의 절제운동이 “비판적이지요 실제적이며 구체적 조직적 운동이 못되고 공연히 기분적으로 말하면 관념적으로 소일거리 비슷한 의미에서 회합하였든 즉 우리의 결함인 각자의 성찰과 비판 및 영단력을 결여한” 것이었음을 고백하고 보다 실제적인 방법을 강구하기에 이르렀다.<sup>493)</sup>

490) 金仁泳, 「朝鮮예수敎聯合公議會」 『신학세계』, 1929년 6월.

491)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류의 권리와 기회균등 (2) 인종과 민족의 무차별 대우 (3) 혼인신성, 정조에 남녀동등책임 (4) 아동의 인격존중, 소년노동의 금지 (5) 여자의 교육과 지위향상 (6) 공창폐지, 금주축진 (7) 노동자 교육, 노동시간 축소 (8) 생산과 소비에 관한 협동조합의 설치 (9) 용인 피용인간에 협동조직 기관의 설치 (10) 소득세와 상속세의 고율적 누진법의 제정 (11) 최저임금법, 소작법, 사회보험법의 제정 (12) 일요일 공휴법의 제정, 보건에 관한 입법과 시설(『朝鮮耶蘇敎聯合公議會會議錄』, 1932).

492) 윤정란, 『한국 기독교 여성운동의 역사』, 국학자료원, 2003, pp. 170-176

493) 龍岡學人, 「節制維新運動의 展望」, 『신생』 1929년 2월.

“술을 마시지맙시다’ 함만 보면 그것이 얼마나 陳腐한말이오 이 社會實情에 얼마나 어긋남이 만함을 발견날 수 잇을까 여기에서 우리는 냇것을 清算함과 아울러 다시 새로운 방법을 再出發하지아니하면 안될것이라고 보는 바이다.”<sup>494)</sup>

피폐한 경제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생활태도의 단순한 변화를 촉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현실에 직접 개입하여 정면으로 문제와 부딪혀야 한다는 실용적인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즉 체계화된 조직과 실천을 담보로 한 구체적 방법이 요구됐다. 그리하여 절제와 더불어 생산의 중요성이 새로운 실천방안으로 부각되었다.

“절제보다 먼저 실행할 것이 있다. 곧 생산함이 그것이다. 생산이 없는 절제는 죽은 절제이오 생산이 있으면서 절제하는 절제라야 산절제이다. 이 우에 생명수의 우물을 말하였거니와 기왕에 괴여있던 물만을 아껴서 아무리 절제하여 마시더라도 그물이 다 할 때에는 무엇을 절제하랴도 할 수 없을 것이니 우물에 근원을 점점 뚫어서 수령이 주야로 솟아나오도록 하면서 물을 절제하여야 한다.”

이제 금주운동이 중심이었던 절제운동은 가장 기본적인 소비절약에서부터 저금·저축회의 조직, 각종 조합의 설립 등의 모습으로 적극 추진되었다. 절제운동에서 소비절약의 한 가지로서 강조되었던 금주와 금연은 이제 훨씬 더 많은 것을 절제하고 절약하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의복이나 음식의 검소에서부터 근검저축, 교육과 자선사업으로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초보적인지만, 절약을 통한 저축으로 생산, 즉 여러 가지 사업을 도모하였다.<sup>495)</sup>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는 곳곳에 조직된 지회를 통해 이를 실천해 나갔다. 연곡지회에서는 회원들이 직접 농사에 착수하여 절제생활을 직접 실현시키는 일에 노력하였다. 광주에서는 명주생산장려운동을 펼치면서 직조기를 구입하여 회원들이 옷감을 만들어 파는 등 생산활동에 나섰고, 주문진에서도 생산 장려를 위해 회원들이 상업에 힘쓰는 등 “생산이 없는 절제는 죽은 절제이오 생산이 있으면서 절제하는 절제라야 산절제이다”라는 의지를 실천해 갔다. 정주와 강릉에서는 색의장려운동과 염색강좌를 마련하여 농촌여성들을 계몽하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했다.<sup>496)</sup>

이러한 의지는 강원도 이천지회에서 소비조합을 설치하여 절약, 저축의 모습이 구체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약과 저축은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 광주와 철산 수안도하리, 북진에서는 손수건이나 옷 등 간단한 물품을 만들어 팔아 기

494) 勉勵生, 「禁酒卽 活路」 『기독신보』, 1930년 4월 30일.

495) 손메례, 「節制는 成功의 基礎」 『기독신보』, 1928년 12월 5일.

496) 이효덕 「자서전」, 홍우준 편, 『평창의 별 이효덕 전도사』, 한국기독교문화원, 1980, pp.60-62.

금을 마련하여 야학을 운영하였고, 재령과 청주, 횡성에서는 회원들이 불필요한 사치를 줄이고 버선을 벗는 일부터 시작하여 떡이나 옷가지 등을 팔아 빈민 구제사업에도 나서고 있다.<sup>497)</sup> 영변여자기독교절제회에서는 회원들이 유치원 원아복을 만들어 판매하여 10여원의 기본금을 사업자금으로 적립하였다.<sup>498)</sup>

한편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는 1932년 황해도 연백에 절제회 모범부락을 건설하였다. 더 이상의 기록이 없어 그 구체적인 모습은 알 수 없지만, 금주금연을 근간으로 하고 소비절약과 저축공동체를 조직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sup>499)</sup>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의 활동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절제회나 저축회를 조직하고 ‘금주금연’과 ‘소비절약’을 결의하거나 선전하는 경우가 1930년대 들어서 부쩍 늘어났다.<sup>500)</sup> 금주금연을 통한 절약과 저축, 나아가 저축회와 소비조합 설립이 추진되었다. 금주단연계나 저축조합을 조직하여 공동농사, 농우 구입, 토지 구입 등을 시도하는 경우들이 속속 나타났다.<sup>501)</sup> 교회 안의 청년회나 부인회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고,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는 경우도 있었다. 교역자가 마을 유지들을 설득하여 소비절약과 공동구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설립하는 일도 있었고,<sup>502)</sup> 교회가 앞장서서 금주회를 마을 안에 조직하고 저축액으로 부업기관 시설을 도모하는 경우도 있었다.<sup>503)</sup>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교회를 중심으로 한 청년회 회원들이 금주·금연을 결심하고 그 비용을 저축하여 기본금을 모아 사업을 계획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불입하는 조합의 형태를 갖추는 것이었다.

흥해읍교회 면려청년회나 강원도 인제읍교회 엠윗청년회 등은 모두 교회 안에 이미 조직되어 있던 청년회에서 소비절약과 저축을 도모했던 경우이다.<sup>504)</sup> 인제읍

497) 이효덕, 「각 절제회의 사업」 『기독신보』, 1933년 7월 26일.

498) 「영변지방/ 영변여자절제회 활동」 『감리회보』, 1934년 8월 10일.

499) 「대한여자절제회연혁」, 송상석, 『한국절제교육연구사료집』, 1979, pp. 815-817.

500) 「교회통신」 『기독신보』, 1930년 1월 22일.(경남 삼천포, 평남 대동군 등 여러 곳.); 「인제읍교회 엠윗청년회」 『기독신보』, 1930년 2월 19일.; 「각지교회 진흥 운동」 『기독신보』, 1930년 1월 29일.; 「황해도 금천읍 엠윗청년회」 『기독신보』, 1930년 2월 19일.; 「폐풍개량」 『기독신보』, 1930년 2월 19일.; 「선천군 능중면 선심리교회」 『기독신보』, 1930년 3월 5일.; 「홍성지방 절제강연」 『기독신보』, 1930년 3월 26일.; 「소비저축조합」 『기독신보』, 1930년 4월 2일.; 「금연주저축회」 『기독신보』, 1930년 4월 9일.; 「절제회 소식」 『기독신보』, 1930년 4월 23일.; 「禁酒斷煙運動」 『기독신보』, 1930년 7월 23일.; 「일동이 결속하여 금주초회 조직」 『기독신보』, 1931년 1월 14일.

501) 「금연동맹회」 『기독신보』, 1920년 6월 2일.; 「금연회 저축」 『기독신보』, 1926년 9월 22일.; 「창춘금주단연회 상황」 『기독신보』, 1927년 12월 28일.; 「禁酒斷煙運動」 『기독신보』, 1930년 7월 23일.; 「각 절제회의 사업」 『기독신보』, 1933년 7월 26.; 손메레, 「순회강연일기 중에서」 『기독신보』, 1928년 1월 11일.; 「금주단연하고 그돈은貯蓄」 『기독신보』, 1927년 6월 29일.

502) 「宣川北敎會 農牛會 조직」 『동아일보』, 1929년 6월 22일.

503) 「信島교회의 노력으로 금주단연회 조직」 『감리회보』, 1934년 3월 10일.

504) 「하교면청월례회 소비조합창립」 『기독신보』, 1927년 12월 28일.; 「인제읍교회 엠윗청년

교회 애플리케이션회는 금주와 소비절약을 강조하면서 지역 면사무소와 보통학교에 본부를 두고 활동할 만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춘천애플리케이션회는 소비절약 선전을 위해 음악회를 후원하기도 하였다.<sup>505)</sup> 이와 별도로 금주단연회, 절약저축회, 저축조합 등을 설립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표 19》는 『기독신보』에 나타나는 기사 가운데, 금주·금연회 중에서 내용과 명칭속에 소비절약과 저축을 명시하고 있거나 절제운동 가운데 소비조합을 조직한 경우를 목록화 한 것이다.

《표 21》 절제운동과 연관된 절약저축회 및 소비조합

명칭	지역	내용	출전
청산동교회 단연회	경북 선산군	청년들이 단연회 조직하여 매월 저축 70원 모아 사업기본금 삼음	기 1926. 9. 22.
덕평교회 금주단연회	경기도 이천군 마장면	금주단연후 저축. 매삭 20전, 현재 30원, 계원 10명	기 1927. 6. 29.
평양중앙교회 금주회	평양	회금 100여원, 회원 100명	기 1927. 8. 3.
창촌교회 금주단연회	춘천 남산면	금주단연으로 회원 각자 송아지 구입 목적 매월 30전, 회원 35명 풍속개량 활동도 활발	기 1927. 12. 28.
괴평동교회 금주단연회	경북 선산군	매월 저축, 불신자에게 금주선전	기 1928. 8. 8.
서교회절제회	의주	금주, 근검저축 풍속개량 목적	기 1928. 8. 29.
절제회	진남포 덕동교회	저축부 운영	기 1929. 4. 3.
절제회	의주군 영산교회	손메레 강연 후 조합과 부인회 조직.	기 1929. 12. 11.
남부교회 애플리케이션회	개성	회금 반액을 소비조합금으로 저축	기 1928. 12. 31.
대동신용소비조합	평남 대동군 부산면 중이리 교회 교풍회	조합원 70 매월 20전씩 저축	기 1929. 6. 5. 농 1930. 5.
금주금연회	태천 풍림동	매 戶 5원 口金, 매삭 주초비 모아 교육비 충당.	기 1930. 1. 29.
근검저축수양회	평남 덕천읍	폐풍개량과 근검저축 목적.	기 1930. 2. 19.
인제음교회애플리케이션회	강원도 인제	각 면사무소, 보통학교에서 소비절약, 금주금연 선전	기 1930. 2. 19.
소비저축조합	평남 양덕신음교회	100원 저축, 그 중 1/10은 교회 기본 재산으로 적립	기 1930. 4. 2.
대유절약회	창성 대유동교회	17세이상 남녀 회원. 근검저축금주단연	기 1930. 7. 23. 기 1931. 7. 22.

회」 『기독신보』, 1930년 2월 19일.

505) 「東西音樂會」 『조선일보』, 1923년 8월 29일.

		고금 50전씩 150주의 매월 저축하여 총 1,101원에 달함	
소비조합	평남 강서읍교회	절제회 설립하여 저축한 금액을 모아 소비조합 설치. 절제회원 외 조합원 모집	동 1931. 2. 13.
금주초회	전남 담양군 금성면 금월원 련화촌	매월 남자 20전, 여자 백미2홉씩 저축	기 1931. 1. 14.
금주금연동맹회	양주 유양리교회	이효덕 강연 후 조직. 매월 5전	
남면 3개동 소비조합	삭주 남면	손메레 강연 후 조직	기 1931. 7. 15
소비조합	강원도 이천읍	조선여자절제회 지회에서 조직	기 1933. 7. 26.
선린저축사	동대문	회원 121, 저축액 9,351원과 가옥1, 매일 담배1갑 값인 5전 저축, 흡연시 벌금 10전, 3회이상시 제명	기 1933. 12. 27.
부인저축조합	함흥여자기독 교절제회	매주 50전, 조합원 60여 명 조합장 강보의 이사 최영혜	기 1934. 1. 24.
오수교회 금연저축조합	전북 임실	금연으로 1인 10전씩 저금. 일부액으 로 강대상 헌납	기 1934. 11. 14.
협동조합(소비조합)	함북 용천	음주·도박·미신 타파운동 공동구매·판매	교 1937. 3. 23.
평양금주저금조합	평양	1928. 7. 23. 창립 김봉준 외 10여 인. 조합장:이조근 3년 6개월 동안 7,721원 저축 조합원과 비조합원에게 자금 융통, 5 개년 사업기한을 2년 연장	중 1932. 1. 18 동 1932. 6. 25.

(기=기독교신보, 교=기독교보, 동=동아일보, 중=중앙일보, 농=농민생활.)

위의 표에서 보면 금주금연과 저축으로 농사에 필요한 토지구매, 농우 구매, 비료 구매를 공동으로 도모하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춘천 창촌교회는 35명의 회원이 매월 30전씩 불입하여 농사에 필요한 송아지를 각각 매입할 것을 목적하였는데, 풍속개량 등에서도 두드러진 활동을 보이며 모범촌으로서 평가받기도 하였다. 선린저축사의 경우에도 금연으로 매월 5전씩을 저축하여 십만원의 만들 요량으로 시작하였고 몇 년 만에 120 여 명의 회원을 거느리고 목표를 달성하여 모범적인 예로서 주목받았다.<sup>506)</sup>

506) 「매일연초대 오십전저축 육천백여원의 거액」 『동아일보』, 1933년 3월 22일.; 「금연저금십만원을 모으기로」 『기독교신보』, 1933년 12월 27일.

평안남도 대동군 부산면 중이리 교풍회는 1927년 그 지방 유지 金鮑容의 발기로 조직되었는데, 62명의 회원을 두고 동아일보에 모범농촌으로 소개되기도 할 만큼 다방면에서 두각을 보였다. 산하에 지육부, 식산부, 농산부, 청년부, 소년부, 경로부, 도서부, 위생부를 두고 1929년 5월 대동신용소비조합을 설치하였다. 70여명의 회원이 매월 20전씩 모아 500여 원의 자본금으로 시작한 소비조합은 회원 공동노동을 통해 자금을 축적하며 생활용품을 판매하고 양잠, 양봉, 양돈 등의 부업도 실시하였다. 농한기를 이용하여 야학을 설치하여 계몽활동에 주력하여, 43개소 2천여 명의 학생을 가르칠 정도로 큰 규모였다. 특히 한 달에 두 차례씩 유명강사를 초청하여 강습회를 개최하고 금주단연, 미신타파 기타 절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였고, 조기회, 원족회 등을 조직해 생활개선운동을 실시하였다.<sup>507)</sup>

평남 강서읍교회는 절제회를 설립한 후 금주금연으로 저축한 자금을 가지고 소비조합을 설치한 후, 교회안의 절제회원 뿐만 아니라 그 외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조합 확장을 꾀했다.<sup>508)</sup>

금주저축자금으로 다른 사업을 도모하는 경우도 있었다. 청산동교회 단연회와 평양금주저금조합이 그러한 예이다. 평양금주저금조합은 1928년 7월 23일 김봉준 외 10여 명의 발기로 설립되었다. 담배와 술값으로 20전씩 저금하여 이를 비조합원에게도 대부하고 기금이 모이면 공존공영의 사업을 전개하기로 하여 만 8년 경과 후, 상공자금 융통을 계획하고 있었다. 3년 반만에 7,721만원을 적립하고, 1932년 4월 저금 만기에 이르러 저축액이 1만여 원에 달하자, 이를 기금으로 평양금주무역주식회사 창립하고 시내 소매상들을 대상으로 주식을 모집하기도 했다.<sup>509)</sup>

이처럼 금주금연회를 조직하고 저축한 후에는 공동농사, 토지 구입 등을 농촌생활안정 및 향상에 목적을 두고 실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절약, 저축한 돈을 개인적으로 분배하기 보다는 공동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다.

의주, 양주, 삭주에 조직된 금주금연저축회와 소비조합은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 총무였던 손메례와 이효덕의 순회강연 후 자발적으로 조직된 것들로서, 회원들의 이익을 도모하기도 하였고, 자선사업 기금이나 교회 기본금으로 적립하는 곳도 있었다.<sup>510)</sup> 강원도 이천읍과 함흥에서는 조선여자절제회 지회에서 직접 조합을 설치·

507) 「신용소비조합창립」 『기독교신보』, 1929년 6월 5일.; 「新興農村欄/大同郡 斧山面 中二里 矯風會」 『농민생활』, 1930년 5월.

508) 「절제회로 저축하여 소비조합 창립」 『동아일보』, 1931년 2월 13일.

509) 「금주로 모인 돈 七千七百여원 만 三개년반동안에」 『조선중앙일보』, 1932년 1월 18일.; 「平壤禁酒貯組」 『동아일보』, 1931년 8월 14일.; 「酒草끓고 이십전 저금 二十만원 회사 창립」 『동아일보』, 1932년 6월 25일.

510) 「女子節制會臨總」 『동아일보』, 1930년 10월 13일.; 손메례, 「순회강연일기 중에서」 『기독교신보』, 1928년 1월 11일.

운영하였다.<sup>511)</sup>

양덕신읍교회 소비저축조합은 수익의 1/10을 교회의 기본금으로 적립하였고, 오수교회 금연저축조합은 금연으로 모은 돈의 일부를 교회 물품을 구입하는 데 쓰기도 했다.<sup>512)</sup> 소비조합이나 저축회가 교회의 재정을 뒷받침 하는 도구로서 이용된 경우라 할 것이다.

1891년 이래 선교지 교회의 자급자족적인 경영을 원칙으로 하는 네비어스 선교정책<sup>513)</sup>이 교회의 기본적 운영 방침으로 정착되면서, 교회 유지를 신도들의 헌금에 전적으로 기대고 있는 조선교회로서는 교회 발전을 위한 경제문제를 무시할 수 없었다. 교회경제를 구성하는 것은 결국 교인 개인의 경제적 상태가 근본이 되므로 먼저 교인의 경제생활부터 향상시킬 방법을 강구해야 했다. 또, 교회 자체의 재정을 확립할 필요에 따라 이를 위한 도구로서 소비조합을 계획하기도 하였다.<sup>514)</sup>

이러한 사정에서 절약·저축회와 소비조합 등의 조직은 직접간접으로 교회의 이익을 위한 도구 즉, 민생문제 해결과 교회재정 지원이라는 두 가지 요구에 부응하는 방법으로 제시되어 설립이 장려되었다. 위의 표 이외에도 금주금연회의 설립이 많았던 만큼 기록되지 않은 절약·저축회는 훨씬 더 많았으리라 짐작된다.

한편, 금주·금연회의 소비절약운동과 절약·저축회의 활동은 피폐한 농촌의 현실을 목도한 기독교 각계에서 농촌운동을 시작하게 되면서 그 진행의 궤를 같이하며 활성화되기 시작했다.<sup>515)</sup> 몰락한 농촌과 농민들의 이산은 민족의 전적인 몰락임을 의식하고 일대 생활의 절제를 단행하자는 조선일보의 주장처럼 농촌운동과 절제운동은 뗄 수 없는 관계였다.<sup>516)</sup> 농촌운동가들은 소비절약은 가시적인 성과가 곧바로 나타나는 반면, 농토개량, 농사법 개조, 조합설립 등은 단시간에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데, 그것에만 매달려 당장 실천해야 할 소비절약을 등한시 하는 것을 경계하고 이의 단행을 무엇보다 우선할 것을 주장하였다. 일의 우선순위를 생각해볼 때, 최소한 가정마다 떠안고 있는 빚을 절약을 통해 다소나마 줄여보자는 의도였다.

---

511) 이효덕, 「각 절제회의 사업」 『기독신보』, 1933년 7월 26일.; 「교계통신」 『기독신보』, 1934년 1월 24일.

512) 「강대상 기증 금연회에서」 『기독신보』, 1934년 11월 14일.

513) 네비어스 정책에 대해서는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기독교의 역사』 I, 기독교문사, 1989, pp. 218-225. 참고.

514) 劉載奇, 「教會發展과 經濟生活(七)」 『기독신보』, 1931년 2월 18일.

515) 기독교 농촌운동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가 참고된다. 김현숙, 「일제하 민간협동조합 운동에 관한 연구」 『일제하의 사회운동』, 문학과지성사, 1987.; 장규식, 「1920-30년대 YMCA농촌사업의 전개와 그 성격」 『한국기독교와 역사』 4, 1995.; 한규무, 『일제하 한국기독교 농촌운동』,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7.; 방기중, 『배민수의 농촌운동과 기독교사상』, 연세대학교출판부, 1999.

516) 「農村의 離散과 吾人의 反省」 『조선일보』, 1926년 11월 27일.



1925년 YMCA가 농촌사업에 착수한 이래, 장로교와 감리교가 1928년부터 총회와 연회내에 각각 농촌부를 설치하고 농촌운동을 시작하면서, 농촌운동은 농민계몽을 위한 강습회 및 수양회 개최, 농사개량, 협동조합 등 각종 조합의 조직, 농촌지도자 양성과 그 기관의 건설 등을 내용으로 진행되면서 1920년대 후반기 대표적인 기독교계의 사회운동으로 자리 잡았다.<sup>517)</sup>

감리교는 1928년 연회내에 농촌부를 설치하고 ‘폐폐한 농촌을 구제’하기 위한 농촌운동을 진행시켰다. 미감리회는 1928년 연회 안에 농촌부를 두기로 하고 초대 총무로 공주에서 활약하던 윌리엄(Williams, Frank E. C.)을 임명하였다. 남감리회도 1929년 매연회에서 농촌부를 조직하고 감리교 협성신학교 교장이던 하디(Hardie, Robert A.)을 농촌부장으로 선출하였다.

감리교는 1929년 연회에서 농촌부와 절제부가 각각의 활동을 연합하여 진행시킬 것을 가결하면서 절제운동은 이 시기 농촌운동과 자연스럽게 병행되었다.<sup>518)</sup> 감리교는 각 교회에 부임하는 담임자마다 교회에 소비조합을 비롯한 각종 조합을 설치할 것을 당부하였는데<sup>519)</sup>, 이와 관련하여 충북 연풍지방연합회에서는 지역 내 각 교회에 소비조합을 조직하고 있다.<sup>520)</sup>

엠플청년회도 “경제의 파멸을 당하고 살길이 막연한 우리로써 실업에 주목치 안 이할 수가 업는 오늘날이라”는 자각 속에 “별업을 소개하고 산업을 권장하고....소비조합을 조직함으로써 경제의 새 길을 기도하는” 중에 농촌사업과 금주운동을 2대 사업으로 선정하고 농촌운동과 절제운동을 병행하여 추진하면서 경제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다.<sup>521)</sup>

장로교는 1928년 총회 산하에 농촌부를 두고 농촌운동을 교단의 공식적인 사업으로 추진하였다. 초대 농촌부장에는 정인파가 취임하여 1931년까지 담당하였다. 농촌부는 ①사업전문가 초빙 ②기관지 발행 ③모범농촌 설치 ④농학교 설립 등을 결정하고 각 노회 및 교회 단위의 농촌부 조직과 실행을 추진하였다.<sup>522)</sup>

조만식을 중심으로 하여 숭실전문학교 졸업생들로 구성된 기독교농촌연구회도 1928년 후반 결성되면서 장로교의 농촌사업은 교단 농촌부와 이 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기독교농촌연구회는 크게 ①조선농촌에 대한 일반문제의 연구 ②기독교주의적 농촌사업의 실현 ③회원 양성과 실제사업에의 투신 등을 목표로 했는데,

517) 기독교계의 농촌운동에 대해서는 장규식, 「1920-30년대 YMCA 농촌사업의 전개와 그 성격」 『한국기독교와 역사』 4, 1995.; 한규무, 『일제하 한국기독교 농촌운동』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7. 참고.

518) 『예수교미감리회 조선연회록』, 1929.; 『南監理教會朝鮮每年會第13會會錄』, 1930.

519) 『예수교미감리회 조선연회록』, 1930.

520) 「각지교회부흥운동」 『기독신보』, 1931년 1월 21일.

521) 『남감리교회조선매년회회록』, 1929.

522)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대十七회회록』, 1928.

궁극적으로 추구한 것은 농민층의 경제적 자립에 기초한 ‘예수촌’의 건설이었다.<sup>523)</sup>

장로교의 농촌운동은 농민의 정신적·도덕적 각성을 특히 중요시하였다. 농촌폐폐의 원인을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문화적·도덕적 몰락과 연결시켜 인식하면서, 이를 타개할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위한 소비절약과 도덕적 타락에 대한 대책으로 금주, 단연, 폐창의 절제운동을 제시하고 있다.<sup>524)</sup> 술, 도박, 담배 등을 금지하고 소비를 줄여 그 비용으로 공동농사 경영을 구축하거나 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들의 합리적 생활로의 개선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사업을 도모해가면서 절제운동과 농촌운동은 그 맥을 같이 하게 되었던 것이다.

금주·금연회 결성→ 금주금연 비용의 저축, 소비절약의 단행→ 저축회, 저금조합 설립 → 공동농사 경영, 토지구매, 공동사업 도모 등의 단계를 거치면서 절제운동과 농촌운동, 조합운동은 병행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저금·저축조합 및 소비조합의 조직은 국가적 보호정책을 기대할 수 없는 식민지 상황에서 나타난 경제적 자구책의 하나였다. 절제운동이 민간차원의 협동조합운동의 하나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금주·금연을 통해 저축회를 조직하고 이것을 자본으로 삼아 사업을 도모하는 것은 종교조직을 이용한 자본유통의 방안이며 절제운동을 경제적 식산운동으로 확산시킨 경우라 하겠다.<sup>525)</sup>

## 2) 실천 가능한 자구책으로서의 소비절약론

192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조선 경제는 식민지 자본주의 체제속에 완전히 편입되는 가운데, 세계적 경제공황의 영향을 받으며 급속도로 몰락해갔다. 절제운동에서 경제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저축회, 소비조합 설립까지 전개한 것은 이러한 사정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식민지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확립되는 가운데 농촌이 몰락하고 비정상적인 경제구조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 부딪혔을 때, 본질적인 구조개선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조선인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란 그다지 많지 않았다. 경제적 파탄을 맞이한 당시 조선에서 민중이 할 수 있는 일은 우선적인 절약밖에 없었다.

523) 劉載奇, 「예수촌 건설의 삼대리론(三大理論)」 『農民生活』 3권 9호, 1931년 9월.

524) 崔允鎬, 「朝鮮農村의 沒落과 예수敎人の 使命」 『宗教時報』, 1935년 3월.

525) 오미일, 「1910-20년대 평양지역 민족운동과 조선인 자본가층」 『역사비평』 1995 봄, pp. 298-299.; 오미일, 「평양지역 조선인자본가들의 조합 조직과 공업 발달」 『韓國史研究』 137, 2007.

기독교인들은 경제적 어려움이 “정치덕 보호가 불근실” 한 데에서 기인한 것이지만,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개인 스스로 근면·절검함으로써 자신의 생활을 자기가 경영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보았다.<sup>526)</sup>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경영하고 경제문제와 긴밀히 연결되는 실업교육에 매진하는 것이 현실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떠올랐다.

게으름은 빈궁의 원인이므로 타도의 대상이었고, 성경에서 땀 흘리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했다는 내용이 근면, 성실의 근거로 제시되면서 개인적으로 부지런히 일하고 소비절약과 저축에 힘쓸 것과 단체적으로는 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궁핍한 경제생활에 대한 대책으로 강조되었다.

“개인으로 힘써 행할 것 몇 가지가 있다. 곧 부지런히 일할 것과 절약할 것이다. 우리의 원수는 게으름이다.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것은 성경에서 밝히 찾아볼 수 있다. 우리는 소비에 절약하여야 하겠다. 자기의 수입을 보아 지출할 것이어늘 혼히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는 가정 경리를 알지 못함이다. 조선민족의 7.8할은 남에게 빚을 졌다. 이 빚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는 마르고 뼈는 쇠하여진다. 그래서 우리의 살던 집은 채귀가 점령하고 우리의 갈던 밭은 아지 못하는 자에게로 돌아가고만다. 물론 주위와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빚을 지고 유리표랑하게 하였지만 그중에서도 우리의 절용절약이 있었더라면 이런 참경에는 빠지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된다. 단체로서 가난을 막을 길은 오직 조합운동이다. 조선의 피폐된 농촌을 부활시키려함에는 산업운동을 힘써야 할 것이요 이 운동을 하려 함에는 각 사람이 서로 붙들고 서로 돕는 협동적 정신 아래서 보조를 일치하여야 될 것이다. 한사람의 힘보다 열사람의 힘을 합하면 더 큰 힘이 생길 것이요 능률도 더하여질 것이다. (중략)

우리들의 이제로부터 밭을 길은 조합운동이다.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하여 협동과 봉사의 정신 아래에서 생산조합, 소비조합을 조직화하여 이 길로 빨리 달음질하자 우리의 살길은 오직 이 길 뿐임을 말하여 둔다.”<sup>527)</sup>

현실적인 고통에서 무력하게 비관할 것이 아니라, 활로를 구축해야 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 절약과 조합 설립의 협동, 단결이었다. “우리 조선교회는 속히 경제구제책을 강구하여야 하겠다”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조합 활동 시행을 제안하는 것은 현실경제문제 인식에 따른 나름의 대책이었다.<sup>528)</sup> 소비절약은 개인에게는 경제수지생활을 영위하는 것이요, 나아가서는 민족경제를 수립하자는 것이었다. “살기를 그만 두기로 하면 모르거니와 살려고 한다면 수지를 맞추어 생활방침을 세워야 할 것”이었고, 절약은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리

526) 「사설: 엇저면잘살가」 『기독신보』, 1925년 9월 2일., 「사설: 엇저면잘살가(二)」 『기독신보』, 1925년 9월 9일.

527) 「사설: 貧窮의 原因과 그 對策(하)」 『기독신보』, 1928년 3월 28일.

528) 田致杻, 「경제생활의 궁핍과 교역자 결핍」 『진생』 5권 7호, 1929년 9월.

고 할 수밖에 없는 구제책이었다.<sup>529)</sup>

평양의 대표적 자본가이자 기독교계의 중진이었던 김동원은 “정치적 배경을 가지지 못한 우리 조선인은 구태여 위정자에게 희망할 것이 아니라 민족적으로 경제적인 대단결을 만들어서 이 결함에서 구출케 함이 가할 것”이라고 협동운동의 필요성과 조합의 중요성을 피력하였다.<sup>530)</sup>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절약의 강조는 경제문제에 적극 나서는 것을 교회의 사명으로 간주하면서 비롯된 것이었다. 기독교인들은 조선민족의 사활이 교회의 역할에 달려 있다고 보고, 교회의 사회적 사명을 깊이 인식할 것을 주장하였다. ‘빵을 구할 것인가 영혼구원에만 집중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는 것은 ‘불구가 된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라면서 교회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순결하게 완성해야만’ 한다고 하였다.<sup>531)</sup>

“우리는 금일 사회문제 대하여 여하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 묵하 조선은 경제적으로 과산을 당하여 일부일이익을 향하여 정치없이 가는 자가 그 통계를 아지 못할 만큼 많은 것이 사실이 아닌가 그러한데 날마다 늘어가는 것은 주조가 음주점이며 일반을 통하여 생산보다 소비가 많으며 ..... 노동자는 땀을 흘려가며 10시간 이상 노동을 하고도 최저의 소득을 받아 능히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되 동정하는 자가 없으며 남북만주를 향하여 가는 자에게는 보호하는 자가 없도다 아 우리는 육적 구원에도 착안하여야 하겠다. 우리는 모든 불합리한 것을 제거하여야 할 것이며 생을 위하는 건설적 사업에 착수하여야 할 것이다.”<sup>532)</sup>

기독교가 영적 구원 못지않게 육적 구원에도 노력하여야 하는 것이 사회적 책무라고 할 때, 악화된 경제상황으로 교회의 사명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리고 교회의 사회운동은 정신운동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지 사회운동이 필요”하다고 인식되었다. 예수가 빈자와 병자에게 동정을 베풀고 주린 자에게 먼저 먹을 것을 준 뒤 천국복음을 가르쳤다고 하여 민중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점점 강하게 대두되었다.<sup>533)</sup>

김준성은 경제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종교는 쇠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경제적 토대가 변화하면 종교적 구조도 변화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경제문제 해결에 교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534)</sup> 채필근은 지식이 늘고 사회가 변화하면서 신앙과 경제문제를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활동으로 여기고 동시에 추구하는

529) 조만식, 「토산애용의 근본문제」 『농민』, 1933년 6월.

530) 金東元, 「경제협동을 조직하자」 『동아일보』, 1928년 1월 1일.

531) 劉載奇, 「教會發展과 經濟生活(七)」 『기독신보』, 1931년 2월 18일.

532) 李舜基, 「社會問題와 基督教」 『기독신보』, 1927년 7월 27일.

533) 「사설: 教會의 社會的 使命」 『기독신보』, 1928년 6월 27일.

534) 김준성, 「基督教과 經濟問題」 『신학지남』 12권 1호, 1930년 1월.

것이 당연한 일이고, 따라서 교인들이 저축계와 소비조합을 설립하며, 생산기관을 설립하여 영리사업을 도모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하였다.<sup>535)</sup> 한익수는 교회가 사회사업에 힘을 쏟지 않는다는 비판을 듣는 것도 모두 재정상 여유가 없는 데서 비롯된 것이니만큼, 조선교회가 빈민·고아·장애인 구제와 문맹퇴치 등의 사회사업에 공헌하기 위해서라도 교회의 기본금을 적립하기 위한 재정의 확보는 교회의 존립이 달린 중요한 사안이라고 했다.<sup>536)</sup> 그 방법으로서 제시한 것이 소비조합이었다. 이를 통해 교회의 단합력을 장려하고 직접간접의 이익과 효과를 기대한 것이었다.

조만식은 기독교청년이 담당해야 할 일 중에 경제운동을 제일 급선무로 꼽고 구체적인 사업으로 조합운동, 물산운동을 통한 製産과 자작자급, 금주단연과 소비절약의 절제운동, 농촌운동을 거듭 강조하였다.<sup>537)</sup>

이제 교회의 경제운동은 “적극적으로는 농촌진흥운동과 소극적으로는 소비절약운동”이라는 표어로 대변되며 조직적으로 장려되었다.<sup>538)</sup>

이런 맥락에서 절제운동의 실질적인 경제 역할이 강조되었다.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의 유형숙은 다음과 같이 절제운동에서 무엇보다 경제력 증진이 중요함을 역설하였다.

“경제력이 날로 감하여가는 우리 조선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할 것은 경제력을 적극적으로 증진시키며 그 다음으로 소비액이 감소되도록 피땀을 흘려야 하겠습니까.”<sup>539)</sup>

절제운동의 목적 가운데 경제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부상하였다. 이를 위해 유각경은 강연회와 선전, 피동적으로 설립되는 조직 등 막연한 선동만으로는 절제운동이 성공할 수 없다고 보았다.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철저하고 과학적·조직적인 운동이 되기 위해 전기독교인들이 연대할 것과 이를 위해 각 기관간의 유기적 연락을 취할 것을 주장하였다.<sup>540)</sup> 이용설도 절제운동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각지 교회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통일적 지도 기관을 설립할 것을 촉구하였다.<sup>541)</sup>

조선기독교절제운동회 회장이었던 채필근은 식민지배하에서의 경제운동은 물산 장려와 절약저축을 목표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535) 채필근, 「教會의 産業問題에 對하여」 『진생』, 1930년 6월.

536) 韓翊洙, 「教會財政에 對하여」 『기독신보』, 1930년 1월 1일.

537) 曹晩植, 「朝鮮 基督教學生의 態度와 使命」 『青年』, 1929년 9월.; 曹晩植, 「基督青年의 理想」 『삼천리』 9권1호, 1937년 1월.

538) 白承健, 「경제공황과 기독교(2)」 『기독신보』, 1932년 5월 4일.

539) 류형숙, 「우리의 경제력과 술」 『기독신보』, 1928년 6월 27일.

540) 유각경, 「節制運動의 合理化」 『기독신보』, 1933년 6월 28일.

541) 李容高, 「朝鮮耶蘇教會의 現在及將來」 『기독신보』, 1931년 2월 21일.

“우리가 현재 환경 밑에서라도 經濟的으로 自活할 가능성이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물론 대단히 곤란하지만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면 아조 불가능하리라고는 보지 아니합니다.(중략) 현재의 환경 아래서 生存을 위한 經濟運動의 목표는 自作自給에 있고 그 방법은 消極的으로 절약을 崇尚하고 積極的으로 貯蓄을 귀중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sup>542)</sup>

그는 간디의 검소한 생활을 예로 들면서, 조선 형편에서 양복이니 평복이니 하여 여러 벌의 옷을 두는 것까지도 비판하면서, 경제운동의 목표를 자작자급에 두고 소극적 방법으로 절약, 적극적 방법으로 저축을 현재 할 수 있는 경제운동으로 꼽고 있다. 이것은 꾸준히 시행한다면 비록 오랜 시간이 걸릴지라도 무조건적 탄압이나 멸시에는 대항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 가운데 내놓은 현실타개책이었다.

절약저축의 일환으로 그는 소비조합의 설립을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그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제일 첫 번으로 농촌에서는 소비조합 같은 것을 설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동네에서 자금을 조금 모집하여가지고 소비조합을 만들어서 자기네가 소비하는 물품을 사다가 두고 사용하여 또 조합원 이외 사람에게는 상당한 값에 판다고 할 것이면 대단히 유익할 것이다. 이 소비조합은 서양에서 생겨가지고 세계적으로 퍼진 현상이어니와 현금에는 서양 각국과 동양 선진국에서는 수없이 생겨서 조합원이 전국민의 반수 이상에 도달한 나라가 많아졌다고 한다. 또 그밖에 할 수 있으면 생산조합도 세워가지고 특별히 부인들의 노동과 겨울동안에 부업적으로나마 생산을 한다면 다소간 보조나마 될 수 있을 것이다. 좌우간 생산조합이고 그 외 다른 것이고 그런 사업을 하는대는 상당한 식견도 필요하고 피차간에 단결력이 있어야되나니 우리는 각 방면으로 노력하여 우리의 살길을 우리가 개척하여보아야 할 것이다. 경제덕피초를 튼튼하게 세워놓는 것이 모든 문화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도건이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sup>543)</sup>

소비조합은 생활에 필요한 소비품을 저렴하게 구매하여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점에서 가장 손쉽게 착수할 수 있는 방편이었다. 이는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살 길을 개척하는 방법이었다. 경제문제에 대한 근본대책에 대해서는 ‘말할 여건이 되지 못하지만 현재도가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제시된 스스로의 대책이 조합을 조직하여 중간이윤을 찾는 것이었다.<sup>544)</sup>

조합운동은 생활을 과학화, 사회화 하는 데 필요한 실제운동으로 간주되었다. 생활문제, 소비·노동·인권·인구·범죄문제 등 모든 사회생활은 양심과 정의가 기본이

542) 蔡弼近, 「朝鮮人の 經濟的 活路」 『동광』 31, 1932년 3월.

543) 채필근 「조선교회의 나아갈 길」 (하) 『기독신보』, 1928년 2월 15일.

544) 咸尙勳, 「農村經濟와 農民問題(七)」 『기독신보』, 1931년 2월 11일.

되는 민중의 사회의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각종 조합의 조직은 이를 실제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여겨졌다.<sup>545)</sup> 그것은 “基督敎의 眞理로서 社會的 生活의 唯一愛的 施設을 필요로 한다면 協同組合인 운동과 그 실현”이라 하여 기독교가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실시할 의무로 간주되었다.<sup>546)</sup>

절약저축회, 금주회를 기초로 개교회의 청년회, 부녀회 중심으로 설립된 조합은 소비조합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YWCA,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 지회 등에서 초기에 시작하는 조합도 대부분 소비조합이었다. 특히 농촌의 몰락상황을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문화적·도덕적 타락에도 원인이 있다고 보아 절제적 생활로의 개선과 모범적 이상촌 건설을 목적으로 절제운동과 농촌운동의 유관성을 보여주는 장로교에서 조직한 단체도 대개는 소비조합이었다.

이것은 소비조합이 협동조합 가운데 가장 설립이 용이하고, 금주금연 및 소비절약을 통한 저축에서 발전하여 가시적인 성과 및 효과를 단기간에 볼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이었다.

소비조합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민중의 최저 생활을 지탱하는 데 있었다. 따라서 물건의 염가 구매와 분배를 통한 절약이 우선시되었다. 민중의 최저 생활을 위해 조직한 것이기 때문에 출자금은 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빈민을 기준으로 삼아 가장 적은 자본으로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소비조합 경영이 일천하고 단체적 경험이 박약한 조선에서는 조합을 조직할 때 소규모로 할 것과 자본 축적을 위한 저축의 실행이 선결조건으로 손꼽아졌다. 더불어 ‘특출한 개인’ 즉, ‘무자각한 유산자’를 신뢰하지 말 것도 당부되었는데, 한 사람의 전횡을 우려한 때문이다. 일반의 여러 소비조합들이 자본가들에 의해 독식되면서 소비조합의 기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경계한 듯하다.<sup>547)</sup> 조합원들만의 영리취득 목적의 기존 소비조합은 소비조합이 애초 추구하는 정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일인당 출자 구수를 균일하게 한정하고 빈민층 대상의 최저액 투자가 권장되었다. 또 이익금은 출자금에 따른 것이 아닌 상품매입에 따라 배당하는 로치델식을 지향했다.<sup>548)</sup> 혹은 개인별로 이익을 배당받지 않고 적립금, 배당금, 교육비 세부분으로

545) 정재윤, 「생활문제의 사회적 의의」 『농민생활』, 1930년 9월.

546) 劉載奇, 「産業組合 이야기(1)」 『기독신보』, 1935년 1월 1일.

547) 李基台, 「産業信用組合의 意義와 그의 實際」 『청년』, 1928년 9·10월.; 류재귀, 「소비조합이란 것이 무엇인가?」 『農民生活』, 1929년 11월.; 劉在基, 「예수촌건설의삼대리론」 『농민생활』, 1931년 9월.

548) 로치델조합은 1844년 영국 랭커셔(Lancashire) 지방 로치델의 직조공장원 28명이 ‘로치델, 정의 개척자’(The Equitable Pioneers of Rochdale Society of Equitable Pioneers)란 명칭으로 설립한 소비조합이다. 소비조합을 확산·발전시킨 시조이자 모델로 평가받았는데, 이 조합의 성공 원인은 첫째, 현금 판매, 둘째 市價판매, 셋째, 시가판매에 의해 발생한 이익을 구매고에 따라 배당한 것이었다. 특히 각 조합원의 구매액에 비례한 분배가 로치델조합의 지속적 성장 운영원리였다. 배당금은 개인적으로는 가계의 보조금 내지 저축으로 이용되었는데 이 점은 소비조합의 개인주의적

나누어, 야학이나 강습회, 농업학교 경영 등 공동사업에 쓰기도 했다.<sup>549)</sup>

소비조합은 경제적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고, 자본주의 제도와 권력에 대응하는 도구로 인식되었다. 생산자의 이익 획득이 가장 중요시되는 자본주의 시대에, 이에 대응하는 소비자의 권리 찾기의 방법으로서, 무산자가 자본가에게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힘으로 간주되어 그 설립과 운영이 장려되었다. 때문에 노동자가 자본가에게 대항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조직하듯이, 소비자도 생산가에게 대항하여 소비자 운동을 벌이고 단체를 조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졌다. 특히, 특별히 자금이 없어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조합이 주목되었다. 소비조합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되면서, 백화점, 소매점, 독점생산 기관 같은 자본주의 조직이 휘두르는 권력과 횡포에 대항하기 위해 소비조합 내에서 자체적인 생산을 도모할 것과 각 소비조합끼리 연합할 것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었다.<sup>550)</sup>

그런데, 소비조합이 자본주의 권력에 대응하는 도구이자 소비자 권리를 찾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조직적 쟁의나 사회주의계에서 이루어지던 투쟁방식을 지향한 것은 아니었다. 기독교가 내세우는 비폭력주의, 도덕주의와 같은 종교적 신념체계는 과격한 방법을 지양하면서, 소비조합운동은 합법적이고 온건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기독교 소비조합은 단순 영리 목적이 아니라 이상적 사회건설을 위한 기초로서 상정되었다. 세상을 살리는, 민중의 최저생활을 위한, “아름다운 새 생활을 이루는 가장 적은 한알의 계자씨”가 되는 것이었다. 때문에 개인주의적 이기심은 경계되었고 이익보다는 화합이 중시되었다.<sup>551)</sup>

강경여자기독교청년소비조합의 예처럼 유치원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거나 조합원 훈련·교육, 유산자의 전횡 금지 등은 여타 대다수의 소비조합들이 목적과 개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단순한 할가판매 정도에 머물다 사라져버린 것과 비교된다.

1920-22년 사이에 전후 공황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에 대처하기 위해 각 지역 유지·청년들의 발기로 조직되었던 대부분의 초창기 소비조합들은 지도적 이론과 기술의 부족, 탄압 등과 아울러 소비조합내의 계급간 이해가 불일치하여 대립하면

---

측면으로 비판받기도 했다. 이에 로치텔조합은 처음의 분배원칙을 수정하여 잉여금의 2푼 5리를 교육에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이외에도 도서관, 병원, 양로원 등의 공공시설에 투자하여 소비조합의 사회적 공공성을 높일 수 있었다. 조선물산장려회에서 조직을 시도했던 조선물산경성소비조합도 바로 로치텔조합을 모델로 한 것이었다. 林元根, 「消費組合運動의 現勢와 意義」 『삼천리』, 1931년 10월.; 오미일, 앞의 책, pp. 480-484.

549) 홍병선, 「사설, 소비조합」 『농촌청년』, 1929년 12월.; 홍병선, 「農村經濟의 組織」 『청년』, 1930년 9월.

550) 이기태, 「소비조합에 대하여」 『농촌청년』, 1930년 5월.

551) 류재귀, 「소비조합이란것이 무엇인가?」 『農民生活』, 1929년 11월.



서 더 이상의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해체되었다.<sup>552)</sup> 다음의 글은 초기 소비조합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채 운영되다가 흐지부지 되었던 현상을 보여준다.

“朝鮮에 협동조합운동이 일어나기는 己未年 3.1운동 이후일 것이다. 명칭은 協同組合이라 하였으나 소비조합 혹은 무슨 상회의 이름으로 협동조합이 많이 이러났다. 이것은 온갖 사조가 朝鮮에 새로 밀려들 때 우리도 합리적으로 소비를 하여 될 수 잇는대로 우리의 경제를 회복하자 하였음에 그 운동의 동기가 되었었다. 따라 그 조직형태에 있어서는 반드시 現今과 같은 가령 一人一口主義 利用高에 依한 配當 그런 것들이 분명하지 못하였었다. 그리하여 舉皆는 大正 9년의 대공황과 아울러 어떤 개인의 상점으로 化하거나 혹은 不正한 理事者의 손에 도산되거나 하였다”<sup>553)</sup>

이러할 때, 절약의 생활을 기초로 하여 조직된 기독교계 소비조합은 규모가 크지는 않았지만, 소비조합의 기본 원칙에 충실하고자 했다.

같은 맥락에서 소비조합은 그리스도의 박애를 실현하는 길로 이해되었다. 유재기는 세계평화는 소비조합운동에서 실현될 것이라는 국제소비조합연맹의 구호를 인용하면서, 소비조합을 “약자를 돕는 기구”로서 이해하고, “개조의 길을 밟고 새사회를 이루어가도록” 노력하여 “기독의 사랑을 소비조합으로 하여곰 실현식히자”고 주장하였다. 그는 소비의 참뜻은 개인 폭리의 이기주의적 생존경쟁이 아니라, 이상농촌 건설이라고 보았다.<sup>554)</sup> 소비조합은 당장의 경제적 이익이나 조합원간의 단결강화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장으로 설정되었다. 이대위도 조합운동이 표면적으로는 물질운동이지만 간접적으로는 기독교도의 정신을 실현하는 유일한 표증이라 하였다.<sup>555)</sup>

또한, 소비조합은 사치품을 취급하지 않고 조합원의 생활에 필요한 일용품을 위주로 “절제적이고 검소적으로 하여 허비에 쓰지 안토록 할 것”이 원칙이었다. 술, 담배, 화장품 등은 조합의 구매품목에서 제외되었다.<sup>556)</sup> 노름과 허례허식도 조합에서 금지시키는 사항이었고 풍속을 개량하는 일도 과제로 당부되었다.<sup>557)</sup>

이는 소비조합의 건실한 운영을 통해 도덕적인 타락까지 방지하려는 목적을 엿볼 수 있는부분으로서 소비조합의 절제운동적 성격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하겠다.

---

552) 김현숙, 「일제하 민간협동조합 운동에 관한 연구」 『일제하의 사회운동』, 문학과지성, 1987, pp. 208-215.

553) 咸尙勳, 「朝鮮協同運動의 過去와 現在」 『동광』, 1931년 7월.

554) 유재기, 「農村消費組合의 組織法」 『기독신보』, 1929년 7월 10일.

555)李大僞, 「今日朝鮮의 基督敎會와 協作運動」 『진생』 4권 8호, 1928년 12월.,

556) 유재기, 「農村消費組合의 組織法」 『기독신보』, 1929년 7월 3일.; 「農村消費組合의 組織法(三)」 『기독신보』, 1929년 7월 17일.; 「農村消費組合의 組織法(七)」 『기독신보』, 1929년 8월 7일.

557) 홍병선, 「農村事業의 眞意(十五)」 『기독신보』, 1930년 4월 9일.

소비조합은 경제문제 해결 기구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 혹은 도덕적 지도기관의 역할까지 감당해야 했던 것이다.

소비조합의 정신적·도덕적 역할이 중시되면서 소비조합을 통한 경제적 이익도 중요했지만, 훈련과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기독교인들은 농촌금융이 결핍되고 농가가 몰락하는 상황에서 상호부조의 공동시설을 위해 조합이 발생한 것이라 생각했다. 때문에 신용·구매·판매·생산·이용조합 등의 다양한 형태 가운데, 어떠한 조합을 조직할 것인지 보다는 조합원의 신용과 조합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중요시하였다. 여기서 훈련과 교육은 조합운영에 대한 교육과 아울러 근면, 성실, 정직 등의 인격적 자질을 가리킨다. 건전한 인격의 함양과 완성이 조합원, 특히 지도자의 자질로 부각되었다. ‘신입할 만하고 희생정신과 양심있는 지도자’가 요구되었다.<sup>558)</sup>

이렇듯 소비절약의 강조는 현실적 절약의 필요성과 기독교의 ‘육적 구원’에 대한 책임감에 대한 각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 방법의 일환으로 제기되고 실천된 소비조합 조직과 운영은 민중의 최저 생활을 지탱하기 위한 경제불황 타개의 방법이자 자본주의 제도 및 권력에 대응하는 도구로 인식되었다. 또한 단순한 영리 추구의 목적보다 이상적 사회건설을 위한 기초로 사정되면서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장으로 설정되었다. 이에 술, 담배, 사치품의 취급이 배격되고 운영과정에서 근면, 성실, 정직 등의 인격적 자질과 훈련, 교육이 강조되었다.

기독교인들은 절약이 경제 파탄의 적극적인 대책이 되지 못함을 스스로도 익히 알고 있었다. “빈궁은 근대문화의 가장 큰 해독이요 방해물”인데, 이것이 대부분 “사회제도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sup>559)</sup> 다만 그 해결책을 사회구조를 전복시킴으로써가 아니라, 교회의 극빈자 구제활동과, 이를 예방할 현실책을 찾는 데 두었던 것이다. 소비절약과 조합조직은 소극적이지만 현실적인 방법으로 나타난 것이었다.

## 2. 생활개선운동의 전개

### 1) 생활개선운동의 전개와 내용

1920년대 후반 경제적으로 몰락한 조선을 구제할 자구책으로서 소비절약과 농촌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소비절약과 조합설립의 움직임은 합리적인 소비를 통해 생활을 개선하는 문제로 이어졌다. 절제의 범위와 내용이 더욱 확장되면서 생활 진

558) 유재기, 「農村消費組合의 組織法」 『기독신보』, 1929년 7월 10일.

559) 「社會問題에 對한 基督教의 態度를 再考함」 『기독신보』, 1926년 2월 24일.

체를 절제·개선·개량하는 것이 절제운동의 사명으로 떠올랐다.

“교회로서 사회의 모든 상태를 볼 때에 하나를 지적하여 개량하여야 하겠다는 것보다 통틀어 일반 모든 것을 다 개량치 않으면 안되리만큼 되어있다. (중략) 개인의 인격이 파멸되고 가정이 불화하여 사랑없는 지옥을 이루며 사회의 질서를 문란케 하여 모든 인류가 아울러 패망의 길을 밟게 되는 것은 절제의 생활을 하지 못함으로써다. 절제의 생활이라면 술을 아니 마시는 것이나 담배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글자의 의미와 같이 모든 생활에 존절치 못하고 규범에 어그러지는 모든 행동을 다 개량하는 것이 절제운동의 사명이라 하겠다. 그런즉 공사창폐지 극치의 호화로운 생활방지 상혼간에 비용많이 들이는 폐해 도박, 오락에 너무 치중하는 것 음일 방탕한 모든 것을 우리는 규탄하고 그림자까지 끊어버리기 위해 힘쓰자.”<sup>560)</sup>

이제 절제운동은 금주금연에서 나아가 공창폐지, 소비절약, 사치·오락의 금지에 이르기까지 생활전체를 개선하고 절제하는 것으로 절제의 의미와 범위가 확장되었다. 금주금연에 국한된 생각은 “일종의 협애한 해석으로 된 편견”으로서, 절제의 의미는 “우리생활의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되었다.<sup>561)</sup>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는 여성으로서, 주부로서 가정생활의 개선방안에 대한 글들을 『기독신보』의 절제회통일순서의 강연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였다.<sup>562)</sup> 백의 폐지와 색의장려는 시간과 노력의 절약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적극 장려되었다. 한편, 위생적 측면에서 색의가 백의보다 못할 수 있으니 동정은 꼭 흰 것으로 달 것, 조선남녀의 복장은 소매와 통이 넓어 옷감이 많이 드니 폭을 줄여 절약함과 동시에 간편함을 추구할 것, 음식물 위생에 유의할 것 등 전반적인 가정생활의 합리적 위생적 경영이 강연의 내용을 이루었다. 비단옷, 핸드백은 배제하고 검소한 옷차림도 당부되었다.

감리교는 지역 교회에 청년들의 위한早起會, 庭球會의 설치와 여성을 위한 가사연구회, 針工구락부, 영아양육회, 모친회 등의 단체 설립을 장려하고 순회강연단을 조직하여 ①공중과 개인위생 ②금주금연 ③상공업을 잘할 방법 등의 내용으로 각지 교회에서 강연회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펼쳤다.<sup>563)</sup> 연회 절제부는 토산물 애용·염색의 장려, 미신파타, 혼례·장례 비용의 절감을 사업내용으로 정하고 이의 실천을 결의하고 있다.<sup>564)</sup> 감리교 홍성읍교회에서 소년절제회를 조직하고 새벽마다 일찍 모여 체조, 기도회, 공부 등 규칙적 시간표에 따른 생활모습을 보이고 있

560) 「사설:教會와 節制運動」 『기독신보』, 1931년 8월 26일.

561) 정현숙, 「夏期와 節制」 『기독신보』, 1934년 7월 25일.

562) 이효덕, 「내가 할 일」 『기독신보』, 1934년 3월 28일.; 金炳圭, 「절제회진흥방침」 『기독신보』, 1934년 11월 28일.

563) 『南監理教會朝鮮每年會第8會會錄』, 1925.

564) 『南監理教會朝鮮每年會第13會會錄』, 1930.

는 것도 이러한 결의의 결과로 조직된 예이다.<sup>565)</sup>

감리교는 1931년 ‘교회내의 정치 경제 농촌사업 포함 도덕과 사교 개선을 도모’ 하고 각종 자선사업과 야학, 절제운동을 유지하고 확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연회 안에 사회사업국을 설치하였다. 사회사업국을 산하에 절제부, 농촌부, 도시사회사업부를 설치하여 색의장려, 婚喪에 대하여 허례와 사치와 도박 금지를 각 지방 절제부에서 실행케 하였다.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각 지방회에도 사회사업위원을 선정하여 연회본부와 연락하도록 했다.<sup>566)</sup> 1932년에 이르면 감리교 총회는 절약, 저축, 미성년금주운동, 공창폐지운동을 촉진하는 결의를 다지는 가운데, 사회사업국 산하의 절제부, 농촌부, 도시사회사업연맹부 가운데 절제부의 보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절제운동의 비중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sup>567)</sup> 1933년부터는 사회사업국이 농촌부와 도시부로 간결해지면서 정춘수, 최활란, 김창준과 윌리엄, 올리버를 진행방침 연구위원으로 위촉하고 4개년 계획으로 생활개선운동에 적극 나서게 된다. 그러면서 일련의 사회사업과 생활개선이 어디까지나 기독교적 신앙에 기초해야 할 것을 분명히 하였다.<sup>568)</sup>

같은 해 기독교주의의 이상사회 건설을 위한 감리교의 대사회적 입장과 교회의 의무를 밝힌 사회신경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서 ‘인권을 시인하여 공사창제도 기타 인신매매의 여러 가지 사회제도를 반대함을 당연함을 믿음’ ‘심신을 폐망케 하는 주초와 아편의 제조판매사용을 금지함이 당연함을 믿음’ ‘빈궁을 감소하게 함과 산업을 진흥케 함을 믿음’ ‘허례와 사치와 오락으로 금전과 시간을 낭비함을 사회에 대한 죄악임을 믿음’이라 하여 절제운동을 신자의 대사회적 책무로서 다짐하고 있다.<sup>569)</sup>

565) 「홍성지방」 『감리회보』, 1933년 1월.

566) 『감리교 교리와 장정』, 1931.

567) 『예수교미감리회 조선연회록』, 1932.

568) 『중부年會』, 1934.; 『서부연회』, 1934.; 『2회 총회』, 1934.; 『3회총회』 1938.

569)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류의 동등권리와 동등기회를 믿음
2. 인종과 국적 차별철폐를 믿음
3. 가정생활 원만을 위하여 일부일처주의의 신성함을 믿으며 정조문제에 있어서 남녀간 차별이 없음을 믿으며 이혼의 불행을 알아 그 예방의 방법을 강구실행함이 당연함을 믿음
4. 여자의 현대지위가 교육 사회 정치 실업 각계에 잇어서 항상 발달하여야 될 것을 믿음
5. 아동의 교육을 받을 천부의 권리를 시인하여 교육에 힘쓰고 아동의 노동폐지를 믿음
6. 인권을 시인하여 공사창제도 기타 인신매매의 여러 가지 사회제도를 반대함을 당연함을 믿음
7. 심신을 폐망케하는 주초와 아편의 제조판매사용을 금지함이 당연함을 믿음
8. 노동신성을 믿고 노동자에게 적합한 보호와 대우를 함이 당연함을 믿음

한편, 농촌운동과 절제운동이 상호 협력하는 가운데 전개되면서, 농촌운동에도 생활개선문제가 집중되었다. 감리교 여자신학교 교수직을 버리고 농촌운동에 투신했던 조민형은 “조선농촌의 구원은 기독교로부터”라고 주장하면서 그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피력했다.

“朝鮮의 基督教은 이제 奮發하여 經濟的으로 敗亡한 農村을 救濟하기 爲하여 道德의 觀念을 涵養시키며 이로 말미암아 相互間 信義를 굳게 지키며 男女의 風氣가 紊亂함이 없고 모든 濫費를 除去함으로써 瘡痍을 瘳아야 할 것이다”<sup>570)</sup>

조선농촌의 구원은 기독교가 담당해야 할 부분이었고, 그 방법은 도덕관념의 함양, 신의, 남녀 풍기 문란 근절, 낭비 제거 등의 도덕적·정신적 생활개조 및 개선이 우선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실제 농촌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동경작, 공동구입과 공동판매와 아울러 금주금연, 조합설립을 모두 아울러 조선농촌의 살 길로 제시하였다. 또, 직접 김포 걸포리에 산업저축계를 조직하고 공동경작과 조합운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도, 금주금연, 소비절약을 실천하였다.<sup>571)</sup>

또한, 감리교는 농촌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사전에 농촌교인의 생활 상태를 우선 조사할 것을 제안하는데, 조사 항목으로는 가족 수, 농작지 면적, 자·소작 여부, 농작물의 종류, 부채와 저축 등의 경제 상태였다. 그런데, 이와 아울러 근대식 화장실 설치, 깨끗한 우물, 문과 창 의 통풍 정도, 술과 담배의 1년간 소비량, 구역내 조합 설치의 유무도 조사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것을 제안한 것은 경제력 제고와 아울러 전반적인 생활의 개선을 통한 ‘고등생활’로의 상승을 목적했기 때문이었다. 선교사 윌리엄은 교인의 생활 상태를 고등·중등·하등 생활자로 구분하고, 자작농으로서 부채가 없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며 청결한 우물과 근대식 화장실을 갖추고, 교회신문이나 일반신문을 구독하며 교회나 사회단체에 연보할 능력이 있는 자를 고등생활자로 구분하고 이를 표준으로 삼아 중등·하등생활을 개선하고 고등생활로 끌어올릴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sup>572)</sup> 농촌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9. 정당한 생활유지의 노임과 건강을 해하지 않을 정도의 노동시간을 가지게 함이 당연함을 믿음

10. 7일중 1일은 노동을 정지하고 안식함이 필요함을 믿음

11. 노동쟁의에 공평한 중재제도가 있음이 필요함을 믿음

12. 빈궁을 감소하게 함과 산업을 진흥케 함을 믿음

13. 허례와 사치와 오락으로 금전과 시간을 낭비함을 사회에 대한 죄악임을 믿음. 『監理敎 敎理와 章程』, 기독교조선감리회총리원교육국, 1931.

570) 趙敏衡, 「朝鮮農村의 救援은 基督教로부터」 『기독신보』, 1935년 1월 1일.

571) 趙敏衡, 「共同耕作의 實益(三)」 『기독신보』, 1928년 12월 12일.; 「朝鮮農村救濟策」 『기독신보』, 1931년 1월 21일.

방법으로서 농사개량과 아울러 근대적 생활을 추구하고 생활상태의 개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절제·절약 생활을 강조하였다.

감리교 교육국 내에 있던 신생사에서는 잡지 『신생』을 발간하면서 생활개선에 대한 계몽과 선전을 고취시켰다. 유형기가 발행인이 되어 1928년부터 1934년까지 간행된 이 잡지는 「가정부인의 직업」 「주부와 의복」 「동절의 가정위생」 「음주와 교육」 등의 글들을 게재하면서 생활개선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였다.

장로교는 먼려청년회가 농촌운동과 절제운동을 양대 사업과제로 선정하고 진행시키는 가운데 생활개선운동을 전개하는데, 여기에 평양물산장려회와 조선일보와의 연합 및 후원이 따르는 가운데,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관서지역에서 활발하게 나타났다.

먼려회는 기독교시민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생활개선운동을 실시하였다. 즉, 도시나 향촌을 망라하여 저급하는 습관을 기르게 하고 각종 조합, 농사개량, 토산물 애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일, 혼상의 허례와 사치품을 철저히 폐지하는 일, 금주운동을 통해 술과 담배값으로 개인과 가정이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일, 기독교인들이 무엇에서든지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동리의 도덕적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박장, 술집, 매춘부 등을 없애고 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純實’하고 ‘勤儉’한 사람들이 사는 동리가 되도록 할 것이 그 내용이었다. 이를 통해 기독교인은 물론 비기독교인들도 ‘양호한 시민’이 되는 동시에 자연히 ‘그리스도화한 市와 村’이 되리라 전망했다.<sup>573)</sup> 절제운동을 통해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기독교 이상사회를 건설하려 했던 것이다.

또한, 먼려회는 농촌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에도 생활개선과 소비절약을 강조하였다. 위생과 보건을 포함하여 농촌사회 전체의 생활을 개선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혼상비용의 허례를 폐지하고 가급적 50원 이내로 절약할 것, 위생과 건강상식의 보급 등을 사업방향으로 정하였다.<sup>574)</sup> 전반적으로 절약과 절제를 통한 생활의 개선과 향상을 목표로 하였다.

‘내살림 내것으로’라는 표어 아래 사치소비를 금지하면서 수입품을 배격하고 조선물산의 이용을 주장하며 운동을 전개했던 평양물산장려회도 생활개선운동에 적극적이었다. 경성의 물산장려운동이 1920년대 초반 성황을 보이다가 곧 시들해진 것과 대조적으로 평양의 물산장려운동은 조만식이라는 관서지방 민족운동계의 거두를 중심으로 하여 1930년대 이후까지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었다. 평양물산장려회는 “전세계 인류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인도정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지상

572) 윌리엄, 「農村問題에 對한 敎役者의 態度」 『신학세계』 19권 1호, 1934., 「農村敎會와 敎役者」 『신학세계』 19권 2호, 1934., 「農村敎會와 敎役者」 『신학세계』 19권 3호, 1934.

573) 안대선·이대위 著, 『勉勵會指南』, 기독교청년먼려회조선연합회, 1933, pp. 107-110.

574) 「먼려부 보고」 『조선예수교장로회 제23회 회록』, 1934년.

천국을 바라본다”라는 취지를 내걸고 창립된 평양YMCA의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여 운동의 방향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sup>575)</sup> 평양 YMCA의 조만식, 정두현, 한영길, 김동원, 오윤선, 이덕환 등이 중심이 되어 결성된 평양조선물산장려회는 발기인 77명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목사, 장로를 비롯하여 일반신도에 이르기까지 기독교계 인사들로 구성되면서 두 운동은 기독교적 성격과 지향 색채를 드러내고, 운동의 중심도 기독교 조직을 통한 것이 많았다.<sup>576)</sup> 또한, 조만식이 채필근과 공동으로 회장을 맡고 있던 조선기독교절제운동회도 물산장려회에 참여했던 인물들이 겹치면서 평양물산장려운동과 절제운동은 인적네트워크를 공유하면서 함께 진행되었다.

평양물산장려회는 출범 이후 1937년까지 매년 음력 정월의 물산장려 시가행렬 선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는데, 금주금연과 소비절약, 생활개신의 구호가 함께 연호되면서 이에 대한 강연회가 곳곳에서 열렸다. 더욱이 선전이 기독교청년면려회, 평양금주단연동맹 등과 함께 진행되면서 물산장려운동과 절제운동은 함께 이루어졌다.<sup>577)</sup>

평양의 금주단연동맹은 1928년부터 기존의 금주선전 활동에서 나아가 공동저축과 소비절약운동을 전개하였다.<sup>578)</sup> 특히, 1930년 2월에는 평양물산장려회, 차가인동맹과 연합하여 행사를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대대적인 생활개선·소비절약선전을 펼쳤다. 물산장려회장 오윤선의 개회사에 이어 조만식의 강연이 있었고, 금주단연동맹 김봉준과 차가인동맹의 김안엽이 취지를 설명한 후, 600여명에 달하는 참가 인원이 평양 시내 공장 30여 곳의 제품을 60여 대의 마차에 실어 행진했다. 수 만매의 뼈라가 뿌러지고 수천의 군중이 모여들어 일대 장관을 이루었다. 물산장려회

575) 「平壤基督教青年會의 設立」 『청년』, 1921년 4월.

576) 평양물산장려회의 인적 구성에 대해서는 오미일, 앞의 책, pp. 296-305. 참고할 것

577) 「平壤에는 制限行列」 『동아일보』, 1923년 5월 22일.; 「平壤의 物産獎勵宣傳」 『동아일보』, 1924년 2월 8일.; 「平壤에도 紀念行列」 『동아일보』, 1924년 6월 1일.; 「物産獎勵運動(平壤)」 『동아일보』, 1925년 1월 26일.; 「舊正月을 期하여 物産獎勵 宣傳(平壤)」 『동아일보』, 1926년 2월 15일.; 「盛況을 極한 宣傳行列(平壤)」 『동아일보』, 1927년 2월 18일.; 「物産獎勵와 平壤市民」 『동아일보』, 1928년 1월 25일.; 「舊曆新正에 朝鮮物産獎勵(平壤)」 『동아일보』, 1929년 2월 13일.; 「舊正初 利用, 土産物宣傳(平壤)」 『동아일보』, 1930년 2월 14일.; 「物産獎勵會 禁酒斷煙同盟 借家人同盟等 三同盟 宣傳行列(平壤)」 『동아일보』, 1931년 2월 18일.; 「物産獎勵 旗行列(平壤)」 『東亞日報』, 1932년 2월 6일.; 「朝鮮物産獎勵 宣傳大行列(平壤)」 『동아일보』, 1933년 1월 5일.; 「朝鮮物産獎勵 宣傳을 計劃(平壤)」 『동아일보』, 1934년 2월 14일.; 「平壤 土産獎勵 宣傳」 『동아일보』, 1935년 2월 5일.; 「平壤의 土産獎勵運動」 『동아일보』, 1936년 1월 24일.; 「조선물산장려운동」 『기독신보』, 1929년 2월 13일.

578) 「禁酒斷煙同盟(平壤)」 『동아일보』, 1927년 3월 14일.; 「禁酒斷煙同盟創立記念式」 『동아일보』, 1928년 3월 12일.; 「六百名 長蛇陣 物産獎勵會 禁酒斷煙同盟 借家人同盟 三同盟猛宣傳行列」 『동아일보』, 1930년 2월 14일.; 「八百名群衆會集 物産獎勵旗行列」, 1931년 2월 18일.; 「禁酒斷煙同盟 消費節約 宣傳」 『조선일보』, 1923년 3월 4일.

는 ‘재산가들이 재산을 하여라’ ‘부모들이 혼인 송채는 검약하고 조선물산으로 하라’ ‘사치하지 말고 조선 옷을 입어라’ ‘우리 손으로 만들지 못하는 비단세루 등속을 입지 마라’ 등등의 내용의 선전지를 뿌리며 선전했다. 특히 기독교는 대중운동을 선도할 단체로서 모범을 보일 것이 요구되었다.<sup>579)</sup>

여기에 평양노회 농촌부도 물산장려 실행을 결의하면서 평양의 물산장려운동은 소비절약·생활개선의 절제운동 및 농촌운동과 맞물려 진행되었다.<sup>580)</sup> 이와 관련하여 평양의 장로교회들은 각종 예식에서의 허례허식 금지, 조선물산 이용, 불필요한 비용 지출 금지 등을郡제직회에서 결의하고 교인들에게 그 조문을 송부하면서 물산장려와 생활개선운동을 후원하였다.<sup>581)</sup> 선천의 평북교회는 도제직회에서 혼상비용 절약 및 생활규칙을 가결하고 있다.<sup>582)</sup> 평양노회에서는 100여 곳의 소속교회가 소비합리화운동의 실행을 결의하고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 1. 一切奢侈禁止

編織物 毛織 羅絲類 其他 奢侈에 流하는 衣次又是 製品을 用함을 禁止함

### 2. 婚喪費用節約

- 1) 婚事に 있어서 新郎新婦의 當日에 用할 의복, 기구 이외에 送彩 財裝(新婦家에서 하여주는 물품)을 一切 禁止함
- 2) 貧富莫論하고 婚宴費는 50圓 이내, 喪葬費는 70圓 이내로 정함
- 3) 婚喪, 諸宴, 祝賀(例컨대 卒業祝賀와 如한) 관한 金品贈答을 廢止함. 但 極貧者를 扶助하는 의미의 贈與함은 此限에 不在함

### 3. 冗費儉約又除去

- 1) 一切觀光의 船車여비는 此를 儉約함
- 2) 학생의 旅行費 절약(불필요한 遠距離旅行費를 略함)  
右를 실행하는 方法에 있어서는 如左함
  1. 個人의 各自勵行
  2. 家庭에서 定親遵守
  3. 敎會又是 洞리에 基督自勉會組織 基督自勉會라 하든지 基督節制會라하든지 명칭은 各自 隨意이고 主義는 특히 消費節約을 根本삼아서 規則을 作成하여 實行함<sup>583)</sup>

불필요한 경비를 줄이고 절약·저축생활을 통해 경제적 활로를 개척하고 허례허식에서 벗어나 생활의 합리화를 추구하고자 한 것이다.

평양 중심의 관서지역 생활개선운동은 이승훈에서부터 그 단초를 보이고 있다. 일찍이 이승훈은 일본자본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조선인 자산가들이 지역별로 자본

579) 「六十餘名長蛇陣三同盟宣傳行列」 『동아일보』, 1930년 2월 14일.

580) 「평양노회 농촌부 물산장려 실행 결의」 『기독신보』, 1931년 4월 29일.

581) 「弊風矯正決議」 『동아일보』, 1923년 5월 12일.

582) 「耶蘇敎人의 矯風 美舉」 『조선일보』, 1923년 7월 20일.

583) 「平壤老會에서 消費合理 決意」 『동아일보』, 1931년 4월 14일.



을 모아 산업상의 실력을 길러야한다는 ‘關西資門論’을 제기하고 합자기업을 통한 무역상 활동을 꾀하였다. 그는 또한 이상촌건설사업을 전개하여 조선인 생활양식 개선을 통해 교회를 중심으로 학교와 농장을 연결하는 기독교적 新村落 건설을 기도하였다. 위생시설 정비, 공동 노동과 판매, 부업이 장려되었고, 문맹퇴치를 위한 야학과 신앙수련모임이 병행되었다.<sup>584)</sup>

이승훈의 이상촌은 평안북도 정주군 갈산면 용동 즉, 자신이 터를 잡은 곳을 중심으로 오산학교를 정점으로 하여 민족 공동체로 만들 목적을 가지고 학교촌, 병원촌, 사택, 농장, 교회촌을 규모있게 만들 예정이었다. 이승훈은 지역 공동체를 굳건히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용동을 비롯한 오산의 일곱 마을에 저마다 동회를 조직하고 그 전체를 하나로 묶어 오산학교 학생들과 주민들에게 생필품과 학용품을 값싸게 공급하기 위한 소비조합을 설치했다. 또한 1907년 조직된 자면회는 근면, 청결, 책임을 회의 목적으로 표방하여 농지개량, 연료개량, 협동생산 등을 실천했다. 청년회와 학생회로 조직된 자면회는 특히 청년회의 활동이 두드러졌는데, 평양의 물산장려운동에 적극 호응하면서 금주금연, 소비절약운동을 벌였다.<sup>585)</sup>

이후 생활개선운동의 중심에 서있던 인물은 조만식이었다. 평소 검약을 스스로 실천하여 “짜르고 짜르고 또 찢어서 무릅 우에 뿔신 올라가는 몽당치마가튼 두루마기를 입기로 유명”했던 그는 평양물산장려운동을 주도하면서 생산장려와 소비절약을 포함한 생활개선을 강조했다.<sup>586)</sup> 그는 생산장려의 방법으로서 徒弟학교를 창설하여 생산기술을 교육할 것과, 상공업활동을 위한 금융기관의 설치를 주장했다. 아울러 생활개선, 농촌운동, 자작자급을 민족의 사활에 기여하는 중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에 정진할 것을 주장했다.<sup>587)</sup>

생활개선운동은 1929년부터 전개된 조선일보의 ‘生活改新運動’의 움직임과 연계하면서 탄력을 받았다. 조선일보는 1929년 3월부터 ① 색의단발운동 ② 건강증진운동 ③ 상식보급운동 ④ 소비절약운동 ⑤ 허례폐지운동의 다섯 가지를 골자로 하는 ‘생활개신운동’을 추진하였다.<sup>588)</sup> 조선일보는 이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생활부터 달라져야 힘을 기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기독교청년면려회와 함께 금주운동을

584) 주익중, 「일제하 평양의 메리야스공업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4, p. 33-35.

585) 백승중, 『그 나라의 역사와 말』, 궁리, 2002, pp. 94-139.

586) 觀相者, 「各界名男名女, 뒤로 본 人物學」 『별건곤』, 1933년 5월.

587) 「平壤人士新年所感」 『동아일보』, 1930년 1월 1일.

588) 「생활개신운동」 『조선일보』, 1929년 4월 14일.; 「사설 : 生活改新을 宣揚함. 본사주최의 신운동」 『조선일보』, 1929년 4월 14일.; 「생활개신운동 각지방의 響應」 『조선일보』, 1929년 5월 10일.; 「생활개신운동 각지방의 響應」 『조선일보』, 1929년 5월 11일.; 「生活改新과 常識普及」 『조선일보』, 1929년 5월 14일.; 「사설 : 생활개신과 건강증진」 『조선일보』, 1929년 5월 16일.; 「개신의 활기면 경성천지」 『조선일보』, 1929년 5월 18일.; 「生活改新과 過程의 價値」 『조선일보』, 1929년 5월 26일.; 「생활개신강연」 『조선일보』, 1929년 6월 1일.

전개하였다. 매년 선전시위를 후원하였고, 사설을 통해 금주운동의 필요성을 제고시키고 사회각계의 지지와 성원을 호소하였다.<sup>589)</sup>

조선일보가 생활개신운동을 비롯하여 기독교청년면려회와 함께 금주운동을 주도하고 후원했던 것은 당시 조선일보를 주도했던 안재홍, 조만식 등 기독교인들과 관련이 있다. 1924년부터 조선일보 주필로 있던 안재홍은 조선일보 社主였던 신석우가 신간회 해산 직후인 1931년 5월 상해로 망명하자 6대 사장에 취임하여(1931. 5 - 1932. 4) 신채호 문일평 장도빈 등 민족주의 지식인들을 필진으로 영입하고 1930년대 ‘조선학운동’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였다. 1932년 경영난에 처한 조선일보를 조병옥과 주요한이 인수하여 그해 11월 사장에 조만식, 편집국장에 주요한, 영업국장에 조병옥이 선출되었다. 문화건설, 산업발전 등을 社是로 내걸고 조선일보를 이끌었던 조만식은 1933년 6월 재정난 악화로 사장자리를 방응모에게 넘겼으나 고문으로 계속 영향력을 행사했고, 안재홍도 논객으로 1937년까지 지속적으로 조선일보에 참여하고 있다.<sup>590)</sup>

앞서 언급했듯이 조만식은 1920년 이래 평양을 거점으로 전개된 토산장려의 물산장려운동과 소비절약허례폐지의 생활개선운동을 이끌고 있었다. 때문에 조선일보는 그를 중심으로 조선기독교절제운동회, 기독교청년면려회와 인맥과 사상을 공유하면서 금주운동뿐만 아니라 면려회대회를 후원하는 등 일련의 활동에 깊은 연관을 가지게 된다.

조선일보는 1929년 4월 30일 종로 기독교청년회관에서 각계 인사들을 모아 생활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자리에서 이를 본격적으로 연구할 위원들을 선출하였다. 5월에 이들을 중심으로 상식보급부, 민중보건부, 의식개정부, 소비절약부 서무부의 5부서로 구성된 生活改善研究委員會를 조직하였다. 사회지도급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데, 각 부서마다 기독교계 중진들이 포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신흥우, 김미리사, 김활란, 유억겸, 홍병선, 오궁선, 유각경 오화영 강매 정인파, 손메레 등이다.<sup>591)</sup>

589) 「禁酒運動의 價値」 『조선일보』, 1930년 5월 1일.; 「朝鮮과 禁酒禁煙運動」 『조선일보』, 1930년 5월 27일.; 「면려청년연합회의 금주단연의 대선전」 『조선일보』, 1933년 5월 19일.; 「禁酒宣傳의 意義」 『조선일보』, 1933년 5월 21일.; 「사설: 禁酒運動」 『조선일보』, 1934년 6월 2일.; 「전조선금주선전, 단오 기하야 면려회 주최 본사 후원, 농촌엔 좌담 도시서는 행렬 강연」 『조선일보』, 1934년 6월 3일.; 「禁酒運動」 『조선일보』, 1934년 6월 2일.; 「禁酒運動」 『조선일보』, 1935년 6월 1일.; 「禁酒運動」 『조선일보』, 1936년 4월 29일.; 「少年少女의 禁酒禁煙法」 『조선일보』, 1937년 1월 22일.

590) 조선일보사, 『조선일보80년사』, 2000.; 김권정, 「1920-30년대 한국기독교인의 민족운동 연구」, 숭실대 박사학위논문, 2000, pp. 153-154.

591) 「本社와 協力할 百餘名士委員」 『조선일보』, 1929년 5월 12일. 5개부서 위원들은 다음과 같다. 1. 상식보급부: 유진태 신흥우 허헌 김미리사 김활란 정종오 최현배 유억겸 안재홍 김법린 신평균 최두선 최규동 권혜규 김동혁 김병로 한용운 김옥제 박원 조현수 이화 민태원 이원혁 홍병선

그 해 5월 16일을 시작으로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가두시위, 선전강연회, 음악회가 열렸다. 서울에서는 선전빠라와 포스터가 휘날리는 가운데 종로거리는 중앙번영회의 축하로 상점마다 화려한 조명으로 장식하고 소년소녀의 기행렬, 악대선전, 자동차와 인력거의 행진, 축하비행이 이어졌다. 밤에는 종로 기독교청년회관에서 안재홍 윤치호 이종린 신흥우 송진우 유각경 김법린 이순탁 민태원 조병옥 김탁원 옥선진 등 교수와 언론인을 연사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평양에서는 이 날 리관구 조만식 등이 백선행기념관에서 연설했다.<sup>592)</sup>

이렇듯, 1930년대 평양을 중심으로 평양물산장려회, 면려청년회, 평양금주단연동맹, 조선일보 등이 공동으로 생활개선운동을 전개하기에 이른다.

기독교청년회도 여기에 부응하여 신성기독교청년회, 목포기독교청년회 등 각지에서 생활개선강연회가 이어졌다.<sup>593)</sup> 고성에서는 신체건강, 가정평화, 금주근검, 소비절약, 생활개선을 목적으로 기독교청년들이 발의하여 조기회를 설치하였다. 이른 아침의 기상, 주변 청소, 산보, 기도, 체조, 시내 청소 등으로 이어지는 활동은 근면과 시간엄수에 따른 규율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이다.<sup>594)</sup> 평양에서는 조선일보와 평양기독교청년회가 공동으로 건강증진 소비절약 허례폐지에 관한 강연회를 주최하고 평양상공협회<sup>595)</sup>와 공동으로 시민들의 시내 각 공장 견학 행사를 갖기도 했다.<sup>596)</sup>

한편 “기독교의 민중화, 생활의 간소화, 산업기관의 시설, 조선적 교회 설립”을 표방한 적극신앙단도 기독교인의 구체적 생활강령으로 협동경제, 주초절제, 혼상절약, 조혼폐지, 폐습파괴, 도덕합리 등의 내용으로 하는 ‘생활개조 21개조’를 발표하고 생활개선을 주장했다.<sup>597)</sup> 비록 적극신앙단의 파시즘적 혁신운동이 이단시비로까지 번지면서 곧 무산되었지만, 생활개선의 문제가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생활개선운동의 영향으로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근검저축과 폐풍개량을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고 비단옷과 사치 금지, 색의 입기, 쪽찌기, 한달 중 6일은 옥수수 먹기 등 생활개선을 실천하는 예가 보인다.<sup>598)</sup> 강동읍교회 부인회는 생활

---

오상준 이시원 방정환 등 2. 보건부: 김용수 오공선 김택원 유홍중 유일용 윤일선 박창수 신기준 현정주 박창하 홍은후 이명수 현동원 3. 의식개정부: 유각경 오화영 조병옥 김우현 강매 정인과 4. 소비절약부: 박희도 윤치환 박승직 손메레 이강현

592) 『조선일보』, 1929년 5월 14일., 5월 15일., 5월 16일

593) 『조선일보』, 1929년 5월 5일., 1929년 7월 1일.

594) 「상청봉」 『기독신보』, 1930년 4월 23일.

595) 1928년 12월 18일 평양YMCA 회관에서 조만식 오윤선 김동원 김성업 등 평양 YMCA와 물산장려회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평양의 한국인 상공업자를 망라한 지도기관으로 설립되었다. 『동아일보』, 1928년 12월 20일.

596) 「生活改新의 宣傳大講演」 『조선일보』, 1929년 5월 10일.

597) 「積極信仰에 對하야」 『기독신보』, 1935년 2월 20일.

개선운동의 첫걸음으로 쪽찌기, 부인회 기본금 마련 등을 실행하고 있다.<sup>599)</sup> 또, 손메례의 강연을 들은 후, 농민조합과 부인회를 조직하고 여성들이 월자반지를 벗어 놓는 등의 호응을 얻었다.<sup>600)</sup>

이러한 생활개선의 내용 가운데 가장 강조된 것은 합리적 소비생활과 허례허식의 폐지였다. 합리적인 소비란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었다. 빈곤의 원인은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 즉, 생산이 적고 소비가 많은 것에 기인한 것이므로 ‘가난한 조선사회가 취할 태도는 생산을 늘리고 소비를 줄이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에 따라 생산증진의 방법으로서 ‘자본가는 공장과 회사를 많이 설립하여 실업자를 구제하고, 청년과 학생은 실용학문을 연구하여 실생활에 적용하고, 노동자와 농민은 무위도식하는 것을 수치로 여기고 부지런히 일할 것’이 제시되었다. 소비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관혼상제의 의식을 간단히 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것, 술과 담배를 금할 것, 토산품을 애용할 것이었다. 이것이 ‘조선사회 개량의 제일요점’으로 제기되었다.<sup>601)</sup>

수입에 맞추어 지출을 하는 것이 생활을 합리적으로 하는 방법이었고, 금주금연도 합리적 소비를 위해 취할 방법으로 제시되었다. 처지와 분수를 넘어서는 소비를 경계하고 분수와 형편에 맞는 소비생활이 합리적 소비였다. 조선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수입품과 가계수입을 초과하는 사치품을 사용하지 않고, 예산을 정하여 쓰면서 낭비를 줄이는 것이었다.

허례허식의 대표적인 예로서 특히 절약이 강조된 부분은 관혼상제 비용이었다. 체면을 중시하여 혼례나 상례를 거창하게 치르고 분에 넘치는 부조금을 내는 행위, 남의 이목을 의식한 옷차림과 빗을 얻어가면서까지 치르는 행사 등의 종래의 관습은 합리적이지 못한 행동으로 비난받았다. 무엇보다 체면을 버리고 형식보다 실질을 숭상하는 생활의 개선이 요구되었다. 당장의 기본 의식주에 소용되는 것 이외에는 소비를 줄여서 일부라도 생활에 보탬에 되고자 하는 것이 생활개선운동의 기본적인 실천 배경이 되었다.<sup>602)</sup>

경제적으로 파탄지경에 있던 당시에 얼마나 낭비가 있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들지만, 총독부가 농가경제안정과 농업생산력 확충을 위해 실시한 농가경제조사를 보면, 당시 농촌의 생활에서 혼상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만만치 않았음을 알 수 있다.

598) 「폐풍개량」 『기독신보』, 1930년 2월 19일.

599) 「부인생활개선」 『기독신보』, 1929년 7월 17일.

600) 「의주군 영산교회」 『기독신보』, 1929년 12월 11일.

601) 「사설: 社會改良의 必要」 『기독신보』, 1927년 5월 4일.

602) 채필근, 「소비합리화운동에대하여」 『농민생활』, 1931년 4월.

《표 22》 『농가경제조사』의 농가지출 비율(%)

		농업경영비	가계비	기타
전남 (1930)	자작	37.5	62.4	0.1
	자소작	49.7	49.7	0.6
	소작	53.7	45.9	0.4
	평균	47.4	52.2	0.4
경기도 (1930)	자작	30.7	61.5	7.8
	자소작	41.4	53.9	4.7
	소작	41.9	49.8	8.3
	평균	41.1	52.5	6.4
경남 (1931)	자작	35.2	64.8	-
	자소작	39.7	60.3	-
	소작	42.5	57.5	-
	평균	39.1	60.9	-
평남 (1931)	자작	48.3	51.7	-
	자소작	46.7	53.3	-
	소작	52.6	38.4	9.0
	평균	49.3	47.4	3.3
함남 (1932)	자작	23.1	76.5	0.4
	자소작	40.2	59.7	0.1
	소작	42.3	56.9	0.8
	평균	34.4	65.1	0.5

朝鮮農會, 『農家經濟調査』(全羅南道·京畿道·慶尙南道·平安南道·咸鏡南道ノ分), 1932-1934. pp. 14-23

《표 23》 『농가경제조사』의 가계비 지출 비율(%)

		가 계 비										
		제1 생활비				제2 생활비						가사 미불금
		음식비	피복비	기타	계	기호비	교제비	교육비	관혼 상제비	기타	계	
전남 (1930)	자작	61.65	7.44	10.85	79.94	3.14	6.47	1.39	3.82	5.21	20.03	0.03
	자소작	62.26	6.47	14.79	86.52	2.96	6.15	0.37	0.56	3.03	13.06	0.42
	소작	73.01	3.44	9.60	86.05	3.13	3.59	2.04	1.9	3.03	13.69	0.26
	평균	66.64	5.78	11.75	84.17	3.07	5.4	1.27	2.09	3.76	15.59	0.24
경기도 (1930)	자작	56.29	4.35	12.43	73.02	1.33	4.54	1.79	14.51	4.33	26.5	0.43
	자소작	60.69	5.96	12.87	79.72	1.41	2.77	11.59	0.48	3.99	20.24	0.04
	소작	62.89	5.62	14.55	83.06	1.12	1.37	0.62	10.7	2.79	16.6	0.34
	평균	59.18	5.13	13.03	77.34	1.31	3.29	4.62	9.26	3.89	22.37	0.29
경남 (1931)	자작	39.33	7.65	8.54	55.52	1.64	5	0.73	7.29	8.31	23.97	21.51
	자소작	62.21	6.12	9.34	77.67	1.54	8.08	1.27	0.02	6.69	17.6	4.73
	소작	58.95	3.13	10.26	72.34	1.17	2.39	4.07	5.83	4.09	17.55	10.11
	평균	53.49	5.63	8.39	68.5	1.45	5.16	2.02	4.38	6.37	19.38	12.12
평남 (1931)	자작	73.15	6.72	14.39	94.26	0.87	0.48	-	0.66	3.73	5.74	-
	자소작	65.6	8.52	12.92	87.07	1.02	2.52	3.54	1.34	4.60	12.93	-
	소작	75.42	4.75	13.07	93.23	0.63	2.27	-	0.78	0.9	4.58	2.19
	평균	70.7	6.88	13.41	90.99	0.86	1.84	1.42	0.97	3.27	8.36	0.65
함남 (1932)	자작	47.1	4.22	10.83	62.15	2.06	6.03	12.79	6.99	5.52	33.38	4.47
	자소작	53.15	4.68	11.77	69.6	1.29	5.03	0.01	3.06	4.03	13.42	16.98
	소작	58.14	6.02	10.28	74.44	1.95	7.86	-	1.71	2.61	14.13	11.43
	평균	51.9	4.87	10.93	67.7	1.82	6.3	5.69	4.41	4.29	22.51	9.79

朝鮮農會, 『農家經濟調査』(全羅南道·京畿道·慶尙南道·平安南道·咸鏡南道ノ分), 1932-1934. pp. 20-22.

농가경제의 지출은 크게 영농비와 가계비로 나눌 수 있는데, 영농비는 최저 23%에서 53%까지 평균 40%를 차지하는 수준으로서, 농가경제의 중요부분이다. 가계비는 농민들의 생활수준을 가늠하는 직접적인 지표가 된다. 제1생활비는 의식주의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항목이고, 제2생활비는 교육·문화·의례 등 농가 생활수준의 향상을 보여주는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생활비가 농민들의 최저생활비라 한다면 제2생활비는 비중은 매우 작지만, 생활수준의 향상도를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제2생활비는 기호비, 교제비, 교육비, 관혼상제비, 기타로 나뉘는데, 이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교제비와 관혼상제비 같은 사회관계 유지를 위한 비용이었다.

물론 농촌경제구조 속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은 아니었지만, 절대적 궁핍의 가운데, 특히 추수기 외에 현금을 가동시킬 형편이 되지 못하는 농촌에서 먹고 사는 것 이외의 비용이라도 줄이자고 한 것이 생활개선운동에서 의복의

검소와 금주금연을 주장한 이유였다.<sup>603)</sup>

평남지역은 교제비와 관혼상제비의 비중이 특히 적은데, 이것은 기독교적 합리적 가치관이 다른 곳보다 널리 퍼져 있고, 관서지방을 중심으로 진행된 소비절약과 생활개선운동과도 연관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미신의 타파는 생활개선의 또 다른 주요 부분을 차지했다. 기독교인들은 당시 조선의 가장 큰 비극은 ‘빈궁’이고, 그 원인의 하나로서 사회구조의 모순과 아울러 ‘무식’과 ‘미신’을 들고 있다. 세상을 미혹시키고 백성을 속이는 미신이 가난을 한층 더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생활의 합리화를 통한 무식의 극복과 미신의 타파는 빈궁에 대한 대책으로서 선행되어야 할 과제였다.<sup>604)</sup>

사실 미신의 근절은 애초 유일신을 믿는 기독교적 교리에 위배되는 종교상의 문제였다. 그런데 조선에서의 미신은 문명, 근대화의 걸림돌로서도 거론되었다. 선교사 게일(J. S. Gale)은 “조선인들이 세계와 단절된 채, 아무것도 모르고 미신에 의지해서 살아왔고 그 때문에 사물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한탄하고 있다.<sup>605)</sup>

미신은 문명에 반대되는 개념이었다. 기독교인들은 조선이 피폐하고 낙후한 근원적 원인의 하나로서 미신을 꼽았고 이의 타파는 문명한 근대국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라 여겼다. 선교사들에게 영향 받은 바도 있지만, 조선 기독교인들도 미신타파를 근대화의 주요 선결 과제로서 인식하였다. 길흉화복을 점치고, 굿을 하고 경을 읽는 것은 과학문명 시대에 배치되는 한심한 ‘야만의 짓’이었다.<sup>606)</sup> 채필근은 문명한 국가에서 상식으로 익히 알고 있는 것을 그렇지 못한 나라에서는 미신적으로 처리한다고 보고, 아직까지 조선이 ‘문명’하지 못한 민족이 되는 원인은 모두 미신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sup>607)</sup> 이러한 미신에는 사주팔자, 무당, 판수, 풍수를 비롯하여 마을의 동제나 가정주부의 성주모시기, 출산 후의 安胎도 모두 포함되었다.

청년남녀의 풍기문제도 풍속개량의 차원에서 거론되었다.

“예를 들어 혼례식과 장례식에 대해 말하자면, 혼례식은 날이 갈수록 사치스러워간다. 지극히 가난한 혼인에도 3,4백원을 가지지 않고 할 수 없을 만큼이다. 돈없어 약혼하고도 결혼식 못하다가 파혼하기도 한다. 장례 지나고 파산하기도 한다. 이 얼마나 통탄할 일이나 그보다 심한 것은 부랑자와 유한계급의 도박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식자계급에서 소위 오락이라 하여 밤을 새는 것이나 남녀교제의 불건신으로 말미암아 보는 자의

603) 이송순, 「일제하 1930·40년대 농가경제의 추이와 농민생활」 『역사문제연구』 8, 2002, pp. 104-105.

604) 「사설:빈궁의 원인과 그 대책(上)」 『기독신보』 1928년 3월 21일.

605) J. S. Gale, 장문형 역, 『코리안 스케치 Korean Sketches』, 현암사, 1970.

606) 정돌순, 「農村의 急務가 무엇이나?」 『농민생활』, 1934년 3월.

607) 채필근, 「미신을 바리자」 『농민생활』, 1931년 3월.

이목을 어지럽게 하는 풍기문란의 일들이다. 교회 안에도 이 악풍이 밀려들어왔다. 교회의 중직을 가진 이로서 앞을 머리를 쉬인다 하여 오락에 너무 빠지는 이도 있으며 사교에는 남녀의 별이 없다 하여 여자로 더불어 사교함이 무례함에 가까워서 보는 자로 하여금 종종 비난의 소리를 발하게 한다.”<sup>608)</sup>

교회에서 활동하는 중에도 남녀가 같이 모이는 경우에는 각별히 언어나 행동을 조심할 것이 당부되었다. 절제회, 교풍회 등을 교회마다 상설로 조직하여 교회내의 풍기문제를 징계하고 일반사회의 악풍속 타파에 힘쓸 것이 권고되었다.<sup>609)</sup> 풍기문제의 연장선상에서 오궁선은 가정에서 보는 신문이나 잡지에는 불륜소설이나 '기생 이야기', '음부의 사정', 유행하는 연애 기사를 실지 못하도록 금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sup>610)</sup>

한편, 기독교 학교에 비신자 학생들의 비율이 늘어나고 사회주의자들의 2차 반종교운동이 거세게 일어나면서 기독교학생들 가운데에도 사상적 혼란을 겪으면서, 풍기 문란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에 조선남녀학생기독교청년회연합 하령회에서는 조선 기독교의 사회개조 문제, 각종조합문제, 금융 등의 경제문제 등 사회관계 주제와 아울러 학생풍기문제에 대한 강연을 통해 향락풍조의 유행을 경계하였다.<sup>611)</sup> 1929년 3월 23일-25일 열린 조선남녀학생기독교청년회장협의회에서 금주금연, 학생들의 향락기분 절제, 기독교 신앙 강화와 훈련을 결의한 것도 향락풍조에 대응하여 금주금연과 절제생활을 통한 기독교신앙 회복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였다.<sup>612)</sup>

소비절약의 필요성에서 확산된 소비합리화운동과 이를 통한 생활개선운동은 의식주 개량에 집중되었던 1920년대 중반의 가정생활개선 논의와는 맥락을 약간 달리한다. 1920년대 초반 생활개선론이 처음으로 제기되었을 때 그것은 생활의 향상을 위해 생활을 단순화, 합리화, 규율화, 과학화 하는 것이었다. 위생적 생활, 경제관념의 배양, 시간과 노력의 절약, 예산 있는 살림, 의식주 생활의 개량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었다. 특히 '가정개선'에 집중하여 의복제도 개량, 육아법 개선, 가옥 개량, 독서·산보·건물 등의 취미생활, 석식후의 일가족의 단란한 오락, 대가족 폐지 등이 주장되었다.<sup>613)</sup>

608) 「사설: 敎會와 節制運動」 『기독신보』, 1931년 8월 26일.

609) 「사설: 一般의風俗改良의 必要」 『기독신보』, 1927년 5월 25일.

610) 오궁선, 「우리의 生活은 이리케 改善하자」 『新民』, 1925년 10월.

611) 「基督靑年夏令會 그 순서내용은 이리하다」 『중외일보』, 1928년 8월 23일.

612) 장규식, 「1920-30년대 YMCA학생운동의 전개와 일상활동」 『한국기독교와 역사』 27, 2007, pp. 84-85.

613) 「家庭生活의 改善」 『동아일보』, 1921년 4월 4일.; 「가정생활의 개선, 육아법의 개량에 대하여」 『동아일보』, 1921년 4월 7일.; 「가정생활의 개선」 『동아일보』, 1921년 4월 13일.



그러나 초기의 생활개선론은 실효성에서 문제가 있었다. 근대적 위생담론, 문명화담론에 기대어 재래의 조선의 생활관습을 문명화되지 못한 구습으로 여기고, 한복폐지, 양복착용, 영양가 있는 식단으로의 개선, 서구식 주택으로의 개량, 반찬의 가지 수를 줄이자는 등의 가정개선론은 ‘신가정’이라는 일부 지식층이 대상이었고 당장 먹고 살기 힘든 대다수의 조선 민중들의 생활과는 동떨어진 것이었다. 때문에 관심을 확산시키기 어려웠다.<sup>614)</sup>

하지만 절약을 강조하고 비단옷과 양복을 사치와 허례로 보았던 것은 절대적인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으로서 공감을 얻으며 사회일반에 사치를 억제하고 절제생활을 도모해야 한다는 분위기를 형성시켰다.<sup>615)</sup>

## 2) 인격적·도덕적 개선을 통한 ‘천국운동’

생활개선운동의 전개는 당시 조선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회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에서부터 비롯되었다. 기독교인들은 정치적 상황과는 별개로 조선현실 속에서 문제시 되었던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고칠 것을 촉구하였다. 조선이 정치적으로 퇴폐한 것이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일반풍속이 부패했다고 진단하고 사치풍속과 청년남녀의 풍기문란 등의 부패에서 조선의 문제점을 찾고 이를 시급히 개선하는 것이 사회를 개량하는 길로 인식하였다. 경제적 압박한 심각함에도 사치, 낭비, 퇴폐가 만연하고 있다고 보고, 교풍회, 절제회 등을 조직하여 이러한 것들을 개선하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sup>616)</sup>

소비를 절약할 방법으로 관혼상제 의식을 간단히 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차원에서 술과 담배를 금지하고, 정신적 방면의 해방을 위해 미신사상에 사로잡힌 현실을 타파하고, 위생사업을 시설하고, 음란과 부도덕적 생활을 청산하고 풍기문란을 바로잡는 것이 가정과 사회를 개선·개량하는 방법으로 인식되었다.<sup>617)</sup> 조만식은 특히 소비절약 가운데서도 관혼상제에 대한 것을 강조했다. 그는 중농 이하 소농들의 토지 이동의 원인 중 30-40%가 바로 혼인비용 때문이라면서, 전답과 산림을 팔거나 저당하여 혼인을 치르는 세태를 비판하였다. 더구나 상제례는 현실에 필요한 것이 아닌 체면 때문에 부득이 낭비함이 많다고 지적하고 이를 개혁하기

614) 井上和枝, 「植民地其朝鮮における生活改善運動-「新家庭」の家庭改善から「生活改新」運動へ」

『1930年代の東アジア經濟』東アジア資本主義形成史Ⅱ, 日本評論社, 2006

615) 「사설: 節制生活의 鍛練, 奢侈의 慾望은 斷然 抑制하라」 『동아일보』, 1934년 1월 27일.

616) 「사설: 一般的風俗改良의 必要」 『기독신보』, 1927년 5월 25일.

617) 「사설: 社會改良의 必要」 『기독신보』, 1927년 5월 4일.; 「사설: 社會改良의 必要(二)」 『기독신보』, 1927년 5월 11일.

위해 종교단체에서 이에 대한 규정 또는 결의를 제정하고 각지에 교풍회, 절제회, 동회 등의 단체를 조직하여 이를 제거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 농민을 빈궁케 하고 농촌을 폐폐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술이라고 보아 이 두 가지를 폐하는 생활개선운동이 가장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절약과 금주는 소극적인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긴급하게 실시할 수 있고, 시행해야 하는 방법이었다. 조만식은 도시와 농촌에서 전개할 사업을 형편과 처지에 따라 구분하고 상호간의 협동을 추구하였다. 우선 도시에서는 산업·교육·사회사업기관의 시설과 생활개선을 주장했다. 농촌에서는 이상촌 즉 모범농촌의 건설을 목적으로 했다. 이상촌에서는 조합조직과 농사개량, 부업장려, 문화운동을 사업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소비절약, 생활검소, 허례폐지를 골자로 하는 생활개선은 경제적으로 불황을 타개하는 방법으로서 정신으로는 ‘민족적 악풍습’을 제거하는 일로서 도시와 농촌을 망라하여 가장 시급하게 실시해야 할 과제로 인식되었다. 이를 위해 그는 생활개선운동을 전조선적으로 주도할 중심기관의 조직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1930년대 초반 일시적 호경기에 도취되어 낭비풍조가 만연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관혼상제의 비용절감은 물론, 화려한 의복과 화장의 배제 뿐만 아니라 주로 도시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레코드와 라디오 등의 ‘소위 문화생활’까지 모두 금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이렇게 절약한 비용은 사회사업을 위해 써야 한다고 했다.<sup>618)</sup>

기독교인들이 소비절약·생활개선운동을 통해 ‘개선’하고자 한 것은 경제적 상태와 아울러 인격과 도덕이었다. 기독교인들은 당시 사회가 경제적으로 과학과 문화가 발달하였을지는 모르지만, 정신적 방면에서는 문제가 많았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精神世界의 人格方面으로 일반사회를 고찰할 것이면 暗黑凍結의 方面인 죄악, 미신등이 얼마나 많은지 말할 수 없다. 주류 연초 아편 창기 악질 폐습 등이 우리의 신체와 정신에 다대한 해독을 준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上下賢愚가 공인하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근년에 와서 과학적 지식이 일취월장함에 따라 그런 독물들은 놀라지 아니할 수 없으리만치 凶暴한 파괴성과 殘酷한 殺?性을 가지고 생명재산을 奪取하되 무저항과 같이 自足할 줄 모르는 악마의 무기인 것을 하여 더욱 명확하게 증명하여 준다.”<sup>619)</sup>

이에 기독교인들은 신자로서 과거부터 스스로는 절제생활을 영위해왔지만, 이러한 사회적 문제 상황에 대해서는 외면하거나 수수방관해 왔음을 고백하고 ‘이 非

618) 조만식, 「향락과 사치의 썩대기를 벗자」 『동아일보』, 1933년 1월 5일.; 조만식, 「中心機關의 再組織」 『新東亞』, 1936년 1월.

619) 「朝鮮基督教節制運動會趣旨」 『기독신보』, 1932년 5월 25일.

眞理의 心情 이 非正義의 行動'을 벗어나기 위해 행동해야 할 것을 촉구하였다.

인류사회를 구원하는 방법으로서, 맑스가 사회제도와 계급 타파, 자본가 박멸의 혁명이라는 물질적 방법을 도모하였다면, 기독교의 방법은 정신적인 것으로서 사랑을 통해 사람을 회개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운동을 통해 사회를 개조하는 것이었다.<sup>620)</sup> 인격과 사회의 개조를 기독교의 가치 사명으로 여기고 정신적 방면의 활로를 찾아 이 땅위의 천국건설을 실현하는 것이 사회개조의 목적으로 여겨졌다.<sup>621)</sup> 때문에 절약을 통한 물질적인 이익도 중요했지만, 정신적인 각성이야말로 더욱 중요시 되었다. 궁극적으로 가치 있는 인격의 완성을 생활개선을 통해 실현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신인격·신문화 창조가 우선되었다. 인격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그것이 곧 개인을 초월하여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문화 또한 “사회에 기초하며 입국의 근본이 되기” 때문이었다.<sup>622)</sup>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시급히 이루어야 할 것도 인격혁명 즉 도덕혁명이었다. 이는 진리를 통해 완전한 인격을 갖추어 타인과 더불어 이상적 사회를 조직할 것을 전망하는 것이었다. 최윤호는 현대 조선이 경제적으로 파산했고 문화적으로 낙오됐으며, 도덕적으로 타락했다고 진단하고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책임이고 사명이라고 하였다.<sup>623)</sup>

“대저 사람이 사람된 가치는 인격 여하에 잇는고로 인격이 향상하면 향상할수록 그가치의 발휘는 점점 광대하게 된다. 인생의 최고 리상이 곧 인격완성에 잇다고 할 것이요 도덕에 리상도 역시 여기에 잇다고 할 것이다”<sup>624)</sup>

잡지 『신생활』의 발행인이었던 유형기는 생활비예산을 세울 것, 외제품을 좋아하고 주초에 낭비하는 악습을 없앨 것, 국민의 육체적 건강과 규칙적 생활을 위해 규칙적 생활을 할 것, 禮儀之國을 실현시킬 것, 열심히 일할 것, 남는 시간을 무의하게 보내지 말고 애정 깊은 가정을 만들 것과 아울러 경건할 것을 생활개선의 7개의 법으로 제시하였다. 그 가운데 “정신생활의 근저며 우리 도덕생활의 기초인 종교적 기분이 업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격이란 것은 문제거리며 따라서 우리의 생활개선도 말 뿐”이 되겠다면서 생활개선은 먼저 인격의 도야, 종교적 경건이 뒤따라야 된다고 하였다.<sup>625)</sup>

620) 「사설: 基督教의 社會事業」 『기독신보』, 1930년 7월 9일

621) 이대위, 「今日朝鮮의 協作運動」 『진생』 4권8호, 1928년 12월.

622) 이대위, 「吾人의 當面한 二大創造事業-新人格建設, 新文化創造」, 『신생』, 1929년 2월.

623) 崔允鎬, 「朝鮮農村의 沒落과 예수敎人의 使命」 『종교시보』, 1935년 3월.

624) 崔兢燮, 「청년의 重寶는 人格이다」 『농촌청년』, 1930년 9월.

625) 柳濤基, 「新生活의 七條憲法-現下問題 名士意見, 生活改善案提議」 『별건곤』 16·17호, 1928년 12월.

조만식도 특히 청년층을 향하여 환경의 유혹과 세태의 영향을 떠나 ‘생각있는 청년이라면 생의 의식을 굳세게 과악하고 절제생활을 강조하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청년들의 허영적 外華적 타락적 심리 안목, 기분, 행동 등 일체를 보기에 너무 통분하여 단연 절제생활의 길을 밟아, 각자의 모든 결함과 과오를 대청산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환경이며 세태야 어떠하든지 우리 조선청년으로서는 이래서는 아니된다. 깊은 悔悟가 있어야만 된다. 환경의 유혹 세태의 영향은 鵬程萬里的 前途가 요원한 청년에게는 大禁物인 것을 알아야 한다.”<sup>626)</sup>

그는 청년학생층의 방종한 생활을 경계하고 사회적 신분을 가진 자로서 도박과 축첩 등에 빠져있는 ‘타락신사’를 질타했다.<sup>627)</sup> 같은 맥락에서 그는 1930년대 조선에 휘몰아쳤던 금광 열풍과 미두, 토지 투기를 극렬히 비판하고 절약과 검소의 사상을 고취하기 위해 30만 기독교도가 단합하여 통제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지도자급 즉 교원, 목사, 청년인도자 등이 솔선할 것을 촉구하고 사회 각 단체간의 연합과 대규모의 이상촌 건설을 실천방법의 하나로서 주창하였다.<sup>628)</sup>

특히 교인들의 고리대금업을 방지하고 저리대부를 장려하며 설교와 기관 언론을 통해 “신도의 경제적 생활을 풍족시킬 기독교적 도덕” 즉, 근검, 저축, 근면, 상업 등을 가르칠 것과 ‘일하고 먹자’ ‘빚지지 말자’의 슬로건은 기독교적 경제관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하겠다.<sup>629)</sup>

기독교적 경제관은 노동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이윤추구를 정당하게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과 직업이 중요시 되었지만 정당하지 못한 수입은 불의한 재물로 간주되어 기독교인이 취할 바가 못되었다. 경제적 이윤추구는 도덕적으로 무결한 신념과 방법을 가져야 했다. 즉 아편매매, 주류제조 및 판매, 도박, 고리대금, 노동자 임금의 착취, 일확천금의 주선업 등이 그것이었다. 낭비와 사치를 배격하고 저축하는 것이 신자가 취할 태도였다. “金錢悔改의 第一步로 應當 禁酒斷煙”이 전제되었다. 즉 경제생활에서 기독교인은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정당한 벌이를 통해 취한 수입을 사치와 낭비를 회개하고 바르게 써야하는 것이다.

“純潔한 生活을 要하고 一般 奢侈品을 休할 거시다. 油頭粉面이 文化가 아니며 錦衣花香이 榮光이 못된다. 婚宴幣帛이 愛樂이 아니고 喪禮繁飾이 孝誠이 아니다”<sup>630)</sup>

626) 曹晩植, 「靑年이여 압길을 바라보라」 『삼천리』 8권1호, 1936년 1월.

627) 조만식, 「緊急한 다섯 가지」 『신동아』 5-1, 1935년 1월.

628) 曹晩植, 「生産과 消費와 우리 覺悟」, 『三千里』, 1936년 4월.

629) 金仁泳, 「朝鮮예수敎聯合公議會」 『신학세계』 14권 3호, 1929년 6월.

630) 鄭尙仁, 「신자와 금전」 『신학지남』 12권 3호, 1930년 5월.

이는 단순히 당시 경제형편상 조선인들에게 요구되는 사항이 아니라 기독교신자라면 누구나 실천해야 할 경제생활의 명제였다.

정당한 방법으로 획득한 재화를 사회를 위해 쓰는 것도 기독교인의 도리였다. 각자가 맡은 일상생활의 직무를 성실히 감당하고, 사회봉사를 하는 것은 모든 기독교인의 생활법칙이 되어야 했다. 지주가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평소에 소작인들이 넉넉한 생활을 할 만큼을 유지시키는 것이었다. 사회봉사는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일체의 정치, 경제, 도덕상 개조운동은 반드시 ‘이성과 愛’에 근거해야 했다. 신자의 경제생활 속에는 도덕성이 굳게 자리잡고 있어야만 했다.<sup>631)</sup>

이는 막스 베버가 자본주의 정신으로 거론한 금욕·절제·근면의 프로테스탄티즘 윤리로서, 기독교인들은 칼빈주의를 내면화 하여 근면, 성실, 절약, 검소 등의 가치를 신봉하고 그에 따른 실천을 다짐했다.

계엄과 시간허비는 죄악이고 사치는 금지사항이었다. 부지런히 일하여 산출을 증가시키고 사치를 막고 저축하여 칼빈주의를 실천한 것이 미국을 부강하게 만들었다고 간주하면서, 직업에 성실하고 부지런히 일함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길이라고 믿고 조선도 그것을 본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sup>632)</sup> 즉 경제문제를 중요시 하면서 근면, 검소를 강조하고 있다. 節用節儉, 自助力, 獨創力, 堅忍力, 協同心과 같은 덕목이 경제문제의 해결법으로서 제기되었고 이러한 능력과 태도를 키우는 데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sup>633)</sup>

이렇듯, 경제문제와 아울러 인격과 도덕의 개선을 강조한 내면에는 생활개선운동이 식민지현실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는 혹은 조금이나마 사람답게 살자는 의지와 아울러 중국에는 근대문명국가, 기독교적 시민사회에 걸맞는 사회를 만들려는 소망에서 촉발된 것임을 말해준다. 생활개선운동은 좀 더 근대적이고, 좀 더 문명적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미국처럼 문명개화된 사회, 혹은 그러한 삶을 지향하면서 확산되었다.

기독교인들이 추구했던 사회는 단지 경제적으로 잘 살기 위한 운동이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완전하고, 문화적으로 근대화되고 기독교적 정신과 이상이 조화를 이룬 사회였다. 따라서 생활개선운동은 단순한 경제운동이 아니라 이상사회를 이루어나가기 위한 방편의 하나였다. “그리스도의 인격에 동화된 자격으로 사회를 그리스도화하는 일에 최종목표를 확실히 세워”<sup>634)</sup> “개인으로 하여금 예수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력을 얻게 하며 사회로 하여금 숭신한 생명력을 얻은 개인개인을 통하

631) 예. 이. 피쉬어, 「基督教社會改良의 原理와 方法」 『기독신보』, 1931년 6월 10일.

632) 崔淳周, 「教會發展과 經濟生活」 『기독신보』, 1931년 1월 21일.

633) 도이명, 「성공의 사다리」 『신학세계』 13권 3호, 1928년 5월.

634) 이순기, 「사회문제와 기독교」 『기독신보』, 1927년 7월 27일.

여 공존공영의 신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목적이었다.<sup>635)</sup>

“우주를 지배할 주인공이 인생이라면 우리 인생을 주장하는 것은 생명이다. 그러므로 가장 완전한 생활을 도모하거나 또는 가장 화려하고 실질적인 생활을 하려거든 안으로 는 개인의 생명이 정당선에 서서 동하여야 하고 단체도 마찬가지이다. 밖으로는 그 생 들을 장애하는 모든 것을 배격 또는 거절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절제운동이 대두되 는 것이다. 절제운동의 근거는 하나님의 크신 경륜과 통일되는 데 입각한다. 이 운동의 근본문제는 각개의 생명을 완전히 양성하며 거기서 오는 발전으로 맺어지는 그 결과를 선이 처리하고 선이 조화하는 데 있다.”<sup>636)</sup>

‘완전’하고 ‘선’한 삶을 꿈꾸며 생활을 하나님의 경륜에 맞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절제운동의 근거이자 목적이었다. 금주·금연으로 ‘그리스도의 성전인 몸’을 깨끗 하고 건강하게 가꾸고, 폐창을 통해 윤리적으로 건전한 가정을 지키고, 물산장려와 소비절약을 통해 경제적인 환경을 윤택하게 하고, 생활개선을 통해 문명화되고 근 대적인 사회를 창조한다는 것이다.

농촌운동가 유재기는 한 손에 성경과 한 손에 쟁기를 들고 농민을 실질적 물질 적으로 구원하는 것에서부터, 음주, 도박, 미신, 불평등이 가득한 현재를 예수존을 건설함으로써 영적으로도 구원할 것을 주장하였다.<sup>637)</sup> 앞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농 촌운동과 절제운동이 함께 추진되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결국 이를 통해 추구한 것이 기독교적 이상사회 건설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금주, 공사창폐지, 미신타파의 절제운동은 “聖化생활의 本意를 가급적 실현시키자는 노력”으로서 천국운동으로 규정되었다.<sup>638)</sup> 채필근은 절제운 동이 개인구원에 방해되는 술, 담배를 제거하는 운동이자, 사회방면으로는 경제적으로 궁박하고 도덕적으로 결핍된 조선사회를 구하는 운동으로서, 결국 이 땅에 천국을 실현하는 운동이라고 보았다.<sup>639)</sup>

“우리의 본능은 우리가 가진 생명을 보담 더 풍성하게 하며 보담 더 윤택하게 하려 한 다. 그래서 정신을 건전케 하여써 생각게 하고 몸을 튼튼케 하여써 실행하고 잇는 바이 다. 그것은 철학 과학이 발달되어 온 것과 예술이 전개되어 온 것과 윤리도덕이 향상되 어 온것이 증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개인으로서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 이면 그의 생명 은 피폐하게 되어 마침내 파멸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고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맞 가진 공간과 맞가진 시간에 적당하게 보호하며 그 세력을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방법으

635) 李桓信, 「都市敎會의 俗化와 그 對策(七)」 『기독신보』, 1931년 2월 18일.

636) 「사설: 節制運動의 眞意」 『기독신보』, 1934년 8월 8일.

637) 劉在基, 「예수존건설의삼대리론」 『농민생활』, 1931년 9월.

638) 송상식, 「절제운동은 어떠한 것이며 敎會가 하는 理由」 『기독신보』, 1934년 8월 8일.

639) 蔡弼近, 「敎會의 本務로서 본 節制運動」 『기독신보』, 1934년 8월 8일.

로 절조있게 발휘하여야 한다. 그리하여야 우리의 생명은 풍성하게 되며 따라서 윤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의 방도는 어떠한 것인가 첫째로는 시간의 절용 둘째로는 정력(精力)의 절용 셋째는 물질적 절용이다. 즉 시간은 생명과 같으며 시간을 허비 남용하는 것은 생명의 소비요 생명의 남용이다. 그런고로 시간을 절용하여야 할 것이며 또는 정역의 절용이다. 아무 일이나 심하여서는 쓸데없는 일에 정역을 소비하는 것은 가장 가치있는 일 또는 쓸데있는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매 인생전체와 또는 자기 개체에 대하여 큰 손해요 따라서 사회의 죄인이라 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물질에 대하여서는 물론 원칙적으로 마니 생산하여 적당히 소비하는 것이 당연하려니와 생산은 공이면서 소비만 하려는 더구나 생활에 필수품도 아닌 것을 구하노라고 시간 정역 물질 등을 허비하는 것은 개인자신이 멸망을 자취함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인간사회 전체에 대하여 용서할 수 없는 큰 해독자이다.

그런고로 우리는 이 절제생활의 운동을 사상적으로 고취하며 논리적으로 조직화하며 실제로 선전하며 실행하여 이 사상을 민중화시키며 이 운동을 습관화하여 우리 사이에는 썩어진 과거를 자랑하는 데 허비하지 않고 현재를 투명하게 보며 이상적 장래를 그리는 데 용력함이 있을 뿐이며 사약같은 담배나 아편을 피우는 것과 술을 마시는 것이 없으며 저급의 오락에 시간, 정역, 물질을 허비함이 없고 다만 위대한 진리와 고결한 정취를 탐구하며 성스러운 도덕에 수양을 연습하기에 힘을 뿐이어야 하겠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 정역 물질들을 한 데 모아서 원대하고 원만한 세력을 만들어 가지고 神國을 건설하기에 꾸준히 싸우자!“(640)

건전한 정신과 건강한 몸을 가꾸고 정력의 절용을 통한 적당한 시간과 공간의 배치가 삶을 풍성하고 윤택하게 하는 방법이자, 위대한 진리와 고결한 정치, 성스러운 도덕 수양을 통해 이상적 장래를 그릴 수 있는 길이었다. 이러한 생활전체의 개선, 절용, 중용이 절제운동이고 그것을 통해 ‘神國’ 건설을 도모하였던 것이다. 기독교인의 사명이 이 땅에 ‘천국’ 또는 ‘신국’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때, 생활개선운동은 기독교적 이상사회를 지향하며 그러한 사명을 실천하는 것이었다.

---

640) 「사설: 節制生活과 그 運動 ‘生道の 調節」」 『기독신보』, 1932년 2월 3일.

## VI. 결론

### 1. 절제운동의 결과 및 영향

금주운동에 대한 각지의 호응도 컸지만, 이에 못지않은 비판도 있었다. 고상한 취미를 즐길만한 형편이 되지 않는 피폐한 조선의 백성들이 술과 담배마저 못한다면 어디에서 위안을 찾을 수 있겠냐는 것이 비난의 요지였다. 술과 담배는 노동자가 하루 열 시간 넘게 일한 뒤, 가장 적은 비용으로 피곤을 풀어낼 수 있는 오락물인데, 이를 금하자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구호라는 것이었다.<sup>641)</sup>

금주금연운동의 영향 및 효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종교단체가 중심이 되어 도덕적 견지에서 선전하는 금주운동은 신자 이외에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단체 내부의 수양에만 그칠 뿐 그 물질적 효과가 사회사업으로 나타난 예가 별로 없다는 것이었다.<sup>642)</sup> 교회에서 금주강연을 들은 사람이 “나쁜 것이니 모두 마셔 없애 버리자”고 외쳤다는 풍자가 있을 만큼 금주의 실효성에 대한 조소도 있었다.<sup>643)</sup>

금주활동의 전개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었다. 그것은 주류소비량의 지속적인 증가가 말해주는 결과였다. 기독교계 내부에서도 유사한 평가가 이어졌다. 감리교 선교사 사우어(Charles A. Sauer)는 1928년 현재 절제운동에 진전이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교육자들이 절제운동에 대한 인식이 일천하고 음주에 대한 기준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음주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조선경제가 개선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선교본국에 절제운동 전담 선교사 파견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에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금주운동에 매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644)</sup>

이러한 비판에 대해 기독교인들은 다음과 같은 말로써 반론을 폈다.

“禁酒한다고 今日 複雜多端한 社會問題가 解決되는 것이 아니나 음주는 이 실정에 있어서 경제적 도덕적 이 民族의 將來가 暗澹함은 사실일 것이니 우리가 헛된 생각이 아니라 實際方面에 잇서서 이 民族에게 술마시는 習慣이 없어진다면 먼저 술을 마시지 말아

641) 酒春生, 「朝鮮에 만악 禁酒問題가 나온다면」 『별건곤』 7호, 1927년 7월.

642) 「時相漫話」 『별건곤』 30호, 1930년 7월.

643) 「목사와 금주강연」 『비판』, 1931년 6월.

644) Charles A. Sauer, "Growth of Liquor Traffic", KOREA CONFERENCE, *Annual Report of the Broad of Foreign Missions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Korea Mission 1994-1943), 1928.



야만 되겠다는 意識만이라도 준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것붙이요 更生의 道임을 알 수 없는 것이다. 이점에 있어서 우리의 금일 운동이 헛되지 않은 것을 확신하는 동시에 굳은 용기와 신념으로써 전조선면려청년동지에게 새로운 전선이 전개되었음을 외침과 아울러 힘과 힘이 같은 의식으로 뭉치고 싶다. ....요컨대 오늘에 있어서는 금주는 사회문제의 일지엽적 부분해결이 아니라 전민족이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갱생하는 최초의 발로인 것을 알 수가 있다”(645)

즉, 금주금연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습관을 없애고 의식을 바꾼다는 점만으로도 앞으로 기대할 효과와 의의가 있다는 것이다. 또 금주금연운동이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운동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우리의 事情이 역색함만을 울지말며 또한 우리의 生活이 貧乏함만을 歎息치 말고 좀 더 勇力을 가다듬어 가지고 이 事情이 生活로불어 向上함에 있고 發展됨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朝鮮사람된 우리들이 또한 앞으로 빛나는 福祉의 生活을 바랍시다-라고 하면 반듯이 누구나 다-같이 朝鮮을 研究하며 깊이 生覺함이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누구나를 母論하고 다-같이 이 나라를 爲하여 活動하며 奉仕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에서도 말한 바가 있어거니와 우리는 좀 더 冷情한 批判과 銳利한 觀察을 가지고 모든 事物을 解剖하여 그 어떠한 眞理를 깨다른 바가 있다고 하면 한갓 血氣에 뛰며 情念에만 움직이지 말고 그리구 큰 事業과 活動만을 要求치말고 그 中 가까운 곳에서 그리고 그 中 可能性이 많은 것에서부터 實行하며 英斷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筆者는 말하면 消極的 問題요 또한 識者階級에서 까지 다-度外視하는 節制生活 卽 禁酒禁煙 運動에 對하여 또다시 이 小論을 發表하며 同志諸賢의 舉隅의 一助를 삼고저 함이 있습니다.”(646)

절제운동은 조선의 복지생활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일 가운데, 가능성 있는 사업, 가까운 곳에서 찾을 수 있는 작은 실천의 첫걸음이라는 것이다.

금주금연운동은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사회일반에 금주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는 영향을 끼쳤다.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절제운동의 확산을 호소하였다. 음주는 생존과 관계없는 “사치적 욕망에 불과”함으로 이의 절제를 통해 일상생활에서의 절제의 단련을 주장하였다.(647) 또, 평양 기독교절제회의 금주운동에 대해 “조선에서 1년에 1백70만 석의 술이 양조되고 있는 한, 해마다 조선 내에서 3,530만 원이란 거액의 돈을 담배 빨아 연기로 태워버리는 우매한 행동이 유지되는 한 생활고를 운운하는 것은 광자(狂者)”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술은 바야흐로 全民族의 精神을 陶醉시켜 버릴 危機에 到達하였다. 여기 對한 全民族的 對策

645) 勉勵生, 「禁酒卽 活路」 『기독신보』, 1930년 4월 30일.

646) 鄭一亨, 「節制運動의 展望」 『신생』 2권3호, 1929년 3월.

647) 「사설: 節制生活의 鍛鍊」 『동아일보』, 1934년 1월 27일.

이 생겨 나지 않으면 장래에는 오직 絶望이 가로 놓여 있을 따름”이라고 하며 절제운동을 지지하였다.<sup>648)</sup>

조선일보는 “음주가 신체에 해독을 주고, 경제상 손실을 주며 안일과 음란의 기풍을 조장하여 풍교상 중대 영향을 끼치니 반드시 종교가만 淸教를 자랑하기 위한 금물이 아니라”며 술과 담배가 세상의 근심을 잊게 하는 고상한 취미로 향유되기도 하지만, 완고한 도학자적 견지를 떠나 현재 경제상 불가피하게 금지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았다. 주세액이 전체 조세액 가운데 지세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 주대와 연초대의 합이 초등교육비의 7배가 넘는 현실을 바라볼 때, 금주운동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보다 열심을 내어 할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sup>649)</sup>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기독교계의 금주운동에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사회각계의 지지와 성원을 호소하는 한편 여러 형태로 협력, 후원하였다.

금주운동의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성과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미성년자음주흡연금지법의 제정이었다. 1919년 제한선교사연합회가 총독부에 개혁건의서를 제출하면서 일본에서처럼 조선에서도 미성년자의 흡연을 금해줄 것을 요구한 이래<sup>650)</sup>, 1922년 북감리교가 미성년자금주금연을 총독부에 청원할 것을 결의하는 등 미성년자에 대한 음주흡연 금지법 제정 노력은 계속되었다. 1929년 소년음주흡연금지법안 실시 운동을 결의하고, 1931년, 1932년에는 교회소속 학교에 음주흡연 교사를 채용하지 말 것과 학생들의 금주금연을 교육국에 청원하기도 하였다.<sup>651)</sup>

1930년에는 남·북감리회와 장로교총회, 조선주일학교연합회, 조선기독교절제운동회,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회가 협동하여 ‘미성년자각연음주금지법실시운동기성동맹’을 창립하였다. 이 단체는 YMCA와 면려회조선연합회, 성결교와 구세군에게도 참가를 권유하면서 전기독교적인 협력단체 구성을 목표로 하였다. 감리교 선교사 반복기와 뻬커(Becker, A. L)를 통해 미국금주동맹, 세계금주동맹에 운동비 후원을 요청하고, 보통학교 조선어독본에 음주를 조장하는 내용이 있다면서 총독부 당국에 삭제를 요구하는 등의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sup>652)</sup> 이 단체가 총독부와 의견

648) 「사설: 節制있는 生活」 『동아일보』, 1934년 3월 2일.

649) 「조선과 금주금연운동」 『조선일보』, 1930년 5월 27일.; 「금주운동」 『조선일보』, 1935년 6월 1일.

650) Mission Body on Reforms in Korea, Federal Council of Protestant Evangelical Missions in Korea, September 29, 1919. *Japan Advertiser*, 1919년 10월 19일자. 민경배, 『한국 기독교 사회운동사』 p. 190.에서 재인용.

651) 『감리교연회록』, 1922., 1931., 1932.

652) 집행위원장- 김창준 이용설, 총무- 송상석, 상무위원- 차재명 이대위 김경우 변성옥 등. 「少年의 飲酒吸煙 反對運動의 炬火」 『동아일보』, 1930년 4월 14일.; 「수백만미성년위하여 금연금주운동의 봉화」 『중외일보』, 1930년 5월 8일.; 『조선일보』, 1930년 5월 8일.

교섭을 시도하는 활동을 시작으로 1935년 12월 윤치호를 위원장으로 하는 ‘미성년자 음주깍연 금지법 실시 축성회’가 다음과 같이 조직되었다.

위원장: 윤치호(기독교청년회 조선연합회 회장)

위원: 정인파(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장), 양주삼(기독교조선감리회 총리사), 조만식(조선일보 고문), 석근옥(조선주일학교연합회), 김창준(감리교 협성신학교 교수), 오궁선(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교장), 유억겸(조선기독교교육협회 총무), 이건영(구세군조선본영), 백낙준(연희전문학교 문과 과장), 채필근(조선기독교절제운동회 회장), 이대위(기독교청년면려회 조선연합회 회장), 이효덕(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 총무), 이항신(감리회 엠윗청년회 회장), 송진우(동아일보 사장), 방응모(조선일보 사장), 여운형(조선중앙일보 사장), 송상석(축성회 총무)<sup>653)</sup>

조선 기독교계가 망라되고 동아일보, 조선일보, 조선중앙일보 등의 언론기관도 참여하여 민족주의계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들의 활동에 힘입어 마침내 1938년 ‘미성년자음주흡연금지법’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sup>654)</sup>

653) 「미성년금지법실시촉진운동 전조선에 기성동맹을 결성」 『동아일보』, 1935년 12월 1일.; 「조선도 緊切한 소년금지법」 『조선중앙일보』, 1935년 6월 1일.; 「少年禁酒法實施 創立委員會를 組織」 『기독신보』, 1935년 12월 25일.; 「미성년자 음주흡연 금지법안축성회」 『매일신보』, 1935년 12월 18일.

654) 「미성년금지법 22일 각의에서 정식으로 결정, 명일 官報로서 공포」 『동아일보』, 1938년 3월 26일.; 송상석, 「미성년자의 음주흡연금지법실시에 이르기까지」 『절제시보』, 1938년 4월 20일. 법안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제7호 미성년자 음주 흡연 금지법

1. 미성년자 음주 금지법

제1조 미성년자는 주류를 음용하지 못함.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이를 감독하는 자는 미성년자의 음주하는 줄을 알 때에는 이를 제지할 사. 영업자로서 그 업무상주류를 판매 또는 공여하는 자는 미성년자의 음주에 쓸 것임을 알고 주류를 판매 또는 공여하지 못함.

제2조 미성년자가 그 음주에 쓸 목적으로 소유 또는 소지한 주류와 그 기구는 행정처분으로써 이를 몰수하고 또는 폐기하든지 기타 필요한 처치를 할 수 있음.

제3조 제1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자는 과료에 처함.

제4조 영업자가 미성년자 또는 금지산자가 될 때에는 본법에 의하여 이를 적용할 법측은 이를 법정대리인에게 적용한다면 영업에 관하여 미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진 미성년자에게 대하여는 차한에 부재함. 영업자는 그 대리인, 호주, 가족, 동거자, 고용인과 기타 동업자로서 그 업무에 관한 본법에 위반할 때에는 자기의 지휘가 아니라는 리유로써 처벌함을 면하지 못함. 명치 33년 법률 제52호는 본법에 의한 범죄에 이를 준용함

2. 미성년자 흡연 금지법

제1조 미성년자는 연초 흡연을 하지 못함.

제2조 전조에 위반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행정처분으로써 깍연을 금지키 위하여 가지고 있는 담배와 기구를 몰수함.

제3조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그 내용을 알고도 그 깍연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는 때는 일원 이하의 과료에 처함 친권자를 대리하여 감독자의 책임이 있는 자도 전항에 의하여 처단함.

제4조 미성년자에게 그가 자용할 줄을 알고도 담배와 또는 기구를 판매하는 자는 십원 이하의 벌

애초 일제는 이 법안을 제정하는 데 미온적이었다. 일본에서는 이미 미성년자 흡연이 1900년 3월 6일자로 발표된 법률 제 33호로, 음주는 1922년 3월 29일 제정된 법률 제 20호로 각각 금지되고 있었으나 식민지 조선에는 이의 제정을 미루고 있었다. 주세와 연초세를 통해 조세수입의 상당액을 충당하고 있었던 총독부 당국으로서는 그 수입이 줄어들 여지가 있는 법안의 제정이 반가울 리 없었다. 더구나 이것은 술과 담배의 살포와 공창제 도입으로 조선인의 생활과 정신을 지배하려는 그들의 의도에도 부합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 시기 법령이 제정될 수 있었던 것은 총력전 체제로 돌입하며 우량한 황국신민 양성에 총력을 기울이던 일제의 의도가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닐까 한다. 일본에서 우수한 병력을 확보하기 위해 조혼과 다산이 장려되고 영유아 사망 감소를 위한 모자보호법 등이 제정되는 사정과 관련하여 조선에서도 건강한 병력 확보를 위한 사전 조치로 시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내선일체를 강조하는 시대적 분위기 가운데서 법령제정을 끊임없이 촉구하는 조선인의 요구를 총독부가 무시할 수 없었던 측면도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공창폐지운동은 결과적으로 폐창을 이루어내지 못했고, 기독교계 이외의 활동도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렇게 공창폐지운동이 확산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사회운동을 담당했던 대다수가 공창제가 식민지 체제의 산물이므로 지배체제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은 한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개벽』의 논자는 공창은 일본 지배계급이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의 선구대로서 출현한 제도로서, 생활난으로 결혼하지 못한 무산계급 남성과 성매매를 통해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무산여성이 유곽주인의 착취와 관의 보호아래 성황을 이룬다고 하였다. 공창을 지지하는 죄가 성매매여성이나 그를 찾는 노동자가 아닌, 유곽주인과 관헌, 근본적으로는 빈부대립의 사회제도에 있다고 보고, 때문에 공창폐지를 주장한다면 먼저 자본주의를 타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지 않고 풍기·인도상의 문제로 해결하려 한다면 제2, 제3의 문제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었다.<sup>655)</sup>

여기에서도 당시 만연했던 성문화는 폐지론에 귀를 기울일 여유를 주지 못했다. 1920년대 중반부터 조선사회에는 유흥비에 엄청난 액수가 소비되고, ‘에로’문화가 범람했다.

“조선사람, 일본사람 할 것 없이 ‘부어라 마시자, 불러라 듣자’하고 흥청거린 사람의 수효는 1년간에 2,559,860명. 이 2백여만 명 흥청거리폐들이 술에 홀리고 노래에 날린 돈은 11,714,000여 원으로 日本의 首府 東京 全市의 遊興費 1,500만원과 비슷하다

금에 처함. 법률 제33호(『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제27회회록』, 부록, 1938년)  
655) 木覓山人, 「時評:公娼廢止運動과 社會制度」 『개벽』 45, 1924년 3월 1일.

고...”<sup>656)</sup>

잡지마다 기생을 비롯해 카페 여급, 여배우는 물론 전문직 신여성에 대한 외모 품평이 허다했다. 심지어 유곽의 영업진행과정을 취재하면서, “무엇이 여자를 그러케 만드렀나? 알아볼 것도 없고 알나고 할 것도 없다”<sup>657)</sup>고 하는 남성본위의 사회 속에서 공창폐지운동은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 때문에 여성들도 공창폐지가 현실에서 이루어질 거란 기대를 별로 하지 않았다.<sup>658)</sup>

비록 가상토론이긴 하지만, ‘연애자’는 자기 ‘연애’에 방해되니 공창을 폐지하자 하고, 교육자는 여학생을 데리고 놀 수 있으니 폐창해도 된다고 하는 등의 이면을 꼬집는 풍자도 있었다.<sup>659)</sup> 이는 당시 폐창논의가 고조되어 있었지만, 공창폐지운동에 대한 일반인들의 태도가 다소 냉소적이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 전개된 기독교 공창폐지운동의 실천방식은 빈약했다. “民智가 열리고 사상이 높아지면, 불합리한 법률에 대하여 반항의 소리가 크고 정리다운 법으로 고치라는 부르짖음이 높아지면, 집정자도 종당 그 논을 청취할 것이다”<sup>660)</sup>라는 전망은 막연한 희망론에 기반한 원론적인 의견이었다. 때문에 공창폐지운동은 대부분 선전시위, 빠라 산포, 강연회, 광고, 총독부에 폐창 진정서 제출 등의 소극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사회구조적 산물로 수립된 공창제를 폐지하는 방법은 체제 전복밖에 없는 식민지 상태에서, 이러한 활동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다. 비록 소극적인 방법일지라도 폐창의 필요성을 각인시키는 데는 일정한 정도 기여한 부분이 있다. 또한, 부분적일지라도 성매매 여성들의 대우개선에 일조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사회일반에서 성매매 여성들을 외면할 때, 사회적 약자였던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구제책 마련에 노력하는 등 꾸준히 진행되었던 점은 긍정적인 점이라 하겠다.

소비절약과 생활개선운동은 사회주의자들로부터 근본적 해결이 아니라 착취를 강화하는 것으로서 조선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빈민의 삶과는 동떨어져 “상공업자의 켜르주와지와 결탁하여가지고 대중을 괴만하”는 개량주의적 운동이라는 비판을 받았다.<sup>661)</sup> 신간회 간부 중 한 명은 “소비절약, 금주단연, 색의단발, 조혼폐지 등 생활개선운동으로 조선농촌을 구제하겠다고 생각하거나 더욱이 최급무라고까지

656) 忙中閑人,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동아일보』, 1927년 1월 23일.

657) 探花郎, 「遊廓은 이런곳이다」 『신여성』, 7권 5호, 1933년 5월.

658) 呂順玉, 「性에 關한 問題의 討論(其二)- 理想的 家庭制 妓生撤廢」 『동광』 28, 1931년 12월

659) 「大大諷刺 新春誌上座談會」 『별건곤』 26호, 1930년 2월.

660) 辛厚承, 「公娼廢止運動에 對하야」 『기독신보』, 1927년 7월 20일.

661) 金一英, 「生活改新運動에 對하야」 『조선지광』, 1929년 6월.

생각하는 자가 있다면 천치가 아니면 극악한 반동배다. 3旬 9食에 소비절약은 죽으라는 말ियो, 국가의 권력으로 해도 못하는 금주를 더욱이 금연을 망해가는 농민에게 강요해서는 꿈에도 효과가 못 나는 것이다. 죽어가는 환자에게 彩衣를 입히거나 상투를 떼거나 조혼을 하거나 말거나는 생명을 구제하는 약방문이 못된다”고 강하게 비난했다.<sup>662)</sup>

그러나, 소비절약·생활개선운동은 민중들의 지지와 호응을 받았다. 조선일보의 생활개신운동이 많은 신간회 지회나 근우회 지회, 여성동우회지회가 참여하는 가운데, 도시에서 농촌까지 전국적으로 지지를 얻으며 확산된 것도 이를 보여주는 예이다.<sup>663)</sup> 구체적인 성과보다는 소비절약과 생활개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를 받아들인 조선인들이 곳곳에서 생활개선운동을 지지했다.

소비절약·저축, 생활개선은 당장의 긴급한 과제이자 현실속에서 실행가능한 방법임과 동시에 이상사회의 동경이 내재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으면서 각 지방 말단에 이르기까지 확산될 수 있었다. 생활개선을 통해 고쳐야 할 것, 즉 색의착용, 관혼상제비 절감, 허례폐지, 금주금연을 포함한 소비절약은 조선민족을 위해 혹은 기독교인으로서 받아들이고 실천할만한 충분한 고려의 대상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의 폐지와 절제를 주장하는 절제운동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금주운동이 활발할 때 양조업자가 폐업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sup>664)</sup>

때문에 사회주의자들의 비판도 그리 지속적이지는 못했다. 임봉순 같은 사회주의자들도 규칙적인 생활과 금주금연, 계획적인 일상을 생활개선의 방법으로 제안하기도 했다.<sup>665)</sup>

한편, 생활개선운동은 총독부 주도의 생활개선운동과 그 주장과 실천요목에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조선총독부는 제1차 세계대전 후의 공황을 생활개선이라는 구호로 극복하고자 한 일본에서의 움직임을 그대로 받아들여 1924년 2월 일본의 생활개선동맹회의 그것과 내용이 유사한 ‘생활개선에 관한 선언’<sup>666)</sup>을 선포하고 그

662) 「농촌문제특집호」 『동광』, 1931년 4월.

663) 전국의 新幹會 조직과 체육회, 여자청년회, 少年會 등이 호응하면서 확산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선전강연회와 가두시위가 전개되었다. 곳에 따라서는 신식홍업과 생활개신을 목적으로 공제조합(안성, 영덕)이 창립되기도 했고, 체육회(안성),早起會(강화, 강진, 고창, 감포, 회령) 등이 조직되었다. 의주에서는 생활개신연구회가 상설기관으로 조직되기도 했다. 무료 건강진단과(안주), 단발식(영주, 갑산), 활동사진 상영과 음악회가 이어졌다. 신체건강, 가정평화 근검절약 생활개선을 목표로 조기회를 설치하고 동리의 불신자를 포함하여 공동청소, 산보, 체조를 하기도 했다. 『조선일보』, 1929년 5월 18일., 1929년 5월 19일., 5월 20일., 5월 21일., 5월 22일., 6월 1일., 6월 19일., 6월 24일., 8월 25일., 『기독신보』, 1930년 4월 23일.

664) 이효덕, 「개척자의苦心記」 『절제』 재건2호, 1955.

665) 任鳳淳, 「健康三戒命嚴守- 家庭生活改新 새해로부터 實行하려는 것」 『별건곤』 25호, 1930년 1월.

해 12월 생활개선실행회를 설립했다.<sup>667)</sup> 생활개선실행회는 1921년 7월 설치된 총독부 사회과가 발기하여 관공리를 중심으로 유지들이 모인 단체였는데, ‘의식주와 예의의 악폐를 개선하고 일상생활을 합리적으로 만들어 능률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직이었다.<sup>668)</sup> 총독부는 각 도에 국민생활개선사항을 잘 실행하도록 권장했고, 농촌진흥운동이 시작되면서부터는 영농개선과 관련하여 색의 착용, 자급자족과 소비절약, 부인 근로, 미신타파 등을 주장했다.<sup>669)</sup> 1934년 婚喪祭의 의례준칙(관통첩 제39호)을 제정하고<sup>670)</sup>, 1937년에는 ‘사회풍조일신 생활개선 10則’을 제정하였다.<sup>671)</sup>

생활개선운동은 ‘모범부락’ 설정을 통해 이루어졌는데,<sup>672)</sup> 모범부락의 수는 1926년 말 158개에서 1930년 257개로 증가했다. 그러한 모범부락들에서의 장려사항을 보면 산업장려(산미증식, 부업장려, 농구개량, 공동작업, 가축 가금 장려 등)와 함께 위생 강조, 염색의복 장려, 관혼상제 비용 절약, 절약 절주, 근검저축, 시간업수 등 생활개선에 관한 것이 가장 많았다. 즉 산업개량과 풍습과 생활개선이 모범부락의 최대 목표임을 알 수 있다.<sup>673)</sup>

그런데, 조선총독부가 의도한 생활개선운동은 사회주의와 독립사상을 배제하고 조선 구래의 폐습(미신, 흰옷, 조혼)의 개선, 시간과 노동력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자력갱생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조선총독부 조사과의 ‘조선생활 및 민족조사사업’<sup>674)</sup>을 담당한 善生永助는 1925년 9월 총독부 내무국 사회과의 농가경제조사와

666) 구체적 내용은 시간존중과 정시여행, 연말연시 선물폐지, 축의·부의 폐지, 송연연회나 세배, 술잔 돌리기 폐지, 결혼식 및 장례의 간소화, 절주절연, 도시락 지참, 복장의 일원화, 조선의복의 변경, 가구류 간소화, 여성 의류와 장신구의 간소화, 현금거래, 연회방식 개선, 저축장려, 선전일 제정 등이다. 朝鮮總督府, 『朝鮮』 106호, 1924년 2월.

667) 生活改善實行會, 「地方改良の跡, 生活改善實行に就いて」 『新民』 창간호, 1925년 5월.

668) 생활개선실행회, 「생활개선실행에 就아야」 『新民』 창간호, 1925년 5월.

669) 농촌진흥운동기 생활개선은 각종 구성원 전부가 노동에 참여함으로써 노임을 절약하고 생산을 증대하며, 자급자족과 절약의 철저화를 추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일제가 1937년 병참기지화정책에 몰두하면서 국민정신충동원령을 발포한 뒤부터는 오직 전쟁 수행을 위한 생활 전면에서의 물질·노력·시간의 절감이 강요되었다. 井上和枝, 「1920-1930년대 일본과 식민지 조선의 생활개선운동」 나카무라 사토루·박섭 엮음, 『근대동아시아 경제의 역사적 구조』, 일조각, 2007, pp. 327-341.

670) 『조선총독부관보』 1934년 11월 10일.; 『동아일보』, 1934년 11월 11일.

671) 『동아일보』, 1937년 10월 10일.

672) 1920년대 초반의 모범부락은 이 때 실시되던 산미증식계획과도 관련하여 농사개량, 생산력 증진을 주 목표로 삼는 것이 많았지만, 중반 이후 사회주의가 유입되고 민족해방운동이 활발해지자 농촌치안대책의 방편으로서, 즉 통치거점으로서 기능이 강화되었다. 권태익, 「1920-1930년대 일제의 동화정책론」 『한국 근대사회와 문화Ⅲ』,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pp. 20-35.

673) 윤해동, 『지배와 자치』, 역사비평사, 2006, pp. 307-310.

674) 조선총독부는 1915년 5월 관제개정으로 종래 참사관실에서 담당하던 ‘舊慣 및 制度’에 관한 조사를 중추원으로 이관하여 민사, 상사관습을 중점을 조사토록 했다. 1919년 村山智順을 촉탁으로 하여 ‘사회사정조사’에 착수하여 1924년 교통, 備荒, 제도와 생활상태 조사를 마치고 小田内通敏에

1926년 조사결과를 근거로 조선의 생활양식을 비판하고 1930년 ‘생활의 합리화’를 주장하는 글을 발표하였다. 그는 생활개선운동은 ‘생활의 합리화’라고 하면서 조선의 가정생활 특히 조혼제도를 비판했다. 생활양식에서는 의복생활의 비효율성과 민족성 측면에서 감정적이고 사고력이 결핍되어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할 것을 주장했다.<sup>675)</sup>

이렇듯 총독부의 생활개선운동과 기독교계의 생활개선운동은 현상적 실천방식은 유사했지만, 내면의 목적이 달랐다. 일상을 살아나가는 개인들에게 ‘절약해서 살아보자’, ‘생활을 개선해서 좀 더 나은 삶을 기대해보자’는 명제는 실천할 수 있는 문제이고,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기독교계에서 주장한 생활개선운동이 내용면에서 총독부의 그것과 상당부분 겹치지만 주장의 유사성이 의도와 목적마저 동일하다 간주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같은 종류의 운동으로 묶는 것은 곤란한 점이 있다.

총독부가 생활개선운동을 통해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식민지적 인간상 구현과 이후 전쟁동원을 위한 물자·시간절약에 몰두했다면, 기독교인들이 주장한 생활개선은 경제적 현실의 실천가능한 차원에서의 극복, 문명적이고 기독교적 윤리에 부합되는 정비된 삶의 양식으로의 개선을 목적했던 것이다.

## 2. 절제운동 단체의 변질과 해산

1930년대 중반 이후 일제의 탄압이 노골화 되고 교회 내부에서 사회운동을 배척하는 분위기가 가중되면서 교회의 사회운동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했다.<sup>676)</sup> 절제운동, 농촌운동 모두 마찬가지였다. 1937년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가 사회신조를 폐기하면서 절제운동을 비롯한 기독교 사회운동은 운동기관이 해체되거나 변질되면서 막을 내리게 된다.

먼저 기독교년면려회 조선연합회는 1938년 5월에 일제에 의해 강제 해산당하게

---

게 위촉하여 ‘部落調査’를 담당케 했다. 이후 이 조사는 차츰 총독부 조사과로 이관되어 부락조사는 善生永助에 의해 마무리 되어 21권의 「朝鮮總督府調査資料」로 간행되었다. 박현수, 「日帝의 식민지 調査機構와 調査者」 『정신문화연구』 21권3호, 1998, pp. 17-27.

675) 善生永助, 「生活의 合理化」 『文教의 朝鮮』 57, 1930년 5월.

676) 기독교계 내부에서 교회의 사회운동에 대하여 ‘교회의 할 일과 세상이 할 일이 다르다’ ‘신령체인 교회가 아닌 독립 기관으로 할 것’ 등의 비판과 교회는 ‘순복음’에 매진할 것을 주장하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농촌운동, 절제운동 등이 주춤해진다. 崔赫宙, 「李鐘範氏의 苦言을 듯고(1)」 『기독신보』, 1935년 11월 6일.; 金麟瑞, 「教會 할 일과 敎人의 할 일이 다르니라」 『信仰生活』, 1936년 7월.; 蔡廷敏, 「敎農運動의 可否」 『信仰生活』, 1936년 6월.; 金聖鐸, 「總會 農村部 存廢問題에 對하여」 『신앙생활』, 1936년 7월.



된다. 우선, 1937년 8월 선전에서 면려청년회 평북 연합회와 YMCA 인사들이 금주금연운동에서 불온문과 불온 노래를 인쇄 반포했다 하여, 姜信明, 朱德均 등 6명을 보안법, 출판법 위반으로 검거된 일이 있었다.<sup>677)</sup> 1937년 6월에는 제8회 전조선면려회 금주운동의 개최를 앞두고 전국 각 지회에 보낸 팜플렛 가운데 “滅亡에 陷한 民族을 救出할 基督人의 役割”이라는 문구가 문제가 되어 서기 이양섭이 체포되어 심문받던 중 동우회 인사들이 관련되어 있음이 드러나게 되었다.<sup>678)</sup> 이에 동우회 임원들을 비롯하여 모두 181명이 치안유지법으로 체포되는 동우회 사건이 발생했고 잇달아 면려회도 “사정에 의해 해소”당하게 된 것이다.<sup>679)</sup> 이후 총회의 면려회부가 공려부로 명칭을 바꾸고 명맥을 유지하였지만 그전과 같은 사회운동보다는 교회내적 사업에 주력하게 된다.

감리교 절제회는 1938년 이후까지 계속 존재한 듯하지만 특별한 활동은 보이지 않는다. 일제가 1932년 농촌진흥운동을 시작하면서 기독교계와 동아일보, 조선일보, 천도교의 농촌운동을 금지시키고 또 일부를 흡수했듯이 감리교 절제회도 마찬가지로 길을 걸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감리교가 1939년 일본메소디스트와의 합동을 논의한 이래, 1940년 10월 총리원 이사회에서 “我 國體의 眞精神과 內鮮一體의 원리를 실현하여 銃後 國民의 의무를 이행하고 신체제에 순응함은 我 기독교인의 당연한 急先務”라고 ‘혁신안’을 발표하고, 1941년 일본교단 규칙에 따른 ‘기독교조선감리단’을 조직하여 전쟁물자 동원과 ‘절제보국’을 외치는 것을 보아서도 알 수 있는 일이다.<sup>680)</sup> 조선 민중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극복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전개된 절제운동이 이 시기에 이르면 전쟁동원을 위한 물자절약과 저축으로 변질되어 장려되었다.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는 1930년대 후반 들어서면서 여러 차례의 강연이 중지되는 일을 겪으면서 활동에 제제를 받기 시작했다. 진남포의 강연중에 “삼천리 반도”라는 말이 문제가 되어 강연을 금지당하기도 하였고, 강원도 평창, 천원읍 등에서 강연이 중지되었다. 1938년에는 이효덕이 경찰에 필적검사를 받는 등, 총력전 체제로 접어들면서 절제운동에도 일체의 감시가 심화되고 있었다.<sup>681)</sup>

한편,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는 1937년 세계여자기독교절제회연합회에 가입한 회원국이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먼저 조직되어 폐창운동 등에 열심이었던 일본기독교

677) 조선총독부, 『最近의 朝鮮治安狀況』 『한국독립운동사』 V, pp. 487-488.

678) 조선총독부, 『最近의 朝鮮治安狀況』 『한국독립운동사』 V, p. 487.

679)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록』, 1938년 ; 김권정, 「1920-30년대 기독교인의 민족운동 연구」 숭실대 박사논문, 2000, p. 172.

680)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기독교의 역사II』, pp. 302-323.

681) 이 때문에 이효덕은 총무 8년간의 기록을 스스로 불태웠다고 한다. 홍우준 편, 『평창의 별 이효덕전도사』, 한국기독교문화원, 1980, pp. 60-69

부인교풍회를 자매단체로 인식하고 있었다.<sup>682)</sup>

이후 1939년 일본기독교부인교풍회가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원 3,000명을 회원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이래,<sup>683)</sup>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는 1939년 6월 일본교풍회와 합류하고 명칭을 「日本基督教婦人矯風會朝鮮分會」로 고칠 것을 결의함으로써 일본여자교풍회에 종속되었다.<sup>684)</sup> 1940년 일본기독교부인교풍회 조선연합분회 총회에서는 개회사에서 황국신민의 서사가 낭독되고 있다.<sup>685)</sup>

일제의 감시로 인해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의 활동에서 민족적 성격이 배제되고, 일본여자기독교절제회에 흡수되면서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는 해체된다고 할 수 있다.

절제운동 지도자들의 변절도 이어졌다. 송상석은 일본 금주동맹의 『금주신문』에 미성년자음주흡연금지법안 제정을 요구하는 글을 실었는데, 여기에서 그는 일본에서 실시되고 있는 이 법안을 조선에서 실시하지 않는 것은 ‘一視同仁’의 선언에 어긋난다며 당국에 실시를 촉구하였다. 그는 심지어 국가유사시에 국방 제일선에 설 미성년 청년들의 심신을 파괴하는 음주흡연의 풍습을 법령을 통해 막아야 한다고 하였다.<sup>686)</sup> 식민지 현실과 총독부 통치를 인정하고 그에 순응하는 가운데 일본과 동등한 대우만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조선을 살리는 운동’으로서의 금주운동의 역할은 어느덧 오로지 ‘금주’만 강조되는 가운데, 근본 취지와 목적이 변질되어 갔다.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 회장이었던 유각경과 총무였던 장정심은 1938년 6월 24일 여성단체연합회에서 주최한 시국강연회에서 각각 ‘시국과 여성의 각오’, ‘보국과 절제’라는 제목으로 강연하고 있다.<sup>687)</sup> 유각경은 “자력갱생의 의기”가 넘쳐흐르는 때에, 다만 더욱 장려할 것은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문맹을 퇴치할 것과 흑색 일변도의 의복을 보기 좋은 다른 염색의로 고쳐 입자고 했고, 오궁선은 “동아 평화 안정 위해 모든 점 교정하여 건전한 국민을” 만들어야 한다면, 여성들을 대상으로 노동복을 부끄러워하지 말 것, 의복을 검소하게 하고 절미, 저축, 혼식을 할 것, 남자가 없을 때 가정의 책임은 주부의 몫임을 깨달을 것 등을 강조하고 있다.<sup>688)</sup> 총

682) 실제로 홍에스터는 1934년 일본여자교풍회 대회를 견학하고 그들의 선진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고 배우자는 글을 기독교신보에 발표하기도 하였다. 「원가지에 붙었는가?」, 『기독교신보』 1934. 5. 30 ;정요섭, 『한국여성운동사』, 일조각, 1971.

683) 日本キリスト教婦人矯風會 編, 『日本キリスト教婦人矯風會百年史』, ドメス出版, 1986, p. 673.

684)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 교풍회와 합류」, 『동아일보』, 1939년 6월 21일.

685) 『婦人新報』 1940년 8월호, 42-43항.(宋連玉 「日本の植民地支配と國家的管理賣春-朝鮮の公娼を中心に」, 『朝鮮史研究會論文集』 32. 1994에서 재인용)

686) 송상석, 『한국절제교육연구사료집』, pp. 502-503.

687) 임종국, 「일제친일군상의 실태」, 『해방전후사의 인식』, 한길사, 1979, pp. 246-247.

독부가 전시체제를 맞이하여 극단적 절약을 강조하였던 생활개선의 논리를 답습·선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듯 운동 단체가 해산되면서 절제운동은 더 이상 기독교적 특성을 드러내거나 조선인의 경제생활 안정을 위해 진행되지 못하고, 운동의 주체들이 변절하면서 총독부의 생활개선운동 및 총력전체제 선전에 흡수되었다.

### 3. 절제운동의 성격 및 의의와 한계

이상으로 살펴본 절제운동을 정리하면서 절제운동의 성격 및 의의와 한계까지 살펴보고자 한다.

절제운동은 음행과 호색, 술취함과 방탕함을 경계하는 성경의 논지를 바탕으로 금주·금연, 아편금지, 공창폐지운동 및 나아가 소비절약과 생활개선운동을 포함한다. 애초 절제운동은 금주운동을 의미했는데, 이것은 미국에서 시작된 절제운동이 금주를 가장 큰 목표로 출발한 데서 비롯된다.

그러나, 일제시기 조선에서의 절제운동은 금주금연운동이 주를 이루었지만, 점차 생활 전체로 확대되었다. 금주금연, 공창폐지, 소비절약 및 허례허식과 일상생활의 개선에 이르기까지 삶 전체를 절제·개선하는 것이 절제운동의 범위였다.

기독교 절제운동은 19세기 미국 대각성운동의 하에서 진행된 경건운동에서 비롯되었다. 성령의 특별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완전’을 획득한 인간이 자신과 사회를 변화시킴으로써 새천년의 도래를 앞당길 수 있다는 믿음은 세속적 삶에 물들어 있던 미국사회를 각성시키며 금주운동을 촉발시켰다. 그리고 대각성운동의 결과로 나타난 폭발적인 해외선교 열의는 조선에도 영향을 끼쳤다. 청교도적·경건주의적 신앙과 빅토리아적 윤리를 내면화 하고 있던 대다수의 내한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 술, 담배, 아편, 축첩은 절제의 대상이자 폐해야 할 악습으로 간주되고 이에 영향받은 조선 기독교인들도 이의 금지를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기독교인으로서 구별되는 삶의 표준으로 여겨졌던 금주금연, 아편 금지, 축첩 금지 등의 절제윤리는 식민지화 이후 본격적인 ‘절제운동’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물산장려운동으로 대변되는 1920년대 초반 경제적 실력양성운동이 전국적으로 펼쳐지면서, 금주금연의 경제적 측면이 부각되고 기독교계와 일반을 망라하여 곳곳에 금주금연회가 설립되는 성황을 이루었다.

특히 반종교운동을 계기로 교회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반성이 나타나면서, 사회운동의 일환으로서 절제운동이 떠올랐다.

---

688) 유각경, 「義務教育과 色衣問題」 『朝光』 5권 1호, 1939년 1월.; 오궁선, 「男性보다 목어운 女性의 집」 『家庭之友』, 1941년 2월.

절제운동의 전개에는 식민지화 이후 기존에 자가용으로 제조, 소비되던 술과 담배가 영업용으로 제조·판매되면서 막대한 주세, 연초세가 부과되고, 담배의 경우는 이후 전매제로 전환되면서 총독부 재정의 중요 충당원이 되었던 사정도 큰 영향을 주었다. 기독교인들은 당장의 의식주에 관계없는 술과 담배로 인해 가정 경제가 더욱 어려움에 빠지고 더욱이 그것이 식민당국의 재정이 된다는 점을 비판하고 금주금연운동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또한, 일제의 공창제도의 도입과 운영, 성매매 여성의 열악한 처지, 사회에 만연한 향락문화는 공창폐지운동을 야기했다.

총독부의 아편의 재배와 밀매도 술, 공창, 아편을 ‘三害’로 여기고 이의 퇴치를 주장하는 절제운동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일제 식민지 정책의 폐해를 목도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여 개인의 성결 문제였던 술, 담배, 공창, 아편 등이 본격적인 사회운동으로 확대되어갔던 것이다. 미국의 절제운동이 개인윤리·사회정화 차원에서 전개되었다면, 1920·30년대 전개된 절제운동은 그것에 더하여 민족의 경제적 현실을 소비를 절약함으로써 조금이나마 극복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었다.

이러한 절제운동에는 기독교 여성들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개항 이후 비로소 국민의 일원으로서 등장하게 된 여성들은 특히 가정의 책임자인 주부로 탄생하게 된다. 여기에는 가정학의 등장과 보급이 영향을 끼쳤는데, 이는 특히 여성들의 교육이 여선교사들에 의해 이루어지면서 확산된 측면이 강하다. 가정을 지키는 역할이 여성에게 부과되면서 절제운동에서 여성의 역할이 부각되었다. 이는 3·1운동 이후 여성의 의식 성장과 여성단체의 조직이 이를 뒷받침하였다.

절제운동은 개신교 양대 교단이었던 장로교와 감리교에서 농촌운동과 함께 전개한 대표적인 사회운동이었다. 감리교는 연회 안에 절제부를 두었고 각 지방회에도 절제회를 조직하여 절제운동을 전개하였다. 감리교연합청년회인 엽윳청년회도 절제운동을 실천하는 데 앞장섰다. 장로교는 총회 안에 절제부를 따로 설치하지는 않았지만 연합청년회인 기독교청년면려회를 중심으로 절제운동을 전개하였다. 사회참여에 적극적이었던 구세군도 구세신문의 금주호 간행과 배포, 성매매 여성 보호 등에서 두각을 보였다. 1923년 조직된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는 기독교계와 일반사회를 망라한 대표적인 절제운동단체였으며 특히 민족주의 여성들이 대거 참여하여 절제운동의 확산에 이바지하였다. 1927년 금주단연동맹이, 1932년 조선기독교절제운동회가 창립되어 금주금연운동과 소비절약운동에 노력하였다. 이밖에도 평양금주동맹회, 조선금주운동단 등 크고 작은 절제운동 단체들이 있었다. 대표적 기독교사회운동 기관이었던 YMCA와 YWCA도 절제운동에 참여하였다.

절제운동은 금주금연운동, 공창폐지운동, 소비절약과 생활개선운동을 포함하는데, 금주금연운동이 가장 대표적인 활동이었다. 강연회와 금주금연회 조직을 통한

계몽과 절제운동의 저변 확산, 대대적인 가두선전, 다양한 언론·출판 활동, 총독부에 대한 청원 등으로 나타났다.

금주금연 가두선전은 가장 눈에 띄는 활동으로서 전국 각지에서 이루어졌으며 특히 1930년대에 들어 대규모로 진행되었다.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는 조선기독교연합공의회 및 장감교회와 연합하여 가두선전을 진행시켰고, 면려회와 평양물산장려회, 금주단연동맹도 연합하는 가운데, 조선일보의 후원을 얻으며 그 선전효과와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었다.

강연회와 지회별 활동은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가 주력한 부분이었다. 순회총무를 두어 전국 각지에서 강연회를 개최하고 지회를 조직하는 한편, 매월례회마다 강연내용을 통일적으로 회람하여 계몽과 단결을 도모하였다. 언론·출판을 통한 계몽운동은 대표적 기독교 언론인 『기독신보』가 꾸준히 사설을 발표하고 기사를 게재하면서 절제운동의 확산을 도왔다. 또한, 교단 신학잡지 등과 절제운동 단체들의 각종 기관지 및 단행본 출간, 논문 현상, 웅변대회 개최 등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활동에 내재된 금주금연의 배경과 논리는 우선 그것이 ‘성전된 몸’을 더럽히는 행위라는 종교적 이유에 있었다. 그러나 금주금연운동은 단순한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경제적 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문명부강한 나라를 목적하는 가운데 전개된 것이었다. 신체적·정신적 해독을 주는 원인으로 지목된 음주와 흡연은 그것이 유전되어 열등 자손을 낳아 사회적으로 큰 손실을 준다는 우생학론으로까지 이어졌다. 사회적 차원에서 금주금연은 개인과 민족의 정신을 개조하고 폐습을 타파하여 도덕성을 바로 세우고 ‘민족 경륜의 건실한 동력’, ‘조선 민족의 활로’로 적극적으로 인식되었다.

공창폐지운동은 선교사들로부터 시작되어 공창폐지기성회를 조직하고 총독부에 지속적으로 공창제를 폐지하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또 금주단연선전과 마찬가지로 공창폐지운동도 여러 가지 선전 계몽활동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기독교인들은 공창제를 인도적 차원에서 없애야 할 제도로써,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는 제도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성매매 여성에 대해서는 윤리·도덕적 입장에서, 그들이 정숙하고 순결한 일반 여성과 구분되는, 깨끗한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원흉으로 보아 반드시 없애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제적 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달으며 어쩔 수 없이 성매매업에 노출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그들의 비인간적 삶을 목격하면서 점차 공창제도를 식민자본주의의 산물로 이해하고, 성매매 여성들은 사회경제적 구조의 희생양으로 인식하면서 실질적인 구제책 마련에 노력했다.

소비절약과 생활개선운동은 절제운동이 식민지 사회 현실과 맞닥뜨려 구현된 내용이었다. 192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경제적 상황이 더욱 악화되자, 절제운동

담당자들은 이전까지의 절제운동이 도덕적 의미에만 치중되어 왔음을 반성하고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활동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이전보다 절제운동이 대규모화되고 활성화 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서 소비절약과 생활개선운동을 전개하기에 이른다.

정치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식민지적 상황에서 절약과 저축은 가장 실천하기 용이한 경제적 대책이었다. 각지의 금주금연회나 교회, 절제운동 단체에서 절약·저축회 및 소비조합을 설립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경제생활의 원만한 운용은 생산과 소비의 조화인데, 식민지 현실에서 생산이 불안정하므로 소비절약, 생활절제가 대안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었다. 이는 종교적 절제윤리를 경제적으로 전환·발전시킨 것이었다.

생활개선운동은 금주금연에서 나아가 생활 전체를 개선·절제하는 것으로 발전한 절제운동의 분야였다. 음식과 의복 등에 대한 극단적인 내핍의 강조와 허례허식의 폐지, 풍기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생활개선운동은 경제적 개선뿐만 아니라 도덕과 인격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경제와 인격을 동시에 강조한 내면에는 최소한의 경제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노력과 중국에는 근대적이고 문명적인 기독교 이상사회를 목적으로 하였다.

각각의 운동에 공통적으로 흐르는 논리는 청교도적·경건주의적 윤리와 기독교의 대사회적 책임 감당의 의무, 사회 평화 및 개조로의 열망이 담겨 이를 통해 지상에 천국 건설을 목표로 하였다. 금주·금연으로 ‘그리스도의 성전인 몸’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가꾸고, 폐창을 통해 윤리적으로 건전한 가정을 지키고, 물산장려와 소비절약을 통해 경제적인 환경을 윤택하게 하고, 생활개선을 통해 문명화되고 근대적인 사회를 창조한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나타나는 절제운동의 성격과 특징 및 의의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절제운동은 기독교계열이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전개한 대표적인 사회운동이었다.

전영택은 그리스도의 진리는 하나이지만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은 개인적인 것과 사회적 방면 두 가지의 길이 있다며 그 중 한 가지만 부족해도 기독교는 생명력을 잃는다고 인식하고 사회운동의 중요성을 주목했다. 그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한 후에 와서 예물을 들이라’고 한 예수의 가르침을 인용하면서, 현재의 빈곤, 불공평, 압박, 모든 불의한 제도를 그냥 두고 그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고, 기독교의 복음을 실생활에 적용시켜 사회의 근본상태를 고쳐야 한다고 피력했다. 미국의 노예해방과 금주법의 실시를 기독교의 진리가 사회적으로 실현된 것, 실생활에 적용된 예로 들면서, 조선 기독교는 조선사회의 일부로서

조선인의 현실생활을 도와주지 못하면 그 존재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했다.<sup>689)</sup>

이를 위해 그는 다음의 세 가지를 기본 조건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첫째, 예수의 사랑과 그를 믿는 신자의 믿음, 둘째, ‘조선사람’의 생각과 생활, 경제, 셋째, 사회생활, 즉 복음과 예수의 정신을 사회생활에 실현시키는 것이었다. 그는 이 세 가지에 기반한 교회가 ‘참 조선사람을 살릴 그리스도교회’라고 보고, 조선사람을 위한 기독교운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예수가 영과 육을 분리하여 보지 않았던 것처럼, 조선사람을 물질과 정신의 모든 면에서 전적으로 구할 것을 주문하였다.<sup>690)</sup>

그러한 때, 절제운동은 사회문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책임”으로서, 경제문제 민족문제에 당면하여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근본운동이었다. 감리교 연회 절제부 위원장이었던 김창준은 간디가 인도의 민족경제운동을 일으킬 때, 가장 먼저 금주운동을 제기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절제운동의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오늘 조선기독교인은 개인으로 보던지 단체적 행동으로 보던지 너무 한편으로만 치우치지 않는가? 영혼과 육신을 아울러 구원하고 마음에 죄악과 사회죄악을 동시에 청결기로 운동하는 것이 예수가 친히 행동으로 우리에게 모범을 주지 아니하였는가 참으로 조선을 사랑하고 조선을 완전히 구원코저 하는 형제자매들이여 우리는 분기합시다. 힘을 합하여 이 운동에 참가합시다.”<sup>691)</sup>

이런 맥락에서 절제운동은 신자들만의 것이 아니라 사회전체로 확산시켜야 할 사회운동이었다. “예수와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으로 이 사회를 혁정코저 하는 열정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가련한 조선을 이 모든 사회적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해 “교육적으로 과학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민중적 운동으로” 이를 발전시킬 것이 당부되었다.

정인과는 기독교인이라면 교회나 전도사업에만 사랑과 희생정신을 발휘하지 말고 이 정신을 상업, 공업, 그 밖의 모든 산업과 인류전체에까지 실현시켜야 한다며 사회운동에의 착수와 그 중요성을 역설했다.<sup>692)</sup> 아울러 기독교운동이 사회의 번영과 안녕, 정화를 위해 전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相愛主義, 利他主義, 犧牲主義를 사회생활의 최고 지도원리라고 파악하고 박애의 정신이 사회 구원의 길임을 역설

689) 전영택, 「十九世紀 基督教社會運動」(二)·(三) 『기독신보』, 1931년 2월 25일., 1931년 3월 4일.

690) 전영택, 「現代教會는 朝鮮을 救할 수잇슬가」(1)-(9) 『기독신보』, 1931년 10월 14일., 10월 21일., 11월 4일., 11월 11일., 11월 25일., 12월 2일., 12월 16일., 12월 23일., 「現代教會는 朝鮮을 救하라면(三)」 『기독신보』, 1932년 2월 10일.

691) 김창준, 「禁酒運動과 朝鮮基督教人」 『기독신보』, 1932년 2월 3일.

692) 鄭仁果, 「基督教의 社會改造論」 『종교시보』, 1934년 4월.

했다.<sup>693)</sup>

즉, 절제운동은 영혼구원과 함께 사회적 구원도 감당해야 하는 기독교인들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일로서 전개된 사회운동이었다.

둘째, 절제운동은 개인 및 민족의 정신개조, 폐습타파를 목적으로 한 윤리실천운동이었다. “기독교는 성결과 절제의 생활로서 아름다운 오락을 삼게 하는 것”이라는 개인적 신앙적 실천윤리는 사회적 현실에 맞닥뜨려 구체화되었다.<sup>694)</sup> 만만치 않은 세금에도 불구하고 술, 담배의 소비고가 나날이 늘어가고 당시 사회에 성병이 만연했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절제운동은 사회에 만연한 이러한 문제를 정화하려는, “죽어가는 민족을 살리고 파멸에 임한 사회를 개조하는 사회운동”이었다.<sup>695)</sup>

“교회의 목적이 세상을 구하고 천국을 건설하는 것이라면 음주로 인하여 생명을 버리고 재산을 허비하고 많은 죄악이 늘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으라. 지상천국을 이룬다 하면서 모든 죄악과 부도덕이 사회에 가득찼다면 거기에 천국이 임할 수는 도저히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자기의 목적을 달하라면 사회 도덕에 대한 절대 책임이 있다 생각한다.”<sup>696)</sup>

사회 도덕에 대한 ‘절대 책임’을 진 기독교인들이 사회를 개조·정화하는 일에 나서는 것이 사명으로 당부되었다.

기독교인들은 빈곤과 제반 사회문제들이 나타나는 것은 제도상의 문제와 사회적, 정치적인 원인뿐만 아니라 정신적 방면에도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sup>697)</sup> 그리고 민족이 어려움을 겪는 것도 허욕, 부절제 등 도덕적·정신적 타락이 작용된다고 보았으며,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국가와 민족이 융성하는 길이라 여겼다. “민족적, 정치적 개조를 지속하려면 도덕적, 신령적 종교의 원칙하에서 해야”<sup>698)</sup> 할 것과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근심하는 이 정의와 도덕의 혁명을 일으키라”는 주장이 전개되었다.<sup>699)</sup>

왜냐하면 “민족 발전의 조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건실한 민족성과 건전한 도덕성”이기 때문이었다.<sup>700)</sup> 절제운동은 그러한 도덕적·정신적 순수의 회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693) 鄭仁果, 「現代的基督教運動」 『삼천리』, 1934년 9월 1일.

694) 鄭仁果, 「현대적 기독교운동」 『삼천리』, 1934년 9월.

695) 류형숙, 「敎役者와 禁酒運動」, 『기독신보』, 1928년 7월 25일.

696) 金保麟, 「교회와 절제운동」 『기독신보』, 1935년 3월 6일.

697) 「사설: 社會運動과 宗教運動의 一考察」 『기독신보』, 1926년 9월 22일.

698) 「사설: 現代에 處한 基督教會의 使命」 『신학세계』, 1928년 5월.

699) 박세광, 「예수는 의로운 혁명가」 『신학세계』, 1933년 5월.

700) 「사설: 禁酒運動의 意義」 『기독신보』, 1933년 2월 22일.



절제운동은 “조선민족의 생활을 도덕화시키려는 아니 기독교화시키려는 기독교 신자들”의 “선전용투”의 움직임<sup>701)</sup>, “육을 살니고 령을 살니는 운동이며 죽어가는 조선을 살니는 운동”이었다.<sup>702)</sup>

한편, 면려회 금주운동을 준비하던 강신명, 이양섭, 주덕균 등이 금주금연운동과 관련된 선전, 노래로 검거되었는데, 이것은 금주금연운동이 일제의 식민통치 질서에 대한 도덕적 저항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sup>703)</sup>

셋째,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절제운동은 소극적이거나 경제운동이었다.<sup>704)</sup> 민족의 유일한 재산인 토지의 60%가 일본의 손에 넘어가고 공황을 맞이하여 파국으로 치닫는 경제상태에 직면하여 이를 조금이라도 추스릴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 외래품 배척, 토산품 사용, 자급자족, 소비절약, 금주금연이었다. 절제운동은 당면한 경제문제의 해결을 최우선에 두고 진행되었으며 실질적으로 조선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인식되었다. 기독교인들은 이민족 지배하에서 생존을 위한 경제운동은 물산장려와 자급자족에 기초한 절약뿐이라고 보았고 금주금연운동을 당시 조선이 요구하는 운동으로 파악했다.<sup>705)</sup> “세계열국의 군비축소를 요청하는 것보다 약소민족해방운동을 맹렬하게 하는 것보다 조선××문제를 考究하는 것보다도 조선의 내부에 포용되어 있는 난치의 문제부터 근본적으로 해결하여야겠다”는 주장은 민족주의 계열의 외교독립론이 난관에 부딪치자 국내 실력양성운동으로 교육·경제 방면에서 개량주의적 민족운동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절제운동이 대두되었음을 알게 한다.<sup>706)</sup>

1920년대 초반 민족주의 계열이 직접적인 항일투쟁에서 점진적인 실력양성으로 그 운동노선을 선회하면서 신문화건설·실력양성론의 영향 아래 농민회, 청년회가 중심이 되어 금주·금연회가 각지에서 나타났는데, 기독교의 절제운동도 그 가운데 하나로 역할을 했다. 이것은 당시의 물산장려운동과 더불어 민족주의 계열이 추진한 대표적인 경제운동이었다. 『기독신보』는 이를 “현대 조선의 2대 풍조”로 파악하고 “토산품을 장려하고 담배와 술을 끊어 조선인의 잘사는 길은 이에서 비롯”된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운동을 경제운동으로 정의하고 “그것이 비록 尠少한 듯 하지만 정신적으로 우리 민족의 사활의 초점이 되는 분기전에서 일어나는 정신적 생명”이라고 주장하면서 기독교인 누구를 막론하고 운동에 동참할 것을 촉

701) 이응숙, 「廢娼運動의 戰士가 되자」 『신학세계』 12권 2호, 1927년 4월

702) 손메례, 「朝鮮의 禁酒運動」 『기독신보』, 1930년 4월 30일.

703) 조선총독부, 「최근의 조선 치안상황」 『한국독립운동사』 5권, pp. 487-488.

704) 「기독면려청년 중심 전조선에 금주운동. 조선인의 소극적인 절약운동」 『조선일보』, 1930년 5월 4일.

705) 채필근, 「自作自給 節約貯蓄」 『東光』, 1932년 3월.; 김수철, 「基督教社會事業의 一考察」 『진생』, 1929년 10월.

706) 崔啓哲, 「朝鮮의 三大問題와 基督教」, 『진생』, 1929년 9월.

구하였다.<sup>707)</sup>

경제파탄이 사회구조적 산물이기에 이를 전복시키지 못하는 한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지만, 절제운동은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에 전개된 소극적인 형태의 경제적 자구책이었던 것이다. 가장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전개된 실제적 운동으로서 민중의 호응과 지지를 얻으며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물산장려운동이 지식인 중산층을 중심으로 하는 우파민족운동가들에 의해 주도되면서 자본축적을 도모했던 것에 비하여 금주금연운동을 비롯한 소비절약운동은 민중이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으로 운동으로서 실천 가능한 일로 여겨졌다. 때문에 사회주의 일부에서 개량주의적 운동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여운형이나 홍명희 같은 인사들은 금주선전에 참여하고 강연을 통해 이를 지지했다.<sup>708)</sup>

또한, 절제운동은 종교조직을 이용한 자본유통의 기독교적 방법이었다. 절약, 저축의 절제운동은 토착자본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종교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색중 하나였다. 금주금연 절제운동을 전개하여 다수의 교인들로부터 기본금을 모으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다소의 자본을 축적할 수 있었던 것이다.

더불어, 기독교 절제운동은 1920년대부터 1930년대 중후반까지 꾸준히 전개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1920년대 들어와 일제의 정책이 이른바 문화통치로 바뀌고, 이에 따라 언론·결사의 자유가 부분적으로 보장되자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사회단체들이 속속 조직되기에 이르렀다. 이들 단체는 3·1운동이 실패로 끝나자 실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청년회와 수양회, 교육회 등이 주축을 이루었다. 이러한 가운데 금주회도 전국에서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금주회의 소식은 『동아일보』에 1921년에 15건, 1922년에 45건, 1923년에 이르러서는 무려 714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sup>709)</sup>

그런데 농민들의 금주금연운동 상황은 1924년 이후 급격히 줄어들어 1920년대 후반부터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일반 농민들의 금주·금연운동이 한시적이고 산발적으로 나타난 데 비하여 기독교 금주금연운동은 1920·30년대에 꾸준히 전개되면서 구체적인 조직을 가지고 활동했다는 점에서도 구별된다고 하겠다. “이 絶望의 農村에서 그나마 多少의 生氣라도 維持되고 또 적은 希望이라도 농지 않는 一個人 一村落이 있다면 그래도 그것은 그리스도人이거나 敎會”라는 표현에서 보듯, 1930년대 이후 생활개선운동으로 연결되면서 계속되었다.

이렇듯, 소비를 줄이고 주초를 금하는 동기는 여유있는 사람으로서 근검절약이

707) 「現代朝鮮의 二大 風潮」, 『기독신보』 1923. 1. 31 ; 「대구에 토산장려 금주와 금연까지 합하여」, 『기독신보』 1923. 3. 7.

708) 「금주선전/ 웅기기독교청년면려회에서 시가 행진 금주강연」 『기독신보』, 1933. 6. 28.; 「禁酒斷煙의 長蛇陣」 『동아일보』, 1935. 2. 18.

709) 一記者, 「벌서 一百四十同盟」, 『開闢』, 1923. 3.

나 건강위생의 필요에서가 아니라, 경제적 압박에 생활이 곤란하여 비상한 고통을 느끼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한 것처럼 절제운동은 소극적이거나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전개되었다.<sup>710)</sup>

넷째, 절제운동은 단순한 절약운동에서 나아가 생활전체를 한 단계 향상시키려는 기독교적 이상사회를 꿈꾸는 개조운동이자 근대적 가치를 지향하고 실천에 노력했던 근대화운동이었다. 그리고 세상을 개신시켜 신에 뜻에 합당한 세상을 만들자는 기독교인의 생활운동이었다.

기독교절제운동회는 금주운동의 5대 원리가 도덕문제·경제문제·위생문제·능률문제·우생학상의 문제라고 밝히고 있다. 금주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도덕적으로 사회를 개조시키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우생학적으로 우수한 후손으로 양성해 내고 효율적인 생활을 하게 한다 하여 근대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도구로 여기고 있음을 볼 수 있다.<sup>711)</sup> 송상석은 금주운동, 공사창폐지운동, 미신타파운동을 포함하는 절제운동은 모두 소극적 천국운동에 속하는 것으로서 “聖化생활의 본의를 실현시키자는 노력”이라고 하였다.<sup>712)</sup>

문선호도 “實際兼備한 宗教的 生活改善 다시 말하면 絶對正直과 絶對純潔과 絶對愛와 絶對無私 이것이 과연 우리의 관념, 사상과 동시에 생활행동계에 있어 실현케 될 때에 곧 聖化社會가 임할 것”이라고 하여 절제운동을 통해 지상의 천국실현을 기도하였다.<sup>713)</sup>

『기독신보』는 1928년 1월 1일 특집으로 ‘금주호’를 발행하면서 금주운동의 의미와 목표를 사설을 통해 밝히고 있다. 모든 사람의 인생 목적이 아름다운 사회에서 행복한 생활을 추구하는 데 있는데, 현 사회는 불행과 비애와 고통과 번민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그것을 해결하여 행복을 추구하려는 데에는 모든 불행의 원인이 되는 술을 끊어 가정을 구원하고 행복스러운 생활을 실천하기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절제운동이 개인적 인격수양이나 종교적 수련에서 나아가 ‘아름다운 사회’ 건설을 위해 해야 할 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전의 ‘못된 습관’을 버리고, ‘가정을 구원하고 행복스러운 생활’을 위해 절제운동을 실천할 것이 당부되었다.<sup>714)</sup> “천국이 빨리 임래하기를 위하여 또 하느님의 뜻이 땅에서도 하늘에서처럼 잘 성취되게 하기 위하여 절제운동을 하여야” 했다.<sup>715)</sup>

절제운동은 기독교 정신의 구현 혹은 도덕관념의 실천과 당면한 경제문제의 해

710) 「사설: 自作自給의 必要」 『기독신보』, 1923년 1월 31일.

711) 송상석, 「酒草의 害毒을 알자」 『新東亞』, 1933년 1월.; 『한국절제교육연구사료집』, 1979, p. 35.

712) 「절제운동은 어떠한 것이며 敎會가 하는 理由」 『기독신보』, 1934년 8월 8일.

713) 文善好, 「女傳道師論(二)」 『신학세계』, 1938년 5월.

714) 「禁酒號發行에 際하여」 『기독신보』, 1928년 1월 1일.

715) 蔡弼近, 「敎會의 本務로서 본 節制運動」 『기독신보』, 1934년 8월 8일.

결책, 즉 식민지현실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는 혹은 조금이나마 사람답게 살자는 의지와 아울러 중국에는 근대문명국가, 시민사회에 걸맞는 사회를 만들려는 소망으로 촉발된 것이었다. 좀 더 근대적이고, 좀 더 문명적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미국처럼 문명개화된 사회, 혹은 그러한 삶을 지향하면서 나타난 것이었다. 이런 면에서 미국은 또한 하늘이 내린 개인의 자유권, 나라의 자주권을 가진 선택받은 국가로서 동경의 대상이자 본받고 싶은 모델이었다.

금주금연으로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가꾸고, 폐창으로 빅토리아적 가정 윤리에 충실한 근대가정을 지키고, 물산장려와 소비절약을 통해 경제적인 환경을 윤택하게 하고, 합리적인 생활개선을 통해 삶과 정신을 개선·개조하여 문명화되고 근대적인 ‘기독교화한’ 사회를 창조한다는 것이다. 도덕의 부흥, 신체 건강, 재정이 부유하게 되는 기독교적 근대문명부강 사회를 꿈꾸며 전개된 운동이 절제운동이었다.<sup>716)</sup>

다섯째, 절제운동에서는 여성의 역할이 부각되었다. 절제운동의 담지자이자 대상으로 실질적 운동 과정에서 주목받으면서, 기독교계가 전개한 어떠한 사회운동보다 절제운동에서 여성들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이를 통해 여성들의 의식 개조와 여성계몽·교육에도 큰 역할을 했다.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는 감리교와 장로교단을 망라한 기독교계 전체와 일반 사회단체 가운데서 절제운동의 대표적인 단체로서 인식되었고 활발한 강연회의 개최와 지회의 조직, 각종의 출판활동과 가두선전을 통해 절제운동을 주도하였다.

당시, 교회 내에서 여성의 지위는 대부분 남성들의 보조적인 역할에 머물기 마련이었고, 그렇게 하는 것이 기대되었다. 가정 내에서 식구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던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상은 교회 내에서 신도들의 굵은 일을 도맡아하는 어머니로서의 역할로 치환되어 요구되었고, 중요 정책 결정 등에서는 제외되었다. 이에 전도부인들을 중심으로 경제적 대우에 대한 불만을 비롯하여 교회 내 여성들의 지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sup>717)</sup>

교회내의 사정이 이러할 때, 절제운동에서는 여성의 역할이 기대되었고, 실제로 그것을 수행해 내었다.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 같은 여성절제운동 단체의 활약이 비중을 차지하면서 여성들의 활동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고, 금주운동, 공창폐지운동 등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sup>718)</sup>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는 국가와 사회의 기초단위로서의 가정을 인식하고 가정 내의 여자의 역할을 강조하였으며,<sup>719)</sup>

716) 「사설: 조선의 금주인 절제운동(2)」 『기독신보』, 1924년 5월 21일.

717) 김정순, 『한국기독교여성운동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전국여전도회연합회, 1990. pp. 286-287.

718) 유각경, 「조선그리스도교여성운동」 『기독신보』, 1928년 12월 31일.

719) 손메레, 「술과 가정」 『기독신보』, 1928년 2월 1일.; 李有喜, 「우리의 가정과 술」 『기독신보』, 1928년 10월 10일.; 장정심, 「절제운동-가정과 절제」 『기독신보』, 1931년 10월 28일.;

절제운동에 섬세하고 성실한 여성의 힘이 필요함을 역설하면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여성의 역할을 드러내 부각시켰다. 특히 전국 각지에서 진행된 각종의 사회활동에서 소수 지도자층이 아닌 일반 여성들의 활동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sup>720)</sup>

여전도사나 전도부인의 교회내 지위나 대우는 논외로 하고, 그 역할에 대한 필요성이 전도, 교육, 의료적 필요성에 의해 제기될 때에도 절제운동은 그들의 사명으로서 시행이 요구되었다. 사회는 가정을 바탕으로 조직되었으므로 개인을 개신시키고 가정을 개선시키는 것이 여전도사의 사명이 되었다.

“女教師 女傳道師들이여! 그대들이 정말 이 世上을 天國化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가 만일 그러타면 自己 自身은 물론이고 네 教會 小人, 大人을 接觸하고 敎導하며 그리스도의 敎訓을 實踐化, 즉 行動化하여야 하는 것이다. 個人生活의 聖化 즉 聖潔이 빛나지 않으며 아니되겠다 淨化한 個人이 되어야 하겠다. 즉 개인의 肉體와 精神이 깨닫하여 所望과 기쁨을 가지고 前進的 生活 즉 正直貞潔을 目標하여 女子가 女子에게 또 女子가 男子에게 禁酒獎勵를 하며 傳道的 確실한 자가 되도록 하여야 하겠다.”<sup>721)</sup>

여전도사는 금주운동에 앞장서 여성들을 계몽시키고 위생, 청결, 육아법을 가르쳐야 했고, 공·사창, 기생 등 성매매 여성들에게 도덕관념이나 인생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역할과 봉사를 통해 그들에게 전도해야 했다.<sup>722)</sup>

절제운동이 특히 여성들에게 호응을 얻고 이들의 역할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음주, 흡연문제가 가정경제문제와 연결되어 있으면서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원인으로 지목되었기 때문이었다. 여성은 근대적이고 합리적인 가정을 경영하는 주부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으며, 음주, 흡연, 공창과 무절제에 빠진 남성들의 행동에 각성을 촉구하는 절제운동의 주체이자 가정수호를 위한 절제운동의 계몽의 대상이 되었다. 가정은 사회와 국가의 기초로서 금주금연, 관혼상제비 절약, 백의 금지, 위생적 생활 등 생활개량의 단위이자 실천장이었고, 가정주부는 그 역할의 담지자로서 주목되었다.<sup>723)</sup>

비록 절제운동에서 여성의 역할이 강조된 것은 가정을 지키는 주부로서의 역할에 국한하여 요구된 측면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운동의 전개를 통해 여성들의 의식이 성장하고 사회참여의 폭을 넓혀주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김 선, 「節制運動은 家庭으로부터」 『기독신보』, 1933년 8월 30일.

720) 「사설 : 조선여자 절제회」 『기독신보』, 1924년 11월 12일; 「여자절제회(9월)순서」 『기독신보』, 1930년 8월 27일.

721) 文善好, 「女傳道師論(二)」 『신학세계』, 1938년 5월.

722) 김성은, 「일제시기 근대적 여성상과 교회내 여성의 지위 문제」 『梨花史學研究』 30, pp. 441-443.

723) 「사설: 家庭改良의 必要」 『기독신보』, 1927년 4월 27일.

마지막으로 성매매여성들의 실상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구제에 노력하여 구제기관을 설립하고 이들의 재활을 도운 것은 절제운동의 큰 의의중 하나라 할 것이다.

사회주의자들은 공창폐지를 부르짖는 기독교계의 주장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자본주의 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공창은 없어질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이들은 공창폐지운동에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사회구조의 변혁이 선행되어야 공창제 폐지가 가능하리라는 생각에 ‘지엽에 불과한 공창폐지운동’보다 자유결혼, 자유이혼 문제가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기독교 공창폐지운동을 도덕주의에 기댄 이상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하였고, 성매매여성들의 실태에 더 이상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들이 성매매 여성들을 외면할 때, 기독교계에서 그들의 비참한 생활상을 주시하고 공창폐지운동을 전개한 점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공창문제가 여성의 인권과 지위의 문제로서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전개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타의 여성운동 단체들이 여기에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었던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초기의 기독교 공창폐지운동이 도덕적 측면에만 입각하여 진행되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실질적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한 것도 발전적 의의라고 할 것이다. 성매매의 원인이 모두 절대 빈곤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한 후, 기독교인들은 사회경제적 제도의 개혁을 위해 우선적으로 노동자의 최저임금의 보장, 노동시간 준수, 14세 이하 유년여성의 노동 금지, 부인야간노동 금지 등을 제창했다.<sup>724)</sup> 특히 유년 여성의 노동과 야간노동의 금지를 요구한 점은 당시 장시간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던 여성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한 현실적인 주장이었다.

그러나 절제운동은 한계 또한 가지고 있다. 우선, 절제운동에서는 식민지 경제구조속의 피폐된 경제상황과 이에 따른 궁핍과 유리, 이산, 자살, 성매매 등의 사회적 문제의 원인을 ‘실망’ ‘태만’ ‘부절제’로 보고, 높은 주세와 연초제도 부절제의 결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기독교신자는 민중 앞에 희생의 모범을 보여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소비절약의 술선과 그 방법의 지도를 당부하는 등 개인의 개조를 통해 이를 극복하려고 하였다.<sup>725)</sup>

하지만, 소비절약과 생활개선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타파해 보겠다는 생각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정신적 각성과 도덕적 책임감 내지 인격수양을 통한 생활개선은 당시 조선 민중의 경제적으로 당하는 고통의 원인을 개개인에게 넘기고 그 해결책도 개인에게 부과시켜 버리고 있다.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민중을

724) 金昌俊, 「賣笑婦와 基督教의 急先務」 『신학세계』, 1933년 1월.

725) 「사설: 實行으로 模範이 되자」 『신학세계』, 1928년 5월.

선도할 사명을 스스로에게 부여하고 있지만, 사회문제의 원인을 개인적 나태로 파악하고 각 사람의 근면과 절제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고 본 것은 한계라고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성매매여성이 된 원인을 개인적 허영심이나 정조관념이 부족한 탓으로 돌리고 ‘철없는 여성’을 힐난하면서, 이들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정 혹은 정숙한 부인들과 구분짓는 시선이 있었다. 이것은 공창문제를 식민지 현실에 기반한 사회문제가 아닌 개인의 품성문제로 국한시켜버린다. 이러한 시선은 성매매의 원인을 사회경제적 요인에서 찾은 후에도 ‘구제의 방법’ 혹은 ‘예방책’을 가정교육이나 종교교육을 통한 도덕의식 함양에서 찾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성매매 여성들을 자신들과는 다르게 구분짓는 인식이 깔려있다. ‘창기구제’는 인도적 시혜적 차원이었을 뿐, 그들을 자신과 같은 여성으로 아우르는 것은 아니었다. 이는 아직까지 극복하지 못한 인식상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sup>726)</sup>

또한, 일제식민체제를 인정하는 가운데, 합법적인 공간에서 ‘청원’이라는 형태로 진행된 것 또한 한계라고 할 수 있다. 금주금연운동은 그 전개 과정에서 과격한 시위나 투쟁은 지양되었으며 시종 온건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가두시위 선전은 캠페인 성격의 거리행렬이었고 미리 경찰서에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진행되었다.

미성년자음주흡연금지법 제정 촉진운동과 법령 통과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미성년 금주금연법안의 통과는 그 자체로서는 절제운동의 한 구체적 성과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그것이 전적으로 총독부 청원에 의지한 것이었고, 추밀원 고문을 비롯해 검사총장, 육군중장 등의 일본 정관계 인사와 일본여자기독교교풍회, 일본금주동맹의 후원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sup>727)</sup> 때문에 법령 발포이후 미나미(南次郎) 총독에게 사의를 표하고 축하연 자리에서 총독과 동경적무대신 오오다니(大谷尊由)의 축하 받는 등 지극히 ‘합법적’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식민지 내부에서 일어나 모든 운동에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로서,

---

726) 이것은 여성해방을 부르짖었던 사회주의 단체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청년여자의 단결의 힘과 상호부조의 조직으로써 여성해방을 기”할 것을 천명하고 1926년 5월 17일 조직된 고성여자청년회는 “당분간 退妓는 입회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우고 그들을 조직적으로 배제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바로 다음날인 5월 18일 吉慧星을 중심으로 한 몇몇 퇴기여성들이 固城女性覺醒會를 조직하고 고성여자청년회 입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결국 이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길혜성 이하는 固城女子青年同盟을 조직하고 고성여자청년회와 반목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일은 진주에서도 있었는데, 1925년 12월 8일 진주여자청년회가 창립되면서 “기생을 제외”한 모든 여성들의 입회를 촉구하여 차별과 배제를 양산하고 있었다. 朴惠蘭, 「1920年代 社會主義女性運動의 組織과 活動」, 이화여대 석사논문, 1992, pp. 73-75.

727)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제27회회록』, 1938.

폭력투쟁을 제외한 모든 운동은 체제내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것만으로 절제운동의 모든 의의가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생각된다.

일제시기 사회운동은 민족의 해방에 기여해야 한다는 명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때문에 식민 권력에 직접적인 투쟁으로 전개되지 못한 사회운동은 개량주의라는 비판을 받았고, 개인이나 단체의 추구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 추진된 사회운동이 저항적 측면을 배제하고 순수 사회운동만을 지향하게 되면 민족적 책임 문제와 친일 문제와 연관되어 그 성과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또, 식민권력과 타협하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주장한 논리가 유사하거나 실천한 운동양상이 비슷할 경우에도 그 운동의 선후관계는 무시되고 모두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일제 시기 ‘저항’과 ‘협력’으로만 구분지을 수 없는 민족·사회 운동의 영역도 분명히 존재하였던 바, 민족운동의 ‘저항’적 측면에서 비껴나와 사회운동으로서의 의미를 찾는다고 할 때, 절제운동은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기독교 사회운동은 기독교가 선교 초기 문화·교육의 선구자로서 가지고 있던 위치를 점점 잃고 현실을 외면하고 구령운동에만 매달린다는 외부의 비판과 내부적 자성에 의해 촉발되어 농촌운동, 절제운동, 문화운동 등의 다양한 방면에서 나타났다. 절제운동은 기독교인의 사회적 책임을 절감하고 이를 실천하는 방법으로 나타난 것인데, 당시 조선 현실속에서 가장 시급하고 현실적인 운동으로서 인식되어 꾸준히 전개되었다.

절제운동은 주어진 조건 속에서 실천 가능한 방법으로 전개된 소극적 경제운동이자, 이를 통해 물질·정신적 생활의 향상을 기대한 사회운동이었다. 합리적인 소비로 생산수준에 걸맞는 생활을 유도하고, 물질적 뿐 아니라 정신생활의 개선을 통해 합리적이고 근대적인 사회를 이루고자 했다.

식민지 피압박민족이기도 했지만, 하루하루의 생활을 살아나가던 평범한 소시민이자 기독교를 믿는 종교인이기도 했던 그들의 인식과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볼 때, 종교적 절제윤리와 개인적 도덕심을 사회운동으로 전환하여 민중의 각성과 동의를 이끌어내고 조직적 시위와 선전을 통해 대중적으로 널리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사회운동으로서의 의의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운동의 목표가 사회구조의 개혁 뿐 아니라 주체들의 문화적 진보를 달성하려는 것이라고 할 때, 절제운동은 항일운동으로서 한계를 갖지만 사회의 변화를 의도한 사회운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항일운동만 민족운동으로 수렴된다고 할 수 없을 때,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경제적 실력양성을 꾀하고 민족의 도덕성 회복과 정신적 각성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을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자료

- 『조선총독부관보』 『조선총독부통계연보』 『朝鮮』 『경성부사』 『경성편람』  
『동아일보』 『조선일보』 『매일신보』 『기독교신보』 『구세신문』 『조선크리스도인회보』  
『종교시보』 『그리스도 신문』 『기독교보』 『별건곤』 『삼천리』 『신생활』 『개벽』  
『신동아』 『신여성』 『동광』 『조선지광』 『청년』 『절제』 『신학세계』 『신학지남』  
『신민』 『신생』 『진생』 『조선물산장려회보』 『농민생활』 『농촌청년』 『신앙생활』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회록』 『조선감리교연회록』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회록』  
『한국독립운동사』 (한국독립운동사 V- 최근의 조선치안상황)  
안대선·이대위, 『면려회지남』, 1933  
송상석 편, 『한국절제교육연구사료집』, 성광문화사, 1979  
이효덕, 『금주실화집』, 1936 틴랑·채성석, 『금주미담』, 1923  
김승태, 박혜진 편, 『내한선교사총람: 1884-1984』,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6  
김정주 편, 『한국절제운동70년사』,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1993  
대한 기독교 여자 절제회 현황 및 팜플렛(1923-1983)WCTU, 1983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양노회, 『평양노회사』, 1990.  
신홍우, 『살길을 찾자』, 源文閣, 1953  
『김인서저작전집』, 신망애사, 1974  
월리엄 블러어 지음, 김홍만 옮김, 『찬성의 고백』, 옛적길, 2002.  
이덕주·조이제 엮음,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고백』, 한들, 1997.  
조선총독부, 『조선회보』  
조선경찰협회, 『경무회보』  
조선총독부경무국, 『조선경찰개요』 1933  
차재명, 『朝鮮예수교 長老會史記(상)』 新門內教會堂, 1928.  
통감부경무국제2과, 『妓生及娼妓に關する書類綴』, 융희2년(혹은 「기생 및 창기에 관한 서류철」 『서울학자료총서』 7, 시립대 서울학연구소, 1995)  
도경찰부장회의자문사항답신서, 1935년 4월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관계자료집 근대편』 상, 하  
부산여자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일제하의 영남지역 여성관련 자료집』 상, 하 1997  
정금식 역, 『국역 관습조사보고서』, 한국법제연구원, 1992.  
道家齊一郎, 『賣春婦論考-賣笑の沿革と現況』, 史誌出版社, 昭和 3년 5월  
伊藤秀吉, 『紅燈下の彼女の生活』, 不二出判, 1931  
홍병선, 『丁抹과丁抹農民』, 조선기독교청년회연합회, 1929.  
홍병선 『農村協同組合과 組織法』, 조선기독교청년회연합회, 1930.

Annual Report Methodist Episcopal Missionary Society

Annual Report of the Board of Foreign Missions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Korea Mission 1994-1943),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Official Minutes of the Korea Mission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The Korea Mission Field

J. E. Fisher, Democracy and Mission Education in Korea,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New York, 1928,

## 2. 연구논저

### (1)단행본

3.1운동 동지회, 『한국여성독립운동사 3.1운동 60주년 기념』, 1980.

강명숙, 『일제하 한국 기독교인들의 사회 경제사상』, 백산자료원, 1999

고당 조만식선생기념사업회, 『고당조만식회상록』, 조광출판, 1995

곽안전, 『한국교회사』, 심재원 역, 대한기독교서회, 1961.

구라하시 마사나오, 박강 옮김, 『아편제국 일본』, 지식산업사, 1999.

김경동, 『현대의 사회학』, 박영사, 1981.

김남식, 『한국기독교면려운동사』 한국청장년면려회 전국연합회, 성광문화사, 1979.

김양선, 『한국기독교사 연구』, 기독교문사, 1971.

김인호, 『식민지 조선경제의 종말』, 신서원, 2000.

김효구, 『해관 오공선』, 연세대학교 출판부, 1977.

김홍수, 『일제하 한국기독교와 사회주의』,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2.

노치준, 『일제하 한국기독교 민족운동 연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3.

류대영, 『초기 미국선교사 연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1.

류대영, 『개화기 조선과 미국 선교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4.

문정창, 『군국 일본 조선점령 삼십육년사(상·하)』, 백문당, 1965.

민경배, 『한국기독교사회운동사:1885-1945』, 대한기독교출판사, 1988.

박종성, 『한국의 매춘』, 인간사랑, 1994.

박종성, 『권력과매춘』, 인간사랑, 1998.

박종현, 『일제하 한국교회의 신앙구조』, 한들출판사, 2004.

박찬승, 『한국근대정치사상사연구』, 역사비평사, 1992.

방기중 편, 『일제하 지식인의 파시즘체제 인식과 대응』, 혜안, 2005.

방기중, 『매민수의 농촌운동과 기독교 사상』, 현세대학교출판부, 1999.

변 별로·보니 별로, 서석연·박종만 역, 『매춘의 역사』, 까치, 1995.

백낙준, 『한국개신교회사』, 연세대학교출판부, 1993.

사라에벤스, 조지형 역, 『자유를 위한 탄생- 미국 여성의 역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8

손정목, 『일제강점기 도시사회상연구』, 일지사, 1996.

『여성, 깰지어다, 일어날지어다:한국기독교 여성 100년사』, 대한기독교출판사, 1985.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편, 『일제의 식민지배와 일상생활』, 혜안, 2004.

오미일, 『한국근대자본가연구』, 한울, 2002.

우에노 치즈코, 이선이 옮김, 『내셔널리즘과 젠더』, 박종철출판사, 1990.

유동식, 『한국감리교회의 역사』, 1, 기독교대한감리회, 1994.

유영렬·윤정란, 『19세기말 서양선교사와 한국사회』, 경인문화사, 2004

윤정란, 『한국 기독교 여성운동의 역사』, 국학자료원, 2003.

윤춘병, 『한국기독교신문·잡지백년사(1885-1945)』, 대한기독교출판사, 1984.

윤해동, 『식민지의 회색지대』, 역사비평사, 2003.

윤희원, 『일본 기독교의 역사적 성격』,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5.

이덕주, 『한국감리교여성선교회의 역사』, 기독교대한감리회여성선교회전국연합회, 1991.

이덕주, 『한국교회 처음 여성들』, 기독교문사, 1990.

이만열, 『한국기독교 수용사 연구』, 두레시대, 1998.

이만열, 『한말 기독교와 민족운동』, 평민서당, 1986

이만열, 『한국기독교문화운동사』, 대한기독교출판사, 1987

이만열, 『한국기독교의료사』, 아카넷, 2003,

이반송 외, 『식민지시대 사회운동』, 한울림, 1986

이배용 외, 『우리나라 여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2, 청년사, 1999.

이성숙, 『매매춘과 페미니즘, 새로운 담론을 위하여』, 책세상, 2002.

이숙진, 『한국기독교와 여성 정체성』, 한들출판사, 2006.

이우정, 『한국기독교여성100년의 발자취』, 민중사, 1985.

이지원, 『한국 근대 문화사상사 연구』, 혜안, 2007.

장규식, 『한국기독교 민족주의 연구』, 혜안, 2001.

장병욱, 『한국감리교여성사 1885-1945』, 성광문화사, 1979.

장시원 외 편, 『한국 근대 농촌사회와 농민운동』, 열음사, 1988.

장형일, 『한국구세군사』, 구세군대한본영, 1978.

장형일, 『교회와 문서선교』 구세군사료 제8집, 일라교육기금회, 1990.

전택부, 『한국 기독교청년회 운동사』, 범우사, 1994.

정석기, 『한국기독교여성인물사』, 쿤란출판사, 1995.

정태현, 『일제의 경제정책과 조선사회』, 역사비평사, 1996.

지수걸, 『일제하 농민조합운동 연구- 1930년대 혁명적 농민조합운동』, 역사비평사, 1993

천화숙, 『한국 여성기독교사회운동사』, 혜안, 2000.

최은희, 『한국근대여성사-1905-1945 조국을 찾기까지』, 탐구당, 1991.

한규무, 『일제하 한국기독교 농촌운동』,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7.

-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기독교의 역사』 I,II, 기독교문사, 1989, 1990.
- 한국여성연구회 여성사분과, 『한국여성사-근대편』 풀빛, 1992.
- 한국여성연구소 여성사연구실, 『우리 여성의 역사』 청년사, 1999.
- 한국역사연구회 근현대청년운동사연구반, 『한국근현대청년운동사』, 풀빛, 1995.
- 한근조, 『고당 조만식』, 태극출판사, 1972.
- 함한희, 『부엌의 문화사』, 살림, 2005.
- 홍우준, 『평창의 별』, 1980.
- 케네스 M. 웰스 지음, 김인수 옮김, 『새하나님 새민족』, 한국장로교출판사, 1997.
- 日本キリスト教婦人矯風會 編, 『禁酒運動の歴史』, 日本キリスト教婦人矯風會, 1980.
- 日本キリスト教婦人矯風會 編, 『日本キリスト教婦人矯風會百年史』, ドメス出版, 1986.
- 山本俊一, 『日本公娼史』, 中央法規出版, 1983.
- 吉見周子, 『賣娼の社會史』, 雄山閣出版, 1984.
- 伊藤秀吉, 『日本廢娼運動史』, 不二出版, 1982.
- 藤野豊, 『性の國家管理:賣買春の近現代史』, 不二出版, 2001.
- Blocker, Jack S. Jr. American Temperance Movement: Cycles of reform. Boston Twayne Publishers, 1989.
- Epstein, Barbara L. The Politics of Domesticity: Women, Evangelism, and Temperance on Nineteenth-Century America. connecticut: Wesleyan University Press, 1981.
- Brown, George T. Mission to Korea. Seoul: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Department of Education, 1962.
- Tyrell, Ian R. Women's World/ Women's Empire: The Women's Christian Temperance Union in International Perspective, 1880-1930.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91.
- Robinson, Michael E. 『일제하 문화적 민족주의』 김민환 역, 나남, 1990.
- Marsden, George. Fundamentalism and American Culture. Oxford University Inc., 1980 박용규 역, 『근본주의와 미국의 문화』, 생명의말씀사, 1997.

## (2)논문

- 강선미·야마시타 영애, 「천황제 국가와 성폭력: 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여성학적 시론」 『한국여성학』 9, 1993.
- 강영심, 「1920년대 조선물산장려운동의 전개와 성격」 『국사관논총』 47, 1993.
- 강이수, 「미군정기 공창폐지와 여성운동」 『미군정기 한국의 사회변동과 사회사』 2,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99.
- 강정숙, 「대한제국·일제초기 서울매춘업과 공창제도의 도입」, 『서울학연구』 11, 1998.

- 고원상, 「미국 혁신주의운동에 관한 연구-사회복음주의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 고형임, 「일제시기 선교사 윌리엄의 농촌운동」, 한국교원대학교 석사논문, 2006.
- 권태억, 「근대화·동화·식민지유산」 『한국사연구』 108, 2000.
- 권희영, 「1930년대 초 언론기관의 농촌계몽운동-동아일보사의 하기계몽운동을 중심으로」 『해군제2사관학교논문집』 1, 1979.
- 김경민, 「한국에 온 미국 선교사들의 신앙유형과 그 사상적 배경」 『교회 민족 역사』, 민경배박사교회기념논문집출판, 2004.
- 김경택, 「1910, 20년대 동아일보 주도계층의 정치경제사상 연구」, 연대 박사논문, 1999.
- 김권정, 「일제하 사회주의자들의 반기독교운동에 관한 연구」, 『승실사학』 10, 1997.
- 김권정, 「1920년대 후반 기독교세력의 반기독교운동 대응과 민족운동의 전개」 『한국기독교와역사』 14, 2001.
- 김권정, 「1920~30년대 조만식의 기독교 민족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7, 2006.
- 김권정, 「1920년대 전반 기독교 민족운동에 관한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7, 2007.
- 김덕호, 「미국의 보수주의와 금주시대의 반금주법 운동」 『미국사연구』 1, 1993.
- 김대길, 「조선후기 禁酒에 관한 연구」 『사학연구』 50, 1995.
- 김도형, 「1920년대 천도교계의 민족운동 연구」 『역사와현실』 30, 1998.
- 김동노, 「일제시대 식민지 근대화와 농민운동의 전환」 『한국사회학』 41, 2007.
- 김상태, 「일제하 신흥우의 사회복음주의와 민족운동론」 『역사문제연구』 1, 1996.
- 김성보, 「근대의 다양성과 한국적 근대의 생명력」 『역사비평』 56, 2001.
- 김 승, 「3·1운동 이후 함안지방 민족해방운동」 『지역과역사』 16, 부경역사연구소, 2005.
- 김연희, 「일제하 경성지역 카페의 도시문화적 특성」, 서울시립대학교 석사논문, 2001.
- 김영호, 「경제인으로서의 조만식」 『사회과학연구』 15, 숭실대학교 논문집, 1997.
- 김익한, 「일제하 한국 농촌사회운동과 지역 명망가」 『한국문화』 17, 1996.
- 김정인, 「일제강점기 천도교단의 민족운동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02.
- 김종용, 「한국교회의 절제운동연구」,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0.
- 김진희, 「1920-1930년대 목양 홍병선의 농촌운동론」, 교원대 석사논문, 2007.
- 김현숙, 「일제하 민간협동조합 운동에 관한 연구」 『일제하의 사회운동』, 문학과지성사, 1987.
- 노영택, 「일제하 농민의 경제운동연구-금주·단연운동의 목적을 중심으로」, 『변태섭박사화갑기념사학논총』, 1986.
- 노영택, 「천도교 농민운동의 전개과정-조선농민사의 성격을 중심으로」, 『한민족독립운동사논총 - 수촌 박영석 교수 화갑기념논총』, 1992.
- 박 강, 「조선에서의 일본 아편정책」,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998.
- 박 강, 「동북아에서의 일본 아편정책과 그 성격」 『일제강점기 민족운동과 종교』, 국학자료원, 2002.

- 박선숙, 「여성의 성을 중심으로 본 매매춘정책에 관한 연구」, 이대 석사논문, 1990.
- 박종린, 「1920년대 전반기 사회주의사상의 수용과 물산장려논쟁」 『역사와현실』 47, 2003.
- 박찬승, 「1930년대 安在鴻의 民世主義論」 『한국근현대사연구』 20, 2002.
- 박현수, 「日帝의 朝鮮調査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박사논문, 1993.
- 박현수, 「日帝의 식민지 調査機構와 調査者」 『정신문화연구』 21권3호, 1998.
- 박혜란, 「1920년대 社會主義女性運動의 組織과 活動」,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1992.
- 방기중, 「1920-30년대 조선물산장려회 연구-재건과정과 주도층 분석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67, 1996.
- 방기중, 「1930년대 물산장려운동과 민족·자본주의 경제사상」 『동방학지』 115, 2002.
- 山下英愛, 「한국근대공창제도실시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여성학과 석사논문, 1992.
- 山下英愛, 「식민지 지배와 공창 제도의 전개」, 『사회와 역사』 51, 1997.
- 소현숙, 「‘근대’에의 열망과 일상생활의 식민화-일제시기 생활개선운동과 젠더정치를 중심으로」 『일상사로 보는 한국근현대사』, 책과함께. 2006.
- 손정목, 「한국거류 일본인의 직업과 매매춘, 고리대금업」 『한국학보』 봄, 1980.
- 손정목, 「일제하의 매춘업:공창과 사창」, 『도시행정연구』 3, 1988.
- 송연옥, 「대한제국기의 ‘기생단속령’ ‘창기단속령’-일제 식민화의 공창제 도입의 준비과정」, 『한국사론』 40, 서울대, 1998.
- 송연옥, 「일제 식민지화와 공창제 도입」,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8.
- 양동숙, 「해방 후 공창제 폐지과정 연구」 『역사연구』 9호, 2001.
- 오미일, 「1910~1920년대 공업발전단계의 조선인자본가층의 존재양상; 평양지역을 중심으로」 『韓國史研究』 87, 1994.
- 오미일, 「1910-1920년대 평양지역 민족운동과 조선인 자본가층」 『역사비평』, 1995 봄.
- 오미일, 「韓末~1920年代 朝鮮人資本家層의 經濟 活動과 民族主義運動」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4 2000.
- 오미일, 「1920년대 부르주아민족주의계열의 물산장려운동론」 『韓國史研究』 112, 2001.
- 오미일, 「1920년대 민족주의계열 경제운동론의 정치적 성격」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8, 2001.
- 오미일, 「평양지역 조선인자본가들의 조합 조직과 공업 발달」 『韓國史研究』 137, 韓國史研究會, 2007
- 원미혜, 「한국사회의 매춘여성에 대한 통제와 착취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여성학 석사논문, 1997.
- 유혜정, 「일제 시기 公娼廢止運動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2002.
- 윤은순, 「1920·30년대 한국기독교의 절제운동: 금주·금연운동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 16, 2002.
- 윤은순, 「일제 강점기 기독교계의 공창폐지운동」 『한국기독교와 역사』 26, 2007.

- 윤해동, 「일제하 물산장려운동의 배경과 그 이념」, 『한국사론』 27, 서울대 국사학과, 1992.
- 유시현, 「나경석의 ‘생산증식’론과 물산장려운동」 『역사문제연구』 2, 1997.
- 이기훈, 「일제하 청년담론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05.
- 이덕주, 「한국 감리교회 사회사업사」 『세계의신학』 98, 한국기독교연구소, 1998.
- 이만열,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고당 조만식」 『사회과학연구』 15, 숭실대학교 논문집, 1997.
- 이석재, 「一家 김용기의 농촌 이상촌 건설운동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논문, 1999.
- 이승연, 「1905년-1930년대초 일제의 酒造業정책과 조선 주조업의 전개」 『한국사론』 32, 서울대 국사학과, 1994.
- 이신정, 「일제시대 한국교회여성절제운동연구-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를 중심으로-」, 감리교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 이영학, 「1910년대 일제의 연초정책과 조선인의 대응」 『한국사연구』 65, 1989.
- 이영학, 「담배의 사회사」 『역사비평』 12, 1991.
- 이윤선, 「조선농민사의 사회운동」, 한림대학교 석사논문, 2007.
- 이주형, 「18, 19세기 미국 대각성운동 연구: 역사적 배경과 영향」, 장로회신학대학교 석사논문, 2004.
- 이준식, 「일제 침략기 개량주의 사회학의 흐름」 『사회학연구』 4, 1986.
- 이지원, 「1920년대 여성운동의 이념과 활동」 『한민족독립운동사』 9, 1991.
- 이지원, 「일제하 안재홍의 현실인식과 민족해방운동론」 『역사와현실』 6, 1991.
- 이지원, 「한국 근현대사 교육에서 민족주의와 근대주체」 『역사교육』 95, 2005.
- 이태훈, 「1920년대 전반기 일제의 ‘문화정치’와 부르조아 정치세력의 대응」 『역사와현실』 47, 2003.
- 이혜석, 「한말 미국인 선교사들은 무엇을 전파하였나」 『역사비평』, 1990 여름호.
- 임경석, 「식민지 시대 한국의 민족주의와 민족운동」 『인문과학』 30,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0.
- 임종국, 「일제친일군상의 실태」, 『해방전후사의 인식』, 한길사, 1979.
- 장규식, 「일제하 기독교 민족운동의 정치경제사상-안창호·이승만계열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 장규식, 「1920-30년대 YMCA 농촌사업의 전개와 그 성격」 『한국기독교와역사』 4, 1995.
- 장규식, 「조선의 간디 고당 조만식」 『내일을 여는 역사』 26, 2006.
- 정진성, 「억압된 여성의 주체 형성과 군 위안부 동원」 『사회와 역사』 54집, 1998.
- 정진성, 「군위안부 강제연행에 관한 연구」 『정신문화연구』 73, 1998.
- 전상숙, 「물산장려논쟁을 통해서 본 민족주의 세력의 이념적 편차」 『역사와현실』 47,

2003.

- 전우용, 「일제하 민족자본가의 존재양태와 민족주의」 『역사비평』 봄호, 1992.
- 정요섭, 「일제치하의 브.나로드 운동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논문집』 14, 1974.
- 정용서, 「일제하 천도교청년당의 정치·경제사상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1997
- 정용서, 「1930년대 천도교세력의 농업문제 인식과 농업개혁론」 『동방학지』 117, 2002
- 조규태, 「1920년대 천도교의 문화운동 연구」, 서강대 박사논문, 1998
- 조성운, 「일제하 농민운동의 성격-농민조합운동과 개량적 농민운동을 중심으로」 『일제하 농촌사회와 농민운동-영동지방을 중심으로』, 해안, 2002.
- 조성운, 「1930년대 천도교의 이상농촌건설론과 공작계」 『동학연구』 16, 한국동학학회, 2004.
- 조형열, 「설태희의 협동조합주의와 ‘문화운동론」 『한국사연구』 130, 2005.
- 주익중, 「일제하 평양의 메리야스공업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4.
- 지수걸, 「조선농민사의 단체성격에 관한 연구-천도교청년당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역사학보』 106, 1985.
- 지수걸, 「1930년대 초반기 사회주의자들의 민족개량주의운동 비판」 『80년대 한국인문사회과학의 현단계와 전망』, 역사비평사, 1988.
- 지수걸, 「1930년대 전반기 부르주아 민족주의자의 ‘민족경제 건설전략」 『국사관논총』 51, 1994.
- 천화숙, 「일제하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연합회 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 최숙희, 「1930년대 조선총독부의 농촌 ‘생활개선’사업의 성격」, 고려대 석사논문, 2001.
- 최병택, 「1925-1935년 서울지역 기독교 세력의 사회운동과 그 귀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황성모, 「일제하 지식인의 사회사」 『한국의사회와문화』 14, 1990.
- 황은혜, 「한국교회 절제운동의 구조에 관한 연구-1920-30년대를 중심으로 민족사적 관점에서」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허 석, 「메이지시대 한국이주 일본인문학과 매매춘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일본어문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05.
- 허 수, 「새로운 식민지 연구의 현주소」 『역사문제연구』 16, 2006.
- Bohlmann, Rachel Elizabeth. "Drunken Husbands, Drunken State; The Women's Temperance Union's Challenge to American Families and Public Communities on Chicago." dss., The University of Iowa, 2001.
- Dorn, Elizabeth A. "FOR GOD, HOME. AND COUNTRY" The Woman's Christian temperance Union and Reform Efforts in Meiji Japan. Ph.D. dss., Iowa University, 2003.
- Dunlap, Leslie Kathrin. "In the Name of the Home: Temperance Women and Southern Grass-Roots Politics, 1873-1933." dss., Northwestern University. 2001.



Yasutake, Rumi. "Transnational Women's Activism: The Woman's Christian Temperance Union in Japan and Beyond, 1858-1920." Ph.D. diss.,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1998.

宋連玉, 「日本の植民地支配と國家的管理賣春-朝鮮の公娼を中心に」 『朝鮮史研究會論文集』 32, 1994.

宋連玉, 「朝鮮植民地支配における公娼制」 『日本史研究』 371, 1993.

尹明淑, 「日中戦争期における朝鮮人軍慰安婦の形成」 『朝鮮史研究會論文集』 32, 1994.

吉見周子, 「賣娼の實態と廢娼運動」 『日本女性史』 4, 東京大學出版部, 1982.

宮本正明, 「植民地朝鮮における'生活改善'問題の位相」 『史觀』 139, 早稲田大史學會, 1998.

倉橋正直, 「近代日本の公娼制度」 『歴史評論』 540, 1995.

石原征明, 「公娼制と廢娼運動-群馬縣を事例として」 『歴史評論』 540, 1995.

大日方純夫, 「日本近代國家の成立と賣春問題-東京付下の動向を中心として」 『日本女性史論集9-性と身體』, 吉川弘文館, 1998.

井上和枝, 「植民地其朝鮮における生活改善運動-「新家庭」の家庭改善から「生活改新」運動へ」 『1930年代の東アジア經濟』 東アジア資本主義形成史Ⅱ, 日本評論社, 2006.

## Abstract

### A Study of Korea Christian Temperance Movement in 1920-1930

Yoon Eunsoon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imperialism the Christian temperance movement formed anti-drinking and anti-smoking campaign in the majority of cases, but it was gradually expanded into the whole living. It was the sphere of the temperance movement to moderate and reform the whole living from anti-drinking/smoking, an abolition of licensed prostitution, and economy in consumption to improvement of empty formalities/vanity and daily life.

The Christian temperance movement arose from the pietist movement under the Great Awakening movement in America in 19th century.

The belief which human beings who acquire the Christian Completeness through the service of the Holy Spirit can advance the advent of the Millenium changed themselves and their society promoted anti-drinking campaign, awakening temporal American society. Then, tremendous enthusiasm of overseas missionary work, the result of the Great Awakening movement, had influence on Korea. The majority of American missionaries internalized the Puritanism/Pietism of faith and Victorian ethic was regarding alcohol, cigarette, opium, and concubinage as a target of temperance and an extirpated evil practices, so Korean Christian under the influence of American missionaries accepted the prohibitions deservedly.

As a Christian, the temperance ethics such as prohibition of drinking, smoking, opium, and concubinage, regarded a standard of living, regularly appeared after colonialization as 'the temperance movement'. The cause was that after the colonialization, alcohols and tobacco which was originally produced and consumed for personal use, had changed to commercial production and sale which levied in enormous taxes for both items and moreover tobacco business was turned into government-monopoly which

made the main tax source of colonial government. Christians spreaded out temperance and anti-smoking campaign and criticized that household economy had been in difficulties ever before by liquor and cigarette regardless of food, clothing and shelter moreover liquor and cigarette become a finance of colonizer. In 1920, prevalence of merit cultivating theory gave support to developing temperance campaign.

The introduction/administration of licensed prostitution, the prostitute in poor surrounding and diffusion of hedonist culture brought about a purification movement.

The problem about alcohol, tobacco, licensed prostitution, and opium had raised an issue of individual problem of holiness and purity expanded into social movement, looking through evil influence of Japanese colonial policy and being confronted with economic difficulty. The American temperance movement developed into the sphere of personal ethics and social purification, whereas the temperance movement in 1920~30s additionally included intention to overcome racial economic reality with frugality.

In addition, grown up women's awareness from the education of women after the opening of a port and form of women organization after the 1919 independence movement operated as the prime mover.

The temperance movement was the most common type of social movement with the farm movement under the Protestant association, the Presbyterian church and the Methodist church. The Methodist church instituted the temperance department and developed the temperance movement organizing the temperance assembly in local association. The Presbyterian church did not set up the temperance department, but they made a development focusing on Christian Endeavor Society. The Salvation Army became distinguished publication and distribution of the salvation army newspaper about section of alcohol prohibition, and prostitute protection. Joseon Woman's Temperance Union which was a representative temperance movement organized in 1923 and especially women nationalists participated in and contributed spread of the temperance movement. It also organized Union of prohibition of alcohol and smoking in 1927 and Joseon Christian temperance Union in 1932, then they strove for anti-drinking/smoking campaign and the frugality movement. YMCA and

YWCA also participated in the Temperance movement.

Anti-drinking/smoking campaign was the most representative activity in the temperance movement. The activities appeared enlightenment and spread through producing lecture meetings and anti-drinking/smoking Union and extensive street propaganda, various presses and publications, and petition to the government-general.

The background and logic of anti-drinking/smoking internalized this activity was first of all in religious reason that drinking and smoking soiled "the body as a sanctuary". The anti-drinking/smoking campaign was not developed only the religious issue, but the purpose also was to improve economic living and to make civilized, wealthy country. Drinking and smoking, as the cause of physical, mental harm, were continued eugenic theory that brought fatal social loss because of inferior heredity. From aspects of society, anti-drinking/smoking rightly formed moral by changing personal and racial mental and breaking evil custom and it was actively recognized that were 'steady power of country administration' and 'a means of escape of Joseon race'.

The missionaries had begun a purification movement at first. After, they planed conference for it and submitted petition about an abolition of prostitution to the government-general constantly. They also continued campaign for enlightenment and strove to relieve prostitutes. Christians recognized that licensed prostitution was abolished from a humanitarian point of view and was law infringe on women's right.

Christians also understood that prostitutes are distinguished from women of virtue and purity, and disrupted pure family and country, so that they agreed prostitutes should be removed. However, when the economic situation became worse, women exposed to prostitution were increasing without their will and people could observe their inhumane living, so licensed prostitution was recognized as a product of colonial capitalism and brought efforts substantial remedy for prostitutes who were victims of social economic structure.

Economy in consumption and the improvement of living conditions were embodied the temperance movement in being faced with colonial social reality. As soon as economic situation became worse in late 1920's, the

people in charge of the temperance movement reconsidered their temperance movement to give prominence meaning of morality, then they extended into the realistic, concrete activities. Therefore, the temperance movement was getting more active, larger scale than former times, and were spreading out frugality movement and the improvement of living campaign as a solution.

The organizations such as church, anti drinking/smoking Union, and the temperance Union set up frugality/saving association and consumer's cooperative society to overcome economic hardship. Though economic life operated in smooth was formed harmony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 production was unstable in colonial reality, so their activities were followed by recognition that frugality and economy in consumption were alternative plan. These were converted religious temperance ethics into economic point of view.

Campaign of the improvement of living conditions was the field of the temperance movement developing from anti-drinking/smoking campaign to whole living temperately. The purpose of improvement of living conditions that included extreme austerity life of food and clothes, abolition of vanity, and improvement of public morals was not only economic improvement, but improvement of morality and personality. In order to manage the minimum economic living and to make modernistic, civilized country, they internally emphasized economy and personality at the same time.

Common logic of each campaign aimed at construction of the kingdom of Heaven along with Puritan/Pietistic ethics, Christian obligation of social responsibility, and strong desire of purification and improvement of society. The purport was that it cleaned 'the body of Christian sanctuary' through anti-drinking/smoking and kept healthy family in ethical aspect as abolition of licensed prostitution and made prosperous economic surrounding by encouragement of local productions and frugality and created civilized and modern society by the improvement of living conditions.

The temperance movement has characteristic as follows. First of all, the temperance movement was representative activity that Christians were interested in the social issue and then developed systematically. Second, the temperance movement was the ethical practicing movement with the

object of reconstruction of individual and racial consciousness, of breaking evil customs. Third, the temperance movement was passive economical movement. Fourth, the temperance movement was reconstruction movement dreaming Christian ideal society could develop the whole living in advance of simple frugality campaign, and it was modernizing movement intending to the modern value and striving practice. Fifth, women's role was distinguished for the temperance movement. Women came into notice because they were courageous and wise as well as a target in temperance movement, so women's role was more prominent than any other Christian social campaigns.

But the temperance movement also has limits. First of all, they thought that the cause of exhausted economic situation in colonial economic structure and of social problem as wandering, dispersion, suicide, and prostitution were 'disappointment', 'negligence', 'intemperance', and they also understand high liquor tax and as the tax of tobacco as the result of intemperance. Moreover, it was another limit that proceeded with the form of 'petition' in legal space, acknowledging Japanese colonial constitution.

But all movements could not help having internal limit except violence fight because these equally applied to all movements happening in the colony. It was considered that all meaning of the temperance movement was not denied by these limits.

The temperance movement was passive economic movement spreaded out as a workable policy, as well as social movement expecting improvement of material/mental living under the a given condition. It induced to well balanced living as rational consumption, and accomplished rational and modern society through not just improvement of mental living but material.

It could be valuated that converted religious temperance ethics and individual sense of morality into social movement and lead out popular awakening and agreement and developed systematic demonstration, propaganda into the public. It also has meaning that the temperance movement attempted economical merit cultivation could be practiced realistically and planned recovery of racial sense of morality and mental awakening.